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제26권 제3호 (통권 88호) / 2021. 9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제26권 제3호 (통권 88호), 2021년 9월호

발행일 2021년 9월 30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집인 권오병 (경희대학교)

디자인 이지온
인 쇄 ㈜ 에스제이피앤비
등 록 141-81-36939

주 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 화 02-3272-4967
팩 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 000원

차 례

■ 일반 논문

005 보웬 가족치료를 통해 살펴본 이삭의 불안과 분화수준 | 서정우 / 김용태
Isaac's Anxiety and Differentiation Leve Analyzed by Bowen Family Theory | Jung-Woo Seo / Yong-Tae Kim

031 '10분'의 성경 구절 나눔과 그에 대한 예비교사의 실천에 대한 질적 연구 | 서혜정
A Qualitative Study on the '10 Minutes' Sharing of Bible Verses and the Practice of Pre-Service Teachers | Hye Jeong Suh

061 퍼스의 도상적 기호와 종교적 상상력: C. S. 루이스의 회심 경험을 중심으로 | 이윤희
Peirce on Hypoicons and Religious Imagination: An Analysis of the Experience of Conversion of C. S. Lewis | Yunhee Lee

083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에서의 자녀교육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 개신교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 지상선 / 현은자
A Qualitative Study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s in Children's Educa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Protestants | Sang-Sun Ji / Eun-Ja Hyun

125 학문과신앙의 과목도입 성과 : D대학 사례 | 이선복 / 김대영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Introducing Subjects of Learning and Faith: The Case of D University | Seon Bok Lee / Dae Young Kim

157 비대면 영화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기독교인 대학생과 비기독교인 대학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고선옥 / 강진구
The Effect of Non-face-to-face Cinematherapy Program to Reduce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Comparisons between Christian and No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 Sun Ok Ko / Jingoo Kang

183 현대 인도의 세계관 변화 연구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 변화 과정 모델을 중심으로- | 정향범
A study on the change of worldview in modern India - Focused on Charles Kraft's the process of changing the worldview - | Hyangbum Jung

『신앙과 학문』. 26(3). 5-29.
https://doi.org/10.30806/fs.26.3.202109.5

보웬 가족치료를 통해 살펴본 이삭의 불안과 분화수준*

Isaac's Anxiety and Differentiation Level Analyzed by Bowen Family Theory

서 정 우 (Jung-Woo Seo)**
김 용 태 (Yong-Tae Kim)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Isaac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counseling through Bowen family theory and to present implications through it. For this purpose, Isaac's anxiety and differentiation levels were examined in chronological order according to the main events and backgrounds of his life. They are the background of original family, birth and growth period, a sacrifice event, marriage, well-conflict cases, child relationships and a blessing event. These data were compiled according to anxiety, triangling and differentiation level in the conclusion. First, Isaac lived with high anxiety to take on his role as the only channel through which God's covenant was fulfilled. Secondly, Isaac repeatedly formed triangles with God, parents, children, and others due to high anxiety. Third, in repeated triangles, Isaac did not grow sufficiently, so his differentiation level was low. However, Isaac experienced in his old age God, not himself, fulfilling his covenant. So he's got a little higher differentiation level. Based on these results, Christian counseling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presented at the end.

Key words : Isaac, Bowen family theory, anxiety, differentiation level, Christian counseling

* 2021년 5월 11일 접수, 7월 14일 최종수정, 8월 24일 게재확정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기독교상담학과 외래교수,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palace81@naver.com

*** 아가페 초월상담연구소(Agape Transcendental Counseling Center) 소장,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47 아이에스비즈타워 1004호, yong29kim@naver.com

Ⅰ. 서론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2대 족장으로 다른 족장들에 비해 수명이 가장 길었다. 그러나 정작 성경에 기록된 분량은 가장 적어서 다른 족장들보다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다(Burge & Hill, 2016). 그렇지만 이관직(2014)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성취의 증거이자 신앙 전달의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삭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살펴보면, 많은 학자들은 이삭을 온유하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순종과 평화의 사람으로 보았다(김홍규, 1994; Burge & Hill, 2016). 그런데 그와 다르게 일부 학자들은 이삭을 소심하고 의존적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미성숙한 인물로 보기도 한다(안문혁, 1995; 장일선, 1995; 조난숙·송조흠·한영혜·최은영, 2010; Calvin, 1993; Stevens, 2003). 이렇게 이삭의 행동에 대해 학자들이 상반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더욱 풍부한 이해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측면 중 하나로 기독교 상담학 관점에서 이삭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삭에 관련된 기존의 상담학적 관점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삭을 성인아이 개념을 통해 살펴본 연구가 있고(윤남옥, 2003; 이관직, 201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살펴본 연구가 있다(김미경, 2011). 이 밖에 가족치료 이론을 통해 이삭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이는 먼저 전체 족장들을 거시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있으며(이동순, 2004; 조난숙·송조흠·한영혜·최은영, 2010), 한 족장을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김은미·황혜숙·김용태, 2013; 이수미·김용태, 2014). 먼저 이동순(2004)은 가계도를 통해 가족 전체의 체계를 살펴보았으나 구체적인 해석은 하지 못했다. 반면 조난숙과 동료들(2010)의 연구는 각 가족들을 자세하게 해석하여 성경적 함의를 찾아내려 하였으나 아쉽게도 이 연구에서는 다른 족장들과 달리 이삭에 대한 해석은 많은 부분에서 빠져있다. 이 외에 각 족장별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도 이삭에 관한 해석은 간접적으로 나타날 뿐 이삭은 연구의 직접적이고 중심이 되는 대상으로 주목받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삭을 연구의 중심이 되는 대상으로 삼고 보웬 가족치료를 통하여 해석해보고자 한다. 보웬 가족치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보웬 가족치료는 개인과 현가족의 현재 증상에 초점을 맞추는 개인상담이론이나 가족상담과 달리 다세대 가족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넓은 관점에서 현재 증상을 해석하는 이론이다. 보웬 가족치료에서 분석하는 핵심개념은 불안과 삼각관계, 그리고 분화다. 첫째로 불안은 실제 혹은 가상의 위협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이다(Kerr & Bowen, 2005). 이 불안은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하여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서로 융해되어 있을 경우 더욱 강해지며, 불안을 공유함으로 부모의 불안이 자녀에게 전수된다. 둘째로 삼각관계는 두 사람의 갈등으로 불안이 높아지게 될 때 다른 사람이 그 관계로 들어옴으로 불안이 낮아져 관계가 안정화 되는 것이다(김용태, 2000). 따라서 불안은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주요한 요인이다(Nichols & Schwartz, 2007).

셋째로 분화수준은 한 사람이 감정을 지적체계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즉, 가족 안에서 감정, 곧 불안이 높아지더라도 가족이나 감정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합리적으로 분별하여 행동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평가한다(김용태, 2000). 반면에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불안에 의해 행동이 지배를 받는다. 즉, 불안이 높아지면 즉각적인 반사적 대처로 불안을 낮추기 위한 충동적 행동을 하기도 하고, 개별성을 포기하며, 자신이 분별한 합리적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따라서 분화수준은 개인의 감정적 성숙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Roberto, 1992).

따라서 본 연구는 성경에서 이삭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기록된 자료가 다른 족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웬 가족치료를 이삭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의 도구로 선택하였다. 개인이나 개인의 행동 및 증상에 초점을 맞추는 다른 이론들보다 개인을 다세대에 걸친 가족의 틀을 통하여 분석하는 보웬 가족치료가 보다 넓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삭의 행동을 해석하는데 있어 적합하고 유용할 것이기 때문이다(Nichols, 2011). 따라서 보웬 가족치료를 통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유익을 제공해줄 것이다. 첫째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삭이 경험한 불안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둘째로 가족들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형성된 삼각관계 안에서 이삭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안과 삼각관계를 통해 이삭의 분화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해 이삭에 대해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삭에 대한 기존의 신학적 해석과 상담학적 해석들을 살펴본다. 둘째로 보웬 가족치료를 통해 이삭이 살아온 삶의 주요사건들에서 나타나는 불안과 삼각관계를 살펴봄으로 그에 따른 분화수준을 분석한다. 이러한 이삭에 대한 보웬 가족치료적 해석을 통해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찾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Ⅱ. 본론

1. 이삭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1) 기존의 신학적 해석

성경에 기록된 분량 면에서도 순수하게 이삭이 주인공 역할로서 등장하는 부분은 단지 창세기 26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삭의 삶은 별로 두드러진 면이 없다고 할 수 있다(이동원, 1989). 그래서인지 상대적으로 다른 족장에 비해 이삭에 대한 주석 자료는 많지는 않고, 이삭이 등장하는 내용에서조차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을 중심으로 해석된 자료들이 많다. 이삭에 대한 기존의 신학적 자

료들을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삭의 양보와 평화주의적 행동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 자료들이 많으며, 일부 부정적 평가와 중도적 입장을 취한 자료들이 있다.

먼저 이삭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살펴보면, 신학자들은 이삭이 믿음의 부모 아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동시에 엄격하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고 보았다(서철원, 2001; 안문혁, 1995; Burge & Hill, 2016; Henry, 1975). 이들의 해석을 정리해보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시는 등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출생 전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출생 이후 부모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어 사랑을 독차지하고 성장했다. 그리고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도 익숙할 정도로 교육을 잘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로 바쳐지는 위기의 순간에도 이삭은 겸허하게 순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Henry(1975)는 이삭이 이미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도망치거나 반항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안문혁(1995) 역시 이삭이 절대적인 순종을 습관처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위대한 순종을 할 수 있었으며, 이후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는 것이 천성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후 우물과 관련된 행동들에 대해서도 비록 이삭이 영웅적이었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여 쉽게 소유를 빼앗기는 무능하고 나약한 면을 보이지만, 도리어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무저항으로 사는 이삭의 모습이야말로 기독교라고 역설하여 강조했다. 서철원(2001)도 이삭은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에 제물로서 아버지의 뜻에 거룩하게 순종한 것이라고 같은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께서 이삭에게 역사하시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다고 말하며 이삭의 믿음과 더불어 성령의 도우심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는 제물 시험 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언약을 같이 듣게 하심으로 이삭이 겪었을 두려움과 공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셨다고 보았다. 이처럼 많은 신학자들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게 된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 이삭의 행동을 예수님의 예표로서 보기까지 해석하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 비하여 Calvin(1993)은 제물 사건에 대하여 한 발 물러서며 중도적인 입장을 보인다. 그는 이삭이 자원해서 복종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삭이 감당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이 사실을 더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하며 이삭의 행동을 해석하여 평가하지는 않았다. Calvin과 더불어 Wenham(2005)과 이동원(1989) 역시 우물 분쟁 사건에 대하여 안문혁(1995)의 해석처럼 이삭이 평화를 추구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단지 겁이 많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으며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평가를 유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삭의 행동들도 있다. 이는 대부분 이삭의 자식 양육과 장자권 축복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삭이 자신의 편협한 욕심 때문에 자식들을 편애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거슬러 편애한 자식에게 장자권을 축복하려고 시도했다고 보았다(이동원, 1989; Burge & Hill, 2016; Calvin, 1993; Henry, 1975; Stevens, 2003; Wenham, 2005). Henry(1975)는 이삭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인 애정 때문에 일상적인 상속법을 따라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고, 하나님의 개입을 깨닫게 되자 잘못을 뉘우치고 야곱의 장자권을 인준했다고 보았다. Calvin(1993)은 이삭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역행하면서까지 에서를 편애한 이유를 과도한 식탐 때문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Calvin(1993)은 이렇게 식탐에 집착하는 이삭의 행동을 족장으로서 수치스럽고 무가치하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Stevens(2003)는 창세기 27장 4절의 히브리어 원문 직역에 따르면 이삭은 "사슴고기를 입에 문 사람"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감각적이고 자기 멋대로이며 자신의 배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강한 비판까지는 아니지만 이동원(1989)도 이삭이 장자권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갖거나 개입을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극적 추구가 결여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많은 신학자들은 이삭이 조용하며 소극적이고 온순한 성격을 가졌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순종함으로써 성숙하게 행동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는 결혼이나 우물 분쟁 사건들에서 이삭이 보여준 양보와 평화주의적 행동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제물 사건에서 이삭의 행동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순순히 희생을 받아들이셨던 예수님의 예표로 언급되며 이는 거룩하고 위대한 순종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평가를 유보하며 다소 중도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으며, 이삭의 노년에 나타난 자식 양육과 장자권 축복 사건과 관련된 행동들은 신학자들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이삭은 좋게 말하면 양보와 평화를 사랑한 순종의 사람이며, 나쁘게 말하면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사람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신학자들의 기존 해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상반된 해석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2) 기존의 상담학적 해석

이삭의 행동에 대하여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기존의 자료들은 '성인아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그리고 가족치료 이론을 적용한 해석이다. 먼저 '성인아이' 관점으로 접근한 해석을 살펴보면, 이관직(2014)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모든 관심과 기대, 총애를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가계를 이어가야 되는 외동이자 장남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 나머지 아이답게 자랄

수가 없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이로서 발달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해 '성인아이'가 되어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행동하기보다 주위 시선을 먼저 의식하는 피동적인 사람이 되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성인아이'란, 어린 시절 나이에 맞지 않게 문제를 성인처럼 조숙하게 처리하다 보니 정작 성인이 되어서는 미성숙하게 행동하며 여전히 어린 시절의 발달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란 의미다(장일선, 1995; Sledge, 1992). 노용찬(1996)은 성인아이가 지니는 공통적 감정과 행동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로, 성인아이는 인정받기 위해 지나치게 충성스럽다. 둘째로, 성인아이는 지나치게 책임감이 강해서 도리어 선택과 책임을 회피하며 타인에게 돌린다. 셋째로, 성인아이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소신 있게 행동하면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따른다. 넷째로, 성인아이는 감정을 부정하고 억압하며 무능력감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로, 성인아이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처가 되는 상황이나 관계를 끝내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성인아이는 모호한 경계선으로 타인의 욕구나 감정에 얽혀 버린다. 이러한 성인아이의 특성들은 이삭의 행동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반영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이관직(2014) 외 윤남옥(2003) 역시 간략하게 성인아이 관점으로 이삭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한편 이관직(2014)은 성인아이에 이어 '외상 후 스트레스' 관점으로도 이삭의 행동을 해석하였다. 그는 제물 사건으로 인해 이삭은 극심한 혼란, 유기, 배신, 충격과 공포, 절망, 무력, 등과 같은 감정을 경험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이삭이 감당하기 힘든 외상이 되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김미경(2011)도 의견을 같이 하였다. 김미경(2011)은 제물 사건을 통하여 이삭은 한 동안 충격적인 고통이 반추되어 괴로웠겠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각인되어 이후 전반적인 생애 동안 이삭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보았다. 반면 서철원(2001)은 제물 사건으로 인해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정서적으로 단절하게 되고 어머니인 사라와 밀착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제물 사건을 알게 된 어머니인 사라가 크게 괴로워하여 그 뒤로 죽을 때까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곁에 두고 자기의 장막에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삭은 어머니에게 밀착되어 40세가 되어 적지 않은 나이가 되기까지 미처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삭에 대해 가족치료 이론을 통해 살펴본 연구들은 모두 보웬 가족치료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창세기의 전체 족장들을 거시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있고(이동순, 2004; 조난숙·송조흠·한영혜·최은영, 2010), 한 족장을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김기돈, 2002; 김수영, 2002; 김은미·황혜숙·김용태, 2013; 안윤경·오지희·김용태, 2016; 이수미·김용태, 2014). 먼저 이동순(2004)은 가계도를 통해 가족 전체의 체계를 살펴보았으나 구체적인

해석은 하지 못했다. 반면 조난숙과 동료들(2010)의 연구는 각 가족들을 보웬 가족치료의 개념별로 자세하게 해석하려 했으나 다른 족장들에 비하여 이삭에 대한 해석은 많은 부분에서 빠져있어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 외에 각 족장별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도 이삭에 관한 해석은 다른 족장의 가족배경으로서 간접적으로 짧게 나타날 뿐 직접적으로 자세한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치료 이론을 통해 살펴본 연구들은 이삭이 부모와 밀착된 관계로 인해 독립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아감이 부족하고 소심하며 문제의 흐름에 단순히 따르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진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공통적으로 평가를 한다(김수영, 2002; 조난숙·송조흠·한영혜·최은영, 2010).

이 밖에 이삭처럼 부모의 총애를 받고 자란 외동아들에 대한 연구들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다. 연구들에 의하면 총애를 받는 외동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김병태, 1998). 첫째로,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고 조숙하며 영리해지는 반면 시련이 없는 환경으로 나약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둘째로,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통제로 인해 수치심을 경험하거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떨어지고 자기 주관이 부족하며 정체감 형성에 결함이 생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또래 형제가 없기 때문에 사교성과 의사소통기술이 부족할 수 있다. 비록 이 연구들이 이삭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한 연구는 아니지만, 이처럼 다양한 자료와 관점에 따라 이삭의 행동에 대해 조명한다면 이에 대해 보다 풍성한 해석을 더욱 얻게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2. 보웬 가족치료적 해석

(1) 원가족의 불안

보웬 가족치료는 환경 속에서 개인을 움직이고 기능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힘이 바로 감정이라고 본다(김용태, 2000). 특히 감정 중 불안은 보웬 가족치료의 중요한 개념으로, 실제나 가상의 위협을 인지하는 유기체의 반응이라고 정의된다(Kerr & Bowen, 2005). 불안이 높을수록 개인은 인지체계가 아닌 감정체계에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불안이 높아지면 점점 자동적으로 감정에 따라 주관적으로 행동하게 된다(Papero, 2012). 이러한 반응을 감정반사행동(emotional reactivity behavior)이라고 한다. 감정으로 서로 얽혀있는 가족이라는 체계 안에서 부모의 불안이 자녀에게 전이되어 흡수되기도 하며, 생애 동안 여러 사건들을 통해 불안이 학습되기도 한다(김용태, 2000). 따라서 이삭의 행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삭의 행동을 움직이는 힘인 불안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이삭의 원가족인 아브라함 가족이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해 먼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조난숙과 동료들(2010)은 아브라함 가족의 불안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이고, 둘째는 언약 성취의 지연으로 인한 불안이다.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데아 우르

에서 본토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따라 나섰다(창 12:1; 히 11:9). 첫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을 살펴보자. 아브라함 시대의 배경을 고려할 때 가족을 떠나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행위는 자신의 유업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했을 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무모한 행위였다(김은미·황혜숙·김용태, 2013). 그렇게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줄곧 멸시와 피해를 받았고 이로 인해 근심과 걱정, 두려움 속에서 불안정하게 생활하였다(Calvin, 19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러한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때문이었다.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다(창 12:2).

둘째로 언약 성취의 지연으로 인한 불안을 살펴보자. 하나님께 언약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으나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창 12:4). 언약이 성취될 가장 중요한 요소인 후손을 얻지 못한 채 아브라함은 늙어감에 따라 육체가 노화되어 쇠약해졌고, 아내인 사라 역시 경수가 그치며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갔다(서철원, 2001). 언약 성취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사라져가자 아브라함은 친자가 아닌 자신이 신뢰하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기기도 하였다(창 15:3). 그리고 이후 아내인 사라는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을 씨받이 여인으로 남편과 동침하게 함으로써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얻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안문혁, 1995). 결국 현실적인 대안조차 모두 좌절되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후 하나님께서 이삭이란 이름까지 직접 지어 주시며 후손의 출생에 대한 언약을 다시 확신시켜주는 상황 속에서도 이를 믿지 못하고 비웃을 정도로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창 17:17; 창 18:12). 즉, 이삭이 출생하기 전까지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될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언약 성취 지연으로 인한 불안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출생과 성장기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안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황 가운데에서 이삭은 기적적으로 출생하였다. 다시 말해 현실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자연적으로 이삭의 출생이 이루어졌다(이동원, 1989).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절로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올 만큼 큰 웃음이 되었고, 그의 식솔 뿐 아니라 소식을 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였다(서철원, 2001; Burge & Hill, 2016; Laird, 1990). 그만큼 이삭은 출생할 때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어머니인 사라에게 이삭의 출생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쓸모없는 여인이라는 열등감과 한탄, 그리고 남편에 대한 죄의식과 부끄러움을 다 씻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라는 이삭을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귀하게 키웠을 것이다(서철원, 2001). 그렇게

이삭은 맏아들이자 외동아들로서 부모의 관심과 촉망을 한 몸에 듬뿍 받으며 부유한 가정의 귀한 도련님으로 성장했다(이관직, 2014).

이러한 상황을 보웬 가족치료적 관점에서 분석해본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자관계에서 언약 성취의 지연으로 인한 긴장과 불안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황에서 이삭이 등장함으로 인해 불안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웬은 이를 삼각관계(triangling)란 개념으로 설명한다. 삼각관계란 불안정한 이자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정서적 상호작용 관계에 들어오게 됨으로 불안이 해소되는 형태를 의미한다(Kerr & Bowen, 2005). 이삭이 등장함으로 하나님-아브라함-이삭 간에 삼각관계가 형성되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불안,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이 성취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이삭이란 존재를 통해 해소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애착을 갖게 되어 융해되었다. 여기서 융해란 강하게 연결되어 서로 의존하는 밀착된 관계를 의미한다(김용태, 2000). 융해된 관계(fused relationship)는 독립성보다 연관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기보다 감정에 의해 반사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 이를 보웬 가족치료에서는 감정반사행동(emotional reactivity begavior)이라고 한다. 감정반사행동은 서로 밀착되어 감정을 공유할수록 더욱 강력하게 나타난다. 그렇기에 융해관계인 사람 중 하나가 독립적인 사고나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는 곧바로 밀착된 관계가 끊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융해관계의 다른 사람은 상대방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크게 화를 내거나 심하게 위축되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관계를 더욱 곤고하게 유지하려 한다. 그러므로 삼각관계에서 삼자로 들어온 자녀의 경우, 그 자녀는 부모로 하여금 불안이 올라오지 않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맞추게 되고 결국 독립적이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적절한 발달 과정을 밟지 못하고 방해를 받기 때문에 진짜 자기(solid self)보다 가짜 자기(pseudo self)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짜 자기는 진짜 자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타인과 환경에 의해 쉽게 많은 영향을 받아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불안을 낮추기 위한 감정반사행동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삼각관계의 삼자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과도하게 밀착되어 의존한 채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를 안정시키며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삭이 부모의 뜻을 거슬러 자기 멋대로 행동하거나 그릇 행하여 비뚤어지거나 도전적 행동을 시도하다 위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할 통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과 관련된 불안이 다시 높아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삭은 잘못된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 자체를 하지 않도록 엄하게 교육을 받았을 수 있

다. 게다가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사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은 느낌이었을 수 있다. 이는 곧 부모가 수많은 세월 속에서 쌓인 경험과 믿음의 성숙을 지닌 권위자였기에 자상하면서도 때로는 엄하기도 한, 이삭에게는 도저히 쉽게 저항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이관직, 2014). Calvin(1993) 역시 아브라함이 갓난 아이였던 이삭의 연한 살을 상하게 해야 하는 할례를 행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지극히 아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애착심을 내려놓고 엄격하게 순종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삭에게 있어서 부모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권위적 존재이기도 했기에 이삭은 삼각관계 안에서 더욱 의존적으로 되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융해된 삼각관계를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된 불안은 이제 이삭에게 전해지게 된다. 이를 보웬 가족치료는 다세대간 전이과정(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이라고 부른다. 다세대간 전이과정은 가족 간의 삼각관계를 통하여 부모가 지니고 있는 정서, 감정, 태도, 가치, 신념, 등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 간다는 개념이다(김용태, 2000). 다시 말하여 이삭은 부모의 불안이 높았던 만큼 강하고 견고하게 형성된 삼각관계를 통하여 부모가 가진 언약과 관련된 불안, 즉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고 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전수받게 되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삭은 높은 불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높은 불안을 낮추기 위해 이삭은 부모에게 더욱 융해되어 밀착됨으로써 독립적인 진짜 자기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가짜 자기를 형성하며 의존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을 것이다. 진짜 자기보다 가짜 자기의 비율이 많은 사람을 보웬 가족치료는 분화의 수준이 낮다고 평가한다. 여기서 분화(differentiation)란 보웬 가족치료의 핵심 개념으로 개인이 가족의 감정 덩어리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는 것을 의미한다(Kerr & Bowen, 2005). 즉, 삼각관계에서 오는 불안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통해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수록 분화수준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삭은 원가족의 삼각관계 안에서 낮은 분화수준을 가지고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제물 사건

성장과정을 볼 때, 이삭은 부모의 불안으로 인해 과보호 속에서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랐을 것이다. 이삭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이복 형인 이스마엘이 있었으나 갈등이 표면화되자마자 곧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해결되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이삭은 부모에게 의존하며 무난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삭이기에 그가 아버지에 의해 제물로 잡혀 제단 위에 놓여지게 된 경험은 이삭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을 수 있다. 신학자들의 견해처럼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제사법에 대해 익숙하게 배워왔기 때문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은 극심한

공포를 야기했을 수 있다(김홍규, 1994; 서철원, 2001).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은 아직 성숙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조난숙·송조흠·한영혜·최은영, 2010). 즉, 아브라함은 오랜 시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감에 따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숙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후손인 아들을 죽임으로 언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불안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목표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다. 이제 아브라함은 불안이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분화수준이 높은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원가족 배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밀착된 분화수준이 낮은 미성숙한 사람이었다. 물론 신학자들의 견해처럼 이삭이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순순히 제물로 잡힌 행동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한 놀라운 역사일 가능성도 있지만, 단지 미성숙함에 따른 감정반사행동에 불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불안이 높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아브라함-이삭의 삼각관계 안에서 이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만약 이삭이 아버지에게 저항하여 제물로 잡히기를 거부한다면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Kerr & Bowen(2005)은 불안이 증가되면 연관성에 의한 압력이 강해져 의존한 대상과 강하게 밀착되려는 욕구가 더욱 커진다고 하였다. 즉, 언약의 파기는 이삭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견디기 힘든 불안이었고, 불안이 극도로 상승하게 되자 이삭은 더욱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밀착되었을 수 있다. 그럼으로 인해 이삭은 아버지의 생각과 의지에 융해됨으로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자신의 독립적인 사고와 감정을 차단함으로써 아버지에게 순순히 따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견해처럼 이삭이 죽음과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이란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순종하려는 목표를 추구한 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삭이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언약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아버지와 융해되어 감정반사행동을 한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4) 결혼 사건

제물 사건 이후 나타나는 이삭의 결혼과 관련된 자료들은 이삭이 분화수준이 낮았다는 점을 보충해준다. 일부 신학자들은 제물 사건 이후 이삭이 아브라함과 거리감을 갖고 사라와 밀착되었을 수 있다고 보았다(서철원, 2001; Calvin, 1993). Calvin(1993)은 이삭이 아내인 리브가를 맞이할 때 어떤 이유인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따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어머니의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던 것 같다고 보았다. 서철원(2001)은 사라가 아들을 잃을 뻔한 소식을 듣고 그 뒤로 아브라함이 손

도 대지 못하게 자신의 장막에서 자기 품에 늘 두고 길렀기 때문에 이삭은 40세가 되기까지 장가도 가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삭은 어머니가 죽은 이후 3년이 지나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슬픔을 위로받지 못할 정도로 어머니와 강하게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이삭이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이삭이 분화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제물사건을 경험했다면 이는 이삭에게 건강하게 감당하고 소화할 수 없는 심각한 충격과 상처가 되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이제 아버지와 감정 단절을 하고 어머니에게 더욱 밀착되었을 수 있다(조난숙·송조흠·한영혜·최은영, 2010). 보웬 가족치료에서 감정 단절(emotional cutoff)이란 밀착된 관계에서 상대에 따라 반응해야만 되는 부담이 심해짐으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관계를 단절한다는 개념이다(김용태, 2000). 즉, 이삭은 제물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과 감정 단절을 시도하고, 아브라함-이삭 간의 이자관계가 불안해지자 이삭은 자신과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라의 시도에 응하여 삼자인 사라에게 밀착함으로 불안을 낮추는 삼각관계를 다시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반복적인 삼각관계의 형성과 밀착된 관계 특성은 이삭이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김용태(2000)는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결혼한 이후 배우자에게 감정적으로 밀착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면은 이삭이 어머니의 죽음 이후 배우자인 리브가를 만나자 곧바로 사랑에 빠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삭은 당시 결혼적령기를 지난 늦은 나이였던 점과 밀착 대상인 어머니를 잃어 상실감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짝을 정해주시기까지 주변 가나안 여인들에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삭은 여전히 언약 성취의 통로로서 높은 불안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에게 의존한 채 스스로의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해석들을 고려해 볼 때 이삭은 제물 사건 이후 결혼할 때에도 여전히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

(5) 우물 분쟁 사건

이삭의 의존의 대상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돌아가시자 이삭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의사를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가 경험했던 것과 동일하게 낯선 타국의 땅에서 기근으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받는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이삭의 반응은 아버지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부모의 과보호를 받으며 시련이 없는 환경과 삼각관계 안에서 부모에게 모든 의사결정을 위임한 채 의존하여 살아왔다. 따라서 이삭은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자아를 발달시킬 수가 없었다. 스스로 판단하고 주

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행동하는 능력을 기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삭이 취한 행동은 이미 죽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적인 의존 대상이었던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근으로 인해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되자 이삭은 아버지처럼 가나안 지역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려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주를 막으셨다(창 26:1-2).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의 그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이삭은 아내인 리브가의 미모로 인해 다시 생명에 위협이 되는 불안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이삭은 아버지처럼 대처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창 26:7).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실제로 누이가 될 수 있었던 관계였다는 사실에 비해 이삭에게 있어서 리브가는 누이라고 할 수 없었던 관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행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단순히 아버지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해서 반복했다고 볼 수 있다(Calvin, 1993; Ruckman, 2016). 여기서 이삭의 행동을 단순히 이기적이었다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보웬 가족치료 관점에서 볼 때,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유일한 통로였기에 그만큼 생존에 대한 높은 불안을 경험했고, 그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잃지 않고 보존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을 수 있다.

블레셋 왕을 속인 사건이 해결된 이후로도 이삭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은 계속 나타난다.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을 둘러싸고 다툼이 일어나는 갈등 상황에서 이삭은 계속하여 우물을 양보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창 10:14-21). 당시 그 지역은 건조하여 물이 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물은 부의 상징이자, 생존의 근원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안문혁, 1995; 이동원, 1989). 이삭은 거느리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투쟁을 통해서 자신을 방해하는 무리를 얼마든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Calvin, 19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응하지 않고 회피하는 반응만 계속 보였다. 이러한 이삭의 회피 반응을 낮은 분화수준으로 인한 감정 단절로 볼 수 있다. 보웬 가족치료에 따르면 분화수준은 가족 내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사회에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김용태, 2000). 사회에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수록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 비난을 당하게 된다. 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역할 수행의 성공에 대한 불안을 점차 커지게 만들어 결국 그 사람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능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에 동조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감정반사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이삭은 갈등으로 인한 불안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반응이 성공적이지 못하자 이후 벌어지는 갈등 상황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감정 단절을 시도하게 되었을 수 있다. 즉, 이렇게 감정 단절을 시도함으로써 갈등의 대상에게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매번 우물을 양보하는 것으로 회피하게 된 것이다.

(6) 자녀관계 및 장자권

이삭은 리브가를 처음 만나고 사랑에 빠졌으나 두 부부는 점차 서로 관계가 멀어져 버렸다(Harbour, 1990). 그 이유에 대해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성격에 대한 해석들을 살펴보면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다. 학자들은 이삭이 소극적이고 조용하며 온순했던 성격이었던 것에 반해 리브가는 당시 남성중심의 사회 문화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극적이고 의사결정이 분명하며 민첩했던 성격이어서 둘이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안문혁, 1995; 유연희, 2003; 이관직, 2014; 이동원, 1989; Burge & Hill, 2016). Harbour(1990)는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다른 성격으로 인해 갈등이 많았겠지만 이삭은 갈등을 직면하여 해결하지 않고 회피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보웬 가족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밀착의 대상이었던 어머니를 상실함에 따라 리브가와 밀착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욕구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고 의존적인 이삭의 성격은 이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리브가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을 수 있다. 그래서 리브가와 밀착하는 데 실패하게 되자 이삭은 감정 단절로 대처하며 감정반사행동을 했을 수 있다. 어쩌면 우물 분쟁 사건들으로 인해 가족들은 피해, 고통, 억울함을 경험했지만,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무능력하게 회피로 일관해버릴 때마다 적극적인 실행력을 가졌던 리브가로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분명한 점은 갈등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이삭-리브가의 이자 관계에서 부부 각자가 아들들을 삼각관계로 끌어들여 불안을 낮추고자 했다는 점이다. 부부 관계 사이에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끌어들여 두 개의 겹쳐진 삼각관계를 형성하였고 각자 다른 아들을 편애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삭이 다시 뚜렷한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은 그가 여전히 분화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언약의 후손이 이어질 것이란 예언을 리브가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삭도 전해 듣고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Burge & Hill, 2016; Calvin, 1993; Henry, 1975). 그런데도 이삭은 지속적으로 에서를 편애하였고 장자권도 에서에게 주려고 시도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학자들은 에서가 신체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야곱보다 더 강인하고 훌륭하여 장자로서 합당한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고, 성경 본문에 기초하여 이삭이 식탐이 강한 사람이어서 에서가 잡아오는 사슴 고기에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Burge & Hill, 2016; Calvin, 1993; Stevens, 2003). 이 둘의 어느 견해든 보웬 가족치료적 관점으로 볼 때 에서를 향한 이삭의 편애를 더욱 명료하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첫째로 전자의 견해에 따르면, 에서는 건장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이삭에게 기쁨까지 주었던 아들인 반면에 야곱은 집에만 있기를 좋아하는 나태한 사람으로 칭찬할 거리나 쓸모가 별로 없는 아들이었다(Calvin, 1993). 따라서 이삭이 전수받은 언약에 대한 불안은 이삭으로 하여금 둘 중 더 훌륭한

아들을 언약의 후손으로 선택하도록 만들었을 수 있다. 둘째로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삭은 언약에 대한 과도한 불안으로 지나치게 스스로를 억압하여 건강하게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고 만족을 얻지 못했을 수 있다. 진짜 자기보다 가짜 자기가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건강하지 못한 욕구 충족 방식에 집착하게 되어 지나치게 식욕의 쾌락에 빠진 나머지 에서를 편애했을 수 있다(이관직, 2014). 어느 편의 해석이든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에 대한 과도한 불안은 이삭으로 하여금 분화수준을 높여 합리적으로 사고함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분화수준이 낮아 상황에 따라 회피적으로 감정반사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인생의 말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여전히 낮은 분화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이복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죽고 자신의 신체도 쇠약해지는 것을 보며 이삭은 죽음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인식은 이삭으로 하여금 언약의 통로로서 후손을 이어가야 하는 불안을 높아지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삭은 서둘러 장자권을 축복하려고 시도하게 되었다. 언약의 후손이 되는 장자권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 에서가 아닌 어린 자 야곱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런데 이삭은 이를 기억하지 못해서인지 혹은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게 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어찌 되었든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고 가볍게 여겨 잊어버렸거나 혹은 이를 거부하면서까지 삼각관계 안에서 자신과 밀착되어 있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축복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감정 단절을 한 채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모습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직접 나아가 대화로 설득하기보다 이삭 몰래 거짓으로 속임수를 썼던 것이다. 리브가의 의도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자신이 편애하는 아들인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을 위해서였는지, 둘 모두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어찌 되었든 결국 이삭은 자신의 의도와 달리 거짓 속임수에 속아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권을 축복하게 된다.

여기서 학자들은 이삭이 장자권이 야곱에게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크게 떨었다는 점을 주목하며 이삭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개입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라고 보았다(안문혁, 1995; Burge & Hill, 2016; Calvin, 1993; Henry, 1975; Ruckmann, 2016). 그 동안 이삭은 과거에 자신의 행동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 단절을 통한 회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불안한 상황과 관계에서 안일하게 피동적으로 반응하는 자신의 감정반사행동으로 인해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할 뻔했다는 자신의 문제를 이제 직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과실을 저지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흔들리거나 좌절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즉,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경

험했던 것처럼 이제 이삭도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여 깨달았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삭은 자신이 실수하거나 잘못 행동하면 언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자신의 불안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삭은 과거와 같이 감정반사행동으로 감정 단절을 하여 상황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 이삭은 울부짖는 에서의 상실감과 분노를 보며 에서를 편애하여 에서와 밀착되었던 만큼 심하게 괴로운 감정을 같이 겪었을 것이다. 아내와 야곱에게 거짓으로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과 수치심은 이삭의 심리적 고통을 배가시켰을 것이다. 어쩌면 야곱이 거짓말을 하여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삭은 장자권을 철회하고 번복할 수도 있었다(Calvin, 1993). 그러나 이제 이삭은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야곱을 불러 장자권을 반복하여 인준함으로 감정반사행동이 아닌 목표 지향적 행동을 보인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보며 자신의 실수로 인해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안정감을 경험함으로 불안이 낮아져 분화 수준이 올라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행위에 대해 기록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삭의 믿음의 행위를 제물로 바쳐질 때 순종한 행위가 아닌 장자권 축복 행위로 언급하고 있다(이동원, 1989; Ruckman, 2016). 그러나 아쉽게도 이삭은 너무 늦은 노년의 시기에 분화 수준이 다소 올라간 정도에 머물렀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후 에서의 분노로 인해 야곱이 멀리 친척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중재하고 개입하는 것까지는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이삭은 가족이 갈라져 분열되는 상처는 막지 못하고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Ⅲ.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보웬 가족치료라는 이론적 틀을 통하여 이삭의 생애 동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건들을 분석함으로 이삭의 행동을 해석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보웬 가족치료의 주요개념인 불안, 삼각관계, 분화수준에 따른 관점으로 다시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타지에서의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 불안은 이삭의 원가족으로부터 전수된 것이었다.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서의 생명 위협과 불임으로 인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지연으로 심한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아브라함은 점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가고 결정적으로 이삭의 탄생이라는 기적을 경험하며 불

안이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불안은 아들인 이삭에게 전수되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이었던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유일한 통로였다. 따라서 이삭은 부모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독차지하며 총애를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야만 했다. 이삭은 만약 자신이 요절하거나 기대에 어긋나 비뚤어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통로가 무너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심지어 이삭은 아버지의 가계를 이어받아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가난, 주변 민족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받으며 살았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불안은 이삭으로 하여금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을 형성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

둘째로 이삭이 형성하고 있던 삼각관계는 이삭이 부모로부터 불안을 전수받은 통로다. 이는 이삭의 행동을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이삭의 삼각관계는 사건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먼저 이삭은 출생하면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의해 하나님-아브라함-이삭의 삼각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삭은 언약 성취와 관련되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이자관계에서 갖고 있던 불안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 삼각관계 안에서 이삭은 아버지의 불안을 전수받으며 아버지와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여 착하고 말 잘 듣는 순종적인 아이로 성장하였다. 이후 불안이 극에 달하는 제물 사건 때 이삭은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융해됨으로써 목숨까지 포기하는 복종의 행동을 보이게 된다. 그렇지만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비해 성숙하지 못했던 이삭은 이 제물 사건을 감당하기 버거웠을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과의 이자관계에서 긴장이 유발되며 이삭은 아브라함과 감정 단절을 하게 되고 어머니인 사라에게 밀착하여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와 떨어져 어머니 곁에서 늦은 나이까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되고, 어머니가 죽어 단절된 이후에야 다시 아버지에 의해 결혼을 하게 된다. 아버지가 죽은 이후 가장이 된 이삭은 가난으로 인해 생명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는 미성숙한 대처들을 함으로써 역할 수행에 실패를 경험한다. 이러한 실패 경험은 이삭으로 하여금 이후 갈등 관계에 하나님을 끌어들임으로 삼각관계를 다시 형성한다. 즉, 강인하고 성숙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여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모든 불안을 해결해주기를 바라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이후 반복되는 갈등 상황에서 상대에게 무조건 양보하고 갈등을 회피하는 감정 단절을 일관되게 시도하며 가만히 있게 된다. 한편, 이삭은 어머니 대신 밀착하고 싶은 대상이었던 아내와의 이자관계에서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밀착에 실패하게 된다. 이자관계에서 불안이 높아지자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끌어들임으로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이삭과 감정 단절이 된 아내인 리브가는 야곱을 끌어들여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삼각관계 안에서의 편애는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언을 경홀히 여기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게 만든다.

셋째로 이삭의 분화수준을 살펴보면, 주요 사건들에서 항상 삼각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삭은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삼각관계의 형성은 낮은 분화수준을 시사

하기 때문이다. 이삭은 출생에서부터 제물 사건, 결혼 사건, 우물 분쟁 사건, 장자권 축복 사건에 이르기까지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갈등이 야기될 때마다 이삭은 삼각관계를 형성했다. 삼각관계 안에서 이삭은 밀착된 대상에게 융해되거나 감정단절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성에 따른 결정과 행동을 하지 못하고 감정반사행동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장자권 축복 사건의 마지막 순간에 이삭은 자신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언약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즉, 언약 성취가 자신의 힘과 노력, 뜻에 따라 좌절되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란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해 이삭은 언약 성취에 대한 불안이 낮아지게 되어 분화수준이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삭은 에서와의 밀착된 관계에서 오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장자권을 확고하게 인준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삭은 단순히 천성적으로 착하고 온순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출생부터 대부분의 생애 동안 높은 불안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삼각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여 감정반사행동으로 대처하는 분화수준이 낮았던 사람일 수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시사점

본 연구 결과에 따른 기독교상담학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를 통해 이삭이 가진 불안의 내용과 크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됨에 따라 이삭의 행동에 대해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이삭은 표면적으로 감정기복이 없이 갈등하는 심리나 행동이 잘 드러나지 않아 조용하게 무난한 삶을 살았다고 보았지만, 실제로 그가 경험한 불안의 내용과 크기는 다른 족장들에 비해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담자의 행동이나 표현, 증상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게 될 때 상담자는 내담자를 보다 정확하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로, 이삭과 같이 건강과 안전을 위한 양육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비롯해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과도한 애정과 관심에 따른 과잉보호를 받은 자녀들은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부모가 형성한 삼각관계를 깨뜨리면 불안과 갈등이 발생하여 처벌을 받거나 죄책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실수 뿐 아니라 독립적인 행동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나 사고방식을 무비판적으로 전수받게 되어 합리적인 사고에 따른 의사결정 능력을 발달시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나친 과잉보호나 훈육은 도리어 자녀의 분화수준을 낮아지게 만들어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셋째로, 이삭이 분화수준이 낮은 미성숙한 사람이었다는 점에 따른 시사점이 있다.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은 성경인물들은 근거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화되거나 긍정적인 측

면만 부각하여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해석과 그에 따른 설교와 교훈들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에 걸 맞는 훌륭한 인격과 자질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부담을 갖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에 대해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좌절감과 수치심,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어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연약하고 미성숙한 사람을 통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은 미성숙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르신다. 도리어 작고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자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신앙을 성숙시켜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때로 이삭처럼 인간이 미성숙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의 계획에 고의적으로 거역하거나 혹은 본의 아니게 반대로 역행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상황에서조차 계획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란 존재는 기독교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자원이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같은 고통으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상담 장면에 찾아온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불안과 같은 고통에서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넷째로, 이삭이 보여준 순종과 평화를 추구하는 행동이 분화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나타난 감정반사행동이란 점에 따른 시사점이 있다. 이삭과 같이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성숙한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기대나 부담이 주어지게 된다면 이 때 감정반사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이나 부모, 교회의 어른과 같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란 불안이 심해질 때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자체를 무시하고 전적으로 상대에게 융해됨으로 불안을 낮추는 감정반사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겉으로 그런 척 상대방이 기대하는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삭처럼 겉으로는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지만 정작 성숙한 사람으로 발달해갈 수 있는 기회는 놓치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과정적 존재로서 거룩함을 향해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다(김진, 2006). 즉, 과정에 있다는 말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거룩함과 죄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상반된 속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심리적 갈등과 불안은 처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사도 바울도 이로 인해 탄식하며 번민을 거듭한 끝에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으로 통합할 수 있을 정도였다(롬 7:21~8:2). 따라서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기대나 부담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결국 자신 내면에 존재하는 거룩함과 죄성을 통합하지 못한 채 감정반사행동으로만 대처하며 자칫 외식주의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성화의 과정에 있는 존재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부족할 수 있는 존재란 것을 수용함으로써 심리적 갈등을 통합하고 불안이 낮아지

게 도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성경에 이삭과 관련되어 기록된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고 제한적이다. 이러한 적은 일차 자료는 불가피하게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의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한 다양한 이차 자료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삭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로, 연구의 분석 틀인 보웬 가족치료로 인한 제한점이 있다. 인간의 모든 심리와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온전한 이론이란 존재할 수 없다. 보웬 가족치료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해석상 한계와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보웬 가족치료는 삼대의 풍성한 가족들의 자료가 필요한데 이삭의 할아버지 가족에 관련된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 제한점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이론을 통해 이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헌 연구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문헌 연구들을 조사할 수 없다는 현실적 제한이 있다. 여기에 연구자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복음주의적 관점의 주석만을 근거로 선택했기 때문에 더욱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삭의 행동을 보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김미경 (2011). 외상후성장(PTG) 모델로서 이삭, 요셉 이야기. **신앙과 학문**, 16(4), 7-31.

[Kim, M. K. (2011). The Isaac & Joseph Story as a Model for Posttraumatic Growth. *The Journal of Faith & Scholarship*, 16(4), 7-31.

김병태 (1998).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비교 연구. **아동교육**, 7(1), 172-190.

[Kim, B. T. (1998). A Comparative Study on Sociability and Self - esteem between the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7(10), 172-190.]

김순영 외 역. (2005). **IVP 성경주석-구약**. Wenham, G. J. & Carson (1994). New bible commentary 21st century edition.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Kim, S. Y. et al. (2005). IVP Bible Commentary-Old testament. Seoul: IVP. Wenham, G. J. & Carson (1994). *New bible commentary 21st century edition*. Westmont, IL: Inter-Varsity Press]

김영애, 김정택, 심혜숙 역. (2011). **가족치료: 핵심개념과 실제 적용**. Nichols, M. P. (2009). Family Therapy - Concepts & Methods. 서울: 시그마프레스.

[Kim, Y. A., Kim, J. T. & Shim, H. S. (2011). Family Therapy - Concepts & Methods. Seoul: Sigmapress. Trans. Nichols, M. P. (2009). *Family Therapy - Concepts & Methods*. London: Pearson]

김용태 (2000). **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Kim, Y. T. (2000). *Family Therapy Theories*. Seoul: Hakjisa.]

김은미, 황혜숙, 김용태 (2013). 보웬이론으로 본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신앙과 학문**, 18(4), 71-92.

[Kim, E. M., Hwang, H. S., Kim, Y. T. (2013). Bowenian Understanding on the Story of Abraham and Sarah. The *Journal of Faith & Scholarship*, 18(4), 71-92.]

김진 (2006).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서울: 생명의말씀사.

[Kim J. (2006). *A story, wish to share with Christians*. Seoul: lifebook.]

김홍규 (1994). **성경 속의 부부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영문.

[Kim, H. K. (1994). *The story of couples in the Bible*..Seoul: Youngmoon Press.]

남순현 역. (2005).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Kerr, M. E. & Bowen, M. (1989). Family Evaluation :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서울: 학지사.

[Nam, S. H. (2005). Family Evaluation :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Seoul: Hakjisa. Trans. Kerr, M. E. & Bowen, M. (1989). *Family Evaluation :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 WW Norton & Co.]

남순현 역. (2012). **보웬가족치료를 위한 짧은 이론서**. Papero, D. V. (1990). Bowen Family Systems

Theory. 서울: 시그마프레스.

[Nam, S. H. (2012). Bowen Family Systems Theory. Seoul: Sigmapress. Trans. Papero, D. V. (1990). *Bowen Family Systems Theory*. London: Pearson]

노용찬 (1996). **성인아이 치유를 위한 12단계**. 인천: 도서출판 글샘.

[Noh Y. C. (1996). 1*2 Steps to Healing Adult Child*. Incheon: Geulsaem Press.]

말씀보존학회 역. (2016). **창세기 2.** Ruckman, P. S. (2011). Genesis Commentary. 서울: 말씀보존학회.

[Word of God Preservation Society (2016). Genesis 2. Seoul: Word of God Preservation Society. Trans. Ruckman, P. S. (2011). *Genesis Commentary*. FLorida: BB Bookstore.]

번역위원회 역. (1990). **구약원어신학사전 하**. Laird, H. R. (1981)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서울: 요단출판사.

[Translation Committee (1990).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Ⅱ. Seoul: Jordan Press. Trans. Laird, H. R. (1981)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Chicago, IL: Moody.]

변재봉, 이관직 (2016). 야곱 가족의 역기능성과 그 치유 과정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이해: Bowen의 가족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79, 91-133.

[Byun, J. B., Lee, K. J. (2016). An Understanding for Dysfunction of Jacob`s Family and the Therapy Process from a Pastoral Counseling Perspective: Centered on Bowen`s Family Theory. *The Journal of Bible and Theology*, 79, 91-133.]

서철원 (2001). **창세기 2권**.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Seo, C. W. (2001). *Genesis Ⅱ*. Seoul: Gerizim Press.]

안문혁 (1995). **창세기 강해설교집 <2권>**. 서울: 도서출판 영문.

[Ahn, M. H. (1995). *Expositary Sermons from the Genesis Ⅱ*. Seoul: Youngmoon Press.]

안윤경, 오지희, 김용태 (2016). 총아로서의 요셉의 심리구조 연구 : 보웬가족치료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2), 171-193.

[Ahn, Y. K., Oh J. H., Kim, Y. T. (2016). A Study of Joseph as a Blessed Child and His Psychological Structure: Centered on the Bowen's Family Systems Theory.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7(2), 171-193.]

유연희 (2003). 아브라함과 리브가와 야곱의 하나님. **신학사상**, 120, 99-129.

[Yoo, Y. H. (2003). The God of Abraham, Rebekah and Jacob.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y*, 120, 99-129]

윤남옥 (2003). **성경 속 인물들의 내적치유 일기**. 서울: 도서출판 진흥.

[Yoon, N. O. (2003). *Healing: The inner healing diary of biblical characters*. Seoul: Jinheung

Press.]

이관직 (2014). **성경인물과 심리분석**. 서울: 생명의말씀사.

[Lee, K. J. (2014). *Psychological analysis of biblical characters*.. Seoul: lifebook.]

이동순 (2005). **구약시대 족장들의 가계도 분석을 통한 목회상담 연구 : 보웬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Lee, D. S. (2005). *A Study o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through a Genogram Analysis of Patriarchs in the Old Testament Times : Centered on Bowen's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of Ministry, Hanshin University, Seoul, Korea.]

이동원 (1989). **첫 믿음의 계승자들 이삭, 야곱, 요셉**. 서울: 도서출판 나침반.

[Lee, D. W. (1989). *Heirs of the first faith, Isaac, Jacob and Joseph*. Seoul: Nachimvan Publishing.]

이수미, 김용태 (2014). 야곱의 심리적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Bowen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3), 187-217.

[Lee, S. M., Kim, Y. T. A study on the process of Jacob's psychological change: Centered on the Bowen theory.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5(3), 187-217.]

장일선 (1995). **구약성서와 현대생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Chang, I. S. (1995). *Old Testament and Modern Life*..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정옥배 역. (2016). **베이커 성경주석 (구약편)**. Burge, G. M. & Hill, A. E. (2012). The Baker Illustrated Bible Commentary. 서울: 부흥과개혁사.

[Chung, O. B. (2016). The Baker Illustrated Bible Commentary (the Old Testament). Seoul: Revival & Refornation. Trans. Burge, G. M. & Hill, A. E. (2012). The *Baker Illustrated Bible Commentary*. East Fulton: Baker Books.]

정혁조 역. (1975). **창세기(하)**. Henry, M. (1940). Matthew Henry's COMMENTARY. 서울: 기독교문사.

[Chung, H. J. (1975). Genesis Ⅱ. Seoul: KCLP. Trans. Henry, M. (1940). *Matthew Henry's COMMENTARY*. London: Pickering & Inglis, Ltd.]

조난숙, 송조흠, 한영혜, 최은영 (2010). 창세기 가족의 보웬 가족상담적 분석 및 성경적 함의.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0, 299-326.

[Cho, N. S., Song, J. H., Han, Y. H., Choi, E. Y. (2010). Bowenian Approach to the Patriarchs'Families and its Biblical Implic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0, 299-326.]

한중식 역. (1990). **성서의 유명한 부부들**. Harbour, B. L. (1979). Famous Couples of the Bible. 서울: 혜선출판사.

[Han, J. S. (1990). Famous Couples of the Bible. Seoul: Hyesun Press. Trans. Harbour, B. L. (1979). *Famous Couples of the Bible. Nashville*, TN: Broadman Press.]

Calvin, J. (1993). 성서교재간행회(편저). 칼빈 성경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회

[Calvin, J. (1993). Biblical Textbook Publication (Eds.). *Calvin Bible Commentary*. Seoul: Biblical Textbook Publication]

Sledge, T. (1992). *Making Peace with Your Past: Help for Adult Children of Dysfunctional Families*. Before I Said Goodbye Books.

Stevens, R. P. (2003). Down-ToEarth Spirituality: Encountering God in the Ordinary, Boring Stuff of Life.. Westmont, IL: Intervarsity Press.

보웬 가족치료를 통해 살펴본 이삭의 불안과 분화수준

Isaac's Anxiety and Differentiation Level Analyzed by Bowen Family Theory

서 정 우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김 용 태 (아가페 초월상담연구소/교신저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보웬 가족치료 이론을 통해 이삭을 기독교상담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시사점을 찾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삭의 생애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과 배경에 따라 시간 순으로 이삭의 불안과 분화수준을 살펴보았다. 이는 원가족 배경, 출생과 성장기, 제물 사건, 결혼, 우물 분쟁 사건, 자녀관계 및 장자권 축복 사건이다. 이렇게 살펴본 자료를 결론에서 불안과 삼각관계, 분화수준으로 정리하였다. 첫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유일한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불안을 가지고 살았다. 둘째로, 이삭은 높은 불안으로 인해 하나님과 부모, 자식, 타인들과 삼각관계를 반복하여 형성하였다. 셋째로, 이삭은 반복되는 삼각관계 안에서 낮은 분화수준을 가진 채 성장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삭이 나타낸 순종과 평화주의적 행동은 합리적인 사고에 따른 행동이 아닌 불안에 따른 감정반사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삭은 노년에 장자권 축복 사건을 통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가시는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분화수준이 높아질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거짓으로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정반사행동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야곱에게 축복한 장자권을 확고하게 인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 상담학적 시사점과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이삭, 보웬 가족치료, 불안, 분화수준, 기독교 상담

『신앙과 학문』. 26(3). 31-60.
https://doi.org/10.30806/fs.26.3.202109.31

‘10분’의 성경 구절 나눔과 그에 대한 예비교사의 실천에 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10 Minutes’ Sharing of Bible Verses and the Practice of Pre-Service Teachers

서 혜 정 (Hye Jeong Suh)**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experiences of three second-year pre-service teachers about sharing the Bible verses in ‘10 minutes’ in the subject class and the related practice. Data was collected from March 13 to November 23, 2019, from practice records, narrative questionnaires, and interview data.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articipants looked back on their lives by reading the Bible verses, and through the process of ‘plan-action-sharing', 1) living faithfully, 2) living a planned life, 3) not hating, 4) listening, 5) being patient with anger, 6) not judging, 7) praising, and 8) being honest. This study suggests an example of character education for preparatory teachers whose ‘10 minutes’ of Bible verse sharing is related to Bible verses. It also suggests that character education can be achieved in a short period of ‘10 minutes’ within the subject.

Key words : Bible verse, sharing, pre-service teacher, practice, character education

* 2021년 8월 19일 접수, 9월 9일 최종수정, 9월 10일 게재확정
** 백석예술대학교(Baekseok Arts University) 유아교육과 부교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9길 23, ideasuh@hanmail.net

I. 서론

'라떼는 말이야.' 는 기성세대들이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를 희화한 신조어이다. 이는 현세대와 이전 세대를 비교하는 기성세대의 언어이다.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세대 차이에 따른 것이지만 유아교사의 인성은 시대적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서현 외, 2013). 최근 빈번하게 보도되는 유아교육기관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유아교사의 인성은 이전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유아교사는 영유아의 인성에 모델이 되어야 하므로 사회는 좋은 성품과 도덕적 인격을 가진 교사를 원하고 있다(Osguthorpe, 2008). 이러한 좋은 유아교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예비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의 대학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이연규 외, 2020). 이를 입증하듯이 교육부에서는 2013년부터 2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교직 적성 검사 및 인성 검사에 적격판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요구는 대학에서 예비교사의 인성 함양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인성 함양을 위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비교사들도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으로(김순환·남옥선 외, 2014) 대학은 예비교사에게 적합한 인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박근영·권은주, 2019; 서현 외, 2013; 이연규 외, 2020).

인성은 청소년기에 확립되거나 함양된 인성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므로 예비교사가 바람직한 성품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체계적인 인성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박근영·권은주, 2019; 한미라, 2015; Weissbourd, 2003). 대학이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별도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지원한다면 예비교사의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인성교육 실시를 위해 교과 편성 시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나(김춘이, 2017; 노이경, 2016; 이연규 외, 2020), 이미 포화한 교육과정으로 인성교육을 위한 신설 교과 편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정규 교과 편성의 어려움에 당면한 대학에서는 비교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를 통해 효과성을 입증하였다(김형재 외, 2017; 채영란·김은아, 2018). 그러나 비교과로 진행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실시하지 못한다면 예비교사의 인성교육은 다시 부재하게 되는 것이다. 즉, 비교과로 진행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그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할지라도(김형재 외, 2017; 채영란·김은아, 2018) 연구 이후에도 인성교육을 지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연규 외(2020)는 인성 덕목을 추출하여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과 연계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시는 교과 편성에 대한 부담을 덜고 또한 비교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인성교육 실천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다. 물론 교과를 운영하는 교·강사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꾸준한 연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목과 연계하는 인성교육 접근 방법은 대학에서 인성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김영준·강경숙, 2018; 최병옥, 2017; Lickona, 1999).

기독교 대학의 인성교육 관련 연구들(김소연, 2012; 김춘이, 2017; 김충만, 2016; 김홍진, 2006; 이종민, 2020; 정희영 외, 2013; 조용훈, 2016; 한만오, 2016; 한미라, 2015; 한상진, 2017)은 인성교육에 대한 기독교 대학의 문제 인식과 인성 덕목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가 많으며(정희영 외, 2013; 한미라, 2015), 인성교육은 채플과 성경 교과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김소연, 2012; 김춘이, 2017; 한미라, 2015). 이러한 연구 동향은 기독교 대학의 인성교육이 신앙 관련 교과목 내에서 체험 또는 실천교육과 거리가 멀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기독교 대학으로서 인성교육에 대해 모색하고 있으나 인성교육에 대한 방법론적인 접근은 아직 다양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인성교육은 교육과정 안에서 체험, 실천 교육을 통한 방법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김유리 외, 2016). 이는 인성이 직접적으로 가르쳐서 함양되거나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학습자 스스로 깨닫고 알아가는 학습자 참여의 교수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한다(김순환·박선혜 외, 2014). 기독교 대학의 인성교육 관련한 연구 중 김춘이(2017)는 기독교 교양 과목으로 대학생들의 인성 개발에 긍정적인 효과를 드러냈지만, 기독교 대학 내 유아교육 전공과 관련하여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의 유아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성경 구절'을 교과목과 연계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예비교사가 삶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과학교육 전공 교과목에서 한 학기 여정에서 감내해야 할 예비교사의 상황과 관련한 성경 구절을 매주 제시하고자 한다. 수업 시간 중 '10분' 동안 '성경 구절 읽기-성경 구절과 관련하여 삶 연결하기-내 삶의 계획 기록하기'를 실시하여 일주일간 일상의 삶에서 계획한 것을 실천하고, 다음 주차 수업 시간에 일주일간의 실천에 대해 기록한 것을 '조원과 나누기-조에서 나눈 이야기 공유하기'의 과정을 설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예비교사에게 제공한 성경 구절 주제는 '성실하게 살기, 계획성 있는 삶 살기, 미워하지 않기, 경청하기, 화 참기, 판단하지 않기, 칭찬하기, 정직하기'이다. 성경 구절 주제는 유아과학교육 교과의 주차별 학습 내용과 연관하여, 한 학기 여정에서 겪게 될 '자율적인 학습자', '조별 과제 수행', '모의수업 수행' 및 '동료와 교수의 평가' 의 내용과 연결하였다. 이는 성경 구절이 예비교사의 삶에 스며드는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예비교사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성교육에서 성경 구절을 활용하여 예비교사들이 일상에서 주도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 인성교육 관련 연구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업에서 '10분의 성경 구절 나누기'를 통해 성경 구절과 관련하여 예비교사의 실천은 무엇인지 탐구함으로써 성경 구절 나눔과 성경 구절에 따른 실천 중심의 예비교사 인성교육 사례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과 내 '10분'의 짧은 시간으로 예비교사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10분'의 성경 구절 나눔에 대한 예비교사의 실천은 어떠한가?로 설정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10분 성경 구절 나누기'는 연구자가 기독교 대학의 교수로서 소명 의식을 실천하고자 2018년에 교과 수업에서 처음 시행한 것이다. 연구자가 2018년도 처음 시작할 때의 목적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성경 구절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다. 먼저 수업 시간에 출석을 확인하고 이어서 '10분 성경 구절 나누기' 활동을 한 후, 교과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시도하던 첫해 4주 차에 실천 의미를 느낄 수 없어 '10분 성경 구절 나누기'를 포기하려 하였다. 그러나 예비교사들은 연구자에게 자신들은 실천하며 변화하고 있다며, 지속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계기로 계속 실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자의 2018년도 경험과 의도를 안내하며 2019년도 1학기 유아과학교육 교과에서 매주 '10분간 성경 구절 나누기'를 다시 시작하였다. '10분간 성경 구절 나누기'는 교과를 수강하는 모든 학생이 경험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두 번째 시도하던 해인 2019년도 1학기 유아과학교육 교과목을 수강한 기독교 B 대학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 중 3인이다. 연구 참여자 선정 시 연구 참여자에 대한 배경 정보 없이 1주 차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수강하는 학생 25명에게 연구 목적을 안내하며 연구 참여자로의 참여 의사를 물었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매주 제시된 성경 구절 선정은 강의 계획서의 일정 즉, 플립러닝으로 진행하는 교과이므로 학습자로서 자기 주도적인 사전 학습하기, 협력하며 조별 과제 수행하기, 모의수업 수행 후 동료와 교수의 비평 듣기 등 한 학기 동안 당면할 과업과 관련하여 주제를 정하고, 그와 관련한 성경 구절을 정하였다. 즉, 성경 구절의 내용은 유아과학교육 교과 내용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예비교사들은 매주 제공하는 성경 구절을 읽고 성경 구절의 의미를 나의 삶과 연결하여 생각하고 실천할 기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신앙과 관련하여 거부감이나 부적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고우련, 이은실, 2019) 성경 구절 선정 시 또 다른 고려는 종교색이 옅은 구절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이를 염두하며 한 학기 동안 예비교사에게 제공한 성경구절은 잠언에서 9구절, 누가복음에서 1구절, 마태복음 1구절, 전도서 1구절 총 12개의 성경 구절을 선정하였다. 성경 구절을 잠언에서 많이 선택한 이유는 삶에 대한 가르침의 지혜를 수록한 구절이 많아 예비교사의 삶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였다. 전도서의 구절 또한 같은 이유에서이다. 또한 주차에 적합한 성경 구절을 확정하고 난 후, 성경 구절이 예비교사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한글 번역본을 조사하여 결정하였다. 예비교사에게 제공한 한글번역본은 개역개정(대한기독교서회, 2015), 현대인의 성경(생명의말씀사, 1990), 그리고 공동번역 성서(대한성서공회, 1977)에서 선정하였다.

Table 1 research participant information[1]

name	age	trait	religion
Kim, M. A.	22	Under the influence of her aunt, who was a kindergarten teacher, she entered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he wants to become an early childhood teacher because she wants to make a good impact on children. She was intrigued by the professor's offer for an interview and agreed to the study.	no religion
Lee, A. J.	26	After graduating from a four-year university, she worked and entered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he has no knowledge of the Bible. She wanted to become an early childhood teacher under the influence of her mother, who was the head of a kindergarten. She wants to become an early childhood teacher because she receives positive energy when she is with children and wants to become a person who wants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her children.	no religion
Lee, H. S.	22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she entered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he has no knowledge of the Bible. While working part-time with infants, she wanted to be an early childhood teacher as she became interested in children. She agreed to the study because she thought her experience with the Bible would be positive.	no religion

예비교사에게 제공한 성경 구절 주제는 '성실하게 살기, 계획성 있는 삶 살기, 미워하지 않기, 경청하기, 화 참기, 판단하지 않기, 칭찬하기, 정직하기'이다. 성경 구절 주제는 유아과학교육 교과의 주차별 학습과 연관하여, 한 학기 여정에서 겪게 될 '자율적인 학습자', '조별 과제 수행', '모의수업 수행' 및 '동료와 교수의 평가' 의 내용과 연결하였다. 플립러닝으로 진행하는 교과에서 예비교사는 '자율적인 학습자'에서부터 조별 과제(계획안 작성, 수업 분석)와 모의수업을 함께 수행하며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는 조 구성원과의 관계, 그리고 대면 수업에서 한 공간 안의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나누고 비평하며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의 3가지 차원으로 서로 교차하며 관계를 이룬다. 삼차원의 관계에서 공동 학습체로 살아가야 하는 예비교사의 인성 요소는 내적 인성(자기 조절, 반성적 실천, 지속적 배움), 사회적 인성(존중, 의사소통, 협력), 공동체적 인성(책임감, 정의감, 윤리의식) 요소가 서로 교차하

1)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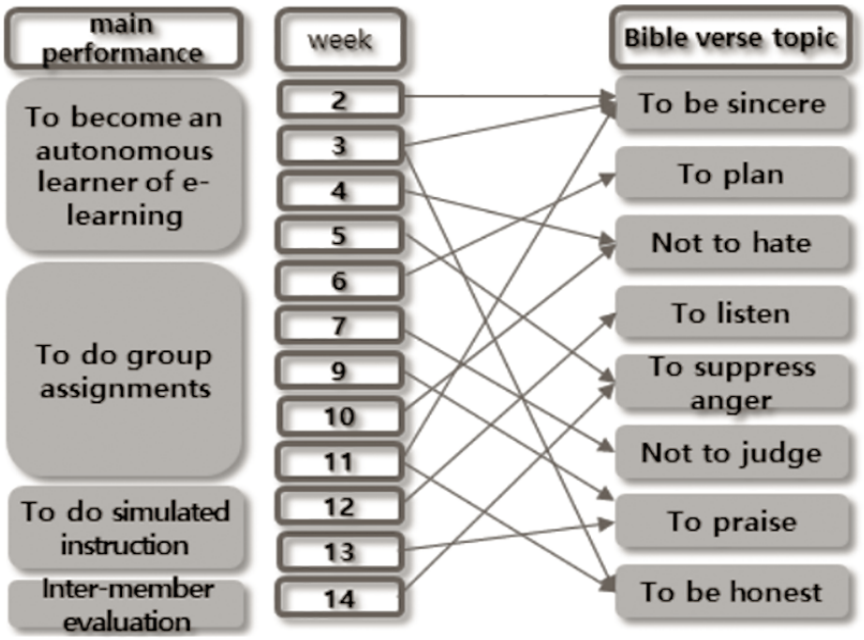


Figure 1. Bible verse topics selected according to the course progress

며, 이와 관련한 성경 구절이 필요하였다(서경혜, 2013). 한 학기의 여정과 관련하여 제공한 성경 구절 주제와 인성 요소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성실하기'와 '계획성 있는 삶 살기'는 '지속적인 배움', '미워하지 않기'는 '존중', '경청하기'는 '협력'과 '의사소통', '화 참기'는 '자기 조절', '판단하지 않기'는 '정의감', '칭찬하기'는 '정의감'과 '의사소통', '정직하기'는 '윤리의식'의 인성 요소와 연결된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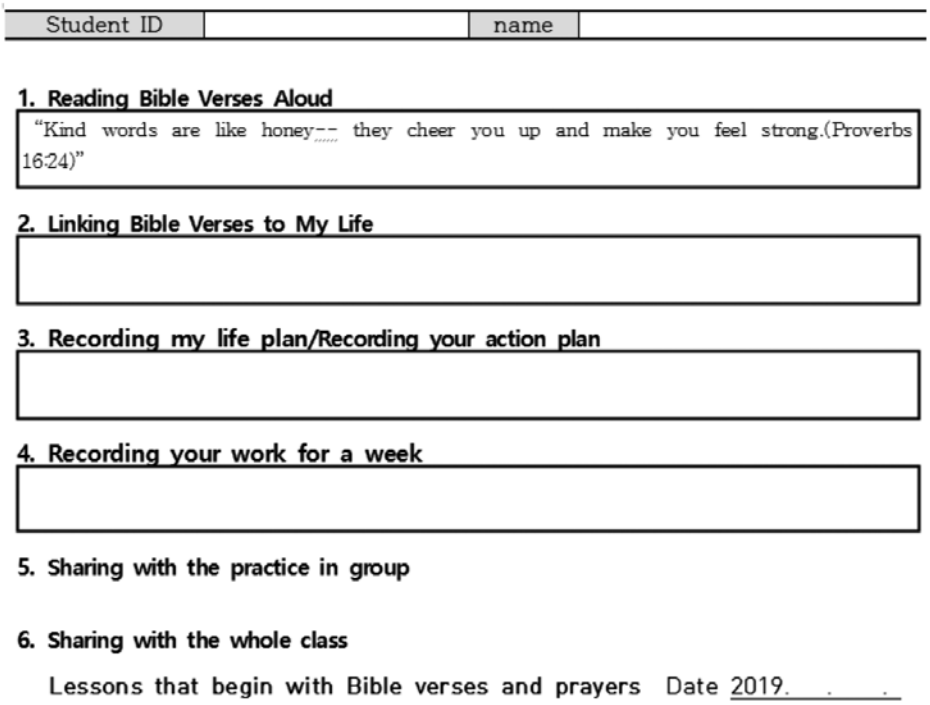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19년 3월 13일부터 2019년 11월 23일까지 실천 기록지, 서술식 질문지, 그리고 면담자료를 수집하였다. 실천 기록지는 매주 '10분 성경 구절 나누기'를 하며 기록한 문서이다. 실천 기록지는 10분간 진행하는 '성경 구절 읽기-성경 구절과 나의 삶과 연결하기-계획하기-실천하기-공유하기' 의 과정이 담기도록 구성되었다. 실천 기록지는 교과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기록에 대한 것도 학습자의 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연구자는 실천 기록지에 자율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였기에 실천 기록지에 대한 기록 여부나 충실한 기록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다. 단지, 실천하지 못하면 학습자는 '조원과 나누기' 시간에 나눌 이야기가 없이 동료의 실천 경험만 듣게 된다. 서술식 질문지와 면담자료는 '10분 성경 구절 나누기'의 경험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실천 기록지, 서술식 질문지, 면담 자료를 의미 있는 것을 세그멘팅하여 주제어를 짓고,

Table 2 Bible verses provided in the lecture

week		Bible verse
1	orientation	
2	Become an autonomous learner	"Sleep a little. Doze a little. Fold your hands and twiddle your thumbs. Suddenly poverty hits you and everything is gone!(Proverbs 24:33-34a)"
3		"Anyone who can be trusted in little matters can also be trusted in important matters. But anyone who is dishonest in little matters will be dishonest in important matters.(Luke 16:10)"
4		"Hatred stirs up trouble; love overlooks the wrongs that others do.(Proverbs 10:12)"
5		"Don't be a fool and quickly lose your temper-- be sensible and patient.(Proverbs 29:11)"
6	group assignment -curriculum reconstruction	"If you plan and work hard, you will have plenty; if you get in a hurry, you will end up poor.(Proverbs 21:5)"
7		"Don't condemn others, and God won't condemn you. God will be as hard on you as you are on others! He will treat you exactly as you treat them.(Mattew 7:1-2)"
8	Midterm exam	
9	group assignment Writing a plan, preparing for simulated instruction	"Sensible thoughts lead you to do right; foolish thoughts lead you to do wrong.(Ecclesiastes 10:2)"
10		"Kindness is rewarded-- but if you are cruel, you hurt yourself.(Proverbs 11:17)"
11		"Being lazy is like walking in a thorn patch, but everyone who does right walks on a smooth road.(Proverbs 15:19)"
12	simulated instruction	"Fools think they know what is best, but a sensible person listens to advice.(Proverbs 12:15)"
13		"Kind words are like honey-- they cheer you up and make you feel strong.(Proverbs 16:24)"
14	Inter-member evaluation	"Controlling your temper is better than being a hero who captures a city.(Proverbs 16:32)"
15	Finals exam	

주제어 간에 유목화를 하며 분석하였으나 자료 분석 결과는 결국 성경 구절의 주제와 같게 최종 유목화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자의 해석이 연구 참여자의 의도를 잘 나타내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다. 연구 참여자 3인은 의도대로 반영되었다고 피드백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자 1인으로부터 주제어와 인용문의 연결 및 해석 타당도, 주제어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를 받았다. 이렇게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과 동료 검증(peer checking)으로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Creswell, 2017).



Student ID		name	

1. Reading Bible Verses Aloud

"Kind words are like honey-- they cheer you up and make you feel strong.(Proverbs 16:24)"

2. Linking Bible Verses to My Life

3. Recording my life plan/Recording your action plan

4. Recording your work for a week

5. Sharing with the practice in group

6. Sharing with the whole class

Lessons that begin with Bible verses and prayers Date 2019. . .

Figure 2. practice record form

Table 3 Questions on the narrative questionnaire

Questions example
1. What was the experience of sharing the practice after starting with the Bible and practicing it for a week?
2. What was the Bible verse that resonated with you the most? Why?
3. Describe your life changed by practicing it for a week through the Bible.
4. The professor tried to select the word according to the learning situation of the 15th week. Were the professor's intentions reflected in your life? If it was helpful, what was it?

Table 4 Interview mate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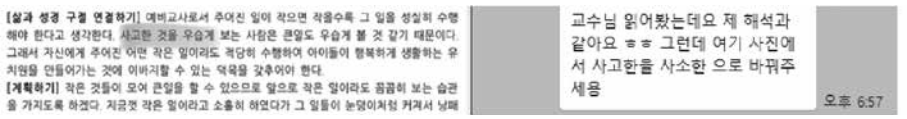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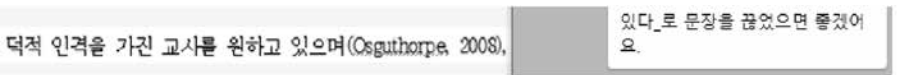
Questions example
1. What is the most memorable thing you did? 2. Tell us about practical examples. 3. Was there any repulsion to religion? 4. Which Bible verses are presented in a timely manner?

Table 5 data collection

material type	purpose	data collection amount
practice recording paper	Encouraging action with a tangible view of the experience-plan-do of 'sharing Bible verse for 10 minutes' Getting to know experience-plan-do	36page
Descriptive Questionnaire	Getting to know your thoughts on the experience-plan-do of the 'sharing Bible verse for 10 minutes'	3page
interview material	Getting to know the experience of 'sharing Bible verse for 10 minutes'	group interview 2 times (65 minutes) individual interview 2 times (84 minutes) total 43page

Figure 3. Example procedure for sharing Bible verses in class

Table 6 validation

	feedback
member checking	Three participants sai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ir intention and the researcher's interpretation. Only Kim requested to correct the typo. 
peer checking	Agree and give feedback on the thesis title and keyword. Feedback on text corrections. 

III. 연구결과

1. 성실하게 살기

2주의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하니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잠언 24: 33-34a)"와 11주의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밭이지만, 정직한 자의 길은 고속도로이다.(잠언 15: 19)" 성경 구절은 연구 참여자에게 성실한 삶을 살도록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당면한 과제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살기 위한 계획과 실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 이혜수는 시간이 임박해서야 과제를 했던 게으른 생활을 반성하면서 잠을 줄이고 성실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살고자 계획하여 실천하였으며, 그러한 생활 태도가 2학기에도 지속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잠을 줄임으로써 생긴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여 아르바이트하였고 늦잠으로 인해 강의를 오후에 수강하던 것을 2학기에는 아침 시간표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 이예지는 할 일을 미루다 밀린 과제를 하느라 힘들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과제를 잘 완수하고자 계획하여 계획한 대로 과제를 하니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였다.

>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과제를 마감일 전에 몰아서 하는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 성경말씀을 읽으니 나의 게으른 생활이 반성된다.
>
> **[계획하기]** 과제를 미리 시간을 두고 해야겠고(과제를 많이 검토하기) 과제를 미루려고 할 때 성경말씀을

생각하기로 했다. 또한, 쓸데없이 자는 잠을 줄이기로 했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로 했으며 성실하게 살기로 계획을 해보았다. (이혜수, 실천 기록지, 2019. 3. 20)

과제를 마감일 하루 전에 할 때도 있고 한 2~3일 전에 몰아서 했어요. 저는 마감일이 다가와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도 스트레스고 또 그걸 하느라 다른 일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유 있을 때 다 해놓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중략… 제가 원래 알바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성실하게 살고 싶어서 수, 목요일이 공강이라서 화요일 수업 끝나고 바로 가서 알바하고 수요일에도 알바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자는 잠이 많으니까 어차피 자느니 알바를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으로. …중략… 제가 원래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1학년 때는 시간표를 되게 늦게 짰어요. 그런데 1학기 때 이거 하고 나서 변해서 2학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아침으로 시간표 다 짰어요. (이혜수, 면담, 2019. 10. 23)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게으름을 피우다가 과제들을 미루게 되었는데 급한 마음으로 밀린 과제들을 하려니 스트레스 받고 정말 힘들었다.

[계획하기] 몸이 피곤하니까 자꾸 늘어지고 싶고 게을러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게으름을 더욱 경계해야겠다. 계획한 것을 미루지 말고 중간 중간 리프레쉬를 하며 많이 남은 과제들을 잘 헤쳐 나가도록 해야겠다.

[실천하기] 과제들을 미루지 않고 미리 했더니 마음이 정말 편했고, 스트레스와 막연한 걱정도 줄었다. 앞으로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주어진 과제들을 해야겠다. (이예지, 실천 기록지, 2019. 5. 22)

3주에 제시된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다.(누가복음 16:10)"는 성경 구절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작은 것'에 대한 가치 인식에 변화를 하게 하였다. 연구 참여자 김민아는 예비교사로서 작은 일부터 성실히 완수하는 태도를 가져야 유아들에게 행복한 유치원을 만들 수 있음을 생각하여 작은 일부터 꼼꼼하게 하고 점차 큰일을 하겠다고 계획하였다. 김민아는 성경 구절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다 보니 의미 있는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이혜수는 성경 구절로 인해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소임을 다하자 성과도 따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작은 일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주제를 연구 참여자의 삶에서 녹여내며 작은 것에서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예비교사로서 주어진 일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것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큰일도 우습게 볼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작은 일이라도 적당히 수행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유치원을 만들어가는 것에 이바지할 수 있는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계획하기] 작은 것들이 모여 큰일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작은 일이라도 꼼꼼히 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겠다. 지금껏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였다가 그 일들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낭패를 본 일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 작은 일부터 찾아서 끝내고 큰일을 진행하도록 해야겠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이 많아지고 일주일을 의미 있게 보냈어요. (김민아, 면담, 2019, 6. 12)

'작은 일에도 성실하자.'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전에는 작은 일 해봤자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읽고 실천해보니까 스스로 얻는 것도 있고 또 다 알아주더라고요.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니까 얻는 것도 있고. (이혜수, 면담, 2019. 5. 2)

2. 계획성 있는 삶 살기

연구 참여자들은 2학년이 되자 1학년 때보다 많은 과제로 벅찬 2학년을 맞이하였다. 6주에 제시된 "신중한 계획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부유해지고 조급하게 굴면 가난해진다.(잠언 21: 5)"는 성경 구절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더욱 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소에 계획을 세우며 살아왔던 연구 참여자 김민아는 완성도 높은 결과를 갖고자 미리 계획하고 실천하니 시간 관리를 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유로운 시간을 누리게 되어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겠다고 느끼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이예지는 성실하게 하나씩 해나가면 결과에 다다르고 성장할 것이라 믿으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계획하여 하나씩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예지는 많은 과제로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잘 실천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일주일간의 단기 실천 계획은 '긴 호흡' 이 아닌 '짧은 호흡'으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열심히 실천하려는 의욕을 갖도록 하였다.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나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꼭 하고 어떤 일에 들어가는 성경 말씀이 있어서 너무 기뻤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미리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하나하나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삶을 살다보니 까먹는 일도 잘 없고 미리미리 실천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 조급하게 닥쳐서 일을 하지 않아서 좋은 거 같다.

[계획하기] 앞으로도 평소처럼 미리 계획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할 것이다. 어쩌다 한 번 일이 밀려서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일을 끝낸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힘들고 완성도도 매우 떨어진 적이 있었다. …중략… 절대 기면서 하지 않게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이다.

[실천하기] …상략… 긴 시간을 쪼개어 계획했더니 생각보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서둘러서 할 수 있었다.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고 과제를 해서 매우 뿌듯한 기분이었다. (김민아, 실천 기록지, 2019. 4. 10)

해야 할 일을 계획을 세워놓고 하니 시간낭비하지 않고 아껴 쓸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 같다. (김민아, 서술식 질문지, 2019. 5. 2)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할 일이 많아 막막하더라도 잘 계획하고 매일 성실하게 임하다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도 성장할 것이다.

[계획하기] 하나하나 계획하여 체크리스트 작성하기,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가기

[실천하기] 이번 주에 제출하는 과제가 5개나 있어서 막막하고 조급했지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우선순위를 계획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잘 해나갔다. (이예지, 실천 기록지, 2019. 4. 10)

아무래도 일주일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와 계획이 있으니까 일주일을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이예지, 서술식 질문지, 2019. 6. 11)

3. 미워하지 않기

4주에 제시된 "미움은 말썽을 일으키고 사랑은 온갖 허물을 덮어 준다.(잠언 10: 12)"는 성경 구절로 연구 참여자 김민아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편견으로 유아를 보았던 경험을 반추하며 선입견이 강한 자신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겠다고 계획하였다. 그에 따른 실천을 통해 김민아는 마음먹기에 따라 사람도 세상일도 다르게 보임을 경험하였다. '그 한 번이 중요한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 속에는 성경 구절이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 이예지는 성경 구절을 삶에서 실천하려 노력하면서 이전의 삶과 달라진 점은 미워하는 대상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삶의 특성을 받아들이게 되어 상대를 용서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며 조화롭게 과제를 진행하는 경험을 하였다. 더불어 상황이 미움을 유발하더라도 유아교사가 되었을 때의 교사가 품어야 할 유아들을 상상하며 사랑으로 덮고 포용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다짐하였다.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처음 교육봉사에 갔을 때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내가 맡은 반에 있는 유아와 친구반의 유아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아이는 괜찮은데 다른 아이는 좀 힘들다는 말을 하였다. 그런데 내 친구는 나와 반대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 때 모든 것을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에 따라 온전히 달라지는 것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이후로 유아에게 함부로 밉다거나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계획하기] 돌아보면 선입견에 많은 것이 좌지우지되고 살아왔던 거 같다. …중략… 누군가를 미워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타인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어 사랑으로 덮어줘야겠다.

[실천하기] 일주일간 미움은 말썽을 일으킨다는 말을 가슴에 새겨서 최대한 사랑으로 모든 일을 보려고 했더니 평소 같으면 기분이 안 좋았을 일이 그냥 좋은 마음으로 넘어갔던 일이 많았던 것 같다. 마음먹기에 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고 생각보다 사랑으로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김민아, 실천 기록지, 2019. 3. 27)

모든 게 보는 거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구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쁘게 보면 계속 한없이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다른 쪽으로도 한 번 좋게 상황으로 봐 보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막 나쁜 마음이 안 들고 좋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제가 좀 그런 게 심했거든요. 한 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고. 그리고 계속 그러면서 제 마음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다르게 한 번 생각해본 경험이, 그 한 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김민아, 면담, 2019. 5. 2)

조원과 갈등이 생길 뻔 했는데 그 친구를 미워하기보다 '여러 과제로 힘든 상황이라 예민했구나.'하고 이해했더니 마음이 편했다. 그 친구와 여전히 잘 지내면서 조별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예지, 서술식 질문지, 2019, 5. 2)

이 말씀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쿨하지 못해서 뒤끝이 길거든요. …중략… 미워하기보다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게 된 거 같아요. (이예지, 면담, 2019, 6. 12)

이 말씀을 앞으로도 꼭 새기고 싶은 이유는, 앞으로 유아교사가 된다면 …중략… 특히나 마음처럼 따라오지 않고 말썽을 일으키는 유아에게 나도 모르게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미운 감정이 생기더라도 사랑으로 덮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예지, 서술식 질문지, 2019, 6. 11)

10주에 제시된 "친절한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고, 잔인한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잠언 11:17)"는 성경 구절로 연구 참여자 김민아는 타인에게 했던 부정적인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왔던 경험으로 자신을 대하듯이 타인을 대하겠다고 계획하여 실천하였다. 그러나 일주일간 상대방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방심하는 순간 자신의 말로 인해 상처받는 상대방을 보며 자신의 말과 행동에 더 주의해야 함을 반성하였다. 연구 참여자 이혜수는 성경 구절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하였던 대로 상대방에게 그대로 갚는 자신을 반성하며, 친절을 먼저 베풀며 능동적으로 관계 맺기를 계획하여 먼저 인사하고 친절을 실천하려 노력하였다.

[계획하기]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남을 대할 때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라고 생각해야겠다. …중략…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훈련을 해서 남에게 잔인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실천하기] 일주일간 상대방을 대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서 최대한 친절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했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방심하자 금방 실수가 튀어나왔다. 무심코 한 말에 여러 명이 상처 받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 아이들의 놀란 얼굴과 짜증 섞인 행동이 당시에도 스스로 내 행동이 그런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매우 놀랐고 기록하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미안해서 마음이 무거워진다. 내 말과 행동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번 일을 반성해서 주의하도록 하겠다. (김민아, 실천 기록지, 2019. 5. 21)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나는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를 잔인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잔인하게 대한다.

[계획하기]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다가갈 것이다.

[실천하기] 아는 사람을 보면 내가 먼저 웃는 얼굴로 인사하였고,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이혜수, 실천 기록지, 2019. 5. 21)

4. 경청하기

12주에 제시된 "어리석은 이는 자신의 행동이 옳은 줄로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충고를 듣는다.(잠언 12:15)"의 성경 구절은 연구 참여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모 또는 학우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못했던 삶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해 연구 참여자 김민아는 충고는 잘되라고 하는 것임에도 좋게 받아들인 적이 없음을 깨달아 충고를 듣는 그 순간은 언짢겠으나 자신을 위한 말이므로 보다 나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위해 충고를 받아들이겠다고 계획하여 모의수업에 대한 동료 학습자의 충고를 수용하여 더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 연구 참여자 이예지는 자신의 성품을 '주장이 세고 고집이 있음'을 인정하며, 흑백논리로 상대방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대치시킬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고자 계획하였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친구의 충고를 경청하여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수용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 이혜수는 자기주장이 센 편이라 어머니의 충고도 마다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으나, 결과론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했을 때보다 어머니의 의견이 더 지혜로움을 인식하여 어머니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여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대학에 와서 느낀 것이지만 내가 남이 하는 충고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생활을 다시 돌아봤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잘 되라고 충고해주신 것도 좋게 받아들이고 고치려 하지 않고 짜증난다고만 생각했다. …중략… 어리석게 내가 맞다고 고집피우고 좋은 마음으로 하신 말들을 내 좁은 식견으로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여겼다.

[계획하기] 남의 충고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쓸데없는 고집은 버리고 충고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도록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겠다. …하략…

[실천하기] 요즘 모의수업 실연을 하며 평가와 충고를 받는 일이 많아서 일주일간 그런 평가와 충고들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기 위해 개인적인 감정은 모두 배제하고 충고를 통해 서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도 상하지 않고 더 배울 수 있었던 거 같다. (김민아, 실천 기록지, 2019. 6. 11)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나는 자기주장이 세고, 한 번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은 밀고 나가는 고집도 있는 편이다.

[계획하기] 내 생각과 행동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의 충고를 마음을 열고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실천하기] 내가 틀린,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친구의 충고를 듣고 내가 틀린 것은 아니어도 옳은 행동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받아들였다. 내가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꼭 내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고, 다른 이의 말을 더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예지, 실천 기록지, 2019. 6. 11)

엄마 말씀을 제가 안 들었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이 센 편이 아닌데 가족한테만큼은 제 주장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말씀하셔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행동을 했는데 제 행동이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그렇게 크게 배우는 건 없어서 중요한 건 엄마 말씀 들으려고요. (이혜수, 면담, 2019. 10. 23)

5. 화 참기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잠29: 11)"는 5주에 제시된 성경 구절로 연구 참여자에 따라 '화'의 감정을 맞닥뜨릴 때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하였지만, 성경 구절을 접하기 전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연구 참여자 김민아는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 주변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계획하여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화가 나는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자제하지 못하여 화를 낸 경우에는 즉시 사과하며, 이전보다 화를 다스리다 보니 감정 소모를 하는 일이 줄어들었음을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 이혜수는 화가 난 상황에서도 마음속 나쁜 말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계획하여 '화'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려 노력하면서 마음속으로도 나쁜 말을 생각하지 않고 또 언어표현으로도 하지 않는 것을 실천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계획하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략…

[실천하기] 원래 겉으로는 화를 내려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계속 화나는 적이 많아 일주일간은 화가 나도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화가 섞인 말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도 너무 화가 난다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실천하였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면 빨리 이성을 찾고 사과를 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실천을 하다 보니 의미 없는 감정 소모도 없고 관계도 틀어지지 않게 되어서 좋았다. (김민아, 실천 기록지, 2019. 4. 3)

감정 소모가 줄게 되어 의미 없는 일에 마음을 쓰는 일이 많이 줄었고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운 것 같다. (김민아, 서술식 질문지, 2019, 5. 2)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정말 화났을 때 욕을 뱉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하는 내가 생각났다.

[계획하기] 정말 화가 났더라도 욕은 나쁜 뜻을 가진 나쁜 말이므로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실천하기] 화났을 때는 내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왜 화가 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난 후, 화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이혜수, 실천 기록지, 2019. 5. 15)

화가 났을 때 왜 화가 났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화가 나면 욕은 좀 했는데 이제는 안 해요. 욕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혜수, 심층면담, 2019. 10. 23)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용사보다 나으며,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도시를 정복하는 사람보다 낫다.(잠언 16: 32)"는 14주에 제시된 성경 구절로 연구 참여자 이예지는 가지고 있는 성품이 '화' 감정을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화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겠다고 계획하여, 동료로 인해 화나는 상황에서 성경 구절을 떠 올리며 마음을 다스리고 화를 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 이혜수는 평소에 가족에게 화를 잘 내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부모에게 자주 화를 내는 것을 줄이겠다고 계획하였다. 이혜수는 화를 내지 않으려 실천하면서 가족에게 짜증을

내게 되면 자신의 행동 의도와 다른 자신의 화냄에 대해 사과하고, 지속적인 화를 다스리는 실천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나도 화가 나면 감정이 격해지고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기에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용사보다 낫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계획하기] …상략… 어떤 상황에서도 '역지사지'로 생각하며 내 사진을 다스려봐야겠다.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때 화를 낼 것이다.

[실천하기] 친구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어 기분 나쁘게 틱틱대며 말했는데 성경말씀이 떠올라 역지사지로 생각해보게 되었고 내가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친구도 기분이 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다스리고 넘어갔다. (이예지, 실천 기록지, 2019. 6. 19)

[계획하기] 나는 화를 정말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님한테 정말 화를 잘 낸다. 성경 말씀을 통해 화를 다스리긴 하지만 가끔 그냥 화를 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더 노력해야겠다.

[실천하기] 하루에 화 한 번 이상 내지 않기를 일주일 간 실천하였다. 나의 화를 다스리려고 항상 노력하며 살아가야겠다. (이혜수, 실천 기록지, 2019. 6. 19)

가족한테 짜증내는 게 계속 미안해서 짜증 섞인 말투로 하면, '내가 어쩌다보니 이렇게 나오게 됐다.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혜수, 면담, 2019. 10. 23)

6. 판단하지 않기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처럼 너희도 판단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당할 것이다.(마태복음 7: 1-2)"는 7주에 제시된 성경 구절로 연구 참여자 이예지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기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타인을 평가하던 자신을 반성하였다. 그리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였다.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예지는 존중과 수용하는 정도가 커져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성장하였다. 이혜수는 조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 판단하고 화가 난 경험을 회상하여 남을 판단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기로 계획하여 장점을 보려 노력하면서 갈등 상황이 생겨도 다투지 않으려 노력하였음을 이야기하였다. 김민아는 평소에도 남을 섣불리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생각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였다. 김민아는 섣부른 판단의 위험성을 경험하였던

것을 생각하며 미래의 유아교사로서의 역할을 대비하여 섣부른 판단으로 생기는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예비교사로서 상황에 대한 중립을 지키고자 하였다.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나는 저울질 당하기 싫으면서 타인을 나도 모르게 저울질하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계획하기] 타인을 평가하려들지 말고 존중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실천하기]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고, 혼자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더니 내 마음이 좀 더 평화롭고 존중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좀 더 자랐다. (이예지, 실천 기록지, 2019. 4. 17)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조별 과제를 했을 때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화가 났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친구들을 판단하고 단정 지었던 나의 모습이 생각났다.

[계획하기] …상략… 내가 남들에게 평가받고 판단받기 싫은 만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실천하기] 주변 사람의 안 좋은 점을 생각하지 않기를 실천하였다. 좋은 점을 많이 보려 하였고 좋은 점에 대해 칭찬해주려고 노력하였다. (이혜수, 실천 기록지, 2019. 4. 17)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내가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국민 청원이나 뉴스에 사전이 떴을 때 자주 일어났던 것 같다.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가해자들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옛날부터 이상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중략… 그 중에 몇 개는 가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불우했던 가정사가 밝혀지는 일들이 많아서 매번 성급히 판단하지 말자고 생각하곤 했다.

[계획하기] 나는 유치원 교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아이들, 학부모 그리고 동료교사를 멋대로 판단하지 않겠다. 대신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중립의 입장에 서고 싶다. 한 번 내린 판단을 바꾸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급히 판단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 것이다.

[실천하기]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한쪽으로 생각이 기울면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런 식으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보며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려 했고 다른 면을 많이 보려 애썼다. 하지만 한 번 판단이 된 일이 있었는데 그 뒤 어떤 말을 들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다. 이러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겠다. (김민아, 실천 기록지, 2019. 4. 17)

7. 칭찬하기

9주에 제시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올바른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전도서 10: 2)"는 성경 구절로 연구 참여자 이예지는 예비교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언어사용에 대해 반성하였다. 나쁜 언어와 행동을 기분에 따라 하지 않도록 노력하

겠다는 계획을 하여 기분 나쁜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두세 번 생각하며 언어 표현을 하다 보니 감정조절을 할 수 있어 계속 노력하고 싶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직설적으로 말하던 언어 습관을 고운 언어로 순화하여 표현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2학기 후반부에도 지속하였다.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예비교사로서 더더욱 나쁜 언어를 쓰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과제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것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때 나쁜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계획하기] 나쁜 언어,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을 내 기분에 따라 하지 않고, 순화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나쁜 짓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실천하기]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나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두세 번 더 생각한 후에 순화하여 표현했다. 감정을 조절하고 좋게 표현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예지, 실천 기록지, 2019. 5. 15)

확실히 많이 좀 순화된 표현, 예쁜 말. 그런 걸 많이 사용하려고 평소에도 진짜 노력하는 거 같아요. 저는 주장이 은근히 센 편이어서 둥글게 말하거나 예쁜 말로 말할 수 있는데, 바로 그냥 좀 직설적으로 세게 말하거든요. 그거 아닌 거 같은데? 이러면서 다다다다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은 순화된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이예지, 면담, 2019. 11. 4)

13주에 제시된 “친절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을 흐뭇하게 해 주고 건강하게 해 준다.(잠언 16:24)”는 성경 구절로 연구 참여자 김민아는 성경 구절과 자신의 삶을 연결하여 회상해보니 친절한 말을 많이 들어봤으나 친절한 말을 해본 적이 없었음을 깨달았다.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듣는 것은 좋으므로 김민아는 친절한 말을 능숙하게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계획하였다. 그래서 대화의 마무리를 친절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동료와 서로 웃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계속 노력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이혜수는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져 상대방에게 좋은 말로 되돌려주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먼저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먼저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친절한 말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실천은 2학기에도 지속해서 실천하였다.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내가 생활하며 주변의 좋은 분들에게 친절한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반대로 내가 친절하게 말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친절하게 말하려고 하면 왠지 오글거리며 불편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중략… 나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싫지는 않았다.

[계획하기] 나도 앞으로 나에게 친절한 말을 해준 사람들처럼 남에게 친절한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후략…

[실천하기] 일주일간 내가 이야기 나눴던 마지막 대화는 그 상대에게 친절한 말을 하며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카톡으로도 마지막 톡은 잘 할 수 있으니 걱정을 말라든지 힘이 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친절한 말로 끝내려고 하였다. 그랬더니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런 말을 하면서 나도 조금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좋았다. 매번 주의를 기울여야 해서 조금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보고 싶다. (김민아, 실천 기록지, 2019. 6. 12)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한 말이나 칭찬을 해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서 나도 상대방에게 친절한 말이나 칭찬을 해준다.

[계획하기] 내가 먼저 상대방을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 나도 상대방도 서로 기분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천하기] 내가 먼저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은 실천하였다.

(이혜수, 실천 기록지, 2019. 6. 12)

친구한테 요즘엔 먼저 해줘요. '너는 이런 걸 잘하는 것 같다.',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그렇게 말도 해주고…. (이혜수, 면담, 2019. 10. 23)

8. 정직하기

11주에 제시된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밭이지만, 정직한 자의 길은 고속도로이다.(잠언 15: 19)"는 성경 구절로 연구 참여자 이혜수는 작은 노력에 큰 결실을 기대한 자신을 반성하여 가훈과 같이 정직한 삶을 계획하여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지내고자 실천하였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1학기의 실천이 2학기에도 지속해서 실천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 이예지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루어져야 할 e-러닝을 미루지 않고 정직하게 들으려 하고 있다고 하였다. e-러닝은 스스로 학습해야 하므로 성실하게 학습하는지의 여부는 학습자 개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정직하게 임하려는 노력은 '틀어만 놓고 잘 듣지 않는 e-러닝'이 아닌 집중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예지에게 성경 구절은 e-러닝학습에서 정직한 학습으로 변화하도록 하였다.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가끔 조금 노력하고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던 내가 생각났다. 그리고 반성하게 되었다.

[계획하기] 우리 집 가훈이 '정직하게 살자.' 인만큼 정직하게 내가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실천하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지냈고 양심적으로 지냈다. (이혜수, 실천 기록지, 2019. 5. 22)
11주차의 거짓말 안 하는 거 지금도 실천하고 있고 양심적으로 살고 있어요.
(이혜수, 심층면담, 2019. 10. 23)

마음처럼 쉽지 않지만,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매주 들어야 되는 e러닝을 미루지 않고 필기하며 열심히 듣고 있다. (이예지, 서술식 질문지, 2019, 5. 2)

연구 참여자 김민아는 9주에 제시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올바른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전도서 10: 2)" 성경 구절로 상대방이 듣기에 좋으라고 한 이야기도 거짓말이라 생각하여 그러한 거짓된 마음을 반성하고 개선하겠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솔직하면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대화하려다 보니 대화 기술이 부족하여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어려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볼 것을 다짐하였다.

[계획하기] 지금까지 엄청 크게 속인 적은 없었지만 기분 좋으라고 한 말로 남을 속인 적은 많았던 것 같다. 앞으로는 그런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상대에게 아무 생각 없이 대충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반성되고 앞으로는 고치도록 해야겠다.
[실천하기] 일주일간 상대에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면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그러다보니 일주일간 상대와 대화가 잘 안 이루어졌다. 그냥 말하지 않고 마는 걸로 속으로 생각해 버린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상대도 서로 너무 불편했다. 더 노력을 기울이거나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김민아, 실천 기록지, 2019. 5. 15)

IV. 논의

본 연구는 교과 수업에서 예비교사들이 주마다 안내한 성경 구절을 통해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반성하고, 1주일간 실천할 것을 계획하여 실천에 대한 내용을 동료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갖는 '10분'의 성경 구절 나눔에 대해 2학년 예비교사 3인의 경험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과학교육' 교과 시간에 '10분의 성경 구절 나누기'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성경 구절과 연

결하여 실천한 주제는 성실하게 살기, 계획성 있는 삶 살기, 미워하지 않기, 경청하기, 화 참기, 판단하지 않기, 칭찬하기, 정직하게 살기이다. 예비교사들의 실천은 교수자가 선정한 성경 구절의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실천할 요소를 찾아내어 실천한 후, 다음 주 수업에서 1차 조별 동료와 2차 전체 학급 동료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비교사마다 삶의 경험이 다르고, 성향이 달랐기 때문에 실천 내용은 때로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였지만, 성경 구절이 주는 주제와 관련하여 '성실, 계획, 사랑, 경청, 감정 조절, 수용, 칭찬, 정직'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였다. 학기 중에는 교과 시간에 '성경 구절 나눔-반성-계획-실천 공유'의 흐름에 따라 실천하였지만, 학기가 끝난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지속적인 실천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성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2시간 혹은 3시간으로 운영하거나(김춘이, 2017; 노이경, 2016; 박소연·박현숙, 2015; 이연규 외, 2020), 비교과 인성교육 프로그램(김형재 외, 2017)을 운영한 연구들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인성교육을 위해 한 학기 운영하는 교과 시간의 단 '10분'을 활용했지만, 예비교사의 일상의 삶에서 실천으로 연결하여 변화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교과에서 할애한 인성교육 시간보다 인성교육의 효과는 높았음을 드러내었다. 특히, 박소연과 박현숙(2015)은 전공 선택 교과목에서 강의와 활동, 그리고 인성교육 지도와 관련하여 구성한 인성교육을 한 학기 동안 진행하였지만, 짧은 기간에 효과를 내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박소연과 박현숙(2015)은 그 이유를 이미 성장한 대학생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유추하면서 대학생은 인성교육에 많이 노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실천을 동반한 인성교육인가, 아닌가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성 함양을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에 인성 관련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는 이연규 외(2020)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와 같으면서도 다른 결을 보인다. 즉, 인성교육을 교과목과 연계한 것은 같은 맥락이나, 이연규 외(2020)는 인성 덕목과 교과목의 특성과 부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몰아치는 과제, 조별 과제 수행 과정에서의 분쟁, 모의수업에 대한 비평' 등 한 학기 동안 예비교사의 학업 과정 중 당면할 상황에 맞는 인성덕목을 연결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포화한 교육과정 편성으로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정규 교과 신설에 대한 어려움과 비교과 인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인성교육의 방법은 인성교육 운영 시 교수자와 예비교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경 구절과 관련하여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요소를 스스로 선정하여 실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외부에서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을 가지며 일상의 삶과 밀접하게 실천하며 변화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박근영과 권은주(2019)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을 갖는다. 즉,

인성은 지식으로 접근하여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인성 덕목을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성 교육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박근영·권은주, 2019).

둘째, 매주 안내하는 성경 구절과 관련하여 실천 기록지에 있는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일주일간의 실천할 내용 계획하기', '일주일간 실천하기'에 대한 기록은 예비교사 각자의 '반성', '계획', '실천'의 영역이라면, '조원과 나누기', '조에서 나눈 이야기 공유하기'는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마음가짐 다지기'의 반성 기회로 작용하는 전략으로 구성한 것이다. 즉, 교수자는 단지 교과 수업 시간에 '10'분을 성경 구절 나눔의 시간으로 배정하였지만, 연구 참여자에게는 그 '10분'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으로 다가갔는지, '10분'의 경험으로 그쳤는지는 공유의 시간을 통해 동료들에게 고백하는 시간이다. 실천한 사례를 동료와 나눔으로써 예비교사는 교과 시간의 '10분'이 '일주일'이라는 시간과 연결됨을 의미한다. 즉, 교과 시간 안에서 진행하는 '10분'의 주도권은 교수와 예비교사 모두에게 있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주도권은 예비교사에게 있었기에 연구 참여자들은 한 학기 동안 인성교육의 주체자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다. 연구 참여자인 3인의 예비교사들은 '10분'을 '일주일'과 연결하여 주도권을 갖고 실천하였다.

김홍진(2006)은 회개가 있어야 인성이 회복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성경 구절을 읽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일주일간의 실천을 계획하도록 한 본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내 삶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반성적 사고를 통해 과거로 회귀하여 지나온 시간을 들여다보게 되며, 자기 생각과 행위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여 개선할 방향을 찾아가게 하는 시작점이 된 것으로 본 연구를 지지한다. 그리고 김순환과 박선혜 외(2014)는 인성교육에서 예비교사들이 '태도'나 '역량'처럼 스며들 수 있는 가치관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 학습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Lickona(1997)는 인성과 관련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인식과 좋은 습관 형성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김유리 외(2016)는 실제 삶에 의미 있는 자극이 되어 체화될 수 있어야 비로소 본인의 성품이 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의 예비교사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하고 실천하여 변화하는 자신을 동료에게 드러내며, 변화한 자신을 매일 만나는 인성교육의 주체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었다. 김홍진(2006)과 김유리 외(2016), 그리고 Lickona(1997)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예비교사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반성에 근거하여 학습자 스스로 계획하여 실천하는 인성교육의 주도권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

일반대학에서든 기독교 대학에서든 인성교육에 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인성교육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들은 단발적인 특강이나 행사로는 효과를 보장할 수 없음으로 한 학기 이상 제공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노이경, 2016), 인성 함양을 위해 인성 관련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서현 외, 2013). 이러한 연구의 고민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시간 확보, 지속성, 그리고 효과일 것이다. 한편 이연규 외(2020)는 인성교육의 강력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 연한 동안 교과목과 연계하여 지속해서 인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연규 외(2020)가 주장하는 2~4년의 교육 연한 동안 인성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인성 증진, 그리고 노이경(2016)의 주장처럼 한 학기 이상의 프로그램 개발로 충실하고 광범위하게 인성교육이 구현되었을 때 보이는 효과성 때문일 것이다(Berkowitz & Bier, 2007). 그러나 학교들은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므로(Bennonga et al., 2006) 본 연구와 같이 교과목 안에서 교과 내용의 수업 시간 중 작은 시간을 할애하여 지속해서 진행하는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성교육이 예비교사가 지식 차원이 아닌 삶과 밀접하게 연결하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변화해야 할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예비교사가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인성교육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교과 시간 중 매주 '10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 인성교육이 이루어졌음에도 연구 참여자들인 예비교사의 삶에 지속적인 실천과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인성교육의 방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써 '10분'의 짧은 시간으로 교과목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인성교육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신입생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예비교사의 좋은 인성은 교직 적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교직관 함양을 위한 성경 구절 나눔에 관해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과부하 된 교육과정에 새로운 교과목 편성으로 인성교육을 추가하지 않고 교과 영역 안에 인성교육을 통합할 방안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고우련, 이은실 (2019). 기독교대학 신입생들의 필수 신앙 교과목에 대한 수업 적응도 분석. **신앙과학문**, 24(2), 67-96.

[Go, W. Y. & Rhee, E. S. (2019). Analysis of Class Adjustment in Required Christianity Courses among First-year Students of a Christian University. *Faith and Scholarship*, 24(2), 67-96.]

김소연 (2012). 한국 대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채플 활성화 방안. **기독교교육정보**, 34, 181-209.

[Kim, S. Y. (2012). A study on chapel Activity for character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Korea society for christio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4, 181-209.]

김순환, 남옥선, 박선혜 (2014). 인성교육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조사: 3, 4년제 유아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9(1), 363-391.

[Kim, S. H., Nam, O. S., & Park, S. H. (2014).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character education among student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three and four year colleges across the n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363-391.]

김순환, 박선혜, 남옥선 (2014).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교직인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유아교육학논집**, 18(2), 339-363.

[Kim, S. H., Park, S. H., & Nam, O. S. (2014).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rogram of character for the teaching profession targeting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8(2), 339-363]

김영준, 강경숙 (2018). 대학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기반 구축방안. **교사교육연구**, 57(3), 411-428.

[Kim, Y. J. & Kang, K. S. (2018). A study on a plan to create a basis for a curricular upgrade with a view to Activating character education in the university. *Teacher Education Research*, 57(3), 411-428.]

김유리, 김현철, 박진옥, 권선향, 김누리 (2016). 인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교육문제연구**, 34(4), 1-20.

[Kim, Y. R., Kim, H. C., Park, J. O., Kwon, S. H., & Kim, N. R. (2016). A new paradigm of character education. *Korean Education Inquiry*, 34(4), 1-20.]

김춘이 (2017). 기독교 대학의 기독교 교양 과목이 대학생들의 인성 개발에 끼친 영향 분석. **대학과 선교**, 33, 65-90.

[Kim, C. Y. (2017).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on character development of university Students.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33, 65-90.]

김충만 (2016). 기독교와 인성-경성대학교 건학이념('기독교 정신')의 구현으로서의 인성을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40, 83-104.

[Kim, C. M. (2016). Christianity and character: on KSU (: KyungSung University) founding principle rooted In christian gospel for the full blossom of character building. *The Journal of Humanities*, 40, 83-104.]

김형재, 현혜정, 이순애 (2017). 명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의 인성 및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3), 25-54.

[Kim, H. J., Hyun, H. J., & Lee, S. A. (2017). The effects of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based on storytelling using famous picture on the personality and creative personality of pre-kindergarten teache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4(3), 25-54.]

김홍진 (2006). 대학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기념논문집**, 30(1), 407-426.

[Kim, H. J. (2006). A christian approach to character education in universities. *festschrift*, 30(1), 407-426.]

노이경 (2016). 대학의 교양과목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효과연구. **인간이해**, 37(2), 115-138.

[Noh, Y. K. (2016). The effects of a character education program in a college liberal arts course.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7(2), 115-138.]

대한기독교서회 (2015). **개역개정**. 경기: (유)성서원.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n (2015). *New Korean Revised Version*. Gyeonggi: (Yu) Seongseowon.]

대한성서공회 (1977).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Korean Bible Society (1977). *Revised Common Translation. Seoul: Korean Bible Society*.]

박근영, 권은주 (2019). 예비 유아교사의 인성 교육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문화와 융합**, 41(2), 681-720.

[Park, K. Y. & Kwon, E. J. (2019).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media contents for preschool early childhood teacher's personality education. *culture and convergence*, 41(2), 681-720.]

박소연, 박현숙 (2015). 예비 중등 역사교사를 위한 창의·인성 교수법 운영 효과. **교육과정평가연구**, 18(3), 183-207.

[Park, S. Y. & Park, H. S. (2015).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media contents for preschool early childhood teacher's personality educ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18(3), 183-207.]

생명의말씀사 (1990). 한영 **현대인의 성경**. 서울: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1990). *New International Version*. Seoul: Word of Life.

서경혜, 최진영, 노선숙, 김수진, 이지영, 현성혜 (2013). 예비교사 교직인성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과학연구**, 44(1), 147-176.

[Seo, K., Choi, J., Noh, S., Kim, S., Lee, J., & Hyun, S. (2013).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eacher Disposition Assessment Instrument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4(1), 147-176.

서현, 임지윤, 박미자 (2013). 유아교사의 바람직한 인성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와 현직유아교사의 인식비교. **한국영유아보육학**, 77, 41-71.

[Seo, H., Lim, J. Y., & Park, M. J. (2013).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of preliminary childhood teachers and current childhood teachers on the desirable personality.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7, 41-71.]

이연규, 조인경, 유칠선 (2020). 예비유아교사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 덕목과 교과목 연계.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5(1), 5-26.

[Lee , Y. G., Cho, I. K., & Ryu, C. S. (2020). The connection between the virtues and the subjects for character education of pre-early childhood teachers.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for Infants and Children*, 5(1), 5-26.]

이종민 (2020). 기독교 인성교육의 준거로써의 양심에 대한 연구. **성경과 신학**, 93, 91-123.

[Lee. J. M. (2020). A study on conscience as a criteria for character education. *Bible and Theology*, 93, 91-123.]

정희영, 이정규, 한민좌 (2013). 기독교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덕목 추출. **기독교교육논총**, 36, 195-217.

[Jeoung, H. Y., Lee, J. K., & Han, M. J. (2013). extraction of the Virtues for christian early childhood character education.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6, 195-217.]

조용훈 (2016).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에 대한 한 연구. **대학과 선교**, 31, 227-258.

[Jo, Y. H. (2016). A study on character education in the christian universities.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31, 227-258.]

채영란, 김은아 (2018).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효과. **인문사회** 21, 9(4), 473-388.

[Chae, Y. R. & Kim. E. A. (2018). Effect of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for pre-kindergarten teacher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9(4), 473-388.]

최병옥 (2017).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방안 탐색.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5(3), 85-108.

[Choe, B. O. (2017). A study on exploration of the curriculum implementation for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Narrative and Educational Research*, 5(3), 85-108.]

한만오 (2016). 기독교대학의 채플이 기독교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38, 179-208.

[Han, M. O. (2016). A study on the impact on the character of the chapel of christian universities.

The Gospel and Praxis, 38, 179-208.]

한미라 (2015). 인성교육, 기독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독교교육정보**, 12, 321-359.

[Hahn, M. R. (2015). Character education in christianity. *Korea society for christio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12, 321-359.]

한상진 (2017). 인성에 대한 교육적 의미. **신학과 실천**, 54, 417-444.

[Han. S. J. (2017). Educational significance of personality. *Theology and Praxis*, 54, 417-444.]

Bennonga, J. S. Berkowitz, M. W., Kuehn, P., & Smith, K. (2006). Character and academics: what good school do. *Phi Delta Kappan*, 87(6), 448-452.

Berkowitz, M. W. & Bier, M. C. (2007). What works in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haracter education, 5(1), 29-48.

한유리 역. (2017). **질적 연구의 30가지 노하우**, Creswell J. W.(2015) 30 essential skills for the qualitative researcher. 서울 : 박영story.

[Han, Y. R. (2017). 30 essential skills for the qualitative researcher. Seoul : Parkyoungstory. Trans. Creswell J. W.(2015) *30 essential skills for the qualitative researcher*. North America: SAGE]

American Bible Society (1995). Contemporary English Version(CEV) Bible. TN: Thomas Nelso. http://www.holybible.or.kr

Osguthorpe, R. D. (2008). On the reasons we want teachers of good disposition and moral character.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9(4), 288-299.

Lickona, T. (1997). The teacher's role in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179(2), 63-80.

Lickona, T. (1999). Character education: seven crucial issues. Action in *Teacher Education (Association of Teacher Educators)*, 20(4), 77-84.

Weissbourd, R. (2003). "Moral teacher, moral student." *Educational Leadership*, 60(6), 6-11.

‘10분’의 성경 구절 나눔과 그에 대한 예비교사의 실천에 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10 Minutes’ Sharing of Bible Verses and the Practice of Pre-Service Teachers

서 혜 정 (백석예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교과 수업에서 ‘10분’의 성경 구절 나눔과 그와 연관한 실천에 대해 2학년 예비교사 3인의 경험을 탐구하였다. 자료는 2019년 3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천 기록지, 서술식 질문지, 그리고 면담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성경 구절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계획-실천-공유’의 과정을 통해 1) 성실하게 살기, 2) 계획적인 삶, 3) 미워하지 않기, 4) 경청하기, 5) 화 참기, 6) 판단하지 않기, 7) 칭찬하기, 8) 정직하기를 실천하였다. 본 연구는 성경 구절 나눔의 ‘10분’이 성경 구절과 관련하여 실천 중심의 예비교사 인성교육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교과 내 ‘10분’의 짧은 시간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성경 구절, 나눔, 예비교사, 실천, 인성교육

『신앙과 학문』. 26(3). 61-81.
https://doi.org/10.30806/fs.26.3.202109.61

퍼스의 도상적 기호와 종교적 상상력: C. S. 루이스의 회심 경험을 중심으로*

Peirce on Hypoicons and Religious Imagination: An Analysis of the Experience of Conversion of C. S. Lewis

이 윤 희 (Yunhee Lee)**

ABSTRACT

This paper looks into the experience of conversion of C. S. Lewis which appears in his spiritual autobiography *Surprised by Joy: The Shape of My Early Life* and examines the function of imagination in his experience of conversion. Based on scientific imagination operated by the triadic relation of image-diagram-metaphor, semiotic action by which the metaphoric truth and meaning is discovered by virtue of abductive reasoning will be discussed in the poetic image and literary imagination of Lewis.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 the paper suggests that Lewis's religious experience occurs while interpreting a sign of "Joy" which Lewis calls a desire which makes one desire the desire itself more than ever. Accordingly, by analyzing the evolution of Lewis's imagination from the material through the metaphysical to the real or universal, the paper reveals that his conversion occurs in two stages: from atheist to theist and from theist to Christian. Consequently, the paper argues that Peirce's scientific imagination by means of iconic signs and Lewis's poetic imagination by way of the sign of "Joy" can cooperate and thus function as a tool for learning and knowing the metaphoric truth and meaning in the course of religious imagination and the experience of conversion.

Key words: *Surprised by Joy*, religious imagination, hypoicons, C. S. Lewis, C. S. Peirce

* 2021년 8월 12일 접수, 9월 12일 최종수정, 9월 13일 게재확정
이 연구는 2021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이 논문은 2021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2021년 5월 22일) 인문학분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언어연구소/세미오시스 연구센터 HK교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moreena@hufs.ac.kr

Ⅰ. 들어가며

『변화하는 진리의 기호(Changing Signs of Truth: A Christian Introduction to Semiotics of Communication)』(2012)의 저자 크리스탈 다운잉(Crystal L. Downing)은 자신의 종교적 경험을 포함하여, 주변 그리스도인의 일화를 바탕으로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이 책에서 다룬다. 저자는 일반 독자들이 문화 기호를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기호'를 해석하는 과정도 그것과 유사하다고 언급하면서 그들이 문화 기호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정작 기호 자체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다운잉은 기독교와 문화를 논하는 방식에서 기호를 매개로 둘의 관계를 볼 것을 요청한다. 바꾸어 말하면, 저자는 문화 기호와 그것이 가리키는 것의 관계에 기초해 둘의 관계를 이해하고 의미를 찾는, 곧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방향성을 갖는 기호 해석과정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저자는 우리가 기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기호가 더 강력하게 우리를 통제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문화와 기독교 사이의 대화에서 둘의 간격을 메우는 방법이 됨을 역설한다. 기호를 매개로 한 해석 활동은 종교적 경험의 개별성이 다양성과 복수성을 넘어 어떻게 보편성을 지향하는지를 보여준다.

기호학은 문자 그대로 기호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기호는 무엇에 대한 기호, 즉 무엇을 대신하여, 혹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서, 기호는 해석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올바르게' 해석되어야 하는 운명을 지닌다. 그래서 기호학은 '해석의 과학'이라고 이해되기도 한다. 그런데, 올바른 해석이 칸트식의 '목적없는 합목적성(purposiveness without a purpose)'(Raposa, 1999:134)의 역설처럼 올바른 해석에 관한 관심은 그것 자체에 대한 무관심을 수반한다. '올바른 해석'이라는 목적에 대한 무관심성(disinterestedness)은 기호의 과정이 올바른 해석으로 나아가게 하는 조건이다. 그러므로 기호가 어떤 것을 재현하고, 그것이 올바르게 해석되도록 해석체를 결정하는 '기호과정(semiosis)'은 그 과정 자체가 올바른 해석을 지향하는 목적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다운잉의 통찰력 있는 지적처럼, 기호 사용자가 주관적 관점에서 기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기호를 경험, 관찰함으로써, 기호가 그것의 대상과 맺는 관계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기호와 대상을 매개하는 기호 해석자에 대한 이 같은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종교적 체험 혹은 영성 연구 등의 영역에서 기호학적 고찰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기호, 기호가 나타내는 것, 그리고 둘의 관계를 다른 맥락에서 번역 혹은 해석하는 해석체를 포함하는 기호과정은 미국의 기호학자 찰스 퍼스(Charles S. Peirce, 1839-1914)의 기호학에서 드러난다. 논리학과 철학에 기반을 둔 퍼스의 기호학은 현상으로서의 기호와 그것의 해석에 관심을 둔다. 한편 비인격적인(impersonal) 이원적 체계의 틀에서 기호 간의 차이에 관심을 두었던 소쉬르의 기

호학은 인간이 배제된 구조를 다룬다. 퍼스 기호학에서 해석자의 지위는 독특하다. 해석자는 해석체(interpretant)로서 기호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다시 기호가 되어 더 발전된 해석체를 결정한다. 이러한 기호 해석과정은 무한히 계속되며, 따라서 이는 기호가 재현하는 대상을 탐구하고자 하는 사고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런 맥락에서 해석자가 기호, 대상, 해석체의 삼자적 관계에 기반을 둔 기호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해석자가 기호에 의해 결정되면서도 또한 기호를 결정하는 기호적 주체라는 점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C. S. 루이스의 이미지와 상상력의 관계를 퍼스의 기호학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루이스의 회심에서 상상력의 기능을 기호 해석과정을 통해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의 본질에 대한 탐구에서 이교도적 상상력이 종교적 상상력으로 변화하는 부분에 관심을 두고, 루이스의 이미지 해석과정을 퍼스의 도상적 기호, 곧 다이어그램과 은유의 관계를 통해 검토한다. 루이스의 회심 경험에 대한 해석을 통해 진리 기호를 매개로 한 과학적 상상력과 시적 상상력이 갖는 유의미성을 기독교적 상상력의 경험적 차원에서 논한다.

Ⅱ. 퍼스의 도상적 기호와 과학적 상상력

미국의 기호학자 찰스 샌더스 퍼스는 표상체(representamen), 대상(object), 해석체(interpretant)의 세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삼원적 기호학의 창시자이다. 세 구성 요소는 각각 환원되지 않는 성질을 지니며 삼자적 관계를 통해 기호과정의 다양하고 본질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퍼스의 삼원적 기호학은 기표(소리 이미지, sound-image)와 기의(사고 이미지, thought-image)로 구성된 소쉬르의 이원적 성격의 기호학과는 구별되며, 이런 점에서 퍼스의 기호 이론은 문화 기호와 자연 기호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호학으로 이해된다.

퍼스는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호를 정의했다. 그중에서 가장 단순한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호 또는 표상체는 어떤 측면이나 능력에서 어떤 이에게 어떤 것을 나타내는[의미하는] 어떤 것이다(Peirce, CP[1] 2.228)." 이 정의에 따라 기호는 표상체(어떤 측면이나 능력에서, 기호 전달체), 대상(어떤 것), 해석체(어떤 이)의 삼자적 관계로 구성된다. 퍼스가 편의상 '어떤 이'로 표현했지만, 여기서 해석체는 해석자가 아니다. 퍼스에 따르면, 기호는 어떤 이의 정신에 동등한 기호를 불러일으킨다(ibid.). 해석자의 정신에 동등한 기호는 기호와 대상과의 관계를 재현하는 해석체-기호이다. 이러한 삼자적 관계에서 대상은 기호를 결정하고, 기호는 해석체를 결정한다. 달리 말해, 기호는 대상과 해석

1) CP는 『퍼스 선집(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을 지칭하며, 뒤이은 숫자는 각각 권수와 단락의 번호를 가리킨다.

체를 1차적으로 매개하고, 해석체는 기호와 대상을 2차적으로 매개한다. 결과적으로 해석체는 기호에 재현된 대상을 다시 재현하는 이중의 기호가 된다.

기호의 대상은 기호 체계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며, 퍼스는 전자를 직접적 대상(immediate object), 후자는 역동적 대상(dynamical object)이라고 지칭하였다. 둘은 역동적 대상이 직접적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Peirce, CP8.183). 따라서 역동적 대상은 해석자가 부차적 경험(collateral experience)을 통해 발견하도록 자신을 직접적 대상에 나타낸다(Peirce, CP 8.314).

표상체는 기호 전달체로서 일종의 모델이며 역동적 대상을 재현하면 도상, 지표, 상징의 양태로 나타난다. 한편 표상체가 직접적 대상을 재현하면 하위도상(hypoicons)인 이미지, 다이어그램, 은유의 양태로 나타난다. 하위도상, 곧 도상적 기호는 각각 단순한 자질, 개별적 존재, 일반적 법칙 혹은 유형으로서의 기호이다. 앞서 언급한 다운잉의 주장처럼 기호가 가리키는 대상을 습관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가 재현하는 것을 또 다른 기호로서 관찰하고 경험할 때, 하위도상이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된다. 퍼스는 하위도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단순한 자질 혹은 1차성의 첫째 요소로서 특징지어지는 하위도상은 **이미지**이고, 한 사물에서 주로 이원적 관계 혹은 그렇게 간주되는 부분들의 관계를 그 자신의 부분들에서 유비 관계로 재현하는 하위도상은 **다이어그램**이고, 다른 매체에서 유사성을 재현하면서 표상체의 재현적 성질을 재현하는 하위도상은 **은유**이다(Peirce, CP 2.277. 1902).

이런 맥락에서 루이스에게 하위도상은 현상적인 '기쁨'의 본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가 된다. 왜냐하면 해석 활동에서 대상은 기호를 결정하고, 기호는 해석체(해석자)가 그 대상을 해석하도록 결정하면서, 기호, 대상, 해석체가 환원되지 않는 삼자적 관계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퍼스의 기호 이론은 현상에 편재하는 보편적인 세 범주에 기반을 둔다. 세 범주의 존재 양태는 첫째,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실증적으로 존재하는 양태(1차성 firstness), 둘째, 제3의 요소와 무관하게 제2요소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양태(2차성 secondness), 셋째, 제2요소와 제3요소를 서로가 관계 맺도록 하는 존재 양태(3차성 thirdness)(Peirce, CP 8.328)이다. 퍼스는 또한 의식(느낌)을 세 범주에 따라 구분한다. 1차성에서 의식은 단순한 느낌이고, 2차성에서의 의식은 작용과 반작용의 경우에서처럼 이중의 의식으로서의 놀라움의 경험 혹은 지각의 경험이며, 3차성에서의 의식은 둘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 의식으로서의 재현 혹은 배움이다(Peirce, EP[2]2: 11장). 세 범주는 실제 세계에서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2) EP는 『퍼스의 철학 논문집(The Essential Peirce: Selected Philosophical Writings)』을 지칭하며, 뒤이은 숫자는 권수를 가리킨다.

퍼스는 현상학적 범주와 존재론적 범주와의 상호작용에 기초해 3개의 삼분법으로 기호를 구분한다. 첫 번째 삼분법은 기호 자체의 존재론적 세 양태로서 현상학적으로 1차성에 속하는 세 기호이다. 곧 자질이 기호가 되는 자질기호(qualisign), 개별성이 기호가 되는 개별기호(sinsign), 일반적 법칙 혹은 유형이 기호가 되는 법칙 기호(legisign)가 그것이다. 이 구분은 하위도상인 이미지, 다이어그램, 은유와 상응한다. 두 번째 삼분법은 기호가 (역동적)대상과 맺는 존재론적 양태로서 현상학적으로 2차성에 속하는 세 기호이다. 곧 기호가 대상과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그 자체에 어떤 성질을 지니는 도상, 기호가 인접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그것의 대상과 실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 지표, 기호가 해석체와 어떤 관계를 맺는 상징이 그것이다. 세 번째 삼분법은 기호가 그것의 해석체를 어떤 양태의 기호로 재현하는가에 따른 양태로서 현상학적으로 3차성에 속하는 기호이다. 곧 가능성의 기호로서의 림(rheme; 단어), 실제성의 기호로서의 다이센트(dicent; 문장), 이성의 기호로서의 논증(argument; 텍스트)이 그것이다(de Waal, 2013/2019:146).

퍼스는 삼원적 성격에 기초한 기호과정을 통해 정신적 형이상학의 주제인 신, 자아, 우주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진화적 사랑(Evolutionary Love, 1893)"과 그가 말년에 자신의 실용주의적 방법론에 기초해 저술한 논문 "신의 실재에 대한 간과된 논증(A Neglected Argument for the Reality of God, 1908)"은 퍼스 기호학적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가추적 논리와 가능성의 기호 개념을 담고 있다. 퍼스 기호학은 현상학과 형이상학과의 연계 속에서 우주론으로 확장된다. "우주가 기호로 가득 차 있다(Peirce, CP 5.448)"라고 하는 퍼스 사유에 기반을 둔 기호 철학은 우주의 실재에 대한 '겸허한' 논증에서 실증적 자질(느낌)과 자질에 대한 반응(경험)이 상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임을 보인다.

> 우주는 살아있는 실재에서 그것의 결론에 이르는, 하나님의 목적의 위대한 상징인 거대 표상체이다. 따라서 각 상징은 유기적으로 그 자체에 연합되어, 그것의 지표인 **반응(Reactions)**, 그리고 그것의 도상인 **자질(Qualities)**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반응과 자질로서의 부분들이 논증에 참여하듯이, 그것은 물론 우주에도 참여한다. 왜냐하면 그 우주가 구체적으로 논증이기 때문이다(Peirce, CP 5.119).

이런 점으로 인해 퍼스의 형이상학은 과학적 형이상학으로 이해되며 우주의 실재에 관한 논증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퍼스는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Peirce, CP 5.119), 우리가 이러한 거대한 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각적 판단이 **우리에게** 전제가 된다. 이 지각적 판단은 도상을 그것의 서술어로 가진다. 이때 **도상**에서 자질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자연의 전제는 우리에게 전제가 되는 **지각적 사실**(perceptual facts)은 아니지만, 전제가 되는 한 지각적 사실과 닮아있어야 한다. 우

리는 우리에게 전제인 것들과 자연의 전제들을 비교함으로써 자연의 전제들이 무엇인지를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자연의 전제들이 전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질을 포함해야 한다. 퍼스는 우주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전제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준다.

> 논증으로서의 우주는 모든 진정한 시가 참된 논증인 것과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위대한 예술 작품, 곧 위대한 시이다. 왜냐하면 모든 설득력 있는 논증은 한 편의 시이자 교향곡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예로 우주를 (해변을 묘사한 인상주의 작품) 회화와 비교해 보자. 그러면 한 전제에서 각 **자질**은 회화에서 기본적인 색의 구성요소들 중 하나이다. 색의 구성요소들은 모두 함께 전체론적으로 전체 작품에 속하는 의도된 **자질**로 디자인된다. 그러한 전체 효과는 우리의 지식 너머에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로 생긴 전체에서의 부분의 **자질**을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다. 그 **자질들**은 전제들에 속한 기본적 자질들의 결합에서 나온다(Peirce, CP 5.119).

인상주의 회화를 감상하는 사람의 지각 작용은 색들의 통사적 결합에서 오는 지각적 사실의 전제에서의 자질과 그것이 표현하는 대상에 대한 지각적 판단(상상의 순간)의 전제에서의 자질 사이에 유사성을 함축한다. 하지만 도상이 대상과 자질을 공유하기 때문에, 회화를 감상할 때, 도상과 대상(의도된 자질)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퍼스는 지적한다(Peirce, CP 3.362).

감상자가 회화를 감상하게 될 때, 처음 접할 때의 느낌은 관조적이라 회화와 그것이 표현하는 대상의 자질이 하나가 된다. 즉 감상자는 분석하지 않고, 단지 전체의 그림의 인상을 느낄 뿐이다. 하지만 관조의 순간이 멈추고, 각각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상상의 순간'이 오면 감상자의 의식은 이중의 느낌으로 변하고, 회화 자체에 의도된 자질과 거기에 반응하는 자질과의 분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각적 판단에서 전제들 사이의 자질의 유사성을 통해 회화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을 상상하고 추측하는 추리과정이 일어난다. 그 결과로 해석된 지각으로서의 지각외관(재형상화)이 나타난다(Wilson 2012:179). 이를 퍼스식의 용어로 표현하면, '지각(대상)(a percept)'은 그것의 자질이 이미지(의식, 느낌)에 나타나고, '지각적 판단(a perceptual judgment)'은 그 이미지에 대한 반응으로서 상상의 결과로서 지각자의 정신에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난다. '지각의 외관(percipuum)'은 해석된 지각(Generals, Law)으로서 일반적 관념의 이미지, 즉 '살아있는' 은유가 된다(Peirce, CP 7.629-636; Wilson, 2012:177-185). 여기서 은유가 살아있다는 점은 고정되지 않은 창조적인 가능성의 기호라는 의미이다.

도상을 도상으로 만드는 조건은 대상의 실존 여부가 아니라 그 대상의 자질을 공유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도상이 재현하는 대상은 실존할 수도, 아니면 상상 혹은 가상의 존재일 수도 있다. 이

런 점에서 도상의 해석과정은 상상을 통해 기호와 대상 사이에 공유된 자질의 유사성을 해석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위도상에서 대상의 자질이 직접적으로 기호에 재현된다는 점을 앞서 확인했다. 다시 반복하여 말하면, 세 양태는 이미지(자질) 자체가 기호로 재현된 이미지-도상, 전체와 부분 혹은 부분과 부분의 이원적 관계가 기호로 재현된 다이어그램-도상, 두 다른 매체에서의 유사성의 자질이 기호로 재현된 메타-도상으로서의 은유가 있다. 각각은 1차성, 2차성, 3차성에 속하는 도상적 기호이며, 세 양태는 은유가 다이어그램에 의존하고, 다이어그램이 이미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은유의 해석과정은 지표성의 다이어그램과 도상성의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다. 특히 언어기호를 통한 은유를 다루는 루이스의 경우 (말)이미지와 상상력(정신의 다이어그램)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핵심적이다. 루이스에게 이미지란 시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문학에 나타난 말을 매개로 한 심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퍼스의 도상적 기호 개념을 통해 루이스의 이미지와 상상력의 관계를 고찰할 때, 1차성의 존재 양태를 갖는 이미지-도상이 자질 그 자체로 실증적이지만 규정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형식이라는 점이 루이스의 회심 사건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루이스의 현상학적 경험에 대한 탐구가 이러한 도상적 기호, 곧 다이어그램-도상에 의한 지각적 판단을 통해 설명된다. 그러므로 루이스의 기쁨의 기호에 대한 탐구는 도상적 기호에 재현된 직접적 대상의 자질을 통해 해석자가 실재 대상을 상상하고, 유추하고, 해석하여 의미를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도상적 기호의 '올바른' 해석과 연관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 장에서는 루이스의 이미지와 상상력의 관계, 그리고 은유를 통한 지각적 판단과 가설적 주장을 통해 '기쁨'의 본질을 탐색하는 과정이 분석된다. 특히 실재와 상상을 연결하는 은유를 매개로 한 시적 상상력과 루이스의 '기쁨', 즉 갈망을 갈망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Ⅲ. 루이스의 회심 과정에 나타난 '기쁨'의 기호와 시적 상상력

『예기치 못한 기쁨(Surprised by Joy: The Shape of My Early Life)』(1955)은 C. S. 루이스(1898-1963)의 회심을 담은 영적 자서전이다. 루이스는 자서전에 흔히 나오는 개인적 일화보다 자신이 경험한 기쁨의 현상학적 측면을 고찰하고 그것의 본질을 탐색하는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루이스는 주관적인 경험으로서의 기쁨의 감정이 아니라 그 느낌을 전달하며 소통하려는 희망을 품고, 그 느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자서전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 이 글은 자서전의 형식을 가져와서 상상의 행위를 통해 기쁨의 원천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을 쓰는 시기로 추정되는 50대 루이스는 이성과 상상력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로 어린 시절 느꼈던 신비로운 감정을 세 가지 일화에서 소개하며 그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 특징은 바로 충족되지 않는 갈망, 어떤 만족감보다 그 갈망 자체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갈망이다. 나는 그것을 ‘기쁨(Joy)’이라고 부른다(Lewis, 1955/2017:32).” 루이스는 자신이 경험한 갈망과 관련하여, 그 감정을 일으키게 한 어떤 것을 상상하고, 이를 탐색한다. 루이스가 자신의 최고 작품이라고 평가한 소설 『우리가 얼굴을 대할 때까지 (Till We Have Faces)』에서 셰켈 (P. J. Schakel) 은 루이스의 이성과 상상력의 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작품의 맥락인 루이스의 정신세계와 연관하여 그 주제를 탐구한다. 그에 따르면, 20대는 시인으로서의 루이스가 상상력과 고투하는 시기이며, 30대는 비평가와 소설가로서 상상력이 사유의 도구로 기능하며, 40대는 기독교 변증가로서 이성이 주된 역할을 하며, 50대는 자서전작가로서 이성과 상상력이 조화를 이루며, 60대는 에세이작가로서 이성과 상상력이 통합된 시기이다(Schakel, 1984). 셰켈(Schakel)의 구성과 유사한 방식으로 본 논문은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드러난 이미지와 상상력의 관계를 작품의 맥락인 루이스의 정신의 지도를 따라가며 퍼스의 기호학적 관점에서 논한다.

본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갈망의 대상을 상상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이를 회심의 두 과정에서 살펴본다. 첫째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회심하는 시기, 둘째 유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기로 구분하여 루이스의 상상력과 회심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루이스의 상상력과 회심의 관계는 루이스가 가진 우주에 대한 중세적 모델과 낭만주의자적 관점의 결합을 보여준 그의 작품 『사랑의 알레고리(Allegory of Love: A Study in Medieval Tradition)』(1936)에서 드러난다. 잘레스키와 잘레스키(Zaleski & Zaleski, 2015)에 따르면, 이 책의 목적은 중세의 알레고리적 사랑에 대한 시가 자연적인 표현 양식이라는 점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대인이 모든 문학, 드라마, 영화에 본질적인 ‘낭만적 사랑’-사랑에 관한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러한 관심을 회복하는 것이며, 중세 전통의 사랑(기사도적인 사랑)을 낭만적 사랑의 알레고리(수사학적 표현 양태)로서 분석한다(Zaleski & Zaleski, 2015: 177-184).

더 나아가 루이스는 중세의 상황과 관련하여 『폐기된 이미지(Discarded Image: An Introduction to Medieval and Renaissance Literature)』(1964)에서 중세인의 특성을 원시인 그리고 이교도와 비교한다(Lewis, 1964:1-12).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중세의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집단적 행위나 제의에 의존한 원시인이 자연에 대해 갖는 상상력이 환경에 지배되는 감정의 영역에 머문다면, 중세인이 경험하는 자연은 글, 즉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 사유의 대상이 되며, 또한 자연은 과학과의 연관성 속에서 경험된다. 다시 말해 중세인은 종교적인 필요보다는 과학적 접근에서 자연을 탐구한다. 또한 루이스는 이교도의 신화와 문학과 비교하면서 중세인은 조직자로서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을 좋아하고, 과학, 종교, 역사를 단일한 정신의 모델로 상정한다고 언급한다. 이런 의미에서 중세의 작

품, 예를 들어 토마스 아퀴나스(1224/25-1274)의 『신학대전(Summa Theologie)』과 알리기에리 단테(1265-1321)의 『신곡(La Divina Commedia)』은 우주의 모델로서 기능한다고 루이스는 주장한다(ibid. 12).

이러한 중세의 우주적 모델에 기초해 루이스는 낭만주의의 개념을 새롭게 고찰한다. 즉 낭만주의가 신성한 자연을 숭배하는 개인의 내면적인 상상의 차원이 아니고, 우주적 차원에서 로고스가 육화된 자연의 신성을 상상하는, 개인과 자연의 관계에 기초한다. "이미지와 상상력"(Lewis, 2013:Chap. 3)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루이스는 시의 객관적 중요성을 논하면서 이러한 낭만주의적 원리에 기반을 둔 상상력을 재확인한다. 문학은 상상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킨다는 주장에서 상상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맥락을 만들어 낼 수 없고 실재적인 것은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재적인 것과 상상된 것이 겹쳐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루이스는 말한다(ibid.:40). 이런 점에서 문학에서 이미지와 상상력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설명된다. 즉 이미지는 맥락을 제공하는 물리적 실체로 나타나고, 상상력은 거기에 반응하는 정신의 작용으로 이해된다(ibid. 45).

루이스는 언어예술인 문학에서 말(words)이 음악이나 미술의 경우와는 다르게 의미를 추구하는 수단임을 주장한다. 말은 반은 실재에 속하고 반은 상상에 속하는 문제점을 갖는데, 루이스는 이 점을 실재와 상상을 연결하는 말의 중재성(mediation)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시에 나타난 시어 '탑' 이미지의 1차적 의미는 실재에 속하는 탑의 자질(towerness)이고, 이렇게 취해진 자질이 맥락을 제공하면서 상상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즉 그 이미지를 현실에서 맥락적으로 경험하면서 2차적 의미가 발생한다. 또한 루이스는 상상력을 어린이의 놀이로 비유한다. 즉 어린이의 놀이가 실질적인 장난감이 필요하듯이, 상상력의 놀이는 이미지가 필요하다. 달리 말해 상상력의 놀이는 맥락이 필요하며 동시에 상상에서 맥락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이미지는 단순한 이미지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루이스에게 문학에서 발생하는 말은 단순한 이미지의 이름이 아니고, 또한 사물의 이름도 아니다. 예컨대 '탑'은 탑의 이미지를 넘어(유사성에 기초해) 그것의 자질과 닮은 대상을 상상하게 한다. 달리 말해, 'a를 b인 것처럼' (a=b) 지각하는 순간 a의 물질적 이미지는 독자의 맥락 속에서 '상상의 순간'을 통해 상상된 대상으로 변한다. 여기서 연결사 'is'는 실재와 상상의 두 세계를 연결하는 해석자 정신의 재현이다. 예를 들어, '들판이 웃는다'라는 은유적 표현에서 '들판' 이미지의 자질은 상상된 대상의 자질인 '웃는다'로서 지각된다. 이때 들판 이미지의 자질이 실제 들판에 외관으로 나타나고, 이 들판은 독자의 맥락에서 이것과 유사한 자질을 가진 대상을 상상하는 가설적 주장의 형태를 띤다. 예컨대 '들판은 사람이다'의 형태로 도출되는 개념적 은유가 된다.

앤더슨은 퍼스의 은유와 다이어그램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은유적 표현, '들판이 웃는다'는 '들판'과 '웃는다'의 두 관계항이 갖는 각각의 자질의 유사성에 기초해 대상의 자질을 표현한다. 따라서

그 의미가 모호하며, 이는 해석자의 맥락에서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 반면 다이어그램은 '골프공이 웃는다'의 경우처럼, '골프공'과 '웃는다'의 두 관계항이 '구조적 유사성'에 기초해 동일한 형태를 공유한다. 그러므로 은유는 예전에 본 것 같은 느낌으로 독자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들판'과 '웃는다' 사이를 결합하며 유사한 자질이 무엇인지 비교하여 의미를 찾는 해석자에게 창조적 행위가 요청된다면, 다이어그램은 '골프공'(슬래시가 있는 모양)과 '웃는다'(웃는 모양)'의 두 관계항이 유비적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해석자는 '구조적' 유사성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Anderson, 1984: 458-459). 과학의 발견에서 모델 기능을 하는 다이어그램과 예술에서 창조적 기능을 하는 은유의 이러한 구분은 루이스의 상상력과 이성의 관계에서 통합된다. 루이스에게 상상하는 행위는 도상적 기호(문학)를 매개로 심리학적 차원에서 기능하며, 다이어그램(관계 이미지)을 매개로 한 상상의 과정에서 실재 대상을 형상화(지각적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은유(개념 이미지)를 매개로 그것을 재형상화(가설적 주장)한다. 따라서 은유의 형태, a=b에서 해석자의 정신의 재현인 연결사(is)는 관계적 기능을 하는 지표적 성격과 그것이 재현하는 것에 대한 가설적 주장이라는 상징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연결사는 은유적 진리라는 주제를 수반한다.

은유의 형태 'a=b'는 'a라면 b이다'라는 조건절을 포함하는 가설적 주장이다. 가령, '이 새는 파랑새이다'에서 '이것이 새라면'(실재), '이 새는 파랑새일 것이다'(가설적 주장)로 설명된다. 루이스에 따르면, "나는 대상의 성질이 A, B, C라고 상상하는 것이며 (그것이 실재한다면), 그 성질은 보편성으로, 현상의 외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P, Q, R의 상황(현실)에서 나타난 대상의 성질을 가정하는 것과 같다(ibid.: 49)." 모든 가설이 실재에 대한 가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루이스에게 이러한 가정의 형태는 중요하다.

이는 삼원적 기호, 곧 기호(말)-대상(실재)-해석체(가설적 주장))에 기초한 사고 과정으로 설명된다. 즉 퍼스식으로 표현하면 해석자는 심리적 주체가 아니라 기호적 해석 주체로서 말을 중재로 한 상상력의 기능을 통해 실재 대상의 자질을 가정하는 가설적 추리 과정에 참여한다. 결론적으로 루이스의 상상력은 은유의 가설적 주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은유는 이미지와 상상력의 관계를 통해 루이스가 경험한 기쁨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삼원적 관계에서 은유의 의미는 해석자의 해석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데, 은유가 진리 탐구를 위한 기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루이스에게 좋은 독서를 위해서는 이름(말)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 감정은 단지 이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이해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그 이름은 사물에 대한 기억, 곧 이전의 지식을 통해서 감정을 일으킨다는 점을 루이스는 강조한다(ibid.:51). 따라서 이미지가 이해되어야 하고, 사물에 대한 기억의 맥락 속에서 그 이미지는 대상을 상상하게 만들며, 실재를 가정하는 가설적 추리의 형태로 은유적 사고에 이른다.

대상이 기호를 결정하고, 기호는 해석체를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해석체는 기호를 중재로, 간접적으로 그 대상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퍼스의 기호학에서 핵심적인 삼원적 기호의 관계이다. 루이스에게 은유는 상상력의 정신 작용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기호로서 기능하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상호작용 놀이 과정에서 대상을 알아가는, 진리의 탐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루이스는『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자전적인 이야기를 통해 상상력의 놀이를 보여준다. 루이스의 회심과 연관하여 상상력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 살펴보는 것은 종교적 상상력의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상술된 책의 마지막 14장과 15에서 루이스는 자신의 회심 과정을 유신론자와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단계로 나누어 기술한다. 루이스는 1장 "어린 시절"에서 신비한 경험을 '기쁨(Joy)'이란 말로 표현함으로써 그 이후 10장까지의 이야기는 그 "기쁨"의 원천을 탐색하고 설명하려는 일종의 배경 혹은 맥락을 제공한다. 그리고 11장 "체크"는 이렇게 시작한다. "기쁨의 역사가 바그너 음악과 북유럽 신화 및 겔트 신화의 거대한 물결을 타고 찾아와 다시 개시되었다고 말한 지도 꽤 되었으니,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겠다(Lewis, 1955/2017: 239)." 11장 이후는 그 기쁨의 원천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회심의 사건을 기술하고 특히 1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은 문학의 언어가 상상력과 실재를 연결하며, 이미지와 상상력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을 깨닫는 과정을 담고 있다. 특별히 상상력이 실재와 연결되는 것은 루이스의 회심 과정을 가능하게 한 일종의 세례와 같은 사건이었다. 루이스는 우연히 접하게 된 조지 맥도널드의『판테스티스 (Phantastes: A Faerie Romance for Men and Women)』를 읽은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판테스티스〉를 통해 책이 실제 세상에 밝은 그림자를 드리워 모든 평범한 사물을 변모시키면서도, 정작 그 그림자 자체는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범한 사물이 그 밝은 그림자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본 것이다. [...] 그날 밤, 나의 상상력은 어떤 의미에서 세례를 받았다.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다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다.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판테스티스〉를 사게 되었는지 전혀 모를 일이었다 (Lewis, 1955/2017:262).

이후의 변화들은 루이스가 여러 개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세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루이스가 감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가 나의 소유가 아니고 원인에 대한 반응의 부산물이고,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행동과 일치된다(ibid.: 339)"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행동하는 경험 주체는 절대자의 실재에 이끌리지만, 일원론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유를 느끼는 존재라는 점이다. 루이스는 이러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포위하시기 전에 전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

라고 할 만한 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랬다(ibid.: 320).” 루이스는 이런 선택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필연성은 자유의 반대말이 아닐 수 있으며, 인간은 굳이 동기를 만들어 내는 대신 ‘내 행동이 곧 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지 모른다(ibid.: 322).” 이 같은 루이스의 사고는 말의 삼원적 기호과정에 해석 대행체로서 참여하는 해석행위가 바로 그러한 선택 행위와 유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나님에게 이끌리면서도 루이스는 신비한 현상적인 기쁨의 경험의 원천을 탐색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데, 이 과정은 말을 중재로 실재와 상상에 기반을 둔 설명, 즉 두 영역의 비교를 통한 해석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두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첫째, 무신론자 루이스가 유신론자가 되는 단계이다. 이 시기는 루이스의 상상력이 문학적 상상력(신비학, 마술, 초자연적인 것)에서 종교적 상상력(유신론적 관념론, 절대 영)으로 변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시와 문학을 접하던 20대 루이스는 문학적 이미지 자체에 몰두하며 상상력이 실재와 분리된 환상의 공간에 머문다. 다시 말해 말은 맥락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미지의 이름으로서만 기능하고, 따라서 맥락을 제공받지 못한 상상력과 고투하는 시기로 특징지어지는 시기다.

루이스는 이 시기에 의식과 무의식의 구분 대신 ‘무의식’, ‘향유되는 것’, ‘관조되는 것’이라는 세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기쁨을 기다리며 지켜보았는데도 얻지 못한 것은 향유되는 것을 관조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러한 깨달음은 상상력이 이미지에 대한 감각 지각이 아니라 세 가지 구분에 기초한 지각작용과 연관된다는 점이다. 잘레스키의 말을 빌리면, 루이스가 유물론적 관점에서 본 몸과 정신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데 영향을 미친 사무엘 알렉산더의 책 『시간, 공간, 신성(Time, Space, and Deity)』(1920)에서 ‘향유(enjoyment)’와 ‘관조(contemplation)’의 구별은 루이스의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모든 경험에는 두 가지 양상이 존재하는데, 지각하는 행위와 지각작용의 대상이다. 지각자는 **지각하는 행위**를 향유하고, 지각자는 **지각된 것**을 관조한다(Zaleski & Zaleski 2015:164: 강조는 필자의 것).” 루이스는 이 생각을 그의 철학 수업에서 설명하고, 학생들은 이 두 구별을 명확히 이해한 것 같다고 회상한다. 그리고 한 여학생이 자아에 관심을 두고 있던 또 다른 여학생에게 한 말에 주목한다. “그것은 마치 네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네가 눈을 벗어나서 그 눈을 보는 것을 원하는 것과 같아. 그러면 그 눈은 눈이 아닐 수도 있지(ibid.).” 루이스 학생의 대화는 퍼스의 경험과 지각과의 관계를 암시한다. 퍼스는 감각 지각과 사건(경험을 통한 지각의 변화)의 지각을 구별한다(Peirce, CP 1.335-336). 예를 들어 시지각의 경우, 지각자는 두 겹으로 대상을 본다. 즉 물리적 눈과 마음의 눈(the mind’s eye)을 통해서이다. 전자가 감각에 기초한 지각이라면 후자는 ‘경험’과 연관된 지각이다. 하지만 둘은 지각작용에서 연결되어 있다. 퍼스의 용어로 구분하면, 감각 지각과 결부된 지각대상(a percept) 또는 지각적 사실, 사건 경험으로서의 지각적 판단(a perceptual judgment),

경험을 통한 배움으로서의 지각내용(percipuum) 또는 해석된 지각이다. 지각의 행위를 향유하는 주체는 심리적 영역에 속하며, 지각 작용의 대상을 관조하는 주체는 '지각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과학적 지성으로서의 '기호적 자아(semiotic self)'로 이해된다. 루이스의 문제는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과대평가하고 그 경험의 대상을 과소평가한 점에 있었다. 즉 "향유되는 것을 관조하려 했다(Zaleski & Zaleski 2015:164.)." 이러한 사유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는 '내재적인 욕망의 변증법(inherent dialectic of desire)'을 발견한다(ibid.).

덧붙여 "이미지나 감각이 기쁨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정신적인 흔적에 지나지 않음을—파도가 아니라 파도가 모래 위에 남긴 자국에 지나지 않음을—비로소 알게 되었다(ibid.:314)"고 말한다. 그리고 이미지와 감각은 기쁨을 상기시키는 존재라는 점을 확인한다(ibid.: 314-15). 결과적으로 루이스는 그때까지 "누가 내 갈망의 대상이냐"라고 묻는 대신에 "무엇이 내 갈망의 대상이냐"라고만 묻고 있었다고 진술한다(ibid.:316).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그 무언가는 몸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존재이다. 왜냐하면, 몸처럼 감각의 옷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감각의 옷을 입지 않은 타자, 형상도 없고(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오만 가지 형상을 만들어 내서 절을 하지만) 무엇으로 규정되지도 않는 미지의 존재, 갈망의 대상이었다(ibid.:317)"고 판단한다. 이 시기에 루이스는 비그리스도인 작가 중 낭만주의자들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들 다수가 짙은 종교색을 띠고 있었고, 때로 기독교 냄새까지 풍겼다고 언급하기도 한다(ibid.:307).

무신론자 루이스는 주관적 경험에 기초한 이미지와 감각에 지배되는 문학의 환상적 공간에서 벗어나 이미지와 사물을 연결하는 '말'의 관계적 이미지를 매개로 실재 대상을 상상하게 된다. 즉 루이스의 상상력은 문학 언어를 매개로 상상과 실재가 상호작용하는 종교적 상상력으로 변화한다. 유신론자로 회심한 루이스에게 이미지(단순한 이미지)와 상상력(관계적 이미지)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이 된다. 이러한 관계는 한편으로는 이미지가 상상력에 의해 무한하게 계속되는 추상성에서 벗어나 고정되게 하는 효과를,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지로 인해 맥락을 제공받는 상상력이 이미지의 자질(보편성)을 확장하는 기능을 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미지와 상상력의 관계에 기반해 생성된 은유적 표현은 실재를 가정하는 가설적 주장으로서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일반적 관념을 얻는다.

실재 대상에 관한 관계적 이미지는 구조적인 유사성으로 인해 정신에 유사한 관계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달리 말해 유비 기호는 실재 대상을 구조적으로 유사하게 정신에 나타내도록 매개하는 다이어그램-도상이라고 이해된다. 이런 맥락에서 다이어그램을 통한 추리는 상상의 행위와 지각작용을 통해 다이어그램을 조작하는 과정. 즉 두 이미지의 관계를 상상하며 그것이 재현하는 실재 대상을 추리하는 정신의 실험으로서의 탐구 과정이다(Kaag, 2014:105-107, 111-118; Stjernfelt, 2007: Chap. 4). 예컨대 문학 기호에서 다이어그램의 관계 이미지를 매개로 한 상상의 행위에서 실재 대상의 관계 이

미지가 독자의 정신에 유비 기호로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문학 기호를 매개로 한 실재와 상상의 두 관계는 전체와 부분 혹은 부분과 부분의 관계가 해석자의 정신에 다이어그램-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실재 대상을 표현하는 문학작품에서 다이어그램-도상이 재현하는 대상은 구조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정신에 상상된 대상(형상화)으로 재현된다.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실재 대상과 상상된 대상 사이에 유사성의 자질을 해석하는(가치를 부여하는) 주체의 가설적 주장은 개념적 은유로 발전한다. 곧 상징의 양태로서 사고의 형태(재형상화)가 된다.

유신론자 루이스에게 상상된 대상(형상화)은 정신의 실험으로서의 다이어그램-도상을 매개로 사유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실재 대상의 형상화 과정에서 지각적 판단의 결과로서 나타난 은유적 표현의 통사구조에서 확인된다. 궁극적으로 은유와 상상력은 실재 대상을 탐구하는 앎의 도구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앎의 도구는 오웬 바필드(Owen Barfield)와의 영적 전쟁에서 기술되듯이, 루이스가 '의미(어떤 것에 대한 경험)'와 '지식(어떤 것의 존재 여부)'을 구별하려고 한 점(Thorson, 2015: 140)에서 루이스의 상상력이 성장하는 조건을 마련한다. 달리 말해 루이스는 상상력은 영적인 영역이 아니라 심리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믿게 되고(ibid. 150), 따라서 은유를 진리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로 접근하며 은유를 매개로 한 논증에서 상상력은 의미를 얻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 과정은 루이스가 회심 후, 상상력에 대한 형이상학적 관심에서 벗어났지만, 이 점이 자신이 문학을 통해 경험한 상상적인 경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개인적 경험을 '개별성(individuality)'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기독교와 문화"라는 주제의 글에서 나타나듯이 루이스는 이러한 개별성의 개념에 기반하여 문학을 매개로 한 상상력의 기능을 이성과의 협력을 통해 실재 대상을 탐구하는 기제로 이해하게 된다(ibid. 148-149). 개별기호로서 유비 기호(다이어그램-도상)를 매개로 사유하는 루이스는 정신의 다이어그램에서 작동하는 관계 이미지가 보편성을 지닌 실재하는 대상에 대한 이미지임을 깨닫는다. 그러한 실재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어떤 것으로의 사유 대상이다. 일종의 신화적 상상력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 방식이 현실의 대상을 더 깊게 사유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깨닫는다.

둘째, 루이스가 유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는 단계이다. 루이스는 마지막 15장 "시작"에서 1929년 자신의 회심은 유신론을 향한 회심이고 기독교를 향한 회심, 즉 성육신에 기초한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고백한다. 셰켈에 따르면, 회심 후 30대의 루이스는 상상력을 이성의 도구로 삼아 비평가와 소설가로서 활동한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유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루이스의 상상이 추상성에서 구체성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리어왕의 성격과 그리고 연극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그 성격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인 것처

럼, 말, 리듬, 그 연극의 구조가 그것들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주제' 혹은 '내용'과 분리될 수 없다(Lewis, 2013:53)"는 점에서 형식이나 물질은 추상적이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형태를 갖춘 물질이며, 육화된 형식이다. 즉 비극적 상황이나 혹은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닌 이러한 말에 체현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루이스는 미학적 경험과 인지적 경험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Lewis, 2013:52-53). 다시 말해 이미지가 외관을 통해 현실의 대상에 실재하고, 그 이미지의 형식(자질)이 육화되어 언어에서 형상화된다는 점을 루이스가 깨닫는다.

그 사고의 핵심에 **성육신(incarnation)**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서의 회심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도, 하나의 철학도 아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의 요지이자 실재이다(Lewis, 1955/2017:338)."라고 진술하는 루이스는 머릿속의 절대 영이 아니라 기독교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화창한 아침 윕스네이드의 동물원으로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한다(ibid. 338). 이 경험에 대해 루이스는 이것이 자유의지의 경험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될 경험이었을까 자문한다. 루이스의 결론은 최고점 즉 인간의 존재가 인간의 행동과 일치될 때 두 경험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ibid.:339).

루이스가 제기한 문제는 기독교적 상상력과 경험의 관계를 논하는 지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루이스는 기쁨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강조하는데, 마치 사냥개가 냄새를 잘못 맡은 것 같은 경우에서처럼 오류가 있어도 "경험은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는 있지만, 눈만 크게 뜨고 있으면 그리 멀지 않아 경고 표지판을 볼 수 있다(ibid.:256)"고 생각한다. 이어서 "사람은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경험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ibid.:257)"는 진술을 통해 경험이 우리 위에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루이스가 진술하는 두 형태의 경험은 다음과 같이 재진술될 수 있을 것이다. 필연적 경험의 경우는 원인에 의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험의 형태로서 수동적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사고에 머문다. 반대로 자유의지의 경험은 주관성과 우연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목적성을 상실하여 감각, 감정을 우상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두 형태의 경험은 이 둘을 연결하는 또 다른 경험으로서 설명될 수 있는데, 곧 둘을 비교하면서 연결하는 중재의 경험, 즉 '경험에 관한 경험'이다. 퍼스식으로 표현하면 배움의 경험이다(Peirce, EP 2: 11장). 즉 기호의 삼원적 관계를 통해 사고하는 경험으로서 가령 이미지-도상과 대상의 관계에 기초하여 표상체로서의 이미지가 대상의 무엇을 표현하는지를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지가 대상의 자질 자체를 공유하는지, 아니면 이미지가 그것의 대상을 가리키며 어떤 관계적 자질을 재현하는지를 식별하는 것이다. 이미지가 대상의 자질을 공유하면 마치 추상회화에서처럼 지각자는 우상과 신을 구분할 수 없는 느낌을 경험한다. 하지만 언어기호인 말에서처럼 이

미지가 대상을 표현하면 루이스의 지적대로 “마치 신과 우상이 가장 가까워진 지점인데도, 신과 우상을 혼동할 위험은 가장 적다(ibid.:261).” 왜냐하면 말의 이미지가 맥락을 제공하여 독자가 둘을 연결하는 경험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 맥락은 독자에게 시간과 공간의 개별 상황으로 나타난다. 이미지와 개별적인 상상력 사이에서 선택 행위, 즉 독자의 해석행위는 관계 이미지가 재현하는 대상의 실재에 대한 (가설적) 판단행위와 다르지 않다. 즉 말에 책임을 지는 증언 행위로서. 이는 지각적 판단에 기초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설적 주장으로서의 은유가 삼원적으로 만들어지며, 이런 점에서 은유는 진리를 탐구하는 가능성의 기호가 된다.

이성과 상상력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인 자서전작가로서 루이스는 자신이 20대에 경험한 기쁨을 탐색하는 과정을 지각의 경험을 통한 배움의 경험으로서 기술한다. 즉 기쁨의 자질이 먼저 존재하기에 그 효과로서 루이스가 그 기쁨을 지각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배움의 경험은 경험 자체와 그 경험에 대한 지각을 통한 배움이다. 이런 의미에서 루이스는 끝에 다시 기쁨의 주제로 돌아와 그 기쁨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말한다. 그것은 일종의 표지판의 역할을 한다. 그 표지판은 그 안에 쓰인 글자를 이해해야만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갈 수 있다. 이제 그 표지판 자체가 관심을 끌지는 않는다. 그러나 길을 잃었을 때는 그 표지판을 찾아야 한다(ibid.:340).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 기쁨을 지시봉 삼아 목적이 이끄는 여행을 하고 있음을 증언한다. 50대의 루이스가 이 책을 쓰는 행위 자체는 자신의 기독교적 상상력의 힘을 믿음과 증언의 형태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 변증가로서 루이스는 진리의 기호를 통해 의미를 탐구하는 경험의 증언을 그의 자서전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며, 우리는 루이스의 회심과 그것의 의미를 기호-대상-해석체의 삼원적 관계에서 발견한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의 이미지로부터 제공되는 맥락에서 실재의 대상을 상상하는 행위를 매개로 이성과 조화를 이루는 상상력의 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재현한다. 경험을 경험하는 배움의 경험을 통해서.

IV. 결론을 대신하여: 종교적 상상력과 경험에 관한 기호학적 함의

유진 피터슨은 『현실, 하나님의 세계(Christ Plays In Ten Thousand Places)』에서 창조성과 연관하여 ‘신성을 추적하는 탐정’이란 표현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임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의 증거로서 우리가 표적을 해석하고 말씀을 이해하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신성을 추적하는 탐정’으로 훈련시키신다(Peterson., 2005/2018:200).” 본 논문은 퍼스 기호학적 관점에서 ‘신성을 추적하는 탐정’의 태도로 진리의 기호를 탐색한 루이스의 회심 경험의 궤적을 기

술하고, 이미지와 상상력의 관계를 매개로 기쁨의 기호를 해석하는 회심 과정을 보였다. 앞서 언급되었지만, 루이스와 퍼스의 접점은 삼원적 철학에 기반을 둔 기호학과 문학에서 상상력의 기능이다. 퍼스의 '과학적 상상력'을 정신의 다이어그램-도상으로서 설명하고, 루이스의 문학에서 말을 매개로 한 '시적 상상력'이 실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리를 가리키며 해석자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였다. 다시 말해 기호과정은 과학적 상상력과 시적 상상력에 기반을 둔 진리의 기호를 매개로 기호 해석 대행자로서 기호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의미 탐구의 과정이다. 이러한 기호과정은 가능성의 기호를 중재로 진리를 탐구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 상상력과 경험에 대한 함의로서 유의미하다. 진리 기호의 표상체를 매개로 해석자는 경험을 통해 의미를 얻는 실제적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상상력의 기능은 루이스에게 회심이라는 실제적 결과로 나타난다. 즉 그것은 그가 경험한 기쁨의 실체가 진리의 기호로서 그것이 재현하는 것이 어떤 것을 갈망하는 마음, 즉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갈망에 대한 갈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되는 경험이다.

본 논문은 실재 대상에 관한 유추적 사유 방식인 은유의 개념을 토대로 퍼스와 루이스의 사유를 중첩시켰다. 루이스의 은유 개념은 삼원적 기호 모델에 기초하여 표현적 양태와 상징적 양태로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 표현적 양태는 도상적 기호로서 해석자에게 어떤 느낌 혹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한편 상징적 양태는 해석자의 정신에 어떤 사고를 불러일으킨다. 메타 도상으로서의 은유는 두 양태를 비교함으로써 자질의 유사성을 해석하여 그 결과로 의미를 발생하게 한다. 즉 은유는 기호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의미'를 추구하게 하는 모델-표상체로서 그것이 재현하는 실재 대상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기호학적 기제가 된다. 은유적 진리의 문제는 인지학(anthroposophy)적 관점의 오웬 바필드와 기독교적 관점의 루이스 사이의 "대전(Great War, 영적 전쟁)"에서 쟁점이 된다. 루이스에게 은유적 진리는 시적 상상력으로 가추적 추리를 통해 자질의 유사성을 해석한 결과인 '의미'에 존재한다(그것이 참이라면). 반면 바필드에게 최고의 영적 세계의 인간 자의식은 상상의 경험을 통해 진리와 거짓을 알 수 있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고, 따라서 은유적 진리는 '사실적 진리'에 존재하는 지식에 있다(Thorson, 2015: Chap. 7).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서 루이스가 성육신을 믿게 된 경험적 사건은 회심 이후의 그의 진술에서 더 유의미해진다. 즉 '기쁨'이라는 진리 기호가 자신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후 이제 그것이 이정표(지표)로서 외부의 어떤 다른 대상을 가리킨다는 사실이다. 즉 나를 벗어나서 타자를 향한 시선을 갖게 한다. 이 점은 루이스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표현으로서의 도상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해 삶의 여정 중에 경험하게 될 영적 성장에 대한 암시를 보여준다. 우리는 진리 기호의 해석과정은 상상력과 이성의 조화를 통해 실천할 수 있다

는 점을 루이스의 사유 과정을 통해 배운다. 즉 상상의 행위를 통한 유비 기호에 기초해 실재 대상과 상상된 대상을 비교하는 해석 능력이 그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루이스의 '경험에 대한 경험을 사유'하는 과학적 상상력을 통한 탐구적 태도와 진리가 이끄는 방향으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이다. 루이스의 상상력을 통한 사유는 일상을 습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관찰과 상상의 행위를 통해 창조적인 문화를 만드는 문화 활동을 함의한다. 개인의 사유는 공동체적 탐구와 문화 활동 안에서 더 풍성해지며, 결과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은 둘 다 발전, 성장하는 공진화의 기회가 된다. 궁극적으로 퍼스의 기호학적 관점에서 본 루이스의 회심 경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본질적 문제는 자아(self)에 대한 개념이다. 기호 해석 대행자로서 삼원적 기호과정에 참여하는 해석자는 역동적 대상과의 관계에서 숙고하는 주체로서의 기호적 자아이며, 이를 루이스에게서 발견한다. 즉,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비평가이자, 논증가이자 에세이스트로서의 루이스의 자아는 하나님의 정신에 속한 자아이며, 이는 퍼스가 주장하는 기호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주체성의 개념을 통해 드러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강유나 역(2017). **예기치 못한 기쁨**. Lewis, C. S. (1955). *Surprised by Joy: The Shape of My Early Life*. 서울: 홍성사.

[Kang, Y. N. (2017). *Surprised by Joy: The Shape of My Early Life*. Seoul: Hongsungsa. Trans. Lewis, C. S. (1955). *Surprised by Joy: The Shape of My Early Life*. HarperOne; Reissue edition, 2017)]

이윤희 역(2019). **퍼스 철학의 이해**. de Waal, C. (2013). *Peirce: A Guide for the Perplexed*. 개정판.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Lee, Y. H. (2019). *Understanding of the Philosophy of Peirce*. Revised Edition. Seou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rans. de Waal, C. (2013). *Peirce: A Guide for the Perplexed*. London; New Deli; New York; Sydney: Bloomsbury.]

이종태, 양혜원 역 (2018). **현실, 하나님의 세계**. Peterson, E. H. (2005). *Christ Plays In Ten Thousand Places: A Conversation In Spiritual Theology*. 서울: IVP.

[Lee, J. T. , Yang, H.W. (2018). *Reality and the World of God*. Seoul: IVP. Trans. Peterson, E. H. (2005). *Christ Plays In Ten Thousand Places: A Conversation In Spiritual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 Cambridge, U.K.: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Anderson, D. (1984). "Peirce on Metaphor." *Transactions of the Charles S. Peirce Society*. 20(4). 453-468.

Downing C. L. (2012). *Changing Signs of truth: A Christian Introduction to the Semiotics of Communication*. Illinois: IVP Academic.

Kaag, J. (2014). *Thinking Through the Imagination: Aesthetics in Human Cognition*.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Lewis, C. S. (2013). "Image and Imagination.". in Hooper, W. (2013). *Image and Imagination: Essays and Reviews by C. S. Lewi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wis, C. S. (1964). *The Discarded Image: An Introduction to Medieval and Renaissance Literatu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eirce, C. S. (1931-58).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8 vols. Ed. by C. Hartshorne and P. Weiss (vols. 1-6), and A. Burks (vols. 7-8).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P refers to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followed by the volume number and paragraph number].

Peirce, C. S. (1998). *The Essential Peirce: Selected Philosophical Writings* (vol. 2). Ed. by The Peirce Edition Project.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EP refers to The Essential

Peirce: Selected Philosophical Writings]

Raposa, M. L. (1999). *Boredom and the Religious Imagination*. Charlottesville and London: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Schakel, P. J. (1984). *Reason and Imagination in C.S. Lewis:* A Study of Till We Have Faces.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Stjernfelt, F. (2007). *Diagrammatology: An Investigation on the Borderlines of Phenomenology*, Ontology, and Semiotics. Springer.

Thorson, S. (2015). *Joy and Poetic Imagination: Understanding C.S. Lewis's "Great War"with Owen Barfield and its Significance for Lewis's Conversion and Writings*. Hamden, CT: Winged Lion Press.

Wilson, A. (2012). "The Perception of the Generals." *Transactions of the Charles S. Peirce Society*. 48(2). 169-190.

Zaleski, P. and C. Zaleski (2015). *The Fellowship: The Literary Lives of The Inklings: J.R.R. Tokien, C.S. Lewis, Owwen Barfield, Charles Williams*.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ebook.

퍼스의 도상적 기호와 종교적 상상력: C. S. 루이스의 회심 경험을 중심으로

Peirce on Hypoicons and Religious Imagination: An Analysis of Experience of Conversion of C. S. Lewis

이 윤 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초록

본 논문은 C. S. 루이스의 영적 자서전 『예기치 못한 기쁨』에 나타난 회심 과정을 C. S. 퍼스의 기호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루이스의 회심 경험에서 상상력이 갖는 기능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퍼스의 도상기호. 곧 이미지. 다이어그램. 은유의 삼원적 관계를 통해 작동되는 과학적 상상력에 기초하여, 가추적 추론에 기반을 둔 은유적 진리와 의미를 발견하는 기호의 과정을 루이스의 시적 이미지와 문학적 상상력의 경험을 토대로 논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루이스의 종교적 체험이 루이스 자신이 정의하는바 갈망 자체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기쁨'의 기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어남을 보인다. 따라서 루이스의 상상력이 물질적인 감각적 이미지에 기초한 상상력에서 사변적인 형이상학적 상상력을 거치면서 실재적이고 보편적인 상상력으로 이르는 진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루이스의 회심 경험이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그리고 유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는 두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밝힌다. 결과적으로 도상기호를 매개로 한 퍼스의 과학적 상상력과 '기쁨'의 기호를 매개로 한 루이스의 시적 상상력이 협력할 수 있고, 따라서 배움과 앎의 도구로서 종교적 상상력과 회심의 경험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주제어 : 『예기치 못한 기쁨』, 종교적 상상력, 도상기호, C. S. 루이스, C. S. 퍼스

『신앙과 학문』. 26(3). 83-123.
https://doi.org/10.30806/fs.26.3.202109.83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에서의 자녀교육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 개신교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A Qualitative Study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s in Children's Educa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Protestants

지 상 선 (Sang-Sun Ji)**
현 은 자(Eun-Ja Hyun)***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experience of education children of mothers escaping from North Korea.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10 mothers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The data were constructed by conducting one-on-one in-depth interviews. The researchers analyzed according to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ground theory suggested by Strauss and Corbin (1998).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open coding, 13 categories, 32 subcategories, and 124 concepts were derived. In axial coding, the causal condition appeared as fear of exclusion from the center that forced assignment of the status on the people around, the causal condition appeared as fear of exclusion from the center and forced assignment of the status on the people around, the phenomena appeared as psychological to go back to the past and artificial oblivion of reality in self-concealment, and the contextual condition appeared as distrust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alienation from the private education, fading hope, people around the education and cultural impact. And the intervening condition appeared as minority solidarity and Protestants community help, Action/interaction appeared as a challenge in optimistic expectations and capitalization of strong vitality, and finally the consequence is categorized as possibility planning.

* 2021년 8월 19일 접수, 2021년 9월 10일 최종 수정, 9월 13일 게재 확정.
** 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아동청소년학과 박사수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moathink@hanmail.net
*** 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전임교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hyunej6029@gmail.com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were that the support and sponsor of the church played a major mediating role in that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overcome educational failures and frustrations before dreaming a new dream.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researchers discussed the church's support and specific approaches to the educ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children.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Children Education, Church Community, Cultural Heterogeneity, Human Capital

Ⅰ. 서 론

현재 한반도에는 21세기 판 출애굽(exodus)이라고 할 정도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거 입국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극심한 기아와 경제난을 피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점차 그 수가 증가하여 2020년 3월 기준 총 33,658명이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다(통계청, 2021). 북한이탈주민들은 단신으로 월남하여 한국에 먼저 정착한 후 자녀들을 불러드리거나 청소년들의 단독 탈북 등의 유형으로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과의 문화적 차이, 부모와의 관계, 남한 주민들의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이 원인이 되어 학교생활은 물론 사회 적응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윤나, 2010: 90; 김영하, 2010: 223;백인옥, 2020: 53). 북한 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적응과 함께 자녀의 적응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단지, 북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족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정윤경 외 (2015)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주민들로부터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차별 경험은 그들의 자활 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주민들의 고정관념이자 문화적 지체 현상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남북 분단의 결과일 수 있다. 남과 북은 오랜 분단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군사적 대치와 충돌, 서로 간에 적개심을 갖는 사회적 정서가 최근까지 이어오고 있다. 사상 역시 남한 주민들은 반공 이념을 사회화했지만 북한은 주체사상을 사회화했다. 이렇듯 적개심과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기에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해묵은 이질적 감정이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Sebastian & Kim, 2008: 161-163). 그런데도 우리는 통일을 지향한다. 통일은 외세에 의하여 훼손된 민족 국가로써 정체성 일치의 회복뿐만 아니라 기독교 복음에 기초한 화해와 수용이다(Grinker, 1998:118-120).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잃어버린 형제로 간주하고 그들을 우리 사회에서 포용해야만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고난의 행군으로 대표되는 북한 정권의 독재와 경제적 위기, 인권 탄압 속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했고 생존을 위해 탈출했지만, 남한 사회에서도 소수자의 위치에 서서 낙인과 편견이라는 또 다른 트라우마를 경험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을 거쳐 남한에 입국한 과정 자체가 혹독한 트라우마 그 자체라 할 수 있다(김규보, 2020: 9). 개신교 교계에서도 이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긍휼과 사랑의 실천적 접근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많은 연구 중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교육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북한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한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부모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의 부적응과 그들의 일탈은 남한 사

회에 진입하기 위한 통과의례와 성장통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문제를 수준이 낮은 부모의 역할 또는 비행과 부적응으로 접근하는 연구 경향도 있다(김윤나, 2016: 54-55; 장정숙, 2021: 700-707).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자녀교육의 의미는 생애 과업이다. 외국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주민 자녀의 교육은 자녀들의 자아 효능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을 획득하게 하여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Karoly & Gonzalez, 2011:71). 북한 이탈주민과 같은 이주민들은 이주한 사회 내에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인적 자본도 취약하다. 이주민들이 모국에서 취득한 경험과 기술은 많은 경우 이민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들의 사회적 기술은 저하되고 임금수준도 낮아지게 된다(Lancee & Bol, 2017: 709-711).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교육이다. 교육은 이주민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이주민 부모의 정서적 치유의 기회와 긍정적 양육 전략은 그들의 창조적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이주민들의 자녀들의 성장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자녀들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사회 적응에 필요한 자원을 주체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Yuen, 2019: 12-13). 이렇듯 북한 이탈주민 자녀 그리고 교육을 하나의 큰 틀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사회에 진입한 후 다양한 사회적 만남을 경험한다. 사회적 만남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모든 개인에게 있어서 만남은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에게 기독교와의 만남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통과의례 수준이 아니라 탈북 과정에서 생성된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남겨진 가족에 대한 걱정과 불안, 낯선 사회의 적응 문제, 불행한 삶의 역사에 매여있는 현재의 상태를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을 제공 할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만남은 새로운 삶의 레토릭이라고 할 수 있다(한정우, 2016: 134).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의 진입 후 그들이 경험한 기독교의 만남에서 그들의 적응과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 선행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낮은 학업 성취도와 학력 결손(김윤나, 2013: 2-3),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기질적 특성과 환경과의 갈등(김윤나, 2012: 119-121),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과 해결방안(백인옥, 2020: 53),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과정(정다운, 김병수, 2019: 29), 북한이탈 청소년 대학진학 준비 경험(정영선, 이승연, 2020: 721) 등이 존재할 뿐 북한이탈 주민 자녀들의 교육을 개신교적인 맥락에서 다룬 질적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녀의 남한 입국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유아기 때부터 교육에 대한 열의가 나타난다. 북한은 무상교육 시스템을 제도적 장치로 구축했고 모든 주민에게 무상교육을 해 왔다고 선전하지만, 실상은 당 간부와 특수계층 그리고 일반 주민들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김예영, 2012: 27-30)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입국한 후 교육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

고 있다. 하지만 남한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높은 사교육비 부담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과 같은 불행한 삶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자녀교육에 열중하지만, 남한 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따라가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김미정과 정계숙(2007: 90-92)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주민들의 높은 교육열을 학습하고 자신들의 자녀가 또래들과 비슷하거나 우월한 학습 수준을 갖길 원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어려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교육적 이질감에 따른 격차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이윤진 외(2012: 3) 연구에 의하면 자녀 학습지도의 고충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는 한글과 외래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자녀들이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했다. 높은 교육열과 함께 사교육 경쟁도 학습한다. 무상교육 체제에서 살아 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매우 생경하다. 홍주은(2003: 79-81)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의 높은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 그런데도 자녀 교육에 모든 희망을 걸었기에 어려움을 감내하며 자기 삶의 에너지를 자녀 교육에 투입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적응은 탈북 동기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경제적 목적에 의하여 탈북한 사람들은 심리적 적응이 낮게 나타나지만, 자신의 꿈과 자녀의 교육 등 미래 지향형 탈북 동기를 지닌 사람은 심리적 적응이 높게 나타난다(정정애 외, 2013: 215). 북한이탈주민들은 단순한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동기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은 그들의 지상 과제가 될 수 있다. 북한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남한의 사교육 문화와 치열한 경쟁 등은 낯설고 두렵고 때로는 남한 사회에 온 것을 후회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김윤나, 2014: 81-84). 또한 정병호 외(2007)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과는 다른 교육 시스템의 어려움, 부모가 북한이탈 주민임이 밝혀져 자녀들에게 가해지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교사들과의 의사소통 문제 등이 고충으로 제기되지만(김윤나 2014: 78, 재인용), 그럼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원인 중 가장 강력한 생존 욕구에서 벗어나 다른 측면으로 전이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의 만족감과 자부심이었다(김미정, 정계숙 2007; 90). 이들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 동기에 있어서 자녀의 교육은 자신과 자녀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과정이자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자녀 경험에 관한 소수의 질적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의 진입이 수월하지 않음을 체감하고 자녀교육이란 현실에 부딪힌다. 홍승아(2013: 190)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공통의 문제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이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물적 토대가 열악하고 교육 자본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학습 의욕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북한의 서로 다른 시스템과 처음 접하는 학과목과 특기 교육 등으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김윤나, 2013: 2-4). 특히 자녀들이 또래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이러한 우려는 김현철 외(2015: 171-172)의 종단 연구에서 보고되었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녀가 탈북자 자녀라는 사회적 낙인을 받지 않게 하려고 탈북자 가족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은폐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어진다. 하지만 남한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후일, 외부로부터 탈북자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더 큰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혼란을 겪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 학생들과는 또 다른 발달 진통을 치른다. 그러나 난관의 극복 과정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한다(장정은, 최정숙, 2015: 404).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남한의 제도와 문화 이해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에 고충을 겪지만, 주변의 도움과 본인의 노력을 통해 난고를 극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교육과 같은 전문 프로그램 참여가 지지적 요인이 될 수 있다(김성남, 양옥경, 2015: 5).

지금까지 연구 주제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교육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 중 사교육과 대학 입시에 경도된 교육 시스템 등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장기간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하지만 문화적 이질성과 경제적 부담 그리고 자녀교육과 소통의 문제 등은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자녀교육 어려움과 교회의 지지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서의 교육 경험과 교회와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교육 경험을 근거자료로 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의 어려움과 함께 교회의 개입과 지지 등이 북한이탈 주민과 자녀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자녀 교육 경험의 어려움을 생생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그들을 지원 할 수 있는 개신교 선교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논의와 제언을 도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에서의 자녀교육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 방법으로 선정했다. 이론적 표집이란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전형적인 표본 추출 방법으로써 자료 수집을 종료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참여자 선

정과 자료수집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특히 이론적 표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기준으로 한다, 즉 인터뷰를 수행하고 자료를 분석한 후 개념을 도출한다. 그리고 그 개념에 근거하여 또 다른 개념을 밝힐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개념이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론적 표집은 자료 수집 방법인 동시에 자료분석 방법이다(Glaser, 1992). 이렇게 분석하여 도출된 개념을 통해 다시 연구 질문을 구성한 후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다(Corbin & Strauss: 2015: 138-160). 연구자는 첫 번째 연구참여자의 만남에서 구술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하였고 그들의 경험 속에서 사교육 부담이란 개념을 도출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사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의문을 품고 중위 소득 이상인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 참여자 수는 모집단의 규모, 연구자의 연구 주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근거이론의 경우 10명에서 20명 사이를 선정한다(김창희, 2017: 59-60; 정국인, 2014: 31-33). 특히 Kuzel(1992: 22-54)은 동질적 집단의 경우에는 8-10명, 이질적 집단이면 12-20명 정도를 권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 참여자들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이고 개신교이며 어머니라는 동질적 집단이기에 10명의 연구참여자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Table 1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구분	연령	한국거주기간 (북한거주기간)	교육수준	학교급별	자녀출생지	세례교인여부
연구참여자1	30대	7년(24년)	고졸	초	남한, 중국	세례교인
연구참여자2	40대	4년(26년)	전문대3년졸	유, 중	중국, 북한	세례교인
연구참여자3	40대	2 년(40년)	고졸	고	북한	세례예정
연구참여자4	40대	2 년(21년)	고졸	초	중국	세례교인
연구참여자5	40대	10년(20년)	대학졸	중, 고	중국	세례교인
연구참여자6	40대	8년(27년)	전문대 2수료	초, 중	중국, 북한	세례교인
연구참여자7	50대	18년(34년)	고졸	대	북한, 중국	세례교인
연구참여자8	50대	7년(20년)	고졸	고	중국	세례교인
연구참여자9	40대	2년(21년)	고졸	초	중국	세례교인
연구참여자10	40대	10년(25년)	고졸	고, 대	중국, 북한	세례교인

(2) 자료수집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과 1:1 심층 면접을 수행하여 구성했다. 질적연구 심층면담에서는 구조화된 질문지, 반구조화된 질문지, 비구조화된 질문지로 접근하는데 Corbin과 Strauss(2015)에 의하면 근거이

론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하는 구술 자료와 다양한 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구조화된 면담이 적절하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연구자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비구조화된 면담을 수행했다.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했고 이를 문자본으로 전환하여 원자료(raw data)로 삼았다.

(3) 근거이론의 자료분석

근거이론 연구에 근거이론의 자료분석 특징은 코딩이다. 코딩은 자료를 분해하여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Corbin과 Strauss(2015)는 개방코딩, 선택코딩을 제시했으나 그의 초기 저서에서는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으로 자료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자들은 원자료를 분해하여 줄 단위 분석으로 개념을 구성했고 이를 하위범주, 범주로 구성했다. 그리고 개방코딩에서 구성한 범주들을 축코딩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현상(phenomenon),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작용/상호작용(action/ interaction)그리고 결과(consequence)의 패러다임 모형에 재배열하여 범주 간의 관계를 정렬했고 참여자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선택코딩에서는 핵심 범주를 제시하여 모든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통합하는 새로운 범주를 제시했다.

(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문제

① 연구자의 엄격성

연구자는 근거이론 연구의 엄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Liebow(1993)가 제시한 장기간에 걸친 라포르 형성,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동료 지지 집단의 구성, Denzin(1978)이 제시한 다원화 전략, Padgett(1998)이 제시한 연구참여자를 통한 확인 전략으로 접근했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과 일 년 이상 관계를 유지했다. 장기간에 걸친 이러한 라포르 형성은 연구자의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참여자들의 반응성과 인위적 회피 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둘째, 연구자는 북한 이탈 주민 실천가 중 교육과 북한 이탈주민의 삶을 지원하는 실천가 1인, 근거이론 연구를 다수 수행한 연구자 1인을 동료 지지집단으로 구성했다. 동료지지집단은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을 예방하고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자료분석과 기술을 종료 한 후 연구자들과 다시 포커스 그룹(FGI) 형태의 모임을 했고 연구 결과를 제시한 후 그들의 의견을 구했다.

② 연구의 윤리적 문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사생활과 비밀 보호를 위해 연구자와 관계된 모든 사항은 익명 또는

부호로 표시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한 후 서면 동의를 구했다. 셋째, 연구에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음을 문서로 보장했다. 넷째, 연구참여자가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을 고지했다.

III. 연구 결과

1. 자료의 범주화 : 개방코딩(open coding)

개방코딩은 원자료를 분해하여 개념, 하위범주, 범주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연구자들은 원자료를 줄 단위 분석(line by line)하여 개념 124개, 하위범주 32개, 범주 13개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을 인과성과 유사성 차원에서 재결집하여 보다 추상화된 수준에서의 하위범주를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하위범주를 또 다시 결집했고 추상화 수준을 높여 범주를 구성했다. 개념, 하위범주, 범주의 목록과 그 관계는 <Table 2>와 같다.

이와 같이 구성한 범주들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인과적조건(causal condition), 맥락적조건(contextual condition), 현상(phenomenon), 중재적조건(intervening condition), 작용/상호작용(action/ reaction)그리고 결과(consequence)의 패러다임에 범주 간의 관계를 정렬했으며 참여자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제시했다.

Table 2. The Results of Categorization of Data

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 념
인과적 조건	중심부 배제로 인한 주변인 지위	학력 피로사회	모두가 대학을 가야만 하는 한국은 학생 모두가 피곤한 사회
			북한에서 기아와 고통보다 남한에서 교육이 더 어려움
			대학이 인생을 결정하는 구조 속에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는 우리 아이는 이미 낙오자
			북한은 출신 성분, 남한은 대학이 미래를 결정하기에 남이나 북이나 힘든 것은 마찬가지
		경쟁 스트레스	경쟁은 필요하지만 너무나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고 안쓰러움
			남한의 교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치열한 전쟁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나의 아이는 경쟁력이 떨어짐
			북한에서는 스스로 공부하라고 교육했지만, 남한에서는 억지로라도 공부하라고 가르침

인과적 조건	중심부 배제로 인한 주변인 지위	소통의 격절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위축을 우려하고 학부모 모임에 나가지 않음
			학부모 모임에서 과외 학원 자랑하는 엄마들 때문에도 다시 상처를 받음
			학부모 모임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이 교육보다 자동차 아파트 월급 이야기
		탈북민 낙인	아이들에게 낙인을 줄 것을 우려하려 강원도에서 태어났다고 거짓말함
			자녀에게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며 북한 출신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교육함
			아이에게는 북한 출신을 숨겼지만 아이는 이미 알고 있음
			북한 학생 특별전형이 있지만, 원서를 쓸 때까진 불이익을 염려하여 말하지 않음
			임대주택에 산다고 하여 멸시받는 자녀들
			자녀에게 북한 출신을 숨겨야할 때의 참담함
현상	과거로의 회기 심리	현실부정 차원의 회귀 소망	자녀 교육만큼은 돈이 들지 않는 북한에서 시키고 싶은 마음
			돈 없어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북한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
			자본주의 사회의 실상을 모르고 온 것에 대한 실망
			배가 고파도 공부에 목숨 걸지 않았던 북한이 그립다고 말하는 자녀
		편견 피해 경험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남한 사람들은 가정교육을 들먹임
			남한 가정보다 가장 교육을 잘 시켰지만, 학교 부적응을 모두 가정교육 탓으로 돌리는 교사
			자녀가 노력하여 좋은 성적을 내자 개 발에 땀났다고 놀리는 아이들
			탈북민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자녀는 남한 학생들의 정원을 깎아 먹는 존재
		부모의 존재 감추기	담임교사 상담 요청이 있어도 아이는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함
			북한 출신 엄마가 창피하다고 학교에 오지 말라는 아이
			남한 학생들에게 치이고 성적이 떨어진 자녀는 남한으로 자신을 데리고 온 부모 원망함

	인위적 현실망각	지지 이면의 낙인	북한 출신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
			북한 출신 특별전형은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낙인
			북한 출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아이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함
		억지 위안과 희망	공부 이외도 다른 길이 있다고 위로했지만 생각해 보면 다른 길이 없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위로하지만 자기변명에 불과함
맥락적 조건	부모-교사 간의 불신감	학생인권 과잉	학생들에게 휘둘리는 교사에 대해 실망함
			북한에서는 학교가 엄마라고 가르쳤지만, 남한에 교사들은 아이에게 잘해주는 데만 신경씀
			때려서라도 아이를 교육하면 좋겠지만 남한은 내버려둠
			학교에서 아이의 습관을 잡아 줄 것을 기대했지만 버릇없는 아이로 만드는 학교
			학생 인권만 강조하는 학교는 인성 교육은 뒤로 처짐
			가족을 생각하던 자녀도 남한 학교에 온 후 이기적으로 변함
		존중받지 못하는 교사	학교발전 모임이 교사 성토장으로 변함
			교사 덕분에 아이의 생활이 바뀌었다고 하자, 부모들은 입을 닫음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학부모들에 대한 실망
	사교육 소외	사교육 지상주의	학교는 뼈대를 알려주지 않고 살만 알려주며 부족한 것은 학원에 의지함
			남한에서는 학교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사교육이 해결함
			공교육은 사라지고 학원이 자녀의 장래를 결정하는 구조
		높은 사교육 문턱	학원에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아 학교 교육에 충실할 것만 요구함
			자본주의 사회에 오니, 공부도 돈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됨
			학원을 가고 싶어도 돈 때문에 눈치 보는 아이들
			복지는 잘되어 있지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힘듦
			남한 엄마들은 유치원 따로 학원 따로 보내 한글을 떼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학원처럼 배우는 어린이집을 선택
			북한은 학교 보내는데 경제적 부담이 없음

맥락적 조건		높은 사교육 문턱	학원을 보내고 싶지만,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마음만 아픔
			학교보다 학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학교에서 학원 보낼 돈이 없음
			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한 것을 알면서 교과서에 충실 하라고 할 때의 아픈 가슴
			남한에서 자유는 얻었지만, 돈을 얻지 못해 아이 공부를 충분히 시킬 수 없음
			다문화 대안학교에 정을 붙이고 있지만, 원적 학교와는 점점 멀어짐
	멀어지는 희망	생계 교육 방임	투잡, 야근까지 하며 생활을 했기에 자녀들은 스스로 자기 일을 처리함
			일에 지쳐 집에 오면 아이의 공부를 봐줄 시간이 없음
			생활에 쪼들리고 지쳐 자녀를 돌볼 여력이 없음
			자녀 돌봄과 교육보다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시급함
			생활고 때문에 자녀의 공부는 후 순위
		우울한 자녀의 장래	중학생이 되었지만 로마자 알파벳도 모르는 아이로 인해 걱정이 태산임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 시장에서는 도태될 것 같은 느낌
			부모의 인맥이 없기에 도움 없이 살아가야만 한다는 예감
			결혼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불안감
			탈북민 낙인이 자녀와 손자와 대물림될 거라는 예측
		희망의 퇴색	공부 못하는 아이, 북한 출신이라는 이중의 낙인으로 꿈을 잃어가는 자녀
			모진 노력을 해도 남한 학생들을 따라잡지 못하자 더욱 좌절하는 자녀
			초기의 부푼 꿈은 사라지고 자녀들은 희망을 잃어감
	교육 주변인	출발선이 다름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을 떼고 들어가는 남한 학생들과는 격차가 발생
			선행 학습을 하는 남한 학생들을 쫓아갈 수 없음
			북한과 중국에서 살아남은 강인한 생명력도 학력 신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
			기초학력이 부족하기에 두 배 세배 노력을 해도 따라가기 힘듦

맥락적 조건	교육 주변인	교육 게토에서 살기	학교 적응이 어려워 대안학교를 보냈지만 이를 배려보다 배제로 생각함
			대안학교에 다니며 일주일에 한 번 본적 학교로 오는 아이, 같이 밥 먹을 친구조차 없음
			다문화 대안학교에 정을 붙이고 있지만 원적 학교와는 점점 멀어짐
			북한 출신 대안 학교에 보냈지만, 유배 보내는 느낌
			대안학교에 다녔으니 대안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대안학교는 공부보다는 적응에만 중점을 두기에 오히려 퇴보함
	문화적 충격	교육 시스템의 지체	중국, 북한, 남한의 교육 방식이 다르기에 자녀는 혼란스러워함
			자신이 북한에서 받은 교육방식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없음
			남한 엄마들의 교육 방침을 따라가고 싶으나 뱁새가 황새 따라 갈 수 없는 법
		과거의 학습 유산 버리기	북한에서 배운 모든 공부는 한국에 온 순간 모두 쓸모가 없어짐
			사회주의 사상, 주체 사상은 남한에서의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중재적 조건	소수자 연대	탈북자 공동체 지원	탈북민 출신 대학생이 스스로 과외를 자청함
			탈북민 교육 정보 공유
			남한 학생들에게 따돌림당해도 탈북학생들끼리는 뭉치고 단결하여 주체성을 세워감
		동병상련의 상호지지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과 서로 도우며 자녀의 공부를 걱정함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이웃이 도움이 되고 자녀의 공부를 봐줌
			자녀가 엇나가고자 할 때 바른길을 인도하는 이웃
	개신교 공동체의 도움	교회의 돌봄	돌아온 형제로 대우하는 교외에서 사랑을 배움
			교인들의 도움으로 적응과 공부에 자신감을 얻어감
			남몰래 간식을 건네주는 사모의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용기를 찾음
		교회 교사의 배려	편견 없이 무조건 지지를 하는 교사로부터 용기를 얻음
			탈북민에 '탈' 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교사
			예배가 끝난 후 일부러 불러 학습을 지도하는 정성

작용/상호작용	낙관적 기대속의 도전	긍정적 피드백 주기	아이의 꿈을 꺾다가 인정을 해주자 긍정적인 성격으로 바뀜
			낙심하는 자녀에게 북한보다는 좋다고 격려함
			공부보다는 인성이 좋아야 한다는 지속적 교육
			남한 아이보다 공부는 떨어지지만, 생존력은 앞서간다고 교육함
		한계 속에서 방향수정	중국에 있을 때는 남들보다 앞서가길 바랐지만, 한국에서는 자신의 꿈을 키우기 바람
			열여섯 살 때, 남한에 왔기에 한국 학생들을 따라잡을 수 없어 실업계 고등학교로 옮길
			대학의 꿈을 접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권유함
			남한 아이들과는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북한으로 돌아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함
		경쟁력 틈새 영역개발	수학 국어는 못 해도 중국에서 성장해 중국어는 잘하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남한 학생들이 기피하는 영역에서 자립할 준비
			통일을 대비하여 자본을 모음
	강한 생명력의 자본화	사선을 넘은 용기의 소환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기에 남한에서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님
			어려울 때마다 중국에서의 공포를 떠올리고 그것이 힘이 됨을 느낌
			총살당하지 않고 한국까지 왔으니 공부도 이길 자신이 있음
		축적된 인내심	북한, 중국, 한국에서 닦은 인내심은 공부 낙오자라는 낙인을 벗어 버릴 수 있음
			인내는 쓰지만, 그 인내를 여러 번 했기에 성적이라는 열매를 맛볼 자신감
			공부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하지만 어려움을 이겼기에 또 다른 자신감
			남한 학생을 추월하기가 어렵지만, 지금까지 이겨낸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
		내핍생활을 통한 인성교육	남한에서 생활이 어렵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역시 또 다른 공부
			학교 공부는 뒤처지지만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있음
			젊어서 가난은 돈 주고도 산다는 말처럼 절약하는 습관을 통해 더 큰 나무로 성장시키고자 함

결과	가능성 기획	예단 내려 놓기	자녀의 미래가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으로부터 탈출
			성공도 실패도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음
			흙수저가 금수저는 될 수 없어도 닦으면 스테인리스 수저는 될 수 있음
		개방적 생활 양식	아이들에게 오히려 배우고 일에 대한 불안을 머릿속에서 삭제함
			남한 사회는 북한보다는 희망 있는 삶의 장이라는 인식
			꼴찌도 역전할 수 있다는 사고의 촉진

(1) 인과적 조건

중심부 배제로 인한 주변인 지위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를 학력 피로 사회로 의미를 구성했다. 대학이 인생을 결정하는 구조 속에서 연구참여자의 자녀들은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북한에서 경험한 기아의 고통보다 남한의 교육이 더 어렵다는 구술을 했다. <연구참여자 3>은 대학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 중요해요. 나는 토대가 나빠서 대학도 못 갔어요. 남한에 오니까 토대는 없어졌는데, 대학이 미래를 결정하잖아요. 힘든 것은 어디 가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를 대학 입시 위주의 경쟁으로 분석하는 관점이 많다. 연구참여자들 역시 남한의 교육을 치열한 전쟁으로 묘사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힘들어하는 자녀를 볼마다 안쓰럽지만, 강압적으로 공부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 "남한은 경쟁 사회니깐 거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죠. 남한 아이들은 경쟁 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경쟁력이 없어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단순히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위축되었다고 했다. 자신들 역시 학부모 모임에는 참여를 꺼렸다고 구술했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학부모 모임은 자녀 문제와 학교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하기 보다는 서로 자랑하기에 바빴고 특히 과외와 학원을 자랑하는 부모들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했다. 고비용의 사교육과 학원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연구참여자들에게 학부모 모임은 패배감을 다시 확인하게 했고 이로 인해 학부모 모임과 거리를 두었다.

> "부모 모임에서는 늘 그래요. 자기 자랑만 하니까, 화가 나지만 돈이 어마 무시하게 들어가니깐 우리는 근처도 못가. 열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학부모 모임은 가기가 싫지." (연구참여자 9)

북한이탈 주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본인의 물론 자녀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낙인이 따라왔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게 북한 출신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교육했고 <연구참여자 1>은 부모의 말투가 강원도 말투와 비슷해서 강원도 출신이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이러한 가장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에게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숨길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고 참담함까지 느꼈다고 했다. 대부분 연구참여자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임대 주택에 살고 있기에 아파트 이름과 동호 수 등이 노출된 상태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탈북민은 그 자체가 낙인이라고 의미를 구성했다.

> "임대 주택에 사니깐 고맙고 한국 사람들도 임대주택에 살기가 어렵잖아요. 고마운 건 있는데 또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어디 어디 산다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쪽에 많이 사니깐…, 아! 탈북민이다! 애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친구들도 그렇고 다 멸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술 취한 사람에게 너희 나라로 가라!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연구참여자 5).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신의 자녀들은 경쟁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대학은 물론 직업 선택까지 영향 받을 것을 우려하여 한국 사회에 중심부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함을 나타냈다. 한국에서 주변인 주위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여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중심부 배제로 인한 주변인 지위로 범주화했다.

(2) 맥락적 조건

① 부모-교사 간의 불신감

사교육을 충분히 시키지 못하는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와 같은 공교육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학교는 인성 교육은 부재하고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휘둘리는 것으로 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교사가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학생과 학부모 눈치만 보는 구조 속에서 인성교육은 후 순위가 되었다는 의미를 구술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자기보다는 가족, 사회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남한에 오니깐 애들도 자기만 알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학교에서는 교사도 애들에게 휘둘리고 그놈의 인터넷인가 뭔가 때문에 우리 애들도 내 새끼도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떤 땐 괜히 왔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 학교를 엄마, 선생님은 아버지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서 교사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초창기 학부모 모임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6>은 교사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교사에게 험담만 하는 학부모들로 인해 남한 학교에 실망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4>는 학부모 모임에서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애가 생활 태도가 바꿨어요."라고 이야기하자, 부모들은 교사를 칭찬하기보다는 입을 닫았다. 학부모들에게 교사는 만만한 존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교육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우리 아이가 생활 습관이 안 좋았어요. 이도 잘 안 닦고 그러니깐 학교 가서도 따돌림받을 게 뻔하지. 선생님이 잘 가르쳤어요. 우리 애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깐 '아, 훌륭한 선생님이구나!'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나를 뻔히 쳐다보더니 말을 안 해요." (연구참여자 4).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기대했던 공교육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부모-교사 간의 불신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교사 간의 불신감으로 범주화했다.

② 사교육 소외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한국은 사교육 왕국이다. 공교육은 이미 사라졌고 학원과 과외 등이 아이의 장래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모든 연구참여자의 경험은 모든 남한의 학생들은 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들을 비롯한 교육 소외 계층은 점차 비전을 잃을 수밖에 없음을 구술했다.

"남한에 진짜 학교가 필요할까? 다 학원에서 배우는데…,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 말씀을 더 무섭게 알고 쩔쩔 매. 학원도 계급이 있잖아. 잘 가르치는 데는 엄청 비싸고 우리들은 보내도 싼데 밖에 못 보내니깐…."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복지는 잘 갖춰져 있지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에 힘듦을 토로했다. 연구참여자들은 고액 학원에 보낼 수 없어 학교 교육에 충실 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지만 그것

이 허망함을 곧 알게 되었다. 자녀들은 학원에 가고 싶지만 돈 때문에 엄마의 눈치를 보고 남한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돈을 얻지 못해 아이들을 충분히 공부시킬 수 없다고 구술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사교육이 대학 입시와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는 구조 안에서 교과와 학교에 충실 하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 아픈 경험을 했다.

> "남한에 오면 1년도 안 돼서 다 알아요. 여기선 돈이 최고지. 머리 좋고 열심히 노력해도 한계가 있죠. 근데 돈이 없으니깐….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책 열심히 보면 공부 잘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아들내미는 착해서 믿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하고 있구나…. 누군들 학원에 안 보내고 싶겠어요. 자부담이 어려운데…." (연구참여자4).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사교육이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를 사교육 소외라고 범주화했다.

③ 멀어지는 희망

북한 이탈 주민들은 초기 정착금, 임대주택, 직업 알선, 한시적인 기초생활수급 지위를 보장받지만, 그것으로 한계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인적 자본이 취약하고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투잡 또는 쓰리 잡을 하는 연구참여자, 야근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특히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해야 하는 연구참여자들도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의 돌봄과 공부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생활고로 인해 교육의 방임으로 이어졌다.

> "남한에 온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살라고 온 게 아이예요. 북한에 있어봤자 앞날이 빤하니깐. 근데 여기서는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하고, 북한에 두고 온 애가 하나 있는데 북에 있는 엄마에게 생활비도 보내야죠. 근데, 100만 원 보내면 엄마한테 가는 건 40만 원, 50만 원 밖에 안 돼요. 중간에 브로커가 다 떼먹어요. 공부는 시켜야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연구참여자 10).

모든 연구참여자는 자녀의 장래를 생각할 때마다 우울함에 빠진다고 했다. 중학생이 되도록 로마자 알파벳도 모르는 자녀들도 있었고 특히 남자아이가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업 그리고 주택 마련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결혼도 어려울 것이란 불안감을 지니고 있었다. 특례 입학으로 대학에 진학해도 경쟁력이 남한 아이들보다 취약하여 취업 시장에서 도태된다고 예측했다. 또한, 탈

북민이라는 낙인과 지위가 손자에게 대물림될 것을 걱정했다.

>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게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좋은데 남한에서 맨날 그러잖아. 금수저, 은수저 이게 내 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식, 손자새끼까지 이어지면…, 근데 8, 90%는 그렇게 될 것 같아…."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들은 남한 입국 초기에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한다. 자신은 물론, 자녀들 역시 모진 고생을 하고 사선을 넘었기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후발 주자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10>의 자녀는 남한 학생들보다 몇 배의 노력했지만, 상위권 대학에 가지 못해 좌절을 경험했고 자녀들은 남한 아이들에 비해 공부를 못한다는 상대적 좌절감 때문에 점차 꿈을 잃어간다고 했다. 이렇듯 참여자들은 물론 자녀들도 초기의 꿈은 사라지고 희망 또한 잃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 "우리 애는 머리가 나쁘지가 않아. 아, 좋은 편인데, 공부할 때 초등학교 땐대도 12시까지도 막 해. 중학교 들어가니깐 진짜 옆에서 보기에도 불쌍하고…. 힘이 없어서 중간에 쓰러지면서 공부했는데 그래도 맨날 20등이야. 그래도 안 되니깐 통곡을 하고. 그럴 때 괜히 왔나 생각 들지…." (연구참여자 2).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그들이 초기에 구성한 한국 사회에서의 꿈이 점점 퇴색되고 멀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멀어지는 희망으로 범주화했다.

④ 교육 주변인

연구참여자들과 그의 자녀들이 한국에 온 후, 가장 경악한 일은 남한의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운다는 것이었다고 구술했다. 한국의 중산층 아이들은 선행 학습이 문화가 되었고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은 물론 기본적인 영어와 수학까지 선행 학습하는 구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들을 비유하자면, 30m, 50m 뒤진 교육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7>의 자녀는 북한이탈 주민 특례입학 제도를 통하여 비교적 쉽게 진학했다. 하지만 공대생이었던 그는 영어와 수학 실력이 부족하여 진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 "우리 애는 운이 좋아서 우리 애들 같은 경우, 혜택을 주잖아. 그걸로 대학을 갔는데 대학만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얘가 수학도 못 하고 영어 못하고…. 큰 애는 남한 얘들로 보면 고1 정도에 왔는데 중국에도 잠깐 있었지. 맨날 못 따라가는 거야." (연구참여자 7).'

북한 이탈 주민이나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해 원적 학교와 대안학교를 다닐 수 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 학교도 존재한다. 자녀를 위해 지방에 있는 대안 학교에 보냈지만 유배지에 보내는 느낌이 들었고 대안학교와 원적 학교를 오가는 자녀는 원적 학교에 출석을 하면 같이 밥 먹을 친구들조차 없었다고 구술했다. 학교는 이들의 학력 신장보다는 적응에만 중점을 두었다고 했으며 이러한 교육 구조는 학력을 더욱 퇴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안 학교는 좋은데 뭐 애들이 워낙 들쑥날쑥하니깐.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출 줄 모르죠. 공부는 그냥 형식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적응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것도 고맙죠. 근데 남한 아이는 눈에 불을 까집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애는 저러고 있으니깐, 처음에 올 때도 뒤처져 있었는데 인젠 점점 불안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교육의 주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의 중심에서 벗어난 주변인으로 판단했다. 이를 교육 주변인으로 범주화했다.

⑤ 문화적 충격

중국은 물론 북한과 남한의 교육 시스템은 판이하다. 교육 방식이 다를 뿐 아니라 자신들이 북한에서 받은 교육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없었다. 남한 엄마들의 교육 방식을 따라가고 싶었으나 이 역시 불가능했다. 북한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던 <연구참여자 5>는 자녀를 직접 가르치고자 했으나 수학 교과서를 펼친 순간 포기했다. 수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 방식조차 이해하기 힘들었다.

> "애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래도 북한에서는 대학을 나왔으니깐. 김일성 종합대학은 아니지만, 웬만한 대학이에요. 과외도 비싸고 내가 직접 가르치고자 그래서 책을 사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곤 했죠. 교과서를 펼친 순간, 포기했어요. 수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아이가 풀어야 하니깐…."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습득한 것들이 무의미할 때 심리적 위축이 매우 컸다. 특히 그들의 학력과 기술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남한의 세계화 교육 시스템은 그들이 배운 러시아식 또는 중국식 교육 시스템과 매우 달랐다. 그간 배웠던 주체사상이나 마르크스주의 또한 자녀들의 공부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고 남한 생활과 공부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현실적으로 폐기할 수 밖에 없었다.

"하나도 쓸모가 없어. 자격증도 제도가 다르니…, 공부도 그래. 쓰레기통에나 버려야지! 나도 어리벙벙한데 애들은 어떻겠어." (연구참여자 2).'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남한과 북한의 교육환경 차이로 인해 혼란을 겪었고 이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문화적 충격으로 범주화했다.

(3) 현상

① 과거로의 회기 심리

연구참여자들은 남한 입국 초기, 월등하게 높은 남한의 복지 수준에 만족했으나 자녀의 공부 문제가 대두되면 북한을 그리워했다.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북한은 토대 즉 출신 성분에 의하여 직업은 물론, 학교 선택도 제한받지만, 적어도 과도한 교육비용이 지출되지 않는다. 자녀의 교육만큼은 돈이 들지 않는 북한이 좋았고 소수의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구술했다. 이는 북한을 그리워한다기보다 남한의 치열한 교육 경쟁 구도 속에서 낙오되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에 따른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자녀 중 북한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남한 애들이 공부에 목숨(연구참여자 2, 6, 10)을 건다고 하였다

"우리 애들은 남한이 좋다고는 이야기해요. 학교에 가면 밥도 주고 북한 선생님들처럼 아이를 때리거나 그러질 않으니깐... 그래도 공부 공부하니까. 북한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남한처럼 강조하지 않아요. 공부 못해도 길이 있으니까. 북한이 그립다 그렇게 얘기해요." (연구참여자 10)

연구참여자들은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사회적 기호가 편견과 연결된다고 구술하기도 했다.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합격한 자녀는 남한 학생들에게 정원을 깎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연구참여자 3>의 경우 사교육을 시키지 못했음에도 노력하여 좋은 성적을 내자, 개발에 땀 낫다는 욕을 먹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특히 가정교육을 중시했다. 남한 학생들의 경우 사소한 잘못이나 일탈로 평가받는 행위도 북한이탈 주민에게는 과도한 낙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학교 공부에는 뒤처졌지만 인성교육을 중시했다. 그런데도 학교교육의 부적응, 사소한 실수도 가정교육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을 목격했다.

"우리들은 쪼금만 잘못해도 부모나 애들이나 다 모두 엄청나게 욕을 먹어. 그러니깐 집에서 가정교육을 열심히 했어. 요즘 남한 애들은 가정교육 거의 없잖아. 예의도 모르는 애들도 많고, 공부 공부하니깐…. 우리

애가 학교 가서 친구한테 욕을 했나 봐. 그랬더니 다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들었어. 요즘 애들이 욕을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 애 편드는 것이 아니라 당하다, 당하다 한 욕인데도 그래."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우려하여 자신의 존재를 감춰야만 했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학교에 오는 것을 기피했다. 북한 출신 엄마가 창피하다며 학교에 오지 말라는 아이도 있었고 남한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성적이 떨어지자 자신을 남한으로 데리고 온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의 존재 자체를 감출 수밖에 없었다.

"착한 앤데 공부는 죽어라고 해도 안 되고 공부 못한다, 집이 가난하다, 부모가 북한 출신이다, 이래갔고 학교에서 요즘 말하는 왕따를 당하는데 애는 그래요? 왜 나를 여기에 댔고 왔냐고…. 북한에 있었으면 이러진 않을 거라고 하긴 했어요." (연구참여자 3)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지위로 인해 다양한 편견을 경험했고 자녀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또한 자신을 감추거나 과거를 회귀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이를 과거로의 회기 심리로 범주화했다.

② 인위적 현실 망각

현재 북한이탈 주민은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함께 어려 혜택이 제공된다. 대학 특례 입학, 임대주택 제공, 한시적 기초생활 수급자 지위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감사했다. 북한에서는 상상하지 못한 대우였다. 그런데도 이면에는 낙인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북한 출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자녀들에게 수치심을 갖게 했고 특별전형은 양날의 검이었다. 그것은 배려와 특혜인 동시에 낙인으로 경험되었다.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주변 동네 사람들도 관심을 써주는데 고마운 건 맞는데, 피해의식은 진짜 아니에요. 그게 낙인으로 된다는 거죠."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에게 남한은 기회의 나라이고 공부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위로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부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는 자기변명이나 위안에 불과했다고 구술했다.

"공부 못해도 잘 살 수 있는 여러 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보면 공부 못해서 잘 된 사람이 없어요, 남한에 와서 들은 이야기지만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재벌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건 옛날이야기고 지금 남한에서 사업해서 돈 잘 버는 사람, 부모가 하던 거 물려받은 거, 창업 한 사람들도 다 명문 대학을 나왔다는데 애들한테 말은 그렇게 해도 현실은 그러니깐…." (연구참여자 9)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나름의 이유와 분석을 통해 공부 이외에 또 다른 길이 있다는 의미를 구성했지만, 인위적인 의미 구성을 통해 현실의 고단함을 잊고자 하는 경험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인위적 현실 망각으로 범주화했다.

(4) 중재적 조건

① 소수자 연대

북한이탈 주민들의 공동체는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사회적 자본이었고 자신의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자원의 공급처, 정서적 지지의 원천이었다. 북한이탈주민들 간의 모임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고 <연구참여자 10>의 대학생 자녀는 스스로 무급 과외 교사를 자청하기도 했다.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지 않았지만, 참여한 자녀는 롤 모델을 찾아 희망을 품었다고 구술했다. 특히 탈북민 학생들 간에 모임은 자신들만의 집단 정체성을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주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북한에서 온 아이들끼리 뭉치면 사고가 난다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애들끼리 뭉치면 사고가 나기도 하죠. 애들끼리 뭉치니깐 힘이 되나 봐요. 우리 애는 혼자 풀 죽어 학교 다니다가 힘이 없었는데 모임하면서 좋아졌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란 생각을 자주 했어요."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들의 주거지는 대부분 서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똑 같이 가난하지만, 자녀의 공부를 봐주는 이웃도 있었고 진정으로 아이들에 공부와 미래를 걱정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2>의 자녀의 경우, 남한에 온 후 일탈을 반복 했지만 이웃에 거주하는 노인은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바른 삶이 무엇인지, 희망이 무엇인지 일깨우는데 노력했다. 연구참여자의 구술에 의하면 이웃 노인의 도움으로 자녀는 방황을 멈추고 자기의 길을 모색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살아보니 똑 같아. 중국도 그렇고 돈 있는 부자들은 입으로만 걱정하지만 마음으로는 걱정하지 않아. 남한도 똑 같아. 탈북민들이 좋은 동네 못 살지. 가난한 동네에 살지. 강남에 어떻게 살겠

어. 강남에 살라고 해도 못 살 것 같아. 다 어렵고 힘드니깐. 가난한 동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지. 그것도 희망이 되고." (연구참여자 2).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탈북민 단체나 지역 사회의 서민들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힘을 결집했고 그들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자녀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를 소주자 연대로 범주화했다.

② 개신교 공동체의 도움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개신교 교인이다. 중국 체류 당시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남한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다. 교회에서는 북한이탈 주민이라는 딱지보다는 돌아온 형제로 대우받았고 친구와 교회의 도움으로 자녀들은 공부에 자신감을 얻어갔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연이은 일탈로 인해 남한에 온 의미조차 상실될 때쯤 교회 사모의 따뜻한 배려에 소망을 찾았고 자녀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지 않았다.

"사회에서는 맨날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그래요. 듣기 싫어요. 꼭 남한에 뭐 얻으러 온 거지 같잖아요. 근데 교회에 가니까 교회는 원래 그래요. 형제자매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보고 돌아온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반가웠는지 몰라요. 애들 교육하는데 부모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돌아온 형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용기가 막 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남한의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 눈치를 보는 경우도 많았지만, 교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탈북민의 '탈'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고 무조건 지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의 자녀의 경우 교사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예배가 끝난 후 교사는 학생지도를 명분 삼아 따로 불렀고 떨어진 학습을 지도하기도 했다.

"우리 애 선생님은 반 애들한테 그런데요. 탈북민 그딴 말 하지 말아라! 그냥 이름 불러라. 그 선생님은 아마, 굉장히 힘이 있어나 봐요. 우리 애 반에서 '탈'자도 못 꺼 낸데요. 근데 알고 보니 교회 집사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교회와 교사들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낙인 감과 실패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를 개신교 공동체의 도움으로 범주화했다.

(5) 작용/상호 작용

① 낙관적 기대 속에서 도전

중재적 조건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자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강조했다. 부모와 함께 사선을 넘었기에 남한 아이들보다 공부는 뒤떨어지지만, 생존력은 강하다고 구술했다. 아이의 꿈을 꺾다가도 인정을 해주자, 아이는 변했다. 특히 낙심한 자녀에게는 남한은 북한 보다 모든 환경이 좋다고 격려해 주기도 했다.

> "우리 애가 남한 애들 흉내를 내면서 탤런트가 된다는 거예요. 연예인…,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다가 되든 안되든 그건 나중 문제고 그래 해봐라. 유명한 탤런트 될 거다. 그랬더니, 아이도 마음을 바뀌더라고요."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은 현실을 받아들였다. 자신들의 자녀가 남한 학생들보다 두뇌와 재능이 뒤떨어지지 않지만, 후발주자라는 것을 인식했고 특히 성적이 떨어진 자녀들에게는 그 대안을 제시했다. 중국 체류 시에는 남들보다 앞서가길 바랐지만, 한국에서는 자신의 꿈을 키우길 바랐고 16살 때 남한에 온 <연구참여자 3>의 자녀는 한국 학생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남한 학생이 공부에 온 힘을 쏟는 중학교 시절, 자녀는 중국에서 떠돌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자들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대학이 필수라는 것이 아님을 인정했고 공부를 외면하는 아이에게는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권유했다. 대다수 연구참여자는 남한에서는 남한 학생들과 경쟁하기 어렵지만, 통일되어 북한으로 돌아가면 자신들은 우월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믿었고 통일을 대비하여 컴퓨터, IT 등 직업 개발과 교육에 힘을 쏟기도 했다.

> "여기서는 처음 무조건 노력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현실을 봐야. 그래서 우리 집은 통일 된 후에 다시 북한으로 가려고 해요. 여기서 천만 원이면 아마, 북한에서는 10억 가치는 있을걸. 남한이 기술이 뭐고 다 앞서가니까 여기서 배운 기술은 엄청난 기술이 될 테니. 남한 아이들은 컴퓨터를 밥 먹듯이 하니까 애한테는 컴퓨터 디자인하라고."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한계 속에서 방향을 수정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틈새 영역에서 경쟁력을 개발했다. 중국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중국어에 능통하다. 중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았고 남한 학생들이 기피한 영역, 즉 기술 영역에서 자립할 준비를 하는 한편, <연구참여자 8> 경우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자본을 모으기도 한다. 그리고 자녀 역시 저축을 하고 있다.

"우리 애가 수학 영어는 못 해요 그래도 중국에서 한 5년 살았으니 까 중국어는 무지하게 잘하죠. 대학 교수보다 더 잘할 걸요. 좋은 대학교 중국어과 같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아무 대학 중국어과에 가서 중국어 전문가가 되던지, 남한 애들 보다는 이게 장점이니깐…." (연구참여자 6).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적 기대 속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자신을 극복하는 경험으로 판단했다. 이를 낙관적 기대 속의 도전이라고 범주화했다.

② 강력한 생명력의 자본화

연구참여자들은 힘들 때마다 탈출 경험을 떠올리고 이를 자녀들에게 전달했다. 남한에서 겪는 공부나 생활의 어려움은 탈출할 때 겪은 어려움에 비해 미미하다고 구술했고 중국 체류 경험이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중국에서의 체포, 인권 유린 등을 떠올렸다.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탈북한 후 송환되어 총살을 당한 주민들도 있었다. 이렇듯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선을 넘었기에 공부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탈출하고 처음 한 두 번은 살려주는데 노동교화소로 끌고 가서 죽으라고 고생시키죠. 또 어떤 때는 총살 당한 사람도 있어요. 애가 힘들 때마다 같이 얘기해요. 잡히면 총살이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공부가 뭐가 어렵냐 엄마도 열심히 일한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고생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애는 맞아, 그렇게 해요." (연구참여자 10)

사선을 넘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자연적으로 인내심이 축적되어 있었다. 북한, 중국, 한국에서 원치 않았지만 몸에 밴 인내심은 공부 낙오자라는 낙인을 벗어 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고 그 인내는 성적이라는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연결됐다. 남한 학생들을 추월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의 어려움도 지금까지 이겨낸 어려움에 비하면 수월하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아요. 엉덩이가 무거워야죠. 근데 그게 나도 그랬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겠어. 그래도 중국에 있을 때, 남한에 넘어 올 때, 그거 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10)

연구 참여자들에게 내핍 생활은 환경이 강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물자가 부족한 북한과 중국에서 내핍으로 생활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부정적이었지만 결과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내핍

생활은 인성교육과 삶의 지혜로 바꾸었다. 학교 공부는 뒤처질 수 있어도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도 했다. 젊어서 가난은 돈 주고도 산다는 격언을 떠올리며 절약하는 습관을 통해 더 큰 나무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가정교육이 이뤄지기도 했다.

> "지금은 절약해서는 부자가 못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다 부자가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절약하고 절약하고 그러면 작은 부자는 되겠지. 한국에 온 후 한국에 오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동안 못 먹고 못 썼으니까. 아껴 써요. 이만하면 풍족하다. 애들도 몸에 뱄어요. 무슨 일을 해도 성공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연구참여자 4)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북한, 중국을 전전하면서 생명을 보존했던 강한 용기와 인내심을 교육 자본으로 발전시킨 경험으로 판단했다. 이를 강한 생명력의 자본화로 범주화했다.

(6) 결과

가능성의 기획

연구참여자들은 초기에는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을 했으나 이러한 것들로부터 탈출했다. <연구참여자 6>의 표현처럼 흙수저가 금수저는 될 수 없지만, 열심히 닦으면 스테인리스 수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구술했다. 연구참여자들에 의하면 자녀들의 미래는 성공도 실패도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 "처음에는 우리 애들들이 커서 낙오자가 되고 적응을 잘 못 할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그런 건 아니에요. 미리부터 망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 애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다 보니 마음도 바뀌게 되고 여기서부터 벗어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은 남한 사회문화에 일찍 적응한 자녀들을 보며 불안했으나 한편으로는 자녀들에게 배우는 것도 있었다. 공부는 뒤처지고 풍족한 용돈은 쓰지 못했지만 주눅 들지 않았고 현재에 행복하면 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성공보다 행복을 추구하는 자녀들에게 배우기도 했다. 특히 남한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작동하지만, 북한보다는 희망이 있는 '도전의 땅'이라는 인식을 했고 희망이 있기에 후발주자도 역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촉진시켰다.

> "애들이 철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공부도 그렇지만 행복행복 그래요. 우린 행복이 뭔지 몰랐는데 가만히 생

각해 보니 그게 맞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배우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고 공부를 못해도 행복해도 되니깐…. 불안이 슬슬 없어져요.” (연구참여자 8)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미래를 과거와 현재의 기계적 연결이 아닌, 열려있는 가능으로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향해 자신과 자녀의 삶을 디자인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가능성 기획으로 범주화했다.

2. 축코딩(axial coding)

축코딩은 개방코딩에서 구성한 범주들을 재조합하고 그 관계를 밝히는 과정이다. 연구자들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현상(phenomenon),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작용/상호작용(action/reaction) 그리고 결과(consequence)의 패러다임 모형에 재배열하여 범주들 간의 관계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패러다임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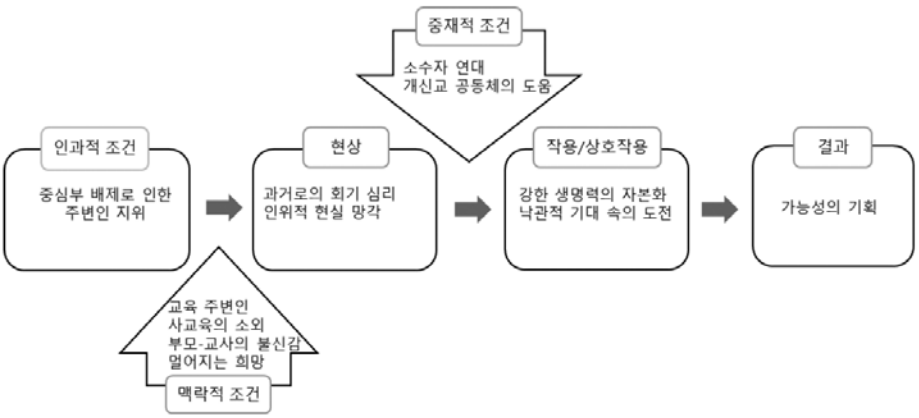


Figure 1. The Relationships between Categories and Model of Paradigm Structure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이란 현상에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사건이나 정서, 심리 상태, 행동 등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현상은 과거로의 회기 심리와 인위적 현실 망각으

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들이 대학 지상주의인 한국 사회에서 경쟁 스트레스에 휩싸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지역 사회의 사람들과 소통이 단절되고 탈북민들을 낙인찍는 사회 구조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중심부 배제로 인한 주변인 지위를 인과적 조건으로 했다.

(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이란 현상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조건으로써 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사교육에서 소외되었고 이러한 사교육의 결핍 또는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공교육에 기대를 걸었으나 이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희망은 더욱 멀어졌고 특히 자기들만의 고립된 영역에서 남한 학생들과는 다른 조건에서 고군분투 하였기에 과거로의 회기 심리와 인위적 현실 망각이라는 현상을 더욱 강화하는 조건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사교육 소외, 부모-교사 간의 불신감, 멀어지는 희망, 교육 주변인, 문화적 충격을 맥락적 조건으로 했다.

(3) 현상

현상(phenomenon)이란 지금, 여기서 무엇이 벌어지는가의 문제로 가장 중요한 정서나 행동, 사고방식 등은 무엇인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근거이론 연구의 핵심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과거로의 회기 심리와 인위적 현실 망각이 현상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이 인생을 결정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피로감과 경쟁 스트레스, 탈북민 낙인 등으로 인해 부정적 경험을 했고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는 억지 위안을 희망으로 삼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퇴행적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과거로의 회기 심리와 인위적 현실 망각을 현상으로 했다.

(4) 작용/상호작용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이란 개인들이 현상에 대처하는 행동, 전략, 정서, 마음가짐, 태도 등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참여자들은 과거로의 회기 심리와 인위적 현실 망각이라는 부정적 현상이 발생했지만, 탈북 과정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강한 생명력을 발판으로 삼았다. 또한 절망 속에서도 자녀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 북한이탈 학생들의 적성 등에 맞는 틈새 영역 등을 개발하였다. 한계 속에서도 방향을 수정했으며 도전으로 이어갔다. 이에 낙관적 기대 속에 도전, 강한 생명력의 자본화를 작용/상호작용으로 했다.

(5)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이란 작용/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써 이를 강화, 조장하거나 약화, 후퇴시키는 보다 구조적인 동시에 광범위한 조건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 참여자들은 부정적 현상을 경험했지만, 개신교 공동체, 교사, 탈북민 등의 도움을 받아 자립 의지를 고추 세웠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힘의 동력으로 삼았다. 이에 소수자 연대, 개신교 공동체의 도움을 중재적 조건으로 했다.

(6) 결과

결과(consequence)은 작용/상호작용 수행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연구참여자들 개인의 상황과 조건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 등도 포함된다. 연구참여자들은 강한 생명력을 자본화하고 낙관적 기대 속에 지속적인 도전을 하여 자신의 미래가 우울할 것이라는 부정적 예측을 내려놓고 보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생활양식을 구성함으로써 자신을 가능성 있는 존재로 의미를 구성했다. 따라서 가능성의 기획을 결과로 했다.

3.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선택코딩은 이야기 윤곽 기술과 핵심범주 구성으로 이뤄진다. 핵심범주는 연구에서 나타난 모든 범주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범주로서 핵심범주를 기반으로 하여 근거이론 연구는 형식이론(formal theory)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핵심범주를 구성하는 데는 메모의 활용, 범주 간에 관계 도표 그리기 등의 기법이 있으나 어떠한 기법으로 접근하여도 모든 범주를 통합 할 수 있는 범주가 출현해야 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범주를 중심으로 이야기 윤곽을 먼저 기술하고 이를 도표로 구성 한 후 핵심 범주를 나타내고자 한다. 선택코딩은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창시자인 Glaser(1992) 의 하면 이론적 코딩에 해당한다. 구성주의 이론주의 연구자 Charmaz(2016)도 근거이론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 이론적 코딩을 제시했다. 연구자 역시 정밀한 이론 생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 윤곽을 기술하고 핵심 범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이야기 윤곽 기술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탈출하고 남한에 정착했지만, 사회적 조건과 상황을 불문하고 공통적인 것은 코리안 드림이었다. 개인의 자유가 철저하게 구속된 북한과는 달리 남한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보장된 나라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코리안 드림은 자신보다 자녀에게 맞춰져 있었다. 그들은 남한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비전을 품었지만, 한계가 있음을 인식했다. 남한 주민들보다 열악한

자본과 인적 네트워크 등은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받아 들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만큼은 무한한 미래가 열려있다고 믿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삶보다는 자녀들의 삶에 의미를 두었고 교육을 수단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자녀들가 북한처럼 학교 공부에 충실하고 노력한다면 학업 성적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사회의 이면에 많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은 공교육보다는 철저하게 사교육이 지배하는 사회로 경험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사교육을 시키고자 했으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좌절했다. 또한 대학이 자녀들의 삶을 결정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전문직 종사자들만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경쟁과 사교육이 없는 북한을 그리워하는 반동적 정서를 표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들은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할 수 밖에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온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사회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있었고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그들은 주변인 지위를 강제적으로 부여 받았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겐 대학 특례 입학이 적용되지만, 이 또한 차별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고 남한 사회에 오기까지 생성된 강한 생명력을 일깨웠다. 초기에는 왜곡된 교육 시장의 구조 등으로 인해 퇴행적 현상도 있었지만, 북한을 탈출할 수 있던 용기와 자신들에게 닥쳤던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한 지혜와 도전 정신 등을 자본으로 삼았다. 연구참여자들은 특히 탈북민 공동체 속에서 내적인 결속을 다졌고 교회 공동체 돌봄을 받게 되었다. 특히 교회 공동체 돌봄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자신과 자녀의 꿈을 새롭게 만들어 갔다. 비록, 자녀들은 학교 교육에서 남한 학생들보다 뚜렷할 성과를 보이지 못했지만,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했고 미래에 대한 자녀의 꿈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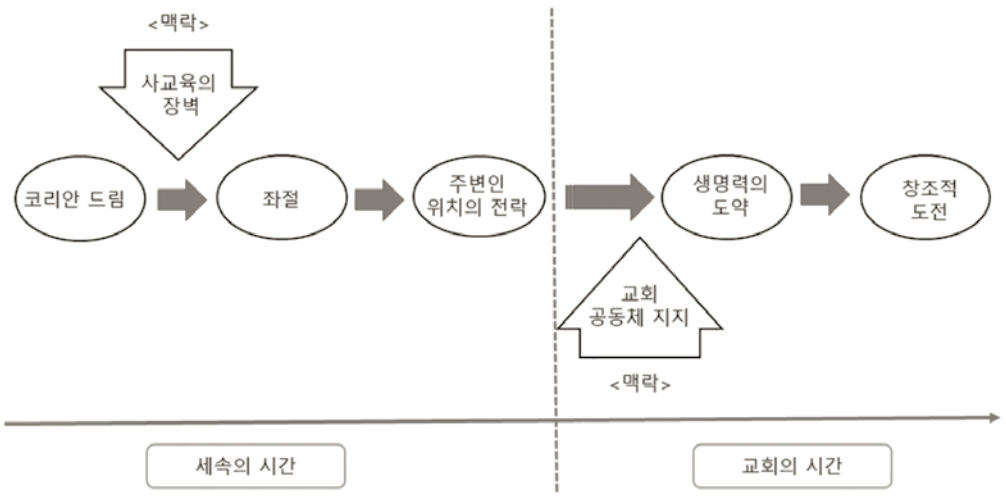


Figure 2. The Diagrams Using Story Dictation and Memo

는 다양한 어려움과 차별 속에서도 북한 보다 기회가 열려 있고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의 확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핵심범주

이야기 윤곽 기술을 토대로 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모든 경험을 아우르는 핵심 범주는 다음과 같다. 형제의 땅에서 주변인 지위는 있었으나 또 다른 차별을 딛고 희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 가능한 존재로서의 자기기획으로 상정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남한은 형제의 땅이었지만, 주변인 지위를 강제로 부여받았고 또한 중심부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기도 했다. 특히 자녀들은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었고 사교육으로부터 소외되었다. 또한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저하되었으며 희망은 사라졌다. 이와 같은 경험은 형제의 땅에서 받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의 강한 생명력을 자본화했고 낙관적 기대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이러한 도전의 시작은 희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 희망의 재구성은 교회 공동체의 동봄과 소수자 연대의 지지도 있었다. 이렇듯 희망을 자기 것으로 만든 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자녀들을 가능한 존재로 의미화했다. 이러한 의미 구성은 주체적인 자기기획이라고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 주민들 중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개신교 교인들의 자녀 교육 경험에 의한 근거연구이론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참여자들은 남한에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착했으나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했다. 특히 사교육 위주의 한국 교육 환경에서 많은 좌절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미래보다는 자녀들의 미래에 희망을 걸고 한국 사회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교육이란 장벽에 막혔다. 연구참여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차별적 자녀 교육 경험은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문화의 차이 그리고 남한 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등은 사회적 교육의 차별은 물론 자신들의 꿈을 철회하는 현상이 일어났다(오원환, 2019;이수정. 2019;손명희, 2018;이재관, 김성배, 2021). 이로 인해 북한 이탈주민들 중 제 3국으로 이주를 하거나 난민 자격을 가장하여 호주, 영국, 미국 등으로 이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연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경험, 소수자 집단에 대한 낙인화, 그들의 욕구에 미흡한 사회서비스 그리고 자녀 교육문제, 자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거론했다(손명희, 2018: 155-157;이재관, 김성배, 2021: 164-166). 본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차별은 희망의 철회와 함께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

어 하는 심리가 발견 되었다. 하지만 앞선 선행연구에서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한 부분은 교회 공동체의 지지이다.

북한 이탈주민들은 대부분 중국을 거쳐 남한에 입국한다. 하지만 중국은 자유가 아니라 체포될지 모르는 불안과 중국인들의 노동 착취, 인권유린 등으로 인해 북한 못지않게 힘든 경험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물적, 정신적 지원을 하여 남한으로 인도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박병애, 김성배, 2020: 704-709).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인 동시에 북한이탈 주민들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다. 남한에 입국한 후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은 교회의 도움을 받아 남한 사회적응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동시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박병애, 하충엽, 2019: 189-190). 교회 공동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데 있어서 자양분을 공급하는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 중에는 기독교 신앙인으로 자기의 삶을 다시 구성한 사람들도 존재하고 더 나아가 목회자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양민숙, 2018, 박병애, 2020). 교회 공동체는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의 통합을 촉진하는 중심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 개신교의 북한 선교, 북한 이탈주민 선교는 교세 확장을 위한 공격적인 메시아니즘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 그리고 통합을 지향하는 개신교 정신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녀들에게 품었던 희망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 다시 품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강한 생명력을 자본화하고 삶을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실천했지만, 여기에는 교회 공동체의 지지가 존재했다. 교회 공동체는 참여자들의 돕는 손이 되었고 꿈을 다시 꾸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치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중국에서 개신교를 접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참여자들은 남한 입국 후, 하나원에서 방문한 목사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간 사람들도 있다. 또 다른 참여자들은 탈북민 공동체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에 되었다. 이렇듯 그들의 교회에 출석한 시기와 계기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사회에서 느끼지 못한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받은 도움은 목사나 전도사 그리고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도움도 받았다. 교회 구성원이 하나의 몸이 되어 북한이탈주민들을 도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교회는 세계를 무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중국에 경우, 개신교를 전파한다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되어 체포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를 하고 있고 그 주된 대상은 북한이탈주민들이다(조은식, 2016: 415-417;하광민, 2019: 378-383).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는 북한 선교의 거점인 중국 선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우리 땅에 들어 온 북한이탈주민들을 품고 이들을 지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문 사역자 양성도 필요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의 삶의 목적이기도 한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지지와 남한 교인들의 통합은 그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낮아진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강화시켜 성공적인 사회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승리하는 길에 교회가 든든한 후원군이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김규보(2020).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트라우마와 긍휼의 실천. **복음과 실천신학**, 57(-), 9-17.

[Kim, K. B. (2020). Social Trauma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Practice of Compassion. *The Gospel and Praxis*, 57(-), 9-17.]

김미정, 정계숙(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새터민 부모의 양육 이야기. **兒童學會誌**, .28(1), 71-94.

[Kim, M. J. & Chung, K. S. (2007). Parenting of Young Children by North Korean Parents in South Korea: A Qualitative Study. *Children's Journal*, .28(1), 71-94.]

김성남, 양옥경(2015).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자녀양육과 교육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2(1), 5-37.

[Kim, S. N. & Yang, O. K(2015).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Social Welfare Practice and Research, 12(1), 5-37.]

김영하(2010). 다문화사회와 새터민 청소년의 교육문제. 윤리교육연구, 0(21), 223-24.

[Kim, Y. H. (2010). Education Problem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Saeteomin Teenagers. *Ethics Education Research*, 0(21), 223-24.]

김예영 (2012). **북한이탈 어머니의 영유아 자녀 양육 경험**.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Kim, Y. Y. (2012). *The Early Childhood Caring Experience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 University, Seoul, Korea.]

김윤나 (2010).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교육적 함의. **통일교육연구**, 7(1), 190-10

[Kim, Y. N. (2010). Adaptation Flexibility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of North Korean Refugee Youth. *Unification Education Research*, 7(1), 190-10.]

_____ (2012). 청소년유해매체관련연구 메타분석을 통한 환경중심모델 기반 청소년성보호 대책. **소년보호연구**, 19(-), 95-127.

[Kim, Y. N. (2012). A Study on the Meta-Analysis through Youth Hazardous Media Related Research Based on Environmental Protection Model. *Korean Juvenile Protection Review*, 19(-), 95-127.]

_____ (2013).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법과인권교육연구**, 6(2), 21-21.

[Kim, Y. N. (2013). Requirements and Policy Suggestions on the Children Educ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Law and Human Rights Education Research*, 6(2), 21-21.]

_____ (2014).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에서의 자녀교육 경험에 관한 민속지학적 분석. **청소년시설환경**, 12(1), 77-8.

[Kim, Y. N. (2014). Ethnography Methodology of the Children Educational Experience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in South Korea, *Youth Facility Environment*, 12(1), 77-8.]

_____ (2016). **북한이탈청소년의 학업성취 향상 방안에 관한전문가의 평가**. 少年保護硏究, 29(2), 33-7.

[Kim, Y. N. (2016). A Study on the Study on the Expert's Voices from Academic Achievement Improvement of North Korean Refugee Youth. *Korean Juvenile Protection Review*, 29(2), 33-7.]

김창희 (2017).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체성 변화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 박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Kim, C. H. (2016). Grounded Theory : *An Approach on Identity Development of Public Social Worker*. Doctoral Dissertation. Sahmyook University, Seoul, Korea.]

김현철, 이향규, 한만길 (2015)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VI) - 학교, 사회 적응 과정 분석 및 정책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국무조정실.

[Kim, H. C., Lee H. G. & H, M. G. (2015) *A Longitudinal Study of North Korean Youth Education (VI) - School and Social Adaptation Process Analysis and Policy Measures*, Office of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박병애 (2020). **탈북민 목회자의 생애사 분석을 통한 복음 수용성 연구**: Mandelbaum 분석방법론 적용.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Park, B. A. (2020). A Study on Gospel Receptivity of North Korean Defected Pastors : An Application of Mandelbaum Life History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_____, 하충엽 (2019). 로젠탈(Rosenthal)의 생애사 연구 방법을 활용한 탈북민 사역자의 복음수용 과정 분석. **선교신학**, .55(-), 157-195.

[Park, B. A. & Ha, C. Y. (2019). An Analysis of the Conversion Process of a North Korean Defector Church Worker by the Rosenthal's Life History Research Methodology. *Theology of Mission*, 55(-), 157-195.]

백인옥 (2020). 탈북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양상과 해결방안 연구 : 대전·공주지역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연구**, 17(1), 53-80.

[Baek I. O. (2020). A Study on the Non-Adaptation Pattern of School for North Korean Refugee - Focused on Daejeon and Gongju Area. *Unification Education Research*, 17(1), 53-80.]

손명희 (2018). 탈남한 탈북난민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 캐나다 토론토 거주자 사례를 중심으로. **北韓研究學會報**, 22(1), 139-181.

[Son, M. H. (2018). A Study on the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Left South Korea : A Case Study of Residents in Toronto, Canada. *North Korean Studies Review*, 22(1), 139-181.]

양민숙 (2018). **북한이탈여성의 중년기이후 생애사 연구**-멘델바우맨.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Yang, M. S. (2018). A Study on the Life Histories about an Adjustments to South Korea of

Middle-Aged Females among North Korean Refugees.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오원환 (2019). 탈북민의 탈남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정(情)과 친절(親切)의 정치학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소통학보**, 18(1), 263-300.

[Oh, W. H. (2019).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Refugee's Talnam Phenomenon and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olitics of Jeong (affection) and Kindness. *Journal of Speech, Media & Communication Association,* 18(1), 263-300.]

이수정 (2019). 재영 북한 이주민의 영국 난민 정책 경험과 그 함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3(2), 115-163.

[Lee, S. J. (2019). North Korean Migrants'Experiences of British Refugee Policy and Its Implications. *Yonsei University Korean Unification Studies*, 23(2), 115-163.]

이재관, 김성배 (2021). 북한 이탈주민의 난민으로서의 탈남(脫南) 경험과 귀환 후의 삶에 대한 근거이론. **질적탐구**, 7(1), 135-170.

[Lee, J. K. & Kim, S. B. (2021). A Grounded Theory Stud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s of Escaping from South Korea as Refugees and Life after Returning to South Korea -Focusing on Male Heads of Households in Their 50s and 60s. *Urnal of Qualitative Inquiry*, 7(1), 135-170.]

이윤진, 이정림, 김경미 (201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Lee, Y. J., Lee, J. R. & Kim, K. M. (2012). *An Investigation of Potential Policy Measures to Support Children of North Korean Migrants*. Childcare Policy Research Institute.]

정다운, 김병수 (2019). 북한이탈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7(2), 29-59.

[Jeong, D. U. & Kim, B. S. (2019). A Grounded Theoretical Study on the Career-Setting Processes of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Focusing on Cultural Capital. *Korean Educational Issues Study*, 37(2), 29-59.]

정국인 (2014). **난임체험 여성의 레질리언스 연구 : 근거이론 접근**.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Jung, K. I. (2014). *A Study on the Resilience of Women who Experience Infertility : A Grounded Theory Approach*,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정병호, 양계민, 이향규, 임후남, 황순택 (2007). **새터민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 연구**. 교육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경기도교육청

[Jeong, B. H., Yang, G. M., Lee, H. G., Lim, H. N. & Hwang, S. T. (2007). *A Study on the Preparation of Educational Measures to Improve the Social Adapta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Education Policy Research Results Report.]

정영선, 이승연 (2020). 북한이탈청소년의 대학진학준비 경험에 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5), 719-749.

[Jung, Y. S. & Lee, S. Y (2020). Exploring College Preparation Experiences of North Korean Immigrant Adolescents. Learner-Centered Curriculum Education Research, 20(15), 719-749.]

정윤경, 김희진, 최지현 (2015). 북한이탈주민의 차별경험과 적응의 관계. **社會科學硏究**, 31(2), 157-182.

[Jeong, Y. K., Kim, H. J. & Choi, J. Y.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and Social Adapta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Mediating Effects of Self-Support Efficacy. *Social Science Research*, 31(2), 157-182.]

정정애, 손영철, 이정화 (2013).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와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적응유 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統一 政策 硏究**, 22(2), 215-248.

[Jeong, J. E., Son, Y. C. & Lee, J. H. (2013). A Study on Defecting Motive and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Unification Policy Research*, 22(2), 215-248.]

장정숙 (2021)). 북한이탈부모의 교육관여 특성과 저해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1), 695-715.

[Jang, J. S. (2021). Characteristics and Hindering Factors of North Korean Parental Involvement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Qualitative research. *Learner-Centered Curriculum Education Research*, 21(11), 695-715.]

장정은, 최정숙 (2015). 북한이탈여성의 청소년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6(4), 375-419.

[Jang, J. E. & Choi, J. S. (2015).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Parenting Experience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with Adolescent Childr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6(4), 375-419.]

조은식 (2016). 탈북자를 위한 중국교회의 역할. **선교신학**, 41(-), 391-421.

[Cho, Y. S. (2012). Roles of Chinese Church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ology of mission*, 41(-), 391-421.]

하광민 (2019). 북한이탈주민을 매개로 하는 북한선교 구도의 변화. **복음과 선교**, 48(-), 359-389.

[Ha, G. M. (2019). The Changing of North Korea Missions that Rely Heavily on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Korea Evangelical Missiological Society*, 48(-), 359-389.]

한정우 (2016). 북한이탈주민의 기독교와의 만남에 관한 질적 연구. **다문화와 평화**, 10(2), 134-154.

[Han, J. W. (2016). An Ethnographic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s of Christianity. *Multiculture & Peace*, 10(2), 134-154.]

홍승아(2013). 가족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여성의 정착과제: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5(2), 173-205.

[Hong, S. A. (2013). The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and Their Settlement Tasks: From the Family Perspective.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25(2), 173-205.]

홍주은 (2003). **북한이탈부모의 자녀양육 변화와 문제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Hong, J. E. (2013).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s parent's changes and problems in child-rearing*. Masters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Charmaz, K. (2014).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L.A: Sage.

Charmaz, K. (2016). *The Power of Stories, the Potential of Theorizing for Social Justice Studies*. New York, NY: Routledge.

Corbin, J. M. & Strauss, A. (2015).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Denzin, N. K.(1978). *Research Act, 2nd ed*. NY; McGraw-Hill

Glaser, B. G. (1992). *Basics of Grounded Theory Analysis: Emergence vs. Forcing.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Grinker R. R. (1998). *Korea and its Futures: Unification and the Unfinished War*. NY: Martin's Press.

Karoly, L. A. & Gonzalez, G. C. (2011). Early Care and Education for Children i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Research on The Future of Children*, 21(1), 71-101.

Kuzel, A. J. (1992). *"Sampling in Qualitative Research", Doing Qualitative Research, Research Methods for Primary Care*(Benjamin, C. & William, L. M. Eds), Thousand Oaks, CA: Sage.

Lancee, B. & Bol, T. (2017). The Transferability of Skills and Degrees: Why the Place of Education Affects Immigrant Earnings. *Journal of Research on Social Forces*, 96(2), 691-716.

Liebow, E. (1993). *Tell Them Who I Am: The Life of Homeless Woman*, NY: Penguin.

Lincoln, S. & Guba, G. (1985) *Naturalistic Inquiry. Thousand Oacks*, CA: Sage

Padgett, D. K. (1998). Does the glove really fit? Qualitative Research and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43(4):373-381.

Sebastian C. H. Kim, (2008) *161 Peace and Reconciliation-In Search of Shared Identit*. Oxfordshire : Routledge.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Yuen, H. L. (2019). New Immigrant Parents' Experiences in a Parent Education Programme.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Years Education*, 27(1), p20-33.

통계청 (2021.3.3.).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통계”. https://www.data.go.kr/data/15019661/fileData.do (검색일 2021.8.10.)

[Statistics Korea (2021.3.3.). “Statistics of North Korean defectors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Retrieved from https://www.data.go.kr/data/15019661/fileData.do (2021.8.10.)]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에서의 자녀교육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 개신교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A Qualitative Study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s in Children's Educa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Protestants -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Protestants

지 상 선 (성균관대학교)
현 은 자 (성균관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10명의 북한이탈 출신 여성 어머니들이 참여했다. 자료는 일대일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구성했다. 연구자들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방 코딩 결과 13개의 범주, 32개의 하위범주, 124개의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축코딩에서 인과적 조건은 중심부 배제로 인한 주변인 지위로 나타났고 현상은 과거로의 회기 심리, 인위적 현실 망각으로 나타났고 맥락적 조건은 부모-교사 간의 불신감, 사교육 소외, 멀어지는 희망, 교육 주변인, 문화적 충격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은 소수자 연대, 개신교 공동체의 도움으로 나타났고 작용/상호작용은 낙관적 기대 속의 도전, 강한 생명력의 자본화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가능성 기획으로 범주화했다.

연구의 주요 발견 점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교육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 데 있어서 교회의 지지와 후원이 가장 큰 중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교회의 지지와 구체적인 접근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교회 공동체, 문화적 이질감, 인적자본

『신앙과 학문』. 26(3). 125-155.
https://doi.org/10.30806/fs.26.3.202109.125

학문과신앙의 과목도입 성과 : D대학 사례*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Introducing Subjects of Learning and Faith: The Case of D University

이 선 복 (Seon Bok Lee)**
김 대 영 (Dae Young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how 13 Christian professors merged Christian worldviews and majors to open and achieve learning and faith subjects. From December 2020, two surveys were conducted. Frequency Cross and Means by Group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20.0 statistical program. We looked at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students, as well as the students' overall response to the clas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reaction to the class was positive. An average of 1.7467 responses to a five-point scale question on the benefit of the subject, 1.9200 in comparison with other subjects. In our opinion if another university opens learning and faith subjects, it can be sufficiently successful. However Secondly, (1) understanding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cross of Jesus Christ, the core doctrine of Christianity, (2) having difficulties in living a new religious life at 2.6000 and 2.5333. In particular, non-Christian students had difficulty in understanding, which statistically indicat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0.01 and 0.005 levels in the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groups.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other items such as Christian understanding. Third, this study makes four suggestions for the opening of subjects in anticipation of the spread of learning and faith to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In other words, based on Robert Harris (2004)'s integration of learning and faith, it proposes (1) the spirituality and development

* 2021년 8월 12일 접수, 9월 9일 최종수정: 9월 14일 게제확정
** 동서대학교(Dongseo University) 경영학부 교수, 부산시 사상구 주례로 47, sblee6@hanmail.net
*** 동서대학교 선교복지대학원 교목,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shalang1976@dongseo.ac.kr

of professors, (2) preparation and teamwork of classes, (3) consideration and teaching for students participating in classes, and (4) continuous integration methods of learning and faith.

Key words : Christian Professor, learning and faith, Christian worldviews, learning performance, correlation analysis, difference analysis

Ⅰ. 서론

대학에 재직하는 기독교수(Christian professor)에게 캠퍼스 선교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기독교수로서 정체성과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각 대학의 신우회 또는 기독교수회에 소속하여, 복음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교수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연구실을 통해 학생들과 바이블 스터디(Bible Study)를 하는 교수도 있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기독동아리와 선교단체 등을 돕는 교수도 있다. 또 지역교회와 연계하여 학생을 전도하여 출석하는 교회로 인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수도 있다[1]. 그리고 자신이 전공하는 학문의 분야를 기독교 세계관((Christian worldview)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도 있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기독교수들이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어떻게 '학문과신앙(learning and faith)'을 연계해서 수업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 성과를 실증분석하여 소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자가 재직하는 부산 소재 동서대학교(Dongseo University, 이하 D대학이라 함)의 사례를 중심으로 13명의 기독교수들이 학문과신앙 과목을 어떻게 개설하여 수업을 하고, 또 성과를 얻었는지를 분석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재직하는 동서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1992년에 설립된 대학이다[2]. 1965년 '성경과 보습을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19명의 학생으로 시작해 지금은 동서학원 산하 동서대, 부산디지털대, 경남정보대 3개 대학으로 구성되어, 매년 1만여명이 졸업하는 학교법인으로 성장하였다(장성만, 2012: 59-64). 2018년에 학문과신앙 수업을 처음 개설하여 2021년 7월 현재 7학기가 경과되었다. 학문과신앙은 교목실에서 주관하는 채플(chapel)과 달리, 13명의 기독교수가 협력하여 릴레이 특강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문사회부터 공학, 예체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공을 가진 교수들이 자신의 전공을 기독교 세계관과 융합하여 참여하고 있다. 또 정규수업이란 점에서 기독동아리 연합예배 등 캠퍼스 선교를 위해 진행되는 여러 비교과과정 모임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연구를 위해 과목이 개설될 당시의 배경과 수업목표, 평가방법, 주별 수업내용 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2020년 12월과 2021년 6월, 2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출된 과제물을 병행해

1) 기독교수들의 구체적인 활동은 예를 들어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KUPM) 소식지 제1호-6호(2019 -2020)를 참조. http://www.kupm.org/main/sub.html?pageCode=49

2) 동서대학교는 1965년 영남기독실업학교를 모토를 출발한 대학이다. 소천하신 故장성만목사가 래쉬선교사와 함께 부산시 냉정마을에 척박한 땅을 구입, 19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학교이다. '성경과 보습을 들고' 신앙의 기초위에 출발을 하였다. 시간마다 채플을 통해 찬송과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들리고, 주일이면 대학교회를 통해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장성만목사가 국민일보에 연재한 "역경의 열매(2009)"을 보면 대학 경영을 하며 양보할 수 없는 것 2개가 있으니 하나가 채플, 또 하나는 신앙이다. 기술이 부족한 나라의 입국을 위해 배우고 학문을 하되, 기독교적 가치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였음을 알 수 있다.

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빈도 교차분석(Frequency Cross Analysis)과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집단별 평균분석(Analysis of Means by Group)에 의한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전체적인 반응, 기독인학생과 비기독인학생의 유의미한 차이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신앙과 학문을 연계해 과목을 개설하고 수업을 진행할 경우, 예상될 수 있는 문제들을 논의해 갈 때 필요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자는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전공을 통합한 신앙과학문 과목 수업이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이하,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소개한다. 2장은 이론적 고찰로서 학문과신앙의 정의 및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3장은 과목이 개설된 배경과 내용을 소개하고, 설문조사의 방법과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4장은 연구 결과를 통해 얻어진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학문과신앙 과목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언하며, 학생들이 제출한 은혜의 과제 후기를 일부 간략히 소개한다. 5장은 결론으로 요약과 함께 연구의 한계점을 기술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를 포함 13명의 기독교수들이 캠퍼스 선교를 위해 실제 경험한 내용들을 기초로 한 것이다. 또한 연구의 결과가 문헌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학문과신앙과 관련된 통계적 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하고 있는 점에서 차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II. 이론적 고찰

신앙(Faith)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대상을 믿고 그 가르침을 지키며 따르는 것을 말한다. 또 학문(learning)은 배움을 통해 익힌 지식의 체계로서, 많은 전공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2개를 하나로 묶은 것이 신앙과 학문이다. 로버트 A. 해리스(2004)에 의하면 '신앙과 학문의 통합(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은 어떤 전공분야의 지식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신앙과 연계하여 융합한 것을 의미한다. 즉 기독교 신앙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진리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창조와 섭리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이를 학문적 지식과 연계하여 학습하고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의 현실을 보면 신앙과 학문이 분리된 경우가 많다. 신앙에 대한 무지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많은 기독인들 조차도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리스는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 자연주의나 이성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고보다도 훨씬 더 학문의 현상을 잘 설명하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음을 강

Table 1 신앙과학문 선행연구 (Advance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분류	연구자	주요 내용	비고
① 개인연구	전광식 (2020)	신학자로서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 삶을 영위하고 구원의 진리를 좇을 때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학문이 나올 수 밖에 없음을 강조	고신대
	박정윤 (2020)	성경적 관점에서 행복한 부자학, 증권투자, 경영학원론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강의하고 성과와 함께 소개	영남대
	김지원 (2015)	기독교세계관을 물리치료 윤리에 적용, 학생들과의 관계회복과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식이 있음을 제시	백석대
② 팀티칭연구	최혜영 (2017)	14명의 기독교수가 '삶과 지적 대화-융복합 교양과목-을 개설하여, 생명, 지구과학부터 인문학, 사회과학, 봉사실천까지 협력수업의 진행을 소개	전남대
	OOO (2020)	13명의 기독교수가 2018년부터 '학문과신앙' 교양과목을 개설, 진행한 내용을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와 21세기포럼 소식지에 간략히 소개 (본연구)	동서대
③ 대학레벨 연구	최용준 (2013)	신앙과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Robert A. Harris.(2004)의 책을 번역하고, 한동대에 학문과신앙연구소를 세워 지속적으로 콜로퀴움 세미나 운영	한동대
	이숙종 (2007)	세속화되어 가는 기독대학의 현실앞에 소명을 위해 기독대학의 역사부터 정체성, 신학/기독교/영성 교육, 신앙공동체의 과제들을 통합적으로 정리	강남대
	장제국 (2016)	기독대학의 건학이념 계승을 위한 일환으으로 故장성만목사의 저서 32권을 분석,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심은 새로운 약속을 주기 위함으로 집약	동서대
④ 비교과 과정 연구	전대선 KUPM	건국대 국제교회, 동아대 캠퍼스교회(부민,승학), 목포대 대학교회, 전북대 국제교회, 충남대 국제교회, KAIST 국제교회 등 캠퍼스 선교활동 소개	연합

조하였다(최용준, 2013: 263).

물론 세계관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타 종교에도 세계관이 있다(현대종교문화연구소, 2011: 13-18). 그리고 진화론적 주장과 계몽주의, 자연주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등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려는 사고와 가치, 세계관도 있다(강용원, 2007: 49-59, 최용준, 2013: 233-258). 그러나 성경은 창조적 섭리를 기초로, 신구약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지식과 지혜, 진리(Truth)에 대해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의 근본이요, 명철이다(잠언 9:10)'.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요, 또 예수님 스스로 진리이심을 선포하며 학문을 추구함에 중심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핵심교리이다.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창조적 질서와 섭리에 따라 사물을 이해하고, 또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에 있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무소부재하며 전지전능한 분이다. 따라서 연구의 현장이든, 강의실 현장이든 모든 기독교수가 신앙에 따라 학문을 할 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뚜렷한 비전과 가치관을 주신다. 또한 온전한 통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학문과신앙이 더욱 견고히 세워질 수 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이나 수행, 행위를 통해 경지에 이르거나 구원을 받는다는 타 종교와는 확연히 다르다(Calvin, 1559; 원광연, 2018, 이선복, 2021). 본 연구는 기독교적 신앙과 가치관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학문과신앙 과목을 개설해 얻은 성과를 분석, 정리하고 있다.

학문과신앙에 관한 선행연구는 ① 개인연구, ② 팀티칭 연구, ③ 대학 레벨의 연구, ④ 비교과과정 캠퍼스 선교 연구 등으로 분류해 살펴볼 수 있다. 그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첫째, 개인연구에서 전광식(2020)은 저서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따라 학문을 하고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 세상을 보고 삶을 영위할 때 기쁨이 있고, 성경이 구원의 삶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학문이 나올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신학자로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박정윤(2020)은 '교육선교가 희망이다!'에서 오랜 세월 신앙과 학문을 통합, 성경적 관점에서 경영학을 가르쳐 온 교수로서, 2006년에 행복한 부자학, 2008년 행복한 증권투자, 투자론, 경영학원론 등의 수업을 일관되게 성경적 관점에서 저술하고 그 성과를 소개하였다. 김지원(2015)은 보건의료 전공수업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수업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물리치료 윤리 과목을 수강생 10명을 대상으로, 에세이 분석과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의 적용이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관계의 회복을 실천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독교수들이 협력하여 팀티칭을 이루어 신앙과 학문을 적용한 사례로서. 최혜영(2017)은 2016년부터 전남대 14명의 기독교수들이 '삶과 지적 대화'라는 융복합 교양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과 기독교적 관점에서 수업을 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삶과 지적 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공계, 인문학, 사회과학, 봉사 실천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역사와 기독교 등 통찰력 있는 글도 발견할 수 있었다.

< 전남대학교 교양 "삶과 지적대화" 수업 콘텐츠 >

1) 인체의 신비:인간 생명의 시작과 종말, 2) 생명의 신비 그리고 식물, 3) 우주를 통해 살펴본 과학과 신앙, 4) 하나님과 수, 5) 성경과 현대물리학, 6) 약과 삶, 7) 정보기술과 신앙, 7) 기독교와 문학, 8) 역사와 기독교, 9) 기업의 윤리경영과 경제윤리의 삶, 10) 교회의 법, 성경과 법, 11) 봉사의 삶, 12) 13) 해외치과 의료 봉사에 참여하면서, 14) 빛과 향기로운 크리스천의 사회봉사와 소명

셋째, 대학 레벨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로 최용준(2013)은 신앙과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Robert A. Harris.(2004)의 책을 번역해 소개함은 물론, 한동대학교 안에 '학문과 신앙연구소'를 세워 지속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학문과 신앙 콜로퀴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숙종(2007)은 '기독교 대학과 교육'에서 세속화되어 가는 기독 대학의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 소명을 위해 기독 대학의 역사부터 정체성, 문화, 신학·기독교·영성 교육, 지식의 종합과 신앙공동체의 과제를 통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장제국(2016)은 대학 총장으로서 기독 대학의 건학이념 계승을 위해 설립자인 故장성만 목사의 신앙도서 총 32권을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심은 새로운 약속을 주기 위한 과정이다'라 내용을 종합하며, 대학의 교육이념이 신앙적 관점의 3H, 즉 머리의 지적 교육(head), 가슴의 정신적 교육(heart), 손의 지적 교육(hands)에 있음을 정리하였다.

넷째, 선행연구 마지막은 정규 교과과정이 아닌 비교과 활동으로, 기독교수들이 캠퍼스 선교를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사역을 한 것으로 많은 사례가 있다. 최근 2019년부터 발행된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KUPM) 소식지 제1-6호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신기현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건국대 국제교회, 동아대 캠퍼스교회(부민, 승학), 목포대 대학교회, 전북대 국제교회, 충남대 대학교회 및 국제교회, KAIST 국제교회, 대구경북교수선교회와 부울경기독교수연합회의 유학생 글로벌 비전캠프(CHISTA) 등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대학 전체 차원의 미션스쿨로 보기는 어려우나, 캠퍼스 안팎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 활동을 하며, 특히 최근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가 많아지며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독교수들의 헌신이 눈에 띄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3]

즉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로버트 A. 해리스의 통합연구를 포함 개인, 팀, 대학, 연합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와 자료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18년에 '학문과신앙' 과목을 개설하며 특히 위 선행연구 중 다음 사례를 참조하였다. '학문과신앙'의 명칭은 한동대의 사례를 반영하고, 13명의 기독교수에 의한 릴레이 특강은 전남대 사례를 반영하였다. 수업에 관한 설문조사 평가는 박정윤 교수의 설문방법을 참조하였다. 또 과목의 개설까지 부울경기독교수연합회(BCPN)의

3) 2020년 4월현재 국내대학 유학생은 총153,695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6.5만명, 베트남 3.8만명, 대학별로는 경희대, 성균관대, 고려대가 3,000명이상 대학으로 많다. * 출처: KESS교육통계서비스2021

제9회 부울경기독교수선교대회(주제:학문과신앙)의 손봉호 교수(2016) '기독교적으로 학문하기', 강영안 교수(2017)의 '기독교 세계관' 특강이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학문과신앙의 확산에는 기여하였으나, 팀을 이루어 과목을 개설하고, 또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및 기독인-비기독인 학생간의 차이를 분석하기에는 충분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13명의 기독교수들이 전공과 기독교 세계관을 연계해 팀티칭 수업을 하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 기독인-비기독인 학생의 수업에 대한 평가를 실증분석하고 있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학문과신앙 과목을 개설하여, 성과를 반영한 최초의 실증분석 연구일 것으로 생각된다.

Ⅲ. 학문과신앙 수업의 성과 분석

1. 과목의 개설배경과 소개

연구자는 2018년 3월에 동료 기독교수들과 협력하여 '학문과신앙(learning and faith)'이란 교양과목을 재직하는 대학에 개설하였다. 2021년 7월 현재 총 7학기째를 운영 중으로, 그 동안 321명의 학생이 수강을 신청하여 96.3%에 해당하는 309명이 학점을 이수하였다(Table 2-1). 2020년에 수강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coronavirus disease, COVID)19 팬더믹 상황 방역수칙에 따른 것이며, 2021년의 경우 수강신청자가 계속 늘어 장소를 대강의실(100명 이상)로 옮기고 인원을 강의실의 1/2인 50명으로 확대하였다.

Table 2-1 학문과신앙 과목의 개설진행 추이 (Progress in opening learning and faith subjects.)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수강인원	53	62	40	39	37	40	50	321
이수인원	49	61	37	37	37	39	49	309
비율(%)	92.5	98.4	92.5	92.9	100.0	97.5	98.0	96.3

과목개설의 배경에는 2016년 제9회 부울경기독교수선교대회 주제인 '학문과신앙'이 크게 작용하였다. 기독교수의 캠퍼스 선교활동이 복음전도나 기독동아리 지원을 넘어, 교수들이 각자 소유한 전공지식을 기독교적 가치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교육 봉사할 수 있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출발하였다. 과목명은 '학문과신앙', '신앙과학문'을 2개를 고민하다 한동대 사례와 대학 특성을 고려하여 '학문'을 먼저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명칭에 '신앙'이란 용어를 쓰는

데는 미션스쿨의 장점 상 어려움이 없었다. 과목을 교양으로 한 이유는 어느 전공이든 희망하는 경우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수강대상은 1~4학년 전체로 하되, 매 학기 1개 분반, 50명 미만으로 인원에 제한을 두었다. 수업이 잘 정착될 수 있을까 불안한 부분도 있었지만, 규모가 작아도 매 학기 수업을 연속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강의계획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의목표로 '기독교 세계관(Christian worldviews)이란 무엇인가? 본 수업은 정치, 경제, 사회, 정보기술, 컴퓨터, 보건의료, 건축, 디자인, 음악 등 본교 전임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공지식과 학문적 소양을 기독교 신앙과 융합하여,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건전한 가치관을 제공하고, 21세기 기독인재에게 필요한 비전과 소명(calling)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둘째, 수업의 개요로 '대학의 건학이념에 동참하는 13명의 기독교수가 매주 각자 전공지식을 기독교 신앙과 융합, 릴레이 특강형식으로 진행한다. 성경적 경제관과 리더십, 언어의 이해와 선교, 컴퓨터 및 기계공학과 신앙, 결혼과 성, 교회건축, 기독동영상 제작, 디자인 및 음악 등과 관련된 주제를 기독교 신앙과 접목하여 진행한다. 수강은 기독인 학생은 물론 Non 크리스천 비기독인 학생에게도 적극 추천한다. 셋째, 수업 방법 및 평가로, 수업은 매주 월요일 4시부터 8-9교시 2시간으로 하고 강의 및 토론 나눔 형태로 진행한다. 평가는 출석 20%, 과제물 30%,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로 하되, 80점 이상을 기준으로. Pass/Fail을 정한다. Pass학점으로 한 이유는 평가결과 기독학생과 비기독학생 사이에 편차가 클 수도 있음을 배려한 것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별도 시험 없이 제출한 과제물을 주제로 토론, 피드백하는 형태로 한다. 이는 시험이 13명의 교수에 의해 수업이 이루어짐으로 출제와 평가가 어렵고, 객관적인 기준을 확보하기가 다소 어렵기 때문이었다. 넷째, 수업을 위해 주별 특강에 참여할 교수를 모집하였다. 먼저 참여 여부를 묻되 다양한 전공 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참여 교수는 기독교 신앙인이며, 이번 학기까지 멤버 대부분이 계속 봉사를 하고 있다.[4.] 주별로 진행되는 수업의 내용은 후술하는 논문 Table 3-5와 같다. 학점의 이수 결과는 2020-2학기 경우 40명 중 39명인 97.5%, 2021-1학기 경우 50명중 49명인 98.0%가 80점 이상을 받아 각각 Pass 학점을 취득하였다.

2. 조사의 방법

본 연구는 학문과신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였다. 1차는 2020-2학기로 2020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종강 직전에 조사를 하였다. 2차는 2021-1학기 로 2021년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조사를 하였다. 조사방법은 온라인 방식으로 질문지를 배부 회수하였으며, 진솔한 답변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체 익명으로 하였다. 질문내용은 총 10개로 하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내용을 간단히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 생명윤리심의 규정을 고려해,

4) 단 교수의 개별 이름은 개인정보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밝히지 않는 것으로 한다.

설문 결과가 교과목의 발전 및 건학이념 도모, 기타 기독학문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동의를 묻는 내용을 표시하였다. 그 결과 1명을 제외한 참여자 모두가 동의를 하였으며, 1명의 회수지는 설문조사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지의 회수는 대상자 총 90명중 75명이 응답하여 83.3%의 회수율을 기록하였다. Table 2-2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자료이다. 1차 조사는 40명 중 33명이 응답하여 82.5%을 기록하고, 2차 조사는 50명 중 42명(비동의 1명 제외)이 응답하여 84.0%를 기록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Major)과 관련해 전체 참여자 75명 중 인문사회계열이 42.7%, 공학계열이 22.7%, 기타(방송, 보건계열, 예체능)가 34.7%로 인문사회계열이 약간 많되 고른 분포를 보였다. 1, 2차 조사의 차이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이 51.5%에서 35.7%로 감소하고, 반대로 기타계열이 27.3%에서 40.5%로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공학계열은 큰 변동이 없었다. 둘째, 성별(sex)은 75명 중 남자가 33.3%, 여자가 66.6%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문과신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1, 2차 조사의 차이는 없다. 셋째, 학년(School year)은 1학년 17.3%, 2학년 17.3.2%, 3학년 38.7%, 4학년 26.7%로 고루 분포하되, 1~2학년보다는 3~4학년이 더 많이 학문과신앙을 신청하는 경향을 보였다. 1, 2차 조사의 차이에서도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넷째, 종교적(Religion) 성향은 기독교(Protestant로 한정함) 25.3%, 가톨릭 6.7%, 불교 5.3%, 없음 62.7%로 종교 없음이 많고, 과목 특성상 기독학생이 25.3%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는 부산시 평균 복음화율을 10%로 가정할 경우 약 2.5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 2차 조사 차이에서는 기독교가 33.3%에서 19.0%로 감소한 것에 비해, 종교 없음이 48.5%에서 73.8%로 크게 증가하여 설문조사 전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분석을 위해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빈도 교차분석(Frequency Cross Analysis)과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집단별 평균분석(Analysis of Means by Group)을 실시하였다. 또 설문 분석 시, 질문에 대한 전체 학생의 반응과 기독인 및 비기독인의 반응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체((All), 기독인(Christians), 비기독인(non-Christian) 학생을 구별해 Table별로 교차 빈도분석과 집단별 평균분석을 하고, 기독인-비기독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특히 기독인- 비기독인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수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은 수업 및 신앙에서 긍정적 반응을 가질 것이다. 둘째, 기독학생은 비기독학생에 비하여 수업 및 신앙에서 높은 수준의 긍정적 반응을 가질 것이다. 셋째, 비기독학생의 경우에도 수업 및 신앙에서 과반수 이상 수준의 긍정적 반응을 가질 것이다. 또한 측정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문항들에 대한 신뢰성을 실시하였다. 학문과신앙 과목의 유익성은 0.855, 학문과신앙 과목을 통한 신앙 심화 및 응용평가는 0.854로 제시되었다. α값이 0.7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탐색적 연구에서는 0.5이상을 기준치로 한다고 하였다. 신뢰성은 확인되었다. 이외의 측정항목은 단일항목으로 측정되었다.

Table 2-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응답수(n)		1차조사 First Survey		2차조사 Second Survey		전체 All	
		응답수(n)	비율(%)	응답수(n)	비율(%)	응답수(n)	비율(%)
전 공 (Major)	① 인문사회(Humanities)	17	51.5	15	35.7	32	42.7
	② 공학(Engineering)	7	21.2	10	23.8	17	22.7
	③ 기타(Other than)	9	27.3	17	40.5	26	34.7
	합 계 (Total)	33	100.0	42	100.0	75	100.0
성 별 (Sex)	① 남자 (male)	11	33.3	14	33.3	25	33.3
	② 여자 (female)	22	66.7	28	66.7	50	66.7
	합 계 (Total)	33	100.0	42	100.0	75	100.0
학 년 (School year)	① 1학년 (1year)	6	18.2	7	16.7	13	17.3
	② 2학년 (2year)	7	21.2	6	14.3	13	17.3
	③ 3학년 (3year)	13	39.4	16	38.1	29	38.7
	④ 4학년 (4year)	17	21.2	13	31.0	20	26.7
	합 계 (Total)	33	100.0	42	100.0	75	100.0
종 교 (Religion)	① 기독교 (Protestant)	11	33.3	8	19.0	19	35.3
	② 가톨릭 (Catholic)	4	12.1	1	2.4	5	6.7
	③ 불교 (Buddhism)	2	6.1	2	4.8	4	5.3
	④ 없음 (None)	16	48.5	31	73.8	47	62.7
	⑤ 기타 (Other)	0	0.0	0	0.0	0	0.0
	합계 (Total)	33	100.0	42	100.0	75	100.0

3. 분석의 결과

(1) 기독인-비기독인 집단별 차이와 수강신청 관계

Table 3-1 교차분석 : 기독인-비기독인, 학년별 수강신청 (Cross Analysis)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합계(Total)
기독인 Christians	응답수(n)	6	5	3	5	19
	비율(%)	31.6	26.3	15.8	26.3	100.0
비기독인 non-Christian	응답수(n)	7	8	26	15	56
	비율(%)	12.5	14.3	46.4	26.8	100.0
전 체 All	응답수(n)	13	13	29	20	75
	비율(%)	17.3	17.3	38.7	26.7	100.0

학문과신앙의 수업과 관련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1 는 기독인-비기독인의 여부와 학년을 교차분석(Cross Analysis)하여 수강신청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는 Table 2-2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응답에서는 3~4학년에서 수강신청을 많이 하였으나, 기독인과 비기독인의 차이(이하, 기독인 여부라 함)를 구분하였을 때는 1~2학년의 경우 기독인에서 높은 수강신청 경향을 나타냈다. 즉 1~2학년이 학문과신앙이라는 기독 용어에 호감을 갖고 수강 신청을 빠르게 결정하는 것에 비해, 3~4학년은 과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학문과신앙 과목의 유익성

Table 3-2 나는 '학문과신앙' 수업이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I think the class was useful)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합 계 Total
기독인 Christians	응답수(n)	11	5	3	0	0	19
	비율(%)	57.9	26.3	15.8	0.0	0.0	100.0
비기독인 non-Christian	응답수(n)	20	27	9	0	0	56
	비율(%)	35.7	48.2	16.1	0.0	0.0	100.0
전 체 All	응답수(n)	31	32	12	0	0	75
	비율(%)	41.3	42.7	16.0	0.0	0.0	100.0

* 집단별 평균분석: 기독교인(CA) 1.5789, 비기독교인(NCA) 1.8036, 전체(AA) 1.7467, 차이(CA-NCA) 0.2247

Table 3-2는 학문과신앙 과목의 유익(useful)에 관한 질문으로, 전체의 경우 '매우 그렇다' 41.%, '그렇다' 42.7% 합계 84.0%로 높은 수준의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0%로 보이지 않았다. 즉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익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교양과목(the liberal arts)으로 정착된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독인 여부 차이에서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전체 비율은 비슷하나, 세부적으로 보면 기독인이 '매우 그렇다'가 57.9%로 매우 높은 것에 비해, 비기독인은 '그렇다'가 48.2%로 가장 높아, 기독인이 과목에 더 긍정적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집단별 평균분석에서는 전체 평균 1.7467로 긍정적 평가가 강했으며, 특히 기독인이 1.5789, 비기독인 1.8036로 기독인이 0.2247로 수준에서 더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독인이 비기독인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가질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 일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Table 3-3 나는 '학문과신앙'이 다른 일반 교양과목과 비교해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I think the class was useful compared to other liberal arts classes)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합 계 Total
기독인 Christians	응답수(n)	9	6	4	0	0	19
	비율(%)	47.4	31.6	21.1	0.0	0.0	100.0
비기독인 non-Christian	응답수(n)	20	17	19	0	0	56
	비율(%)	35.7	30.4	33.9	0.0	0.0	100.0
전 체 All	응답수(n)	29	23	23	0	0	75
	비율(%)	38.7	30.7	30.7	0.0	0.0	100.0

* 집단별 평균분석: 기독교인(CA) 1.7368, 비기독교인(NCA) 1.9821, 전체(AA) 1.9200, 차이(CA-NCA) 0.2452

Table 3-3는 유익의 크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하기 위해 다른 교양과목과 비교한 내용이다. 전체의 경우 '매우 그렇다' 38.7.%, '그렇다' 30.7%, 합계 69.4%로서 Table 3-2의 유익성 84.0%보다는 떨어지나 그래도 높은 수준의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0%로 없었다. 기독교인 여부에서는 기독인일수록 '매우 그렇다'가 47.4%로 긍정적 평가가 높고, 비기독인에서는 유익성이 점차 낮아져 '보통이다' 33.9.%로 나타났다. 집단별 평균분석은 전체 평균 1.9200로 긍정적 평가가 강했으며, 특히 기독인이 1.7368, 비기독인 1.9821로 0.2452 수준에서 기독인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3) 학문과신앙 과목의 유익성 이유와 전공 분야별 관심도

Table 3-4 '학문과신앙'이 유익한 이유에 대해 다음 중 2개를 고르시오. (Useful reasons, choose two)

	기독인 Christians		비기독인 non-Christian		전 체 All	
	응답수 (n)	비율 (%)	응답수 (n)	비율 (%)	응답수 (n)	비율 (%)
① 기독교 신앙을 알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6	15.8	17	15.2	23	15.3
② 다양한 교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10	26.3	22	19.6	32	21.3
③ 다양한 전공의 내용을 알수 있어서 좋았다.	10	26.3	38	33.9	48	32.0
④ 패스학점으로 성적에 부담이 없어서 좋았다.	7	18.4	24	21.4	31	20.1
⑤ 전체적으로 다 좋았다.	5	13.2	11	9.8	16	10.7
합 계 Total	38	100.0	112	100.0	150	100.0

Table 3-4는 학문과신앙 과목이 유익한 이유(useful reasons)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경우, '다양한 전공 내용을 알 수 있어 좋았다'가 32.0%로 가장 높고, 두 번째가 '다양한 교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21.3%, '패스학점으로 성적에 부담이 없어서 좋았다' 20.1, '기독교 신앙을 알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15.3%의 결과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전공 분야와의 접촉과 교수들의 다양한 간증에 관심이 더 많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기독인 여부 분석에서는 기독인은 다양한 교수의 간증(26.3%), 비기독인은 다양한 전공(33.9%)에 더 관심이 있음을 나타냈다. 집단별 평균분석은 5점 척도 응답이 아니어서 생략하였다.

Table 3-5는 신앙과 연계된 각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도(level of interest)를 분석한 결과이다. 질문은 13개 분야중 4개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결과는 전반보다는 후반, 인문사회계열보다는 공학이나 예체능 계열에서 더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디자인과 신앙, 음악과 신앙,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에서 관심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기독인 여부 차이에서는 기독인일수록 작은 변화이지만, 성경적 경제관, 기

Table 3-5 '학문과신앙' 수업 내용 중 특별히 더 인상 깊었거나 유익했던 분야 4개를 고르시오. (Choose four areas that you we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class)

	기독인 Christians		비기독인 non-Christian		전 체 All	
	응답수(n)	비율(%)	응답수(n)	비율(%)	응답수(n)	비율(%)
① OT, 성경적 경제관과 재정관리	5	6.6	13	5.9	18	6.0
② 기독 세계관의 이해	5	6.6	10	4.5	15	5.0
③ 경영윤리와 리더십	4	5.3	14	6.3	18	6.0
④ 언어의 이해와 선교	6	7.9	14	6.3	20	6.7
⑤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와 영적관리	7	9.2	34	15.3	41	13.8
⑥ 성경말씀의 심리학과 신경과학적 통섭	6	7.9	8	3.6	14	4.7
⑦ 컴퓨터의 구조 : 로봇과 동물의 유사성	3	3.9	8	3.6	11	3.7
1차 과제물 피드백, 나눔의시간	-	-	-	-	-	-
⑧ 기독영상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7	9.2	24	10.8	31	10.4
⑨ 첨단기술분야와 엔지니어의 소명의식	7	9.2	13	5.9	20	6.7
⑩ 교회건축의 역사와 구조	3	3.9	9	4.1	12	4.0
⑪ 디자인과 신앙	6	7.9	31	14.0	37	12.4
⑫ 음악과 신앙	9	11.8	26	11.7	35	11.7
⑬ 섬김과 비전, 도전의 삶	8	10.5	18	8.1	26	8.7
2차 과제물 피드백, 나눔의시간	-	-	-	-	-	-
합 계 Total	76	100.0	222	100.0	298	100.0

독교 세계관, 선교, 소명의식, 섬김과 비전 등의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able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면과 비대면 수업의 변화를 참고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2020-1학기부터 코로나(COVID)19의 영향으로 학문과신앙 수업도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한 혼합 수업, 즉 블랜디드(Blended) 수업을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대면 수업을 줄이고, 온라인 동영상 및 ZOOM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 수업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2020-2학기 대면으로 실시한 4개를 2021-1학기에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 수업으로 전환하고, 반대로 2020-2학기 Zoom 수업 1개를 2021-1학기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비교 결과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이 성과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물론 학생들이 집중해서 영상을 듣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겠지만, 과제물 등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4) 학문과신앙 과목을 통한 신앙 심화 및 응용 평가

Table 3-6 나는 '학문과신앙'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성경지식이 더 깊어졌다고 생각한다. (I think my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 and knowledge of the Bible have deepened through the class)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합 계 Total
기독인 Christians	응답수(n)	9	5	5	0	0	33
	비율(%)	47.4	26.3	26.3	0.0	0.0	100.0
비기독인 non-Christian	응답수(n)	14	28	12	2	0	56
	비율(%)	25.0	50.0	21.4	3.6	0.0	100.0
전 체 All	응답수(n)	23	33	17	2	0	75
	비율(%)	30.7	44.0	22.	2.7	0.0	100.0

* 집단별 평균분석: 기독교인(CA) 1.7895, 비기독교인(NCA) 2.0357, 전체(AA) 1.9733, 차이(CA-NCA) 0.2462

Table 3-6은 학문과신앙 수업 후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성경 지식이 깊어졌는가의 결과이다. 전체의 경우 '매우 그렇다' 30.7%, '그렇다' 44.0%, 합계 71.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기독인 여부 차이에서는 기독인이 '매우 그렇다' 47.4%의 반응을 보이고, 비기독인은 '그렇다'에서 50%로 오히려 높은 반응을 보였다. 즉 기독인일수록 높은 수준의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비기독인은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기독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기독인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집단별 평균분석은 전체 평균 1.9733으로 긍정적 평가가 강했으며, 기독인이 1.7895, 비기독인 2.0357로 0.2462 수준에서 기독인이 더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7 나는 '학문과신앙'을 통해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거나, 새롭게 기독교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I want to learn more about Christianity through learning and faith)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합 계 Total
기독인 Christians	응답수(n)	7	5	5	2	0	19
	비율(%)	36.8	26.3	26.3	10.5	0.0	100.0
비기독인 non-Christian	응답수(n)	10	12	22	10	2	56
	비율(%)	17.9	21.4	39.3	17.9	3.6	100.0
전 체 All	응답수(n)	17	17	27	12	2	75
	비율(%)	22.7	22.7	36.0	16.0	2.7	100.0

* 집단별 평균분석: 기독교인(CA) 2.1053, 비기독교인(NCA) 2.6786, 전체(AA) 2.5333, 차이(CA-NCA) 0.5733

Table 3-7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거나 추가로 기독교에 대해 알고 싶어졌는가에 관한 분석이다. 전체의 경우 '매우 그렇다' 22.7%,, '그렇다' 22.7%, 합계 45.4%로 긍정적 반응이 과반수에 약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기독인은 63.1%로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으나, 비기독인의 경우 39.3%로 다소 낮은 수치가 나왔다. 즉 비기독학생의 경우 수업을 통해 다양한 전공 분야, 간증,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에는 긍정적이나, 새롭게 추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다소 소극적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집단별 평균분석은 전체 평균 2.5333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했으며, 기독인이 2.1053, 비기독인 2.6786로 양 집단간의 차이가 0.5733 수준으로 앞의 결과보다 크게 벌어지는 특징을 읽을 수 있다.

Table 3-8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 4대 성인을 넘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올 것을 믿는다. (I believe that you died on the cross, and that you were resurrected in three days)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합 계 Total
기독인 Christians	응답수(n)	11	3	5	0	0	19
	비율(%)	57.9	15.8	26.3	0.0	0.0	100.0
비기독인 non-Christian	응답수(n)	7	9	28	6	6	56
	비율(%)	12.5	16.1	50.0	10.7	10.7	100.0
전 체 All	응답수(n)	18	2	33	6	6	75
	비율(%)	24.0	16.0	44.0	8.0	8.0	100.0

* 집단별 평균분석: 기독교인(CA) 1.6842, 비기독교인(NCA) 2.2911, 전체(AA) 2.600, 차이(CA-NCA) 0.6069

Table 3-8는 기독교의 핵심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의 경우 '매우 그렇다' 24.0.%, '그렇다' 16.0%, 합계 40.0%로 과반수 미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 등에 대해 학습을 하며 이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자신의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어려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독인 여부 차이에서는 기독인이 '그렇다' 이상이 73.7%로 높은 수준에서 신앙고백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에 비해, 비기독인은 '그렇다' 이상이 28.6%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집단별 평균분석은 전체 평균 2.600으로 처음으로 과만수 미만의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기독인이 1.6842, 비기독인이 2.2911로 0.6069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특히 1차조사 기독인 비율 33.3%가 2차조사의 경우 19.0%로 떨어지고, 반대로 비기독인 비율이 66.3%에서 81.0%로 상승하며 신앙고백에 대한 전체 평균이 더 크게 떨어졌음을 읽을 수 있다.

Table 3-9 나는 졸업 후, 기독교적 소명의 직업의식을 갖고, 국가와 민족, 이웃과 인류를 위해 공헌하고 봉사하는 보람된 삶을 살고 싶다. (I wanted to serve my country and neighbors with a Christian mind)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합 계 Total
기독인 Christians	응답수(n)	11	4	4	0	0	19
	비율(%)	57.9	21.1	21.1	0.0	0.0	100.0
비기독인 non-Christian	응답수(n)	14	20	16	4	2	56
	비율(%)	25.0	35.7	28.6	7.1	3.6	100.0
전 체 All	응답수(n)	25	24	20	4	2	75
	비율(%)	33.3	32.0	26.7	5.3	2.7	100.0

* 집단별 평균분석: 기독교인(CA) 1.6316, 비기독교인(NCA) 2.2857, 전체(AA) 2.1200, 차이(CA-NCA) 0.6541

Table 3-9은 졸업 후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갖고, 국가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겠는가에 관한 분석이다. 전체의 경우 '매우 그렇다' 33.3%, '그렇다' 32.0%, 합계 65.3%로 헌신과 봉사적인 삶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Table 3-9에서 신앙고백에 어려움이 있었던 학생도 봉사 부분에서는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갖고, 헌신하고 싶다는 반응이 더 높게 나왔다. 집단별 평균분석은 전체 평균 2.1200으로 과반수를 다소 넘는 수준에서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기독인이 1.6316, 비기독인이 2.2857로 0.6541 수준에서 크게 차이를 나타냈다. 즉 기독교적 소명의식이라는 전제가 있기는 하나, 국가나 이웃에 대한 봉사 개념이 기독인에서 더 강하게 의식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한 삶,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그리스도의 희생정신, 서번트(Servant) 섬김의 리더십 학습 효과 등이 봉사 마인드(mind)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Table 3-10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대학이 기독교 건학이념에 따라 세워진 미션스쿨임을 잘 알고 있다.
(I know well that our university is a mission school)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합 계 Total
기독인 Christians	응답수(n)	14	1	4	0	0	19
	비율(%)	73.7	5.3	21.1	0.0	0.0	100.0
비기독인 non-Christian	응답수(n)	22	25	5	4	0	56
	비율(%)	39.3	44.6	8.9	7.1	0.0	100.0
전 체 All	응답수(n)	36	26	9	4	0	75
	비율(%)	48.0	34.7	12.0	5.3	0	100.0

* 집단별 평균분석: 기독교인(CA) 1.4737, 비기독교인(NCA) 1.8393, 전체(AA) 1.7467, 차이(CA-NCA) 0.3656

Table 3-10은 현재의 대학이 기독교 건학이념에 따라 세워진 미션스쿨(Mission school)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에 관한 분석이다. 전체의 경우 '매우 그렇다' 48.0%, '그렇다' 34.7%, 합계 82.7%로 대부분의 학생이 재학중인 대학이 미션스쿨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인 여부 차이는 기독인이 '매우 그렇다' 73.7%, 비기독인이 '매우 그렇다' 39.3%로, 기독학생일수록 미션스쿨임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평균분석은 전체 평균 1.7467로 높은 수준에서 미션스쿨임이 인지되고 있으며, 기독인 여부의 차이는 기독인이 1.4737, 비기독인이 1.8393로 0.3656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기독 학생일수록 채플에 대한 인지도가 강한 한편, 비기독학생에게도 채플 인지도가 높은 수준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대학정책으로 실시되는 채플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기독인-비기독인 집단별 차이분석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독인과 비기독교인의 응답차이가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효 표본은 75개이며, 결측값은 없다. Table 3-11은 과목의 유용성과 타과목과의 비교유용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0.01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독교이해, 미래신앙, 신앙고백, 봉사공헌, 건학이념에 대해서는 기독교이해와 봉사공헌, 기독교이해와 건학이념과의 관계를 제외한 부분에서 0.01, 0.05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11 상관관계 결과 (Correlation Results)

<과목유용성과 비교유용성의 상관관계 결과>

	과목유용	비교유용
과목유용 Subject Usability	1	
비교유용 Comparative Usability	.755(**) (0.000)	1

** 0.01 수준에서 유의

<기독교이해, 미래신앙, 신앙고백, 봉사공헌, 건학이념에 대한 상관관계 결과>

	기독교이해	미래신앙	신앙고백	봉사공헌	건학이념
기독교이해 Christian understanding	1				
미래신앙 Future Faith	.768(**) (0.000)	1			
신앙고백 A confession of faith	.603(*) (0.033)	.652(*) (0.043)	1		
봉사공헌 Service contribution	.642 (0.052)	.664(*) (0.049)	.747(*) (0.041)	1	
건학이념 The spirit of foundation	.395 (0.053)	.271(*) (0.019)	.336(**) (0.003)	.337(**) (0.003)	1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

Table 3-12 은 기독인-비기독인 학생의 집단별 차이를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분를 살펴보면, 신앙고백(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올 것을 믿는다)은 0.01수준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미래신앙(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거나, 새롭게 기독교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과 봉사공헌(졸업 후, 기독교적 소명 의식을 갖고, 국가와 민족, 인류를 위해 공헌하고 봉사하고 싶다)은 0.05수준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있다. 다른 부분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t-test와 유의확율이 신앙고백은 t=-4.395, p=.000으로 0.01수준에서, 미래신앙은 t=-2.013, p=.048, 봉사공헌은 t=-2.483, p=.015로 0.05 수준에서 기독인과 비기독인 학생 집단간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과목유익(학문과신앙 수업이 유익했다)은 t=-1.181, p=.241, 비교유익(학문과신앙이 다른 교양과목과 비교해 유익했다)은 t=-1.109, p=.271, 기독교이해(학문과신앙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성경지식이 깊어졌다)는 t=-1.155, p=.252), 건학이념(우리 대학이 기독교 건학이념에 따라 세워진 미션스쿨임을 알고 있다)은t=-1.597, p=.115)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12 집단별(기독인-비기독인) 차이분석 (Analysis of differences by group)

		과목 유익	비교 유익	기독교 이해	미래 신앙	신앙 고백	봉사 공헌	건학 이념
N 유효	기독인(Christians)	19	19	19	19	19	19	19
	비기독인(Non-Christian)	56	56	56	56	56	56	56
	전체 (All)	75	75	75	75	75	75	75
평균	기독인(Christians)	1.5789	1.7368	1.7895	2.1053	1.6842	1.6316	1.4737
	비기독인(Non-Christian)	1.8036	1.9821	2.0357	2.6786	2.9107	2.2857	1.8393
	전체 (All)	1.7467	1.9200	1.9733	2.5333	2.6000	2.1200	1.7467
표준편차	기독인(Christians)	.76853	.80568	.85498	1.04853	.88523	.83070	.84119
	비기독인(Non-Christian)	.69856	.81488	.78542	1.08052	1.10003	1.03948	.86921
	전체 (All)	.71836	.83440	.80494	1.09462	1.17404	1.02614	.87137
평균의 표준오차	기독인(Christians)	.17631	.18484	.19615	.24055	.20308	.19058	.19298
	비기독인(Non-Christian)	.09335	.11250	.10496	.14439	.14700	.13891	.11615
	전체 (All)	.08295	.09635	.09295	.12640	.13557	.11849	.10062
Levene의 등분산 검정(유의확률)		.341	.976	.159	.898	.906	.423	.785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1.181	-1.109	-1.155	-2.013	-4.395	-2.483	-1.597
	자유도	73	73	73	73	73	73	73
	유의확률(양쪽)	.241	.271	.252	.048	.000	.015	.115
평균차이	평균차이	-.22462	-.24530	-.24624	-.57331	-1.2265	-.65414	-.36560

그리고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경우, 기독인-비기독인의 평균값 차이는 신앙고백이-1.2265, 봉사공헌 -.65414, 미래신앙 -.57331의 크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기독인 평균값이 2.0 이상(미래신앙 2.6786, 신앙고백 2.9107, 봉사공헌 2.2857)으로 소극적 반응을 보일 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경우의 평균값 차이는 과목유익 -.22462, 비교유익 -.24530, 기독교이해 -.24624, 건학이념 -.36560으로, 특히 비기독인 평균값이 과목유익 1.8036, 비교유익 1.9821, 기독교이해 2.0357, 건학이념 1.8393과 같이 2.0 이하로 긍정적일 경우, 기독인-비기독인의 응답이 모두 긍정적이므로 차이가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

IV. 분석 결과의 시사점과 과목개설을 위한 제언

그러면 이러한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자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각 학문 분야 전공을 통합한 학문과신앙 수업이 전국 대학의 기독교수들에 의해 많이 개설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는 이하, 분석 결과의 시사점을 정리하고, 학문과신앙의 과목 개설 시 필요한 내용을 제언한다. 또 참고로 학문과신앙 수업을 하며 학생들이 제출한 은혜의 과제물 후기를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1. 분석 결과의 시사점

학문과신앙 수업에 대한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에 13명의 기독교수가 릴레이 특강 형태로 수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과목이 잘 정착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7학기째 수업을 하고,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학문과신앙 과목이 유익했는가에 대한 5점 척도 질문에 기독인은 1.5789, 비기독인은 1.8036, 전체평균 1.7467의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또 타 교양과목과의 비교에서도 기독인 1.7368, 비기독인 1.9821로 반응하며, 학문과신앙 과목이 기독인은 물론 비기독인 학생에게도 선호하는 과목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유익한 이유는 다양한 전공분야(32.0%)와 다양한 교수들의 신앙 간증(21.3%), 새롭게 기독교 신앙을 알 수 있는 계기(1.5.3%)가 되었다는 반응을 보여, 과목의 개설이 의미있는 것임을 시사하였다. 특히 15주간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 성경적 경제관과 재정관리. 기독교 세계관, 경영윤리와 리더십, 언어의 이해와 선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영적관리, 성경말씀의 심리학과 신경과학적 통섭, 컴퓨터의 구조 : 로봇과 동물의 유사성, 기독영상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첨단기술분야와 엔지니어의 소명의식, 교회건축의 역사와 구조, 신앙과 디자인, 신앙과 음악 등, 다양한 전공 분야를 신앙과 연계하여 진행한 수업이 학생들의 사고와 시야를 넓히고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유익한 방법이 될 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특강 순서 및 구성과 관련한 것으로서, 학생들은 위 특강에 대해 학기 전반보다는 후반, 인문사회계열 내용보다는 공학이나 예체능 계열에서 더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디자인과 신앙, 음악과 신앙,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에 더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또 기독인일수록 성경적 경제관, 기독교 세계관, 선교, 소명의식, 섬김과 비전 등의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한 혼합 수업, 즉 블랜디드(Blended) 수업의 결과를 살펴보면, 2020-2학기 대면으로 실시한 4개 특강을 2021-1학기에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수업으로 전환하고, 반대로 2020-2학기 Zoom 수업 1개를 2021-1학기 대면수업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이 성과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 시 집중해서 영상을 듣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겠지만, 과제물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비대면으로 수업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IT환경에 맞추어 계속해서 비대면 수업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참조로 수강신청 시 기독인은 관련 용어에 친숙하여 1~2학년 단계부터 학문과신앙을 선택하는 것과 비교해, 비기독인은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3~4학년 단계에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학문과신앙 과목을 심화 응용한 것으로,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성경지식이 깊어 졌고(기독인 1.7895, 비기독인 2.0357, 평균 1.9733)', 졸업 후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갖고 국가와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기독인 1.6316, 비기독인 2.2857, 평균 2.1200)'는 마인드에서도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또 학생의 대부분이 '재학하는 대학이 건학이념에 따라 세워진 미션스쿨임'을 인지하고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기독인 1.4737, 비기독인 1.8393, 평균 1.7467). 즉 기독인은 물론 비기독인의 경우에도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긍정적 평가로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신앙생활을 새롭게 잘하고 싶다'는 질문에는 2.6786,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2.6000으로 과반수 미만의 다소 부정적 답변을 보였다. 특히 기독교 핵심 교리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의 경우, 기독인이 1.6842, 비기독인이 2.2911로 0.6069 수준으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 학문과신앙 수업을 통해 단기간 내에 높은 수준의 신앙고백을 도출해 내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의 경우에도 기독인이 2.1053, 비기독인 2.6786, 평균 2.5333으로 과반수 이상의 긍정적 평가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 질문은 기독인과 비기독인의 차이가 큰 항목으로, 특히 비기독인의 경우 수업을 통해 다양한 전공과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얻는 데는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단기간 내에 새롭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넷째는 기독인-비기독인 학생의 차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로서, 과목의 유용성과 타과목과의 비교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0.01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별 차이 t-test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고백' 질문의 경우 0.01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신앙생활을 더 잘하거나 새롭게 기독교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및 '졸업 후 기독교적 소명을 갖고, 국가와 민족, 인류를 위해 공헌하고 봉사하고 싶다'는 질문은 0.05수준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있었다. 다른 부분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비기독인이 소극적으로 반응한 신앙고백 부분과 앞으로의 미래신앙, 봉사부분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문과신앙 과목을 개설 할 경우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2. 학문과신앙 과목개설을 위한 제언

신학 또는 기독 교과목이 아닌 일반 전공 수업을 신앙과 접목해 학생들과 같이 학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닌 일반 기독교수가 학문과신앙 수업을 끌어가기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D대학의 사례를 통해 학문과신앙이 전국 대학에서 개설되어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수업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는 2020-2학기 4.53, 2021-1학기 4.55를 기록하여 대학 평균 보다 0.14와 0.11 수준에서 각각 높았다. 그러면 기독교수들이 어떻게 협력하여 학문과신앙 과목을 개설하면 좋을까? 본 연구는 앞의 시사점 등을 포함해 다음 4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수의 영성(spirituality)과 개발이다. 학문과신앙은 교수자가 전공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함께 나누는 수업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제자가 되어야 한다(John Stott, 2010). 성경을 묵상하고 영성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 그를 아는 지식에 힘쓰며, 영화롭게 할 필요가 있다.(Calvin, 1959). 또 자신이 가르치는 전공 내용을 성경적 가치관 및 기독교적 세계관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최고의 참고문헌은 신구약 성경 66권이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공과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교리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탁명환, 1986:15-18, 탁지일, 2021: 22-55). 그리고 신앙가운데 학생들에게 진솔하게 들려줄 간증, 스토리가 있다면 준비해도 좋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이야기 등 임팩트 있는 삶을 나눌 수 있는 스토리가 준비된다면 더욱 좋다.

둘째, 수업의 준비와 팀웍이다. 학문과신앙은 1명의 교수가 담당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자는 D대학의 사례와 같이 여러 명의 교수가 함께 참여하길 추천한다. 인문사회와 공학, 예체능 대학 기독교수들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교수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이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요구된다. 먼저는 매주 특강을 하는 교수가 변경됨으로 전체를 총괄해서 돕는 코디 교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디 교수는 강의계획표의 작성부터 출석, 과제물 확인, 성적 입력까지 행정적 부분들을 담당하고, 매주 수업을 하는 교수에게 해당 순서가 됨을 공지해 공백이 없도록 한다. 수업하는 교수가 변경됨에 따라 일관성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참여 교수는 자신의 강의 순서를 확인하고, 기도하며 합력하는 자세로 수업을 준비한다.

셋째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가르침이다.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수업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을 사랑하며 섬김의 마음을 갖되, 비기독교인 학생에 대해 수업시간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비기독인 학생은 기독인 학생에 비해 수업에 대한 긍정적 자세가 소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수업 전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교수에 대한 예의도 잘 갖추지만, 기독교 핵심교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또 극히 소수이지만, 갑자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기독교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고려하며, 수업을 균형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업 후 학생들의 과제물 내용을 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자세로 피드백의 글을 쓰고, 또 신앙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해 감이 보인다. 교수자는 자신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수업에 임하는 것은 중요하다.

넷째는 지속적인 학문과신앙의 단계별 통합방법 개발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D대학 사례는 아직 걸음마 수준의 수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로버트 해리스(2004)의 경우 학문과신앙의 통합(integration)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나누고 있으나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통합의 유형을 첫째 신앙의 간증 단계, 둘째 전공과 성경의 결합 단계, 셋째 물질주의(materialism), 불가지론(agnosticism),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등을 인식한 기독교 세계관 강의 단계, 넷째 학문과 신앙을 완전히 통합해 새로운 기독교적 가치로 연결하는 단계로 점차 내용을 심화시켜 갈 필요가 있다. 해리스는 기독교 세계관(Christian worldviews)에 기초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그 어떤 자연주의 철학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 이루어진 것보다도 더 합리적이고 현실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 강조하고 있다.

3. 학문과신앙 과제물 피드백

연구자는 코로나19 상황가운데 비대면 중심으로 학문과신앙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매시간 특강의 개요와 느낀 점, 적용 점을 3개로 나누어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Zoom을 통해 중간 및 기말고사 기간에 개인별로 인터뷰를 하며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연구의 마지막 순서로 극히 일부이지만, 간략히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OT, 성경적 경제관과 재정관리 : 경제문제를 구약성경 창세기와 연결해 모든 재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올바른 성경적 윤리 규범을 제시함으로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인 관점에 따라 돈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졌다.

(2)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편재하시며 영원불변하시고 완전하시며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임을 느낄 수 있었다.

(3) 경영윤리와 리더십 : 법적 강요나 사회통념에 의한 윤리적 경영을 넘어 성경의 기초위에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고 경영을 하는 것이 의미있다 생각하였다.

(4) 언어의 이해와 선교 : 중국 현대 문인들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중국 현대시가 기독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기독교의 사상과 문화가 중국 현대 시문학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5)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와 영적관리 : 가족과 건강 중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와 영적관리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과제를 하며 선천성 기형아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6) 성경말씀의 심리학과 신경과학적 통섭 : 성경말씀의 심리학과 신경과학적 통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다. 찬양자서전과 음악자서전을 과제로 제출하였다. 성과 결혼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에 생각해 보았다.

(7) 컴퓨터의 구조: 로봇과 동물의 유사성 : 지구 이외 다른 곳에도 생명이 존재한다면, 또 무신론과 창조론 2가지 가정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생명이 진화되어 절대자의 개입 없이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8) 기독영상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 기독 영상물의 기획과 제작에 대해 알아보는 수업이었다. 요즘 최고의 영상물 플랫폼은 유튜브이다. 기독 영상물의 구성 요소로는 자막, 자막에 도움을 주는 영상, 자막의 인아웃 효과, 배경음악, 내레이션이 있다.

(9) 첨단 기술분야와 엔지니어의 소명의식: 첨단 기술 분야와 엔지니어의 소명의식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였다. 또한 교수님의 간증을 통해 삶에 대한 인생이야기도 함께 해 주셨다.

(10) 교회건축의 역사와 구조 : 교회의 상징에 대해서 다양한 사진을 보여 주시며 설명해주셨다. 그리스 신전과 Basilica에 대한 내용도 여러 사진과 도면으로 설명해주시며 이해를 도왔다.

(11) 디자인과 신앙 : 교수님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매년 부산 남포동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다. 트리 축제가 우리 대학 학생들 함께 연구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다른 구조물 하나하나 의미가 있었다.

(12) 음악과 신앙 : 음악은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에 의하여,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피조세계에 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목적을 다하는 것이라 하셨다.

(13) 섬김과 비전, 도전의 삶 : 학문과신앙, 마지막 수업으로 섬김과 미래의 비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V. 결 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D대학의 정문 입구 아치에 쓰여 있는 성경 본문이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가능한가? D대학은 기독교 건학이념 위에 세워진 대학이다.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대학은 아니나,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운영되는 미션스쿨(Mission school)이다. 매주 1회 1~3학년 학생이 채플을 드리고 있다. 2020년 제2학기 현재 7,063명이 참여하였다. 또 여러 기독교 관련 교양과목이 운영되고 있다.[5] 그리고 2018년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학문과신앙이 처음 개설되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13명의 기독교수들이 미션스쿨인 D대학에서, 어떻게 기독교적 세계관과 전공을 융합하여 학문과신앙(learning and faith) 과목을 개설하고, 또 성과를 얻었는지를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2020년 12월과 2021년 6월,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고,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빈도분석(Frequency Cross Analysis)과 집단별 평균분석(Analysis of Means by Group),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전체 반응은 물론, 기독학생과 비기독학생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과목의 유익성에 대한 5점 척도 질문에 평균 1.7467 반응을 보이고, 타 과목과의 비교에서도 1.9200으로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타 대학에서도 학문과신앙 과목을 개설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문과신앙이 다양한 전공분야(32.0%)와 교수들의 신앙 간증(21.3%), 기독교 신앙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계기(1.5.3%)가 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 수강신청의 경우 기독인은 1~2학년에서 기독 용어의 표현을 보고, 비기독인은 3-4학년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득 후 신청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기 전반보다는 후반, 인문사회보다는 공학과 예체능 분야의 특강에 더 관심이 많음을 나타냈다. 또 코로나19의 상황을 반영해 대면과 비대면 영상 수업을 비교할 경우 IT환경에 맞춘 비대면 수업도 성과를 높게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둘째, 수업을 통한 응용으로,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성경 지식이 깊어졌으며, '기독교적 소명에 따라 봉사를 하고 싶다'는 점에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기독교 핵심교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미래 신앙생활의 발전'은 단기간의 수업을 통해 성과를 얻는 것

5) D대학에 개설된 기독교관련 교양과목에는 예를 들어 다음이 있다. 역사속의 기독교 이야기, 역사로 보는 성경, 성경으로 배우는 영어 구조, 생명과 창조과학, 빛과소금:기독교인의 역할, 자긍심증진:빌사일삼, 21세기 행복 나침판: 성경,

이 다소 어려움을 나타냈다. 그리고 추가 실증분석 결과에서, 과목의 유용성과 타과목과의 상관관계 분석은 0.01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기독인-비기독인 학생의 집단별 차이 t-test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고백'은 0.01수준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미래의 신앙적 발전'과 '기독교적 소명에 기초한 봉사정신'은 0.05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다른 부분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본 연구는 전공과 기독교적 신앙을 융합한 형태의 '학문과신앙' 과목이 전국의 대학에 많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추가적으로 과목개설을 위한 4개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로버트 해리스(2004)의 학문과신앙의 통합에 기초해 (1)교수의 영성과 개발, (2)수업의 준비와 팀웍, (3)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가르침, (4)지속적인 학문과신앙의 단계별 통합방법 개발을 제시하였다. 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제출한 은혜의 과제물 후기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기독인 학생 샘플이 다소 적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 설문대상자 총 90명 중 83.3%이 응답해 높은 회수율을 보였으나, 모집단을 수강생으로 정하다 보니 표본이 75명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기대한 것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나타나 학생들이 매우 성실하게 설문에 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과제물을 통해 약 700쪽에 해당하는 후기 자료가 있음에도 지면 제한상 질적 분석을 할 수 없었다. 관련 연구는 추후 진행하도록 하겠다. 학문과신앙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열심히 합력하여 릴레이 특강을 해 주신 13명의 기독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본 연구는 D대학에서 개설 도입한 학문과신앙 수업이 최선의 사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앞으로 '학문과신앙(learning and faith)'을 도입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각 대학 기독교수님들의 몫이자 기도의 분량이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강용원 (2007), **기독교 교육학개론**, 생명의양식

[Kang, y. w. (2007), *Introduction to Christian pedagogy*, Food of Life.]

기독학문연구회 https://fs.jams.or.kr/co/main/jmMain.kci

[Korea Association for Christian Scholarship, https://fs.jams.or.kr/co/main/jmMain.kci.]

김영희 역. (2010), **제자도**, John Stott(2010), The radical disciple, IVP.

[Kim, Y, H. (2010),The Way of Disciple, IVP, John Stott(2010), The radical disciple, Translated by permission of Inter-Varsity Press.]

김지원 (2015). 물리치료학과 전공수업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질적 사례연구, **신앙과학문**, 20(2), 39-68

[Kim, J.W. (2015), A Qualitative Case Study for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in the Physical Therapy Major Classes, *Faith and Scholarship*, 20(2), 39-68.]

박정윤 (2020), **교육선교가 희망이다**, 도서출판 행복한 부자

[Park, J. Y. (2020), *Education Missionary Hope*, Book Publishing Happy Rich.]

배성권·이상규 (2015), **기독교 대학과 사회과학**, 고신대학교 출판부

[Bea, S. J, Lee, S. K. (2015), *Christian University and Social Sciences*, Gosin University Press.]

원광연 역. (2018), **기독교 강요**, John Calvin(1559),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Weon, K, Y,(2018),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Christian Digest, John Calvin(1559),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이선복 (2019). 성경적 관점에서 본 회계윤리. **로고스경영연구**, 17(1), 1-20.

[Lee, S. B. (2019). A Study on Accounting Ethics from Biblical Perspective. *Logos Management Review*, 17(1), 1-20.]

이선복 (2020.6),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영향과 신앙적 교훈, **로고스경영연구**, 18(2). 23-48

[Lee, S. B. (2019),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Corona 19 Economic Crisis and the Biblical Lessons, *Logos Management Review*,, 18(2). 23-48.]

이선복 (2020.6), 한일의 거시경제 변화와 선교적 함의 고찰, **신앙과학문**, .25(2), 183-210.]

[Lee, S. B. (2020), A Study on the Missionary Implications of Korea-Japan Macroeconomic Changes, *Faith and Scholarship*, .25(2), 183-210.]

이선복 (2020.11),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일본 CEO 경영 연구", **한일경상논집**, 89, 187-209

[Lee, S. B. (2020), A Study on CEO Management in Japan According to Biblical Values, *The Korean- Japanese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udies*, 89, 187-209.]

이선복 역.(2021), **3분변증: 성경의 관점에서 나아갑시다**, 中川健一(2019), 3分でわかる聖書, 도서출판 디자인

[Lee, S. B. (2021), *3 Minute Dialectics: Let's go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ible*, Publishing a Book Design, Nakagawa Kenichi(2019), Bible in 3 minutes.]

이숙종 (2007), **기독교 대학과 교육**, 예영커뮤니케이션

[Lee, S. J (2007), *Christian University and Education*, Yeyoung Communication.]

이종성(2000), **교회론(I)(II)**, 대한기독출판사

[Lee, J. S (2000), *Church theory(I)(II)*, Korean Christian Publishing Company]

전광식 (2020),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 CUP

[Jeon, G. S. (2020), *The Joy of Walking on the Forest of Learning*, CUP.]

장성만 (2012), **역경의 열매**, e뉴스한국

[Jang, S. M. (2012), *The Fruit of Adversity*, e-News Korea.]

장성만·장제국 (2016), **새로운 약속**, e뉴스한국

[Jang, S. M. Jang, J, K. (2016), *New commitment*, e-news Korea.]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KUPM) http://www.kupm.org/

[The Korean Union of Professor's Mission, http://www.kupm.org/]

최용준 역.(2013). **신앙과 학문의 통합**, Robert A. Harris.(2004).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Choi, Yo. J. (2013).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Seoul: Yeyoung Communication. Trans, Robert A. Harris (2004).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최혜영 (2017), **삶과 지적대화 :인성과 융복합 학문의 접근**,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Choi, H Y. (2017), *Life and Intellectual Dialogue*: Access to Personality and Convergence Stud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and Culture Center.]

탁명환 (1986), **기독교 이단연구**, 한국종교문제연구소

[Tak, M. H. (1986). *Christian Heresy Research*, Korean Research Institute on Religious Affairs.]

탁지일 (2021), 신천지를 파헤치다, 도서출판 엠마우스

[Tak, J. I. (2021). *Digging Shincheonji,* Publishing by Emmaus.]

한국기독학생회(2004). **IVP 성경신학사전**, T. Desmond Alexander(2000).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서울: Korea Inter Varsity Press

[The Korean Christian Students Association (2004). *IVP Bible Theological Dictionary*, Seoul: Korea Inter Varsity Press, Trans, T. Desmond Alexander (2000).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한국종교문화연구소(2011), **세계종교사 입문**, 청년사

[Korea Institute of Religion and Culture (2011), *Introduction to World Religion*, Youth Publishersy.]

한동대학교 학문과신앙연구소 https://academia.handong.edu/xe/

[Handong Institute for Learning and Faith, https://academia.handong.edu/xe/]

황봉환 (2015). **삶의 연결 통로 신학과 경제**, 하람커뮤니케이션.

[Hwang, B. H. (2015). *Connectivity channels of life: Theology and Economics*, Haram Communication.]

학문과신앙의 과목도입 성과 : D대학 사례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Introducing Subjects of Learning and Faith: The Case of D University

이 선 복 (동서대학교)
김 대 영 (동서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미션스쿨인 동서대학교의 경험을 사례로, 13명의 기독교수들이 어떻게 학문과신앙 과목을 개설하여 기독교적 세계관과 전공을 융합하였는지를 소개하고, 또 성과를 얻었는지 분석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2020년 12월과 2021년 6월,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고,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빈도분석과 집단별 평균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전체 반응은 물론, 기독학생과 비기독학생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과목의 유익성에 대한 5점 척도 질문의 평균값이 1.7467 반응을 보였으며, 타 과목과의 비교에서도 1.9200으로 양호한 지표를 나타내, 타 대학에서 학문과신앙 과목을 개설할 경우 충분히 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전공분야(32.0%)와 다양한 교수들의 신앙 간증(21.3%), 새롭게 기독교 신앙을 알 수 있는 계기(1.5.3%)가 유익한 이유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째, (1)기독교 핵심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고, (2)새롭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는 2.6000과 2.5333 수준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비기독학생의 경우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기독인-비기독인 집단별 차이분석에서 0.01과 0.005 수준에서 차이를 있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기독교 이해, 건학이념 등 다른 항목은 차이가 없었다. 셋째, 본 연구는 전공과 기독교적 신앙을 융합한 형태의 '학문과신앙'이 전국의 대학에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과목 개설을 위한 4개의 제언을 하고 있다. 즉 로버트 해리스(2004)의 학문과신앙의 통합에 기초해 (1)교수의 영성과 개발, (2)수업의 준비와 팀웍, (3)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가르침, (4)지속적인 학문과신앙의 단계별 통합방법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제출한 은혜의 과제물 후기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주제어: 기독교수, 학문과신앙, 기독교세계관, 학습성과, 상관관계분석, 차이분석

『신앙과 학문』. 26(3). 157-182.
https://doi.org/10.30806/fs.26.3.202109.157

비대면 영화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기독교인 대학생과 비기독교인 대학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Non-face-to-face Cinematherapy Program to Reduce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Comparisons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고 선 옥 (Sun Ok Ko)**
강 진 구 (Jingoo Kang)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and verifies the effects of group cinematherapy programs for stress reduction among Christian and non-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by using Live Zoom.

Participants in the study consist of 12 male and female students attending A University located in B city as an experimental group. From the last week of October to the third week of November 2020, it was held once a week for 120 minutes, a total of 4 times for 480 minute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5.

In conclusion the non-face-to-face cinematherapy has significantly affected the way university students deal with stress and reduce stress.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se effects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This is as meaningful result of performing cinematherapy using general cinema for both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It has been shown that Christian Cinematherapists need to have a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the difficult psychological state faced

* 2021년 08월 12일 접수, 09월 14일 최종수정, 09월 14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2021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2021.05.22)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궁통합예술심리상담센터(Gung Integrative Arts Psychotherapy Center), 대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219-106, gung7692@naver.com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교수,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194, moviejin1@naver.com

by non-Christian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that Christian Cinematherapists' activities can reach non-Christians outside churches.

Key words : Zoom Consultation, non-face-to-face cinematherapy, Christian cinematherapy, COVID-19 Pandemic Stress, Comparison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I. 서론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인해 2020년도 1학기부터 비대면 수업의 일상을 맞이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E-Learning 이란 이름으로 일부 과목들이 온라인 수업을 해오고 있었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은 매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마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교수들은 수업을 녹화하거나 라이브로 진행하는 데 어색할 수밖에 없었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또한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신입생들의 경우 대학 생활에 대한 정보 부족과 낭만적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외출 자제와 집안에서 활동하는 시간의 증대 그리고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 등을 느끼면서 자존감 저하와 무력감, 우울감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현실, 2021: 273).

그런데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을 겪으면서 일상의 많은 부분이 바뀐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위험군과 자살 생각률은 증가하고 20-30대 정신건강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부, 2021). 특히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30.0%와 30.5%로 60대(14.4%)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서 젊은 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대학생들의 우울 위험군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볼 때 이 점은 분명히 드러났다. 대학생의 주 연령층인 20대의 경우 조사 초기인 2020년 3월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13.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낮았지만, 분기별로 조사가 이루어진 6월에는 17.9%, 9월 25.3%, 12월 24.2%에 이어서 2021년 3월에는 30.0%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겪는 정신적 어려움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신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심리적 지지자들이 타연령층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임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전연령층에서 드러나는 심리적 지지 제공자들은 가족이 62.6%로 가장 많았고, 친구 및 직장동료가 21.3%로 그 뒤를 따르고 있지만 20대와 30대는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4.0%와 57.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가장 놀라운 점은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20대가 12.1%로 30대의 13.1%의 뒤를 이었다는 사실이다(보건복지부, 2021). 이것은 심리적 지지자가 없다고 말한 사람의 평균인 9.6%보다 높은 수치로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을 포함한 20대의 정신건강이 전문상담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처해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는 현실은 기독교 상담가에게 새로운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방관자적 입장에 서거나 아니면 모든 대책을 정부에 맡기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위치와 역량 안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통을 겪는 대학생들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여 세상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소명의식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다.

이때 영화치료프로그램은 기독교 상담가가 코로나 팬데믹 현실 속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전자영상매체의 세례를 받고 자란 세대로써 넷플릭스(Netflix)와 웨이브(wavve), 왓챠(Watcha)와 같은 인터넷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익숙하다. 이들에게 영화의 이미지를 사용한 이해와 설득 그리고 자기의 심리적 표현을 매우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영화치료는 비대면 문화 속에서도 활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강진구, 2012: 88).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Zoom 라이브를 활용한 비대면 영화치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방식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2. Zoom 라이브를 활용한 비대면 영화치료를 경험하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대학생 간의 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에는 차이가 있는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대학생 간의 효과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함으로써 기독교인 전문 상담사의 영화치료가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는 시대에 영화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영화치료 방법에 대한 이해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영화치료 연구는 대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효과를 검증한 사례는 없었다. 대부분의 영화치료는 같은 공간에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있는 가운데 영화를 시청하며 심리적 반응을 살피고 상담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영화치료 연구는 융합적이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최근에야 비로소

연구되기 시작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그것도 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비대면 영화치료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비대면 상호작용적 영화치료수업의 효과를 검증하는 최근 연구에서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애련, 2021). 본 연구와 일치하는 선행연구라 할 수는 없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영화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특별히 기독교인 대학생과 비기독교인 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상담을 온라인상에서 영화치료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한 사례 또한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기독교 상담과 다소 다른 점을 내포하고 있다. 게리 콜린스는 기독교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내담자로 하여금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두었다(Collins, 1988: 44). 그러나 본 연구는 비기독교인 대학생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거나 기독교 영화를 도구로 삼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전의 기독교 영화치료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이기도 하다. 코로나19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기독교 상담자는 비기독교인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며, 직접 대면 상담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영화치료가 불가피한 현실은 기독교 상담사에게 새로운 도전과 모험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새로운 연구는 두 가지 이론을 근거로 시행할 수 있었다. 첫째는 코로나19의 긴박한 상황에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기독교 세계관의 이론적 지지를 받는 일이며, 둘째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영화치료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의 영역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성된 이론적 뒷받침이다.

1. 기독교 세계관적 접근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세계를 휩쓸었을 때 이를 어떻게 이해하며 적절히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그리스도인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한 몇몇 세계적인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조언은 기독교 상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대학생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학자인 존 레녹스(John Lennox)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에서 신앙과 이성의 균형잡힌 시각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재난을 왜 주시는가에 대한 신앙적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의료전문가들의 충고를 따르라는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재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고통과 고난과 코로나바이러스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기보다 친히 고난을 겪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을 강조했다(Lennox, 2020: 6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레녹스는 '거리 두기'와 '격리조치' 등과 같은 의료적 조언에 그리스도인은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이는 이기심의 표출이 아니라 이웃을 보호할 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일임을 언급했다(Lennox, 2020: 70).

미국의 유명 목회자인 존 파이퍼(John Piper) 또한 사상 초유의 팬데믹 사태에 대한 신앙의 관점을 매우 중요하게 얘기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며 재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신호이며(Piper, 2020: 91),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와 경종으로 보았다(Piper, 2020: 86-90). 이는 자칫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나 음모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존 파이퍼 목사의 주장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일반적인 재난과 고통의 상황에 대한 성경의 의미로 읽혀진다.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는 기독교 상담자가 귀 기울여야 하는 자세 또한 강조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기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으로(Piper, 2020: 105) 보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상담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이웃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함을 뜻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동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주장한 사람은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Tom Light)이다. 그는 그의 저서 '하나님과 팬데믹'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재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던질 단순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가장 위험에 처하는가?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누구를 보내야 할까?'(Light, 2020: 66)라는 실천적 물음이어야 함을 제시했다. 그는 1세기에 안디옥교회에서 발생한 기근(사도행전 11장)을 예로 들며 안디옥교회 교인들은 기근 앞에서 기도하며 아울러 기근이 발생한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일에 집중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톰 라이트의 제언은 코로나19 앞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한국의 대학생들을 바라보는 기독교 상담자에게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온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학생들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겪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해있고 그들을 돕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며,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그들에게 보내야 하는 의미로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온라인 상담이라는 매체적 접근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은 21세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상황에서는 더욱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떨어져 있는 가운데 거리

에 상관없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상담의 과정이며 이를 사이버 상담이나 인터넷 상담, 전자상담(electronic therapy), 온라인 상담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김태한, 2011: 62).

온라인 상담의 유형으로는 실시간 상담으로 채팅상담, 영상상담이 있고, 비실시간 상담으로는 이메일상담, 게시판 상담, 데이터 베이스 상담, 심리검사, 상담 까페, 온라인 지지그룹이 있다. 온라인 상담이 주목받고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고, 기록의 영구적 보존이 가능하며 수퍼비전과 자문, 그리고 문제의 외재화가 쉬우며 내담자가 자신의 글을 읽고 쓰는 과정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임은미, 2006).

온라인으로 하는 비대면 영화치료는 1990년대 이후에 출생한 새로운 세대를 일컫는 MZ세대에 속하는 대학생들의 호응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담방법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같은 온라인 문화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비대면 영화치료가 가능한 이론적 배경에는 바로 MZ세대라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의 출현과 비대면 영화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ZOOM과 같은 화상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발달의 영향이 컸다. 이미 화상 수업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익숙한 ZOOM은 상담자가 제공하는 영화를 내담자들이 함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채팅 등의 쌍방향 소통의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담의 장점들이 발휘될 수 있다.

오프라인을 온라인 만남으로 대체한 비대면 문화는 MZ세대에게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는 사실은 비대면 영화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MZ세대는 얼굴이 아니라 화면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것에도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다. MZ세대는 Zoom과 같은 영상통화나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랜선 술자리'를 가지기도 하고, 영상통화를 켜놓고 넷플릭스를 함께 보는 등 온택트를 일상에서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20: 197).

특히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기보다 '넷플릭스(Netflix)'와 '왓챠(Watcha)'와 같은 OTT 서비를 통해 영화를 보는데 익숙하다는 점은 Zoom을 통해서 영화를 보며 심리상담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3. 영화치료의 상담적 접근

'영화치료(Cinematherapy)'가 처음으로 상담과 심리치료에 활용된 것은 뤼미에르 형제에 의해 영화가 세상에 출현한 지 95년이 지난 1990년에 이르러서다. 영화치료는 예술치료(Art therapy)의 한 분야로서 마음의 성장과 치료를 증진시키고, 의식의 변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방법적으로는 특정 영화를 선정하여 영화를 감상하며, 영화라는 텍스트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의사소통하고 영화를 내담자 또는 교육자의 삶에 통합시키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김수지, 2005: 24).

일반적으로 영화를 볼 때 관객의 마음에 일으키는 다양한 반응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적절한 영화의 선택은 관객의 정서를 자극하고 감정적 정화를 일으키며, 이를 내담자의 문제에 적용하여 정서적인 해방감과 동시에 개인의 통찰과 자아발견의 풍부한 원천이 되도록 치료와 변화의 결과를 낼 수 있다(Woltz, 2006: 11-12).

특히 집단 형태의 영화치료는 개인과 달리 자신만이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혼자가 아닌 느낌을 받으며 위로와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다. 영화를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을 현실보다도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점은 영화치료의 큰 장점이기도 하다.

내담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영화 관람자체가 강화제가 되므로 영화를 보는 일이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를 듣는 것을 넘어서 논리, 언어, 시공간, 음악, 대인관계, 운동 감각 등 다중지능을 수반하는 일이며 무엇보다 영화 속 인물들과의 동일시를 통해 내담자에게 접근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는 집단의 응집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가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라포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시간 Zoom으로 영화치료를 시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험설계는 사전 사후검사 설계에 따라 비대면 영화치료를 실행 전과 후에 실험집단 내 스트레스 반응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변화량으로 비교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실험집단의 스트레스 반응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사전 사후 점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Wilcox signed-rank test를 실시하였다.

1. 측정도구

(1) 스트레스 반응 척도(SRI: Stress Response Inventory)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4가지 스트레스 반응 즉 감정적,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들이 포함된 스트레스 반응 척도를 사용하였다(고경봉, 2000: 707-719). 이 척도는 긴장(6문항), 공격성(4문항), 신체화(3문항), 분노(6문항), 우울(8문항), 피로(5문항), 좌절(7문항) 등 7개 하위요인에 따라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등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사전검사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934로 나타났다.

Table 1. Configuring Subregion Questions on Stress Response Inventory and Internal Reliability

영역	문항구성	문항수	신뢰도
긴장	2, 16, 17, 30, 31, 37	6	.767
공격성	18, 28, 29, 33	4	.813
신체화	6, 7, 10	3	.655
분노	4, 24, 25, 26, 27, 34	6	.884
우울	5, 15, 19, 22, 23, 35, 38, 39	8	.856
피로	1, 12, 13, 14, 36	5	.848
좌절	3, 8, 9, 11, 20, 21, 32	7	.853
전체	총문항	39	.934

(2)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척도를 박애선·이영희(1992, 69-79)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9개의 하위영역으로 문제해결(15문항), 정서적 완화(9문항), 조력 추구(6문항), 문제 회피(4문항), 소망적 사고(5문항)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5점 Likert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926이며 척도의 각 하위 영역별 문항 수 및 신뢰도 Cronbach's α는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The Ways of Coping Checklist and Internal Reliability

하위영역	문항구성	문항수	신뢰도
문제해결	1 ~ 15	15	.902
정서적 완화	16 ~ 24	9	.693
조력추구	25 ~ 30	6	.867
문제회피	31 ~34	4	.722
소망적 사고	35 ~ 39	5	.804
전체	총문항	39	.926

2. 프로그램 구성 및 주요 활동

김창대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모형에 기초하여(김창대 외, 2011: 34) 긴장 이완 및 스트레스 감소와 관리 비전을 구성하였다. 영화 선정은 영화 감상을 활용할 때 유용한 여덟 가지 장점[4]을 참조하여 프로그램 회기 주제에 부합하고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계획을 세웠고 아울러 내적 자원을 파악하고 강화시켜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영화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Hesley & Hesley, 2001).

Table 3. Program-specific configuration and activity contents

회기	주제	목표	주요 활동
1	* 영화를 활용한 비대면 스트레스 반응 이해	* 비대면 영화치료 프로그램 소개 *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방식 이해하기	* 사전검사 * 전체 비대면 프로그램 소개 * 영화 감상 *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자신 이해(시트지 작성) * 소감 나누기
2	* 비합리적 신념 다루기	* 자동적 사고 이해 * 자신의 부정적이며 자동적 사고의 인식 및 비합리적 신념 이해하기	* 영화감상 * 자신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인식 및 비합리적 신념 찾기(시트지 작성) * 소감 나누기
3	* 정서 다루기	* 자신의 정서 도식을 현재 여기- 지금 알아차리기 * 감정의 재구조화 탐색과 이해하기	* 영화감상 * 스트레스에 관한 주요 감정 찾기(시트지 작성) * 소감 나누기
4	* 스트레스 관리 대처방식 비전 만들기	* 프로그램의 마무리 및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적인 대처의 필요성 * 자신 스스로 변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 영화감상 * 스트레스 대처방식 찾기 (시트지 작성) * 소감 및 평가 * 사후검사

4) 부부 영화심리치료사로 활동하는 John W. Hesley와 Jan G. Hesley는 영화를 '치료적 은유(therapeutic metaphors)'로 보고 있으며, 등장인물들이 그들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하는 영화를 추천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행동을 제안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영화 감상을 심리치료에 활용할 때 도움이 되는 여덟 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첫째, 영화는 치료 계획에 도움을 준다. 둘째, 영화의 등장인물을 통해 내담자에게 역할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셋째, 영화를 통해 내담자의 정서를 자극한다. 넷째, 의사소통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섯째, 문제해결을 위한 내담자의 내적인 자원을 파악하고, 강점을 강화시킨다. 여섯째, 희망과 용기를 제공한다. 일곱 번째, 내담자의 문제를 재구조화 시킬 수 있다. 여덟 번째, 내담자가 인생에 있어서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Hesley & Hesley, 2001).

3. 영화의 선정 및 선정 이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화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생이 힘을 내도록 하거나 개인의 동기유발을 창출시켜서 긍정적인 스트레스 반응 및 대처를 위해 선정되었다.

Table 4. Film Titles and Reason for Choice

회기	영화제목 (제작년도)	clipping[5] 내용	선정 이유
1	쥬만지: 새로운 세계(Jumanji: Welcome to the Jungle, 미국, 2017)	* 스펜서가 어릴 때 절친인 프리지의 숙제를 대신해 주는 장면. * 게임 속 쥬만지에서 각자가 선택한 아바타가 된 장면. * 제규어의 눈 보석을 찾아 끼워주고 쥬만지를 떠나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장면.	* 어릴 때 절친인 프리지의 숙제를 해주는 스펜서의 현실 세계의 모습을 보고 대학생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의 반응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게임 속 근육질 탐험가인 고고학자 아바타가 되어 프리지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쥬만지의 저주를 풀어 주지만 현실 세계에 돌아오고 싶지 않은 스펜서와 현실 세계로 돌아온 스펜서를 보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이해한다.
2	다크 워터스 (Dark Waters, 미국, 2019)	* 월버 테넌트가 태프트 로펌의 롭 빌럿 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테이프를 건네주며 자신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 * 롭이 아내와 월버 테넌트와 함께 40년간 독성 물질이라는 것을 알고도 해피 프라이팬을 만들고 C8 독성이 있는 오염 물질을 물로 유출시킨 것을 듀폰 사장과 태프트 로펌 회사 필사장에게 말하는 장면. * 롭이 월버 테넌트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말하고 그들을 처벌하기는 원하지만 롭의 제안에 그곳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하는 장면.	* 환경 보호국, 정부, FBI 때문에 웨스트버지니아의 변호사들은 겁이나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 기업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지만 화학회사를 변호한다며 거절하는 롭 빌럿의 모습을 보고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2차 대전 중 비밀리 개발된 합성화학물질로 최초 탱크 방수 코팅에 사용할 만큼 절대 깨지지 않고 단단해서 듀폰 회사와 화학물질을 개발한 3M은 가정에도 불침투 코팅 프라이팬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 하였다. 그러나 메스꺼움과 고열을 동반하고 암뿐 아니라 기형아를 출산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 연 10억 달러의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하고 있는 불의한 신념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였다.

5) 영화치료에서 clipping 이란 사용 목적에 따라 영화의 일부분을 편집한 것을 말한다.

3	몬스터 콜 (A Monster Calls, 미국 외, 2016)	* 치유의 나무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코너 오말리에게 자신의 꿈과 악몽에 대한 네 번째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장면. * 약이 듣지 않으니 치유의 나무에게 낫게 해달라고 하지만 치유의 나무는 코너에게 네 번째 이야기를 하는 장면.	* 12시만 되면 나타나는 치유의 나무는 12살 코너가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자신의 정서적 지지자이며 위로가 되듯 대학생 자신의 정서 도식을 현재 여기- 지금 알아차리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치유의 나무와 코너가 다르게 치료하는 방법과 코너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장면을 보고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탐색하고 스트레스에 관한 주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4	리틀 포레스트 (한국, 2018)	*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 하는 장면. * 친구 은숙이와 사소한 다툼을 하고 은행으로 친구를 찾아가 화해를 하는 장면. * 밤에 친구들과 다슬기를 잡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 시험, 연애, 취업이 쉽지 않은 혜원이는 현재를 견디며 발전을 위해 기다림을 배워가는 중이다. 이를 통해 친구에게 받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스트레스 대처방식 찾기를 위해 자신이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신이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곳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찾아 스스로 하는 변화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4. 프로그램 실시

본 프로그램은 비대면 Zoom으로 2020년 10월 마지막째 주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주 1회 120분, 총 4회 480분에 걸쳐 실시하였다.

IV. 효과 검증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도시에 소재한 A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12명이 참가하여 실험집단을 구성하였다.

Table 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개인적 특성	분류	빈도	퍼센트(%)
성별	남	7	58.3
	여	5	41.7
학년	1학년	5	41.6
	2학년	2	16.7
	3학년	2	16.7
	4학년	3	25.0
교회 출석	출석(*1)	6	50
	불출석(*2)	6	50

(*1) 기독교(가톨릭 신자 포함) 대학생 집단, (*2) 비기독교(불교 신자 포함) 대학생 집단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비대면 영화치료 프로그램이 기독교인 대학생과 비기독교인 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검증하기 위해 참가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및 실험처치 그리고 사후조사를 모형으로 비교하는 사전-사후 실험설계를 사용하였다.

Table 6. Research Plan

	사전조사	실험처치	사후조사
실험집단	O_1	X	O_2

O_1: 사전조사(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 대처방식)
O_2: 사후조사((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 대처방식)
X : 비대면 영화치료 프로그램 실시

V.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위한 비대면 영화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기독교인 대학생과 비기독교인 대학생과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학생의 스트레스 반응과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참여한 인원을 가지고 기독교 대학생과 비기독교 대학생 간 차이가 있는지도 통계적으로 분

석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및 사후에 스트레스 반응 척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이용하였고 자료의 표본 수가 적어 비모수 통계분석의 Mann-Whitney U test 및 Wilcoxon signed-rank test로 분석하였다.

1. 기독교 대학생 집단과 비기독교 대학생 집단 간 사전검사를 통한 동질성 검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변인별 각 척도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비모수 검정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였다.

(1) 비기독교 대학생 집단과 기독교 대학생 집단 간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동질성 검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기독교 대학생 집단과 비기독교 대학생 집단 간의 스트레스 반응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Table 7). 분석 결과 사전 비기독교 대학생 집단과 기독교 대학생 집단 간 스트레스 반응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질성이 검증되었다(z=-.966, p>.05). 또한 하위요인들인 긴장, 공격성, 신체화, 분노, 우울, 피로 및 좌절 역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The stress response between a group of Christian and non-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구분	집단	M(SD)	평균순위 (순위합)	Mann-Whitney의 U	*z*	유의확률(양쪽) (*p*)
긴장	비기독교	2.63(.581)	5.33(32.00)	11.000	-1.135	>.05
	기독교	2.91(.390)	7.67(46.00)			
공격성	비기독교	.1.95(.696)	5.67(34.00)	13.000	-1.809	>.05
	기독교	2.33(.437)	7.33(44.00)			
신체화	비기독교	3.05(.389)	6.92(41.50)	15.500	-.411	>.05
	기독교	3.00(.596)	6.08(36.50)			
분노	비기독교	2.94(.327)	6.08(36.50)	15.500	-.408	>.05
	기독교	3.02(.520)	6.92(41.50)			
우울	비기독교	3.14(.700)	6.42(38.50)	17.500	-.080	>.05
	기독교	3.06(.479)	6.58(39.50)			
피로	비기독교	2.93(.450)	5.92(35.50)	14.500	-.576	>.05
	기독교	3.06(.602)	7.08(42.50)			
좌절	비기독교	2.97(.330)	6.17(37.00)	16.000	-.327	>.05
	기독교	3.02(.427)	6.83(41.00)			
전체	비기독교	2.85(.266)	5.50(33.00)	12.00	-.966	>.05
	기독교	2.94(.203)	7.50(45.00)			

(2) 비기독교 대학생 집단과 기독교 대학생 집단 간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대한 동질성 검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비기독교 대학생 집단과 기독교 대학생 집단 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Table 8). 분석 결과 사전 비기독교 대학생 집단과 기독교 대학생 집단 간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질성이 검증되었다(z=-1.848, p>.05). 또한 하위요인들인 문제해결, 정서적 완화, 조력추구, 문제회피 및 소망적 사고 역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Similarity of Coping style between a group of Christian and non-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구분	집단	M(SD)	평균순위 (순위합)	Mann-Whitney의 U	*z*	유의확률(양쪽) (*p*)
문제해결	비기독교	3.00(.475)	7.58(45.50)	11.5000	-1.044	>.05
	기독교	2.66(.467)	5.42(32.50)			
정서적 완화	비기독교	2.79(.523)	7.75(46.50)	10.500	-1.209	>.05
	기독교	2.62(.167)	5.25(31.50)			
조력추구	비기독교	2.97(.464)	8.50(51.00)	6.000	-1.945	>.05
	기독교	2.41(.621)	4.50(27.00)			
문제회피	비기독교	2.91(.465)	5.33(32.00)	11.000	-1.154	>.05
	기독교	3.16(.302)	7.67(46.00)			
소망적 사고	비기독교	3.46(.588)	8.17(49.00)	8.000	-1.627	>.05
	기독교	2.86(.413)	4.83(29.00)			
전체	비기독교	3.00(.297)	8.42(50.50)	6.500	-1.848	>.05
	기독교	2.69(.256)	4.58(27.50)			

2.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결과

비대면 영화치료 프로그램 종료 후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에 비기독교 대학생 집단과 기독교 대학생 집단 간 효과를 측정하였다. 자료의 표본 수가 적어 비모수 통계 분석의 Wilcoxon signed-rank test와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1)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

비기독교 대학생 집단과 기독교 대학생 집단의 스트레스 반응의 시점 간 점수 차이는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Table 9). 비기독교 대학생 집단에서 스트레스 반응 점수는 사전과 비교할 때 사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z=-2.207, p<.05). 비기독교 대학생 집단의 스트레스

반응은 사전 평균 2.85±,266점에서 사후 2.55±.158점으로 감소하였다. 또 기독교 대학생 집단에서 스트레스 반응 점수 또한 사전과 비교할 때 사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z=-2.207, p<.05). 기독교 대학생 집단의 스트레스 반응은 사전 평균 2.94±,203점에서 사후 2.50±.178점으로 감소하였다.

Table 9.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stress responses between groups of Christian and non-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구분	평균	사전실험 표준편차	사전실험 평균	사후실험 표준편차	사후실험 평균	z	유의확률(양쪽) (p)
긴장	비기독교	2.63	.581	2.38	.327	-1.807	>.05
	기독교	2.91	.390	2.50	.235	-2.232	<.05
공격성	비기독교	1.95	.696	1.58	.408	-1.841	>.05
	기독교	2.33	.437	1.66	.204	-2.232	<.05
신체화	비기독교	3.05	.389	2.61	.680	-1.382	>.05
	기독교	3.00	.596	2.22	.272	-2.032	<.05
분노	비기독교	2.94	.327	2.83	.380	-1.633	>.05
	기독교	3.02	.520	2.66	.614	-2.232	<.05
우울	비기독교	3.14	.700	2.77	.413	-2.214	<.05
	기독교	3.06	.479	2.79	.312	-2.032	<.05
피로	비기독교	2.93	.450	2.66	.516	-1.594	>.05
	기독교	3.06	.602	2.63	.585	-2.333	<.05
좌절	비기독교	2.97	.330	2.64	.358	-2.226	<.05
	기독교	3.02	.427	2.54	.481	-2.271	<.05
전체	비기독교	2.85	.266	2.55	.158	-2.207	<.05
	기독교	2.94	.203	2.50	.178	-2.207	<.05

비기독교 대학생 집단과 기독교 대학생 집단 간 스트레스 반응의 사전-사후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Table 10). 비기독교 대학생집단과 기독교 대학생집단 간의 스트레스 반응 사전-사후(z=-1.851, p>.05) 효과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스트레스 반응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0. Pre-and post-effects of stress response between a group of Christian and non-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구분	집단	사전-사후 차이				
		M(SD)	평균순위 (순위합)	Mann-Whitney의 U	z	유의확률(양쪽) (p)
긴장	비기독교	-.25(.273)	7.58(45.50)	11.500	-1.071	>.05
	기독교	-.41(.204)	5.42(32.50)			
공격성	비기독교	-.37(.410)	7.92(47.50)	9.500	-1.414	>.05
	기독교	-.66(.376)	5.08(30.50)			
신체화	비기독교	-.44(.655)	7.08(42.50)	14.500	-.573	>.05
	기독교	-.77(.655)	5.92(35.50)			
분노	비기독교	-.11(.136)	8.92(53.50)	3.500	-2.403	<.05
	기독교	-.36(.125)	4.08(24.50)			
우울	비기독교	-.37(.335)	6.17(37.00)	16.000	-.328	>.05
	기독교	-.27(.215)	6.83(41.00)			
피로	비기독교	-.26(.393)	7.25(43.50)	13.500	-.860	>.05
	기독교	-.43(.080)	5.75(34.50)			
좌절	비기독교	-.33(.147)	8.33(50.00)	7.000	-1.855	>.05
	기독교	-.47(.073)	4.67(28.00)			
전체	비기독교	-.29(.136)	8.42(50.50)	6.500	-1.851	>.05
	기독교	-.44(.089)	4.58(27.50)			

(2)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비기독교 대학생 집단과 기독교 대학생 집단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시점 간 점수 차이는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Table 11). 비기독교 대학생 집단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점수는 사전보다 사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z=-2.214, p <.05), 즉 비기독교 대학생 집단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사전 평균 3.00±.297점에서 사후 3.20±.227점으로 증가하였다. 또 기독교 대학생 집단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점수는 사전보다 사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z=-2.207, p<.05), 즉 기독교 대학생 집단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사전 평균 2.69±,256점에서 사후 2.98±.239점으로 증가하였다.

Table 11. Difference of Coping style between pre- and post-stress responses between groups of Christian and non-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구분	평균	사전실험		사후실험		z	유의확률(양쪽) (p)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문제해결	비기독교	3.00	.475	3.17	.408	-2.060	<.05
	기독교	2.66	.467	2.88	.403	-2.220	<.05
정서적완화	비기독교	2.79	.523	3.29	.349	-2.207	<.05
	기독교	2.62	.167	3.12	.163	-2.214	<.05
조력추구	비기독교	2.97	.464	3.11	.403	-1.890	>.05
	기독교	2.41	.621	2.69	.487	-2.041	<.05
문제회피	비기독교	2.91	.465	3.08	.491	-1.633	>.05
	기독교	3.16	.302	3.33	.376	-1.414	>.05
소망적사고	비기독교	3.46	.588	3.30	.485	-1.414	>.05
	기독교	2.86	.413	3.10	.374	-2.070	<.05
전체	비기독교	3.00	.297	3.20	.227	-2.214	<.05
	기독교	2.69	.256	2.98	.239	-2.207	<.05

비기독교 대학생 집단과 기독교 대학생 집단 간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사전-사후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Table 12). 비기독교 대학생 집단과 기독교 대학생 집단 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전-사후(z=-1.854, p>.05) 효과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2. Effects of Coping style between pre- and post-stress responses between groups of Christian and non-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구분	집단	사전-사후 차이				
		M(SD)	평균순위 (순위합)	Mann-Whitney의 U	z	유의확률(양쪽) (p)
문제해결	비기독교	.17(.108)	6.00(36.00)	15.000	-.506	>.05
	기독교	.22(.091)	7.00(42.00)			
정서적 완화	비기독교	.50(.250)	6.42(38.50)	17.500	-.082	>.05
	기독교	.50(.182)	6.58(39.50)			
조력추구	비기독교	.13(.125)	5.25(31.50)	10.500	-1.260	>.05
	기독교	.27(.201)	7.75(46.50)			

문제회피	비기독교	.16(.204)	6.33(38.00)	17.000	-.170	>.05
	기독교	'16(.258)	6.67(40.00)			
소망적 사고	비기독교	-.16(.265)	4.00(24.00)	3.000	-2.472	<.05
	기독교	.23(.150)	9.00(54.00)			
전체	비기독교	.20(,080)	4.58(27.50)	6.500	-1.854	>.05
	기독교	.29(.078)	8.42(50.50)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하여 비기독교 대학생과 기독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화치료 프로그램을 비대면 실시간 라이브 Zoom을 활용했을 때 그 효과를 비교 검증하고자 하였다. 영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2020년 10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주 1회 120분, 총 4회 480분에 걸쳐 시행하여 스트레스 반응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의 사전·사후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 실시간 라이브 Zoom을 활용한 영화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스트레스 반응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 두 가지 면에서 검사한 결과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스트레스 반응의 경우 사전검사와 프로그램 시행 후 실시된 사후검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수치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위요인들인 긴장, 공격성, 신체화, 분노, 우울, 피로 및 좌절 역시 사전과 사후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영화치료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비대면 영화치료 프로그램은 사전과 사후를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 대처방식에도 긍정적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위요인들인 문제해결, 정서적 완화, 조력추구, 문제회피 및 소망적 사고 등에서 모두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능력이 프로그램 시행 전에 비해서 좋아졌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이 4회기를 겪으면서 스트레스 반응과 대처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학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비대면 실시간 라이브 Zoom을 활용한 영화치료 프로그램을 비기독교 대학생 집단과 기독교 대학생 집단 간의 스트레스 반응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 두 가지 면에서 검사 비교한 결과 집단 간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비대면 영화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비기독교 대학생과 기독교 대학생 모두 스트레스가 감소했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서도 동일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이것은 비대면 영화치료가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대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낸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양쪽 집단 간 스트레스 반응 및 대처방식에 대한 동질성 검증에서 통계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 결과는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비대면 영화치료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혼재된 집단상담 등에서처럼 기독교 신앙에 따른 인적구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영화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유의미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해석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비대면 영화치료의 활성화를 기대함과 동시에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다가올 미래의 언컨택트(Umcontact)사회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은 물론 의료분야까지도 미래 사회에서는 비대면 문화가 광범위하게 펼쳐질 것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코로나 팬데믹은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을 미리 시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지금까지 영화치료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준비된 영화를 보고 상담을 진행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쌍방향으로 영화를 보며 온라인 상담을 하기가 어려운 기술적인 한계점에 부딪혔었다. 그러나 Zoom과 같은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은 비대면 영화치료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앞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 문화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영화 보기를 좋아하는 대학생과 Z세대들에게 비대면 영화치료는 편리하고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어서 비대면 영화치료가 앞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비대면 영화치료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조건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했을 영화치료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조건들로는 적절한 영화의 선택과 선택된 영화를 상담과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있는 영화치료사가 있어야 한다. 영화치료의 방법 가운데는 상담자의 개입 없이도 적절한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기조력적 영화치료(Selp-Help Cinema therapy)'가 있어서 영화 자체가 제공하는 심리치료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실행한 영화치료 방법은 '상호작용적 영화치료(Interactive Cinema therapy)'로써 편집된 영화를 본 후 상담자와 대학생들이 상호소통하며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방식이다. '상호작용적 영화치료'를 시행하는 영화치료사는 내담자의 현실과 필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라포(rapport)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영화와 장면의 선택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여 상담자와 학생 간의 생각과 의견이 공유되는 가운데 즉각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마디로 학생들로부터 신뢰받고 프로그램을 이끄는데 부족함 없는 능력있는 영화치료사가 성공의 중요한 조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대면 영화치료의 요건이 비대면 영화치료에도 적용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기독교 신앙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치료 프로그램의 확장성을 기대함과 동시에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영화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영화의 영역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대학생이 함께 집단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일반영화들을 편집 사용하였을 때 스트레스 반응과 대처방식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인들을 위한 영화치료프로그램이 반드시 기독교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서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일반영화들을 사용했을 때에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대처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상담대상과 영화선택에 있어서 기독교 영화치료의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반인과 기독교인이 동시에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기독교 장르의 영화보다 그 숫자가 훨씬 많은 일반영화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 상담자가 행하는 영화치료의 세계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일반적인 영화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영화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상담에 필요한 특정 부분만을 편집하여 상담자가 특정 목적에 따라 진행하는 지시적 접근 방법(the prescriptive way)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영화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영화를 어떻게 혹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위의 결과를 통해 기독교 영화치료사의 활동영역을 일반영역으로 넓혔다는 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독교 영화치료의 세 가지 구성조건은 기독교 영화치료사와 기독교 영화 그리고 기독교인 내담자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번 비대면 영화치료의 결과가 가지는 흥미로운 점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영화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효과를 보인 점에 있다. 이것은 영화치료의 주체적 진행자로서 기독교인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영화를 보는 시각을 확립하고 비기독교인이 처한 어려운 심리상태를 돌보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영화치료의 전문성과 결합하여 맺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에서 고통받는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기독교 상담자에게 영화치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훌륭한 도구임에 틀림없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함께 어울려 공부하는 대학 캠퍼스에서 기독교 영화치료의 역할이 앞으로도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강진구(2012). 기독교영화치유의 이해와 전망. **한국기독교심리상담학회지**, 15: 77-90.

[Kang, J. G.(2012). Understanding and Prospects of Christian Cinema Therapy, *Journal of Korean Christian Psychological Counseling* . 15, 77-90.]

고경봉(2000). 스트레스반응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39(4), 707-719.

[Ko, K. B.(2000). Development of the Cognitive Stress Response Scale, *Journal of Neuropsychiatry*. 39(4), 707-719.]

김수지(2005). **대인관계향상을 위한 상호작용적 영화치료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Kim, S. J.(2005). *A study on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 cinematherapy program for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김창대(2011).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학지사.

[Kim, C. D.(1998).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education programs.* Seoul: Hakjisa.]

김태한(2011), 온라인 상담의 지속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다회기 상담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1.10. 1056-1088.

[Kim, T. H.(2011). A Qualitative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Online Counseling -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Multiple-Time Counseling Participants. *Journal of Social Welfare Conference 2011*. 1056-1088.]

대학내일20대연구소(2020).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1**. 고양: 위즈덤하우스.

[Inst. of Univ. Tomorrow the Age of 20s(2020). Millennial-Gen Z Trend 2021. Goyang: Wisdomhouse.〕

박애선·이영희(1992). 기혼여성의 성역할 특성과 스트레스 지각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4(1), 69-80.

[Park, A. S., Lee, Y. H(1992). Influence of the Sex Role Characteristics and Stress Perception of Married Women On the Coping Style for Stres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4(1), 69-80.]

보건복지부(2021).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05.0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21). *The results of the "Corona 19 Survey on the Mental Health of the People"*. Press Release 2021.05.06.]

임애련(2021).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의 효과성 연구: 감성지능과 공감

능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2), 57-66.

[Lim, A. R.(2021). A Study on Effectiveness of Online Interactive Cinematherapy Course Due to COVID-19: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yDevelopment of the Cognitive Stress Response Scal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2), 57-66.]

임은미(2006). **사이버상담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Im, E. M.(2006). *Cyber-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Seoul: Hakjisa.]

최현실(2021).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신입생의 비대면 수업 경험에 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5(1), 273-286.

[Choi, H. S.(2021). A Study on the Non-face-to-face Teaching Experience of College Freshmen due to Covid-19. *Journal of Liberal Arts Education*, 15(1), 273-286.]

2. 번역서 및 외서

심영섭·김준형 역(2006). **시네마테라피**. Woltz, B.(2004). E-Motion Picture Magic. 서울: 을유문화사.

[Shim, Y.S., Kim, J.H.(2006). Cinema Therapy: Eulyoo Publishing. Trans. Woltz, B.(2004), *E-Motion Picture Magic*. Centennial:Glenbridge Publishing]

이지혜 역(2020). **하나님과 팬데믹**, Wright, Tom(2020), God and the Pandemic. 파주: 비아토르.

[Lee,J.H.(2020). *God and the Pandemic*. Paju:Viator. Trans. Wright, Tom(2020), God and the Pandemic. London:The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정석환 역(1988). **그리스도인을 위한 카운슬링 가이드**, Collins, Garry R. Ed.(1980), Helping People Grow. 서울:기독지혜사

[S.H. Jung(1988). *Counseling Guide for Christian*. Seoul:The Christian Wisdom Publishers. Trans. Collins, Garry R. Ed.(1980), Helping People Grow. Santa Ana: Vision House]

조계광 역(2020).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Piper, John(2020), Coronavirus and Christ. 서울:개혁된 실천사.

[Cho,K.G.(2020). *Coronavirus and Christ*. Seoul:Reformed Practice Books. Trans. Piper, John(2020), Coronavirus and Christ. Wheaton:Crossway]

홍병용 역(2020). **코로나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Lennox, John C.(2020), *Where is God in a Corona Virus World?*. 서울: 아바서원

[B.Y.Hong(2020). *Where is God in a Corona Virus World?*. Seoul:Abba Book House. Trans. Lennox, John C.(2020), *Where is God in a Corona Virus World?*. Srrrey: Good Book Company.

Hesley, J. W. & Hesley, J. G.(2001). *Rent two films and let's talk in the morning: Using Popular Movies in psychotherapy*. New York: Wiley.

3. 인터넷 문헌

연합뉴스, "'코로나 우울' 전국민 심리지원 강화",

https://news.v.daum.net/v/20210205120121895 (검색일 2021.02.08.)

["'Corona Depression' Strengthens National Psychological Support", Yonhap News. Retrieved from https://news.v.daum.net/v/20210205120121895 (2021.02.08.)]

비대면 영화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기독교인 대학생과 비기독교인 대학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Non-face-to-face Cinematherapy Program to Reduce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Comparisons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고 선 옥 (궁통합예술심리상담센터)
강 진 구 (고신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인 대학생과 비기독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집단영화치료 프로그램을 라이브 Zoom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비교하고 검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B도시에 소재한 A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12명을 실험집단으로 구성하여 2020년 10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주 1회 120분, 총 4회 480분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25를 사용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 실시간 라이브 Zoom을 활용한 영화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비기독교 대학생 집단과 기독교 대학생 집단 간의 스트레스 반응 사전-사후 효과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 반응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비대면 실시간 라이브 Zoom을 활용한 영화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비기독교 대학생 집단과 기독교 대학생 집단 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전-사후 효과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한 영화치료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기독교 대학생과 비기독교 대학생 간에는 이러한 효과들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영화를 활용한 영화치료를 실행했을 때 거둔

의미있는 결과이다. 기독교 영화치료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기독교인이 처한 어려운 심리상태를 돌보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기독교 영화치료사의 활동영역이 교회를 벗어나 비기독교인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줌 상담, 비대면 영화치료, 기독교 영화치료, 코로나 팬데믹 스트레스, 기독교 대학생과 비기독교 대학생 비교

『신앙과 학문』. 26(3). 183-197.
https://doi.org/10.30806/fs.26.3.202109.183

현대 인도의 세계관 변화 연구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 변화 과정 모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of worldview in modern India
- Focused on Charles Kraft's Model of the process of changing the worldview -

정 향 범 (Hyangbum Jung)**

ABSTRACT

The worldview of modern India is a product of the religious understanding of India as Hinduism, which was born from the background of Western studies of Indian history and the British East India Company's study of the history of India for the purpose of colonial rule. Through the education of India uncritically accepted this understanding of history, the worldview that understood India as a religion centered on Hinduism was formed, and its fixation was established through a long historical process. A Hindu-centered understanding of the modern Indian worldview is conversion when viewed through Charles Kraft's worldview change model. It is an example of the cultural conversion of the whole of India to Hinduism through the distortion of the history of India by the East India Company, which is an external pressure. Understanding one region as the center of religion in mission the age of globalization is a contradiction of the understanding of other regions judged by the West. A modern understanding of India approached from various angle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s required, and this is a matter to be corrected in understanding mission field guidance in modern missions.

Key words : Charles Kraft, Worldview, Worldview Change, Indian Worldview, Modern India

* 2021년 8월 19일 접수, 9월 25일 최종수정, 9월 26일 게재확정
** 전주대학교(Jeonju University) 일반대학원 신학과(선교학 전공) 박사과정수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jsso93@hanmail.net

I. 들어가는 말

인도의 세계관은 힌두교로 개념 규정되어있다. 현대 인도 역시 힌두교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이해된다. 인도를 종교로 개념 규정하는 세계관은 유럽의 동양학자들과 영국 동인도회사의 연구 결과이다. 인도 정치권의 힌두교 근본주의 정당은 힌두교라는 종교로 개념 규정된 세계관을 확대 재생산하여 인도를 힌두교화해야 한다는 정치적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 인도의 힌두교화는 정치적 입장의 인도 이해이다.

인도를 기독교 선교적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세계관이 영국 동인도회사에 의해서 힌두교로 개념 규정되면서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이런 변화 과정을 알아봄으로써 현대 인도 이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선교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재고할 수 있다.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 변화 모델은 힌두교라는 종교 중심의 세계관 형성의 과정과 선교지 인도를 통시적 입장에서 진단할 수 있다. 외부의 자극으로 오랜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세계관은 또한 외부의 자극으로 변화될 수 있다. 기독교 선교적 입장에서 동인도회사에 의한 인도 세계관 변화는 기독교 선교에 의한 인도 세계관 변화의 가능성을 갖는다. 이런 변화 과정을 동시대적 공시적 입장이 아닌 통시적 입장에서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Ⅱ장에서는 현대 인도 세계관 형성과정으로 서구의 인도 연구와 영국의 인도 역사서술의 문제를 제시한다. Ⅲ장에서는 현대 인도 세계관과 서구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통해 선교적 입장에서 어떻게 인도를 힌두교로 개념 규정했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 변화 과정을 인도 세계관 변화에 적용하여 현대 인도의 세계관 변화와 이에 대한 인도의 정치적 변화를 논해 보고자 한다. 또한 Ⅴ장에서 결론적으로 현대 인도 세계관 변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현대 인도 세계관의 형성

현대 인도 세계관의 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구에 의해서 진행된 동양학적 인도 연구와 영국의 동인도회사에 의해서 완성된 인도 역사서술 과정을 통해서 현대 인도 세계관의 형성과정을 알아본다. 서구 여러 나라의 인도 연구로 프랑스와 독일, 영국의 인도 연구 그리고, 영국 동인도회사의 인도 역사서술에서는 힌두교 중심의 인도 역사 이해의 시작을 알아본다.

1. 서구의 인도 연구

서구의 동양에 관한 연구는 17세기 계몽주의 시기에는 주로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주어진 중국의 자료에 의한 중국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낭만주의 시기에 서구인들의 동양에 관한 관심이 인도로 옮

겨갔고, 인도의 종교와 사상에 관한 연구가 유럽 지성인들의 관심과 열정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인도의 정치제도와 신화, 다신 사상, 제의 등은 계몽주의자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다. 사띠(sati)[1]는 유럽 지식인들에게 혐오적인 관습이었으며, 인도는 유럽인들에게 쇠퇴하는 문명의 표징이었다(정진농, 2003: 38, 48-49).

그러나 인도의 형이상학적 사색과 신비적 경향은 계몽주의자들보다는 낭만주의자들을 열광하게 했다. 인도 문학과 사상에 대한 낭만주의자들의 관심은 19세기 초 프리드리히 슐레겔(Friedrich Schlegel)에 의해 시작되어 레이몽 슈왑(Raymond Schwab)에 의해서 '오리엔탈 르네상스'로 명명되었다. 슈왑은 18세기 말의 산스크리트어 문헌의 인도 사상이 유럽에 유입되는 것을 15세기 이탈리아의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리스어 원서와 비잔틴 주석서들의 유입으로 시작되는 르네상스에 비유할 수 있는 문화적 혁명으로 보았다. 비잔틴 제국의 몰락으로 초래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같이 오리엔탈 르네상스는 18세기 후반 무굴제국의 몰락 후 인도대륙이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 경제적 식민지 지배에 들어간 후 산스크리트어 문헌들의 유럽으로 유입되어 번역, 연구됨으로 시작되었다.

낭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중국은 '정치적 유토피아'로 인도는 '정신적, 영적 유토피아'로 이해되었다. 인도는 사상적으로 유물론적인 서구에 대해서 정신적인 신화를 낳는 베단타 철학[2]과 동일시되었다. 인도는 몽상가와 신비가의 땅으로 서구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독일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인도는 프랑스 대혁명의 민족해방 정신의 표출이었으며, 이는 인도의 상상적 고대와 결부되었다(정진농, 2003: 49-51).

영국 동인도회사(British East India Company)가 시도한 경제 목적의 인도접근에 의한 인도와 유럽의 사상적 교류는 예수회 선교사들에 이은 중요한 통로였다. 18세기 무굴제국의 몰락으로 시작된 영국과 프랑스의 상업적 관심은 벵갈 지역과 인도의 다른 지역들에 대한 오리엔탈 르네상스의 토대가 되었다. 영국인 존 홀웰(John Holwell, 1711-1798)과 알렉산더 도우(Alexander Dow, 1735/6-1779)에 의해 시작된 인도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 접근은 인도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인도 문화와 종교에 대한 해설서들로 출판되었다. 홀웰은 벵갈 총독을 역임하면서 그의 글들에서 인도의 종교와 철학사상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로 서술하였다. 인도가 모든 지혜의 원천으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적 전통에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을 나타내었다. 이는 1760년대에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프랑스인 앙크틸 뒤페롱(Anquetil Dupreeon, 1731-1805)에 의한『우파니샤드』(Upanishads)[3] 번역은 유럽의 사상가들에 의한 인도 이해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정진농, 2003: 51-52).

1) 사띠는 인도에서 남편의 시신과 함께 아내를 함께 화장하던 풍습이다. 1829년에 금지령이 내려졌다.
2) 베단타 철학은 범신론적이고 관념론적으로 일원론적인 힌두교 철학이다. 우파니샤드 철학의 정통으로 샹카라(Shankara)이후의 인도 철학의 주류이다.
3) 자아(atman)와 우주(Brahman)의 일치를 주장하는 고대 힌두교의 일원론적 사상의 철학이다. 인도의 철학, 종교, 사상의 근원이 되는 베다문학의 후기 작품이다.

1780년 이래로 꼴까따(Kolkata)[4]에서 동인도회사 관리들에 의해서 본격적인 인도 연구가 시작되었다. 윌리엄 존스(William Jones, 1675-1749)는 산스크리트어 지식으로 힌두교 연구를 시작한 최초의 학자이다. 벵갈아시아학회(The Asiatick Society of Bengal)을 창립하고, 여기서 최초의 동양학 학술지 『아시아 연구』(Asiatick Researches)가 간행되는 등 힌두교와 인도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다. 존스가 번역한 인도 문헌들과 인도와 힌두교에 대한 저술들은 유럽에 전파되고, 독일에서 수용되었다. 독일의 인도 연구는 특별히 유럽어와 인도어의 유사성에 집중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존스는 유럽인들과 인도인들 간의 인종적 유사성과 공통의 근거를 설정하였고, 유럽인의 기원의 문제는 중요한 연구 주제였다. 존스의 연구는 찰스 윌킨스(Charles Wilkins, 1749-1836)와 도마 콜브루크(Thomas Colebrooke, 1765-1837)에 의해서 이어졌다. 윌킨스는 『바가바드 기타』(Bhagavad Gita)를 산스크리트어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콜브루크는『힌두인의 종교와 철학에 관한 시론』(Essays on the Religion and Philosophy of the Hidus)에서 인도의 문화들을 소개하였다(정진농, 2003: 52-53).

2. 영국의 인도 역사서술

근대적 의미의 인도 역사는 인도인들에 의해서 처음 서술되지 않았다. 영국인에 의해서 근대적 의미의 인도 역사서술이 시작되었다. 1817년 제임스 밀(James Mill, 1773-1836)에 의해서 출판된 『영국령 인도사』(History of British India)에서 인도 역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되었는데, 힌두교 문명(Hindu civilization)과 무슬림 문명(Muslim civilization), 그리고 영국의 시대(British period)였다(Thapar Romila, 2010: 4). 통치자들의 종교를 기준으로 인도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시기를 기독교 문명이 아닌 영국 문명으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다(백좌흠·이광수·김경학, 1997: 53).[5] 동양학자들의 인도 연구는 인도 종교와 사회에 대한 150년의 연구였으며, 이는 힌두교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 역사에 대한 왜곡의 시작이었다. 이를 '동양 사회 정체론'이라 부르며, 인도 사회 내의 인도 문화에 대한 동경을 갖는 입장이건, 인도 문화에 대한 야만성을 부각하는 입장이건[6] 인도 사회는 기본적으로 단선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사회로 이해되었다. 이런 변화하지 않는 사

4) 꼴까따(Kolkat)는 2001년 이전까지 캘커타(Calcutta)로 불리었으며, 1773-1911년까지 인도의 영국 식민지 기간 동안의 수도였다.

5) 서구가 타지역에 대한 이해에서 종교적 이해와 지역적 이해의 혼합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예들은 역사가들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슈펭글러(Oswald Spengler, 1880-1936)의 역사 이해에서도 이집트 문화, 인도 문화, 중국 문화, 고대 문화(그리스-로마 문화), 이슬람 문화, 멕시코 문화, 유럽 문화의 8개의 문화로 구분 지으면서 지역과 종교로 구분되는 이해가 혼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 1889-1975)의 역사 이해는 현존하는 문명을 서구 문명, 힌두 문명, 이슬람 문명, 극동 문명, 정교회 문명으로 나누면서 역시 힌두, 이슬람, 정교회의 종교적 이해를 시도한다. 특별히 헌팅턴(Samuel Phillips Huntington, 1927-2008)은 세계 구분에서 7-8개의 중심 문명권 구분을 통해 1990년 이후의 문명들을 서구 문명, 라틴 아메리카 문명, 아프리카 문명, 이슬람 문명, 중국 문명, 힌두 문명, 정교회 문명, 불교 문명, 일본 문명으로 나누어 역시 지역과 종교, 그리고 국명이 혼재된 이해를 시도하여 기준이 맞지 않는 지역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6) 막스 뮐러(Max Muller)와 동양학자들, 그리고 막스 베버(Max Weber), 칼 마르크스(Kar Marx) 등의 학자들과 람 모한 로이(Ram Mohan Roy), 다야난다 사라스와띠(Dayananada Sarasawati) 등의 19세기 인도 민족주의 힌두 개혁자들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이해인 힌두교로 개념 규정되는 인도 이해는 대동소이하다.

회는 정적(靜的)인 힌두교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었다(이광수, 2019: 21-22).

제임스 밀에게 있어서 인도 문화는 야만적인 것으로 당시의 인도와 함께 고대 인도의 종교체계, 정부 형태, 법률 제도, 사회 제도 등은 모두 야만적인 것이었다. 동양학자들의 인도에 대한 동경에 대해서, 제임스 밀은 철저히 인도적인 것들을 매도하였다. 단지 양자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인도 사회의 수천 년간의 변하지 않는 본질로 동양학자들은 이것을 순수형태의 불변으로 보았고, 제임스 밀 등의 공리주의자 사학자들은 인도 사회의 전제 군주적 폐쇄성으로 보았다. 공리주의 사학자들은 인도의 후진성을 인도인의 비합리적 문화에서 보았고, 제임스 밀에게 이것은 실용성과 합리적 법률의 결여로 보였다. 전제군주의 보수적인 문화는 영국의 통치가 가져다주는 진보적이고 능동적인 문화로의 변화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제임스 밀의 인도 역사 이해는 후대에 인도 역사를 이해하는데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역사 왜곡의 시발점으로서의 시대구분인 힌두-무슬림-영국의 삼단 구분은 현대 인도 역사 이해인 고대사-중세사-근대사의 시대 구분법으로 지속적인 변화 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백좌흠·이광수·김경학, 1997: 53-54).

동양학자들에 의해서 아리야인(Aryans)에 대한 이론[7]이 형성된 이래로 아리야인이 인도에 들어와 현지인들을 제압하고 노예로 삼고, 선진 문화를 보급하였다는 역사가 서술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베다 문학이고, 산스크리트 문학이다. 현지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 제도가 카스트 제도이다. 인도의 브라만은 순수 아리야 혈통을 보존한 계급으로 간주 되고, 산스크리트어는 그리스어나 라틴어보다 원형에 가까운 언어로 이해되었다. 고대 인도의 문화는 현대 유럽 문화와 같은 지류에서 떨어져 나간 한쪽 날개로 이해되고 아리야인들은 유럽인들과 가장 가까운 문화인으로 이해되었다.

동양학자들에 의해서 유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도의 산스크리트 문화가 발견되었다. 막스 뮐러는 인도의 고대 문화를 능동적이고 호전적이고 탐욕스러운 서구의 문화에 비해서 수동적, 명상적, 사색적이며 본질은 항상 진리만을 추구하는 문화라고 규정하였다. 이런 인도 문화의 성향은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온 것으로 이해되었다.

동양학자들의 가장 큰 오류는 '아리야인'이라는 잘못된 가정이다. 아리야인은 모든 동일한 언어 사용자들은 모두 동일한 종족이라는 생각이 낳은 혼돈의 결과이다. 이는 인도의 역사에서 아리야인에 대한 배타적 선민의식을 갖게 하였다. 인도 문화는 아리야인과 비아리야인으로 양분되었다. 지배 카스트들은 선민 아리야인의 후손이라 주장하였다. 식민지배하는 영국과 같은 종족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으며, 이는 영국의 인도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배이념으로 작용하였다. '아리야 신화'는 인도 민족 운동인 아리야 사마즈(Arya Samaj)운동을 촉발하였다. 인도 문화 운동은 힌두교를 통한 운동으로 시도되었으

7) 유럽어와 산스크리트어를 비교 연구하여 인도어와 유럽어의 계보가 같은 뿌리에 파생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범주 안에는 산스크리트어, 그리스어, 라틴어, 슬라브어, 켈트어, 튜턴어, 이란어, 토카리어 등이 있으며, 이 언어들을 사용하는 종족은 아리야인으로 다 같은 종족으로 이해되었다.

며, 인도의 통일도 선진 문화인 힌두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인도의 부활은 힌두교의 재생, 그리고 힌두교로의 복고를 의미하였다.

이런 이론들의 결과는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의 무슬림들에 대한 탄압의 근거가 되었다. 무슬림의 도래는 인도의 고대 이상사회의 파괴를 의미하였다. 모든 인도 역사의 실패 원인은 무슬림들의 책임으로 전가되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무슬림들에 의한 이슬람 국가 건설의 분리 독립이 주장되었다. 이슬람 국가 운동의 근거는 11세기 인도의 무슬림 도래에 놓여졌다.

'아리야인 신화'에 의한 인도 문화이해는 아리야인의 문화라는 도식을 낳았다. 인도 민족주의의 인도 문화 이해는 힌두교 문화가 아니라 아리야인의 문화이다. 인더스 문화의 주인공은 아리야인이다. 아리야인은 외부에서 인도로 도래한 사람들이 아니고, 인도에서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이주하였다. 인도가 아리야인들의 본래 거주지이다. 이런 주장들은 고대 문화를 아리야인의 문화로 만들고, 힌두교를 아리야인의 종교로 삼아서 아리야인들 이전에 존재했던 드라비다인들의 문화에 대해 말소하려는 의도에서 제기되었다. 현재 인도가 가지고 있는 아리야와 비아리야 의 문제와 힌두교도와 무슬림의 문제는 모두 힌두교 민족주의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들이다(백좌흠·이광수·김경학, 1997: 46-50).

동양학자들은 인도를 철학적 이상으로 이해하였다. 서구는 물질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는 물질문화의 전당이다. 그러나 인도는 물질을 멀리하는 정신문화의 전형이다.[8] 이런 주장은 현대 힌두교 개혁운동가인 스와미 비베까난다(Swami Vivekanada) 등에 영향을 주어, 자신들의 정신문명이 서구의 물질문명보다 우수함으로 인도인들의 전통과 유산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인도에서 기록된 사료들 가운데 서구의 동양학자들이 인도를 정신문명의 신기원으로 주장하기 이전까지 인도 내에서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자신들을 우수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사고가 철학적이라고 정의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서구 동양학의 인도 이해는 역사 기록인 사료에 대한 곡해와 분석의 오류, 그리고 의도된 왜곡에서 비롯된 결과이다(백좌흠·이광수·김경학, 1997: 51-52).

Ⅲ. 현대 인도 세계관과 서구 기독교 선교의 역사

인도는 초대 교회 전통상으로 사도 도마에 기원하는 교회의 기원을 가지는 나라이다. 그러나 현대 인도 세계관인 힌두교 중심의 인도 이해는 영국 동인도회사의 식민지 지배기에 시작되는 영국 개신교 선

8) 힌두교에서 삶의 최고목표로 삼는 다르마(법, 도리, 의무), 아르타(부-副), 까마(성애-性愛), 목샤(해탈-解脫)에 있어서 다르마, 아르타, 까마는 사회적 목표이고, 목샤는 개인적 목표이다. 앞의 셋은 인간을 제사 중심의 사회에 국한 시키는 의도에서 제기된 것이고, 목샤는 이에 대한 반발로 자아를 찾는 새로운 영적 운동이다. 이는 힌두교가 구원의 중심을 재가와 물질의 삶에 둔다는 의미를 갖는다(이광수, 2020: 140). 이는 동양학자들이 이해한 인도의 힌두교는 힌두교의 역사적 형성과는 무관한 동양학적 힌두교 이해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교가 의미를 갖는다. 1793년 윌리엄 케리(William Carrey, 1761-1834)의 선교로 영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인도 선교는 시작되었다. 영국 개신교 선교 역시 영국 동인도회사에서 시작된 힌두교 중심의 인도 이해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었다.[9] 영국 동인도회사의 힌두교 중심의 인도 이해를 수용하고 개신교 선교사들의 인도 선교는 인도를 힌두교 지역으로 동의하며 선교가 진행되었다.[10]

윌리엄 케리가 인도에 도착하는 1793은 동인도회사의 영토 내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는 선교사들의 입국이 제한되는 법이 만들어져 적용되기 시작하는 해였다. 윌리엄 케리 역시 이런 제약 때문에 꼴까따로 들어가지 못하고, 덴마크의 식민지이던 세람포르(Serampore)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10] 윌리엄 케리와 함께한 동료들 역시 기독교 선교 목적의 인도 이해에서 힌두교라는 종교 중심의 인도 이해를 시도하였다. 윌리엄 케리는 천 페이지에 달하는 산스크리트어 문법책을 인쇄하였고, 많은 시간을 드려 라마야나(Ramayana)를 영어로 번역하였다(Stephen Neill, 1986: 225).

윌리엄 케리와 함께 사역한 윌리엄 워드(William Ward, 1769-1823)는 1792년 쓰여져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준 찰스 그랜트(Charles Grant, 1746-1823)의 『대영제국의 아시아 도덕 개량을 위한 연구』(Observations on the State of Society among the Asiatic Subjects of Great Britain,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Morals: and on the Means of Improving It)의영향으로 쓴 글인 『힌두들의 역사, 문학 그리고 역사 연구-관습과 풍습의 간략한 설명과 주요 작품의 번역을 포함하여』(A View of the History, Literature, and Religion of the Hindoos: Including a Minute Description of their Manners and Customs, and Translations from their Principal Works)에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인도 역사를 설명하였다. 영국의 인도 지배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고대 힌두 국가에 대해서는 그 미신성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이고, 계몽적인 행정이 있었고, 그리스와 로마보다는 못하지만, 야만적이지는 않았다고 서술하였다. 특별히 전통적인 인도의 법체계는 영국에 의해 소개된 것보다 쉽고, 효과적이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힌두교에 대해서는 우상숭배로 규정하며, 자항기르에 대해서는 악바르보다 미신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윌리엄 케리와 함께 세람포의 삼총사(Serampo Trio)로 불리던 조쉬아 마쉬만(Joshua Marshman,

9) 윌리엄 케리 이전에 이미 개신교 선교가 존재했었다. 케리의 선교는 이미 있던 선교를 이어받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특별히 케리의 인도 이해 역시 힌두교 중심의 인도 이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케리의 선교가 개신교 선교의 전환점(turning-point)이 된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도 케리를 현대 개신교 선교 기초자임을 전제로 서술한다(Stephen Neill, 1986: 222).

10) 인도 내의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선교사로 헨리 마틴(Henry Martyn, 1781-1812)이 있지만, 인도 내의 선교적 흐름에서 대다수의 선교사와 기타 선교 흐름에서 인도는 무굴제국을 경쟁자로 생각한 동인도 회사의 역사 이해에 의해서 힌두교의 땅으로 개념 규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1) 영국 동인도회사의 종교정책은 1793년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1759-1833)에 의한 개혁제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선교사 입국 제한에 대한 법 개정으로 시작되어, 20년 후인 1813년에야 영국인 교회들에 들에 의한 동인도회사 내의 영토에서의 설교가 가능해졌고, 그후 20년 후인 1833년에 한 번 더 법 개정으로 영국 교회가 아닌 다국적 선교단체들의 동인도회사 내의 영토에서 복음 전파에 대한 자유가 주어졌다. 인도 선교에 대한 동인도회사의 종교정책은 이 순서대로 이해될 수 있다(C. B. Firth, 2008: 145-164).

1768-1837)의 아들인 존 클락 마쉬만(John Clark Marshman, 1794-1877)은 1863-1867년에 마운트 스튜어트 엘핀스톤(Mountstuart Elphinstone, 1779-1859)이 1840년경에 쓴 『인도사』(The History of India)의 후속편으로 저술한 3권의 저서 『초기 인도 역사에서 달하지의 행정 말기까지』(The History of India from the Earliest Period to the Close of Lord Dalhousie's Administration)에서 역시 영국의 인도 지배를 어둠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로 서술하고 있다.

19세기 이후에는 기독교 선교사들 가운데 힌두교 사상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사티와 같은 과격한 관습의 폐지로 힌두교에 대한 동정적 입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워드 역시 초기와는 달리 힌두교 신학 가운데 숭고한 부분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제임스 휴그(James Hough, ?-?)는 1839-1860년에 저술한 책『기독교 초기 부터의 인도 기독교사』(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India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Christian Era)에서 인간의 영혼을 손상시키는 힌두교 사제들인 브라만들의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과 함께 고대 힌두교 사제들의 '지혜자들'(sages)의 종교 사상적인 숭고함과 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1855년의 벵갈 개신교 선교사 총회(A General Conference of Bengal Protestant Missionaries)에서는 힌두교에서 숭배되던 버려진 신들과 여신들에 대한 풍자를 통해서 영국 개신교 선교 초기의 선교 과정에서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약점에 대한 설교가 있었고, 논란이 되었던 공격적인 선교 방법들이 있었음이 언급되었다. 또한, 힌두교의 의례와 종교적 행위 가운데 노동자들의 예배는 힌두교가 인도의 문화라는 점에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1876년 19년간 꼴까따에서 사역한 제임스 버간은 그의 책『삼지창, 초승달, 그리고 십자가-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시기의 인도 종교사 연구』(The Trident, the Crescent, and the Cross: A View of the Religious History of India During the Hindu, Buddhist, Mohammedan, and Christian Periods)에서 계시의 빛으로 축복받지 않은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힌두교도들은 진실한 사상에 더 가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곧 비록 기독교인들과 같이 빛나지는 않지만, 이런 빛이 힌두교들에 있는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1888년 런던에서의 선교사대회(A Missionary Conference)에서 마드라스에서 온 감리교 선교사인 코반(G. N. Cobban)은 '모든 비기독교인이 모두 악마의 것은 아니다'라고 논쟁하였다. 모든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오고, 힌두교 안에는 진리의 조각이 있다고 이해하였다. 1910년의 선교사대회에서는 인도의 고대 종교에 대한 더 동정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선교사들에게는 기독교 선교를 위한 힌두교에 대한 깊은 지식이 요구된다고 강조되었다(praeparatio evanglica). 1913년 잔 니콜 파르쿠허르(John Nicol Farquhar, 1861-1929)는 그의 책『힌두교의 왕관』(The Crown of Hinduism)에서 기독교 안에서 힌두교의 가장 높은 사상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였다. 그리스울드(Hervey De Witt Griswold, 1860-1945)는 1923년 출판된 그의 책『리그베다의 종교』(The Religion of the Rigveda)에서 기독교를 리그베다의 성취로 선언하고 있다(C. H. Philips, 1961: 344-350).

Ⅳ.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 변화 과정과 인도 세계관 변화에의 적용

기독교 선교학에서 기독교 선교목적의 인류학 연구에서 세계관 변화는 폴 히버트와 찰스 크래프트의 이론으로 대별될 수 있다. 폴 히버트에게 있어서 세계관 변화는 문화 변화의 입장에서 이해된다. 문화는 언제나 변하는 것으로 이런 문화 변화 가운데 세계관도 변화하게 된다. 문화 표면의 변화는 세계관의 변화를 동반한다. 세계관의 변화는 집을 개축하고 이에 따른 기존 집에 속한 건물들을 짓는 것과 같다(홍병룡, 2010: 603-604). 그러나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 변화는 모델에 따라 설명된다. 세계관은 문화의 중심이다. 세계관은 문화 변화를 유도한다. 현대 인도 세계관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폴 히버트가 주장하는 문화 변화의 흐름 속에서의 세계관의 변화라는 입장보다는 변화의 모델들과 과정에서 세계관의 변화를 설명하는 찰스 크래프트의 입장이 더 적합한 설명 방법이다. 이에 따라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 변화 모델들을 통한 현대 인도의 힌두교라는 종교 중심의 세계관 규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찰스 크래프트는 세계관의 변화 과정을 안토니 왈라스(Anthony Wallace)가 1956년 American Anthropologist 지에 “Revitalization Movement”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재활성화 운동 모델을 차용해서 설명한다(안영권·이대헌, 2010: 863). 문화의 핵심개념은 세계관이다. 그리고 문화의 핵심 개념으로서의 세계관의 변화는 문화와 문화의 하부문화 구성원들이 실재를 인식하는 방법들을 결정한다. 변화된 세계관에 의해서 사람들이 실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과 결과가 지배된다.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서 문화의 다른 부분들의 변화도 동기화된다. 문화들의 변화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문화의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세계관의 변화는 문화 전반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임윤택·김석환, 2006: 555).

세계관의 변화는 다양한 과정과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 안정된 상태의 세계관은 모든 것이 잘 유지되는 듯이 보이게 한다. 안정된 상태의 세계관에 대한 도전들은 전쟁, 자연재해, 외부에서 도입되는 다른 관습들과 다른 세계관적 관습에 의해서 생성된다. 이러한 도전들은 기존의 가치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계기가 된다. 이런 계기로 기존의 사회를 통제하던 규칙들과 지침들에 의문점들이 제시되기 시작한다. 전통적인 가정들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태도에도 의문점들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이런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들이 요청된다.

세계관의 변화는 주로 사회의 외부로부터 유래한다. 사회의 변화는 내부자들에 의해 진행되지만, 이럴 때도 내부자들의 변화는 외부와의 접촉에 의한 결과이다. 서구사회의 현대적인 영향에 의해 전통적 가정들과 접근 방법의 불신이 형성된다. 이런 불신에 대해서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대한 극복의 의지의 한 방법으로 새로운 방식들이 도입되기 시작한다. 새로운 가정에 대한 전략들이 만들어진다. 새로운 가치들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방법들은 또다시 새로운 안정을 만든다.

새로운 가치들의 생성은 기존의 가치들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어느 시점에 생성된 가치관이든 기존의 가치들과는 전혀 새로운 가치들을 갖는다. 새로운 경험들은 전통적인 경험들에 첨부된다. 기존의 전략들은 새로운 가치들의 영향으로 변화된다. 기존의 것 중의 많은 부분은 변형된 형태로 새로운 것들에서 지속된다(안영권·이대헌, 2010: 864-865).

세계관 변화의 과정과 결과들은 다양하다. 안정된 상태에 대한 외부 문화의 도전과 자극의 결과는 심각한 문화적 스트레스이다. 스트레스는 지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영적인 것들이다. 또한 이 세 가지의 혼합일 수도 있다. 이런 스트레스는 '긴장감의 축적'을 형성한다.[12] 사회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에도 '민족 응집력'으로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한다(안영권·이대헌, 2010: 867).

사회적 긴장감의 축적과 민족 응집력은 서로 간의 관계에서 유지는 잠수와 개종으로 상실은 멸종과 재생의 4가지의 모델로 설명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잠수는 민족 응집력을 유지하면서 외부의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지층 아래로 들어가는 잠수이다. 잠수는 기존의 전통적 세계관의 외적 형식을 유지하는데 용이하다. 기존 문화의 기준을 보호하고 그 기준을 넘어서려는 시도이다. 전통적 세계관의 외형적 변화에 대한 위협에서 본질의 보호를 위해서 표면 아래로 잠수하는 것이다. 변화의 물결에서 변화의 외적 형식에 적응한다. 생존주의적 반응이라 할 수 있고, 혼합주의로 나타나기도 한다. 식민주의에 대한 반응에서 주로 나타난다. 선교에서는 개종자들의 유럽화로 나타나기도 한다.

둘째로 개종은 문화적 개종을 지칭하는 것이다. 기존 사회적 구조의 손실 없이 새로운 세계관의 신뢰감을 수용하는 것이다. 기존 세계관의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같은 사회의 전체 구성원들의 결정 사항으로 대규모 개종이 나타날 수 있다. 기존 사회 구조의 유지가 가능해지는 방법이다.

새로운 인식 패러다임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전통적인 인식들에 대한 도전으로 형성된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 문화의 근본적인 전제와 평가, 신뢰감 등의 자극은 세계관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변화는 신뢰감과 가치에 대한 표면적 변화를 수반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 개종으로 완전한 개종은 아니다. 변화에 대한 새로운 수용이라는 점에서 개종은 중요하다.

잠수와 개종에 의한 세계관의 변화는 기존 문화구조와 세계관의 많은 부분이 손실 없이 존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민족 응집력이 깨지면서 세계관에 심한 손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때, 사회는 비도덕화 현상을 경험한다. 생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비도덕화 현상은 멸종과 재생으로 나타난다.

셋째로 멸종은 비도덕화된 사회가 민족 응집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자신의 사회는 회피되고, 다른 사회와의 제휴가 시도된다. 갑작스러운 현상이 될 수도 있고, 극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몇 대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점진적 과정은 결혼, 침략, 식민화, 대규모 이민으로 인

12) 찰스 크래프트는 이 부분에서 '긴장감의 축적', '민족 응집력', '잠수', '개종', '잔멸', '재생' 등의 알렌 팁페트(Alan Tippett)의 다양한 이론들을 수용하여 응용한다(Alan Tippett, 1987).

한 자연적 동화의 과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또는 구성원들이 자손 번식을 중단함으로써 멸종할 수도 있다. 한 사회가 소망이 없이 포기될 때 전 사회적으로 생식이 중단될 수 있다.

넷째로 재생은 민족 응집력에 대한 실현 가능한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내부인들의 태도에 의해서 가능하다. 사회구성원들의 비도덕화 현상에 대한 거부와 반성은 재건과 재편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혼돈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재형성으로, 새로운 문화 체계의 재건을 의식적으로 모색한다. 사회구성원들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위기 극복의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생존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재생의 과정을 밟아간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세계관의 확신으로 나타나고, 특별히 재생의 경우는 초자연적인 경우가 많다(안영권·이대헌, 2010: 868-871).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 변화 과정에 의하면 세계관 변화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대 인도의 세계관인 힌두교 중심의 종교적 세계관이 생성되기 전인 무굴제국 시기의 세계관은 국가적 다원주의하에서 이슬람 제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힌두교와 이슬람교라는 종교적 정의보다는 세속적 입장에서 자신들을 무굴제국의 신민으로 개념 규정하였다. 무굴제국에 있어서 이슬람교는 지배층의 종교이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입장에서 제국 전체를 지지하는 기둥은 아니었다. 제국의 지도적 그룹이 이슬람교도였지만, 민중들의 종교인 힌두교의 종교 의례에 심각한 영향을 주면서, 종교적으로 세계관을 규정하는 정책은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굴제국의 해체가 목적이었던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시도한 인도 역사의 기원에 대한 논쟁에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힌두교 중심의 종교적 인도 이해가 도입된 이래로 인도의 세계관은 힌두교 중심으로 종교적 이해로 개념 규정 되었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저항 없이 유지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특별히 델리 술탄 때와 무굴제국 시기에 이슬람교도 통치자들의 인도 내 힌두교도 민중들에 대한 지배에서 범신론적인 힌두교도의 카스트 제도 등의 현실적으로 굳건히 자리 잡은 체계 등을 굳이 문제 삼지는 않았다. 자신들의 정치적 지배를 위한 조세 납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힌두교들의 종교에 간섭하지 않았고, 개종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이슬람교로의 개종은 존재했으나 두 종교 공동체 간의 갈등은 없었고, 두 종교 전통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문화를 형성했다. 이슬람교도들의 폭력은 힌두교나 힌두 공동체를 특별히 공격했다기보다는 모든 전쟁의 보편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재물을 탈취하기 위한 지역이 종교 사원이었고, 상대의 기를 꺾기 위해 여성을 강간하는 것은 전쟁의 보편적 문법이었다. 이는 당시 이슬람교도들에 의한 힌두교 사원의 노략질과 힌두교 여성에 대한 강간이 단순히 종교적 입장에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의 갈등으로만 볼 수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힌두교들 가운데에도 서로 간에 같은 방식으로 전쟁이 진행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이광수, 2021: 269-270).

이런 역사적 과정으로 영국 동인도회사의 식민통치 목적에서 이슬람교 기득권층에 대한 힌두교도들의 민심 동요를 위해서 만들어낸 역사적 날조가 힌두교라는 종교 중심의 인도 세계관 이해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의 바탕 위에서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 변화 모델에서 두 번째 모델에 속하는 '개종'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문화적 개종의 사례이다. 무굴제국의 해체와 함께 인도 사회의 무리한 변화 없이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시작한 식민통치에서 인도는 인도인들 스스로가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제시하는 힌두교라는 종교 중심의 인도 이해에 동의하고 수용하여 자신들의 사고를 수정하였다. 이는 단순하게 식자층의 개종보다는 같은 그룹 전체 구성원들의 개종으로 대규모 개종의 사례이다. 영국 동인도회사의 식민통치하에서 인도 사회의 생존과 유지를 위한 방안이었다.

자신들보다 더 강한 서구 영국인들의 외부 압력에 의한 힌두교 중심의 종교적 세계관의 형성은 기존의 무굴제국이라는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인도인들의 정체성에서 힌두교라는 종교 중심 정체성의 변화와 함께 세계관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단순히 한순간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시작된 계획에 의해서 역사의 왜곡을 통해 진행된 오랜 역사 과정의 산물이다.

1757년 쁠랏시(Plassey)전투 이래 영국의 동인도회사에 의한 본격적인 인도 식민지화와 근대화의 시작은 향후 100년간의 영국의 동인도회사에 의한 전쟁과 영토 확장의 식민통치를 의미했다. 1600년 영국이 무역을 위해서 처음 인도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로 벵갈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영국의 대인도 정책은 인도의 종교, 사회, 문화에 대한 불간섭 정책이었다.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벵갈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던 시기의 대인도 정책은 인도의 법과, 관습 등을 연구하여 통치에 협조할 중간 엘리트 계층 양성이라는 필요로 변화되었다. 인도의 민족주의는 서구의 민주주의, 민족주의, 반제국주의 등을 접하면서 민족 개념의 형성과 함께 그에 기반을 둔 민족운동의 성장과 함께 시작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1857년 세포이 봉기의 발생이었다.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세포이 봉기의 원인을 힌두교로 개념 규정된 인도의 세계관에 의한 종교, 사회적 제재에 대한 인도인들의 반감으로 분석하였다. 영국은 힌두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 사이에 그리고 카스트 간의 잠재적 갈등을 이용하는 분리통치(divide and rule)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1857년 봉기는 인도 민족 운동의 애국애족과 민족적 자긍심에 대한 원천이 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모든 계급, 분파, 종교를 초월하는 민족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동인도회사의 역사 왜곡은 인도인들의 고대사를 재발견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그 토대는 힌두교에 놓여졌다. 이런 힌두교 중심의 민족 이해는 민족 운동의 원천이 되었다(이광수, 2021: 272-273). 힌두교 종교 중심으로의 인도의 전체적인 문화적 개종은 힌두교 민족 운동의 결과들을 낳았다.

1980년대 이후 확장된 힌두 민족주의의 인도 정계 진출은 힌두교 중심으로 개념 규정된 인도 사회의 개혁의 문제를 악으로 정의되고, 힌두교 문화의 파괴자로 이해된 이슬람교 세력의 척결로 바라보게 하였다. 이는 역사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라는 외래 종교를 대상으로 하는 힌두민족주의의 정치적 주도권 싸움이 그 중심에 놓여 있다. 이런 힌두교 중심의 종교 이해로 개종 된 인도 역사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현 정권인 인도 국민당(BJP)은 2014년 집권 이후 힌두교로의 종교의 정치화를 강

화해 나가고 있다. 힌두교 중심주의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요가부의 설치, 히말라야-갠지스의 인격성 부여, 암소 도축 금지법 등 힌두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는 다양성을 담보로 하는 힌두교를 동질 집단으로 하나의 정치 단위로 설정하고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전술이다(이광수 2021: 288, 319).

V. 나가는 말

현대 인도의 세계관은 서구의 인도 역사 연구와 영국 동인도회사의 식민지 지배 목적의 인도 역사 연구의 배경에서 탄생 된 힌두교라는 종교적 인도 이해의 산물이다. 이런 역사 이해를 비판 없이 수용한 인도의 세계관 이해는 힌두교라는 종교 중심으로 이해하는 세계관의 형성과 더불어 굳어지고 근·현대의 인도 역사를 통해서 오랜 역사의 과정으로 정착되었다. 현대 인도 세계관의 힌두교 중심의 이해는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 변화 모델을 통해 볼 때 개종에 해당한다. 외부의 압력인 동인도회사의 인도 역사 왜곡을 통해서 인도 전체가 힌두교 중심으로 문화적으로 개종 된 예이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종교 중심의 지역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선교는 세계화 시대의 선교에서 서구가 판단하는 타지역 이해의 모순이다. 현대 선교를 위한 인도 이해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현대적 인도 이해가 요구되고, 이는 현대 선교에서 선교지 인도에 이해에 있어서 영국 동인도회사에 의해 기초 된 인도인들 스스로가 빠져 있는 자가당착적인 종교 중심의 세계관을 넘어서 기독교 선교목적의 인도 세계관 형성의 필요를 요청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백좌흠·이광수·김경학 (1997). **내가 알고 싶은 인도: 사람·역사·문화 바로 읽기**. 서울: 한길사.

[Baek J. H., Lee K. S., Kim. K. H. (1997). *What I want to know about India: people, history and culture Read rightly.* Seoul: Hangilsa.]

이광수 (2019). **인도사에서 종교와 역사 만들기**. 부산: 산지니.

[Lee K. S. (2019). *Making Religion and History in Indian History*. Busan: Sanzini.]

이광수 (2021). **힌두교사 깊이 읽기, 종교학이 아닌 역사학으로**. 서울: 푸른역사.

[Lee K. S. (2021). *Deep Reading of Histpry of Hinduism, with Historical Studies rather than religious studies*. Seoul: Puleunyeogsa.

정진농 (2003). **오리엔탈리즘의 역사**. 서울: 살림.

[Chung, J. N. (2003). *History of Orientalism*. Seoul: Sallim.]

안영권·이대헌 역. (2005). **기독교 문화인류학**, Kraft, Charles H. (1998). Anthropology for Christian Witness. 서울: CLC.

[Ahn, Y. G., Lee D. H. (2005). Anthropology for Christian Witness. Seoul: CLC. Trans. Kraft, Charles H. (1998). *Anthropology for Christian Witness. Maryknoll*, NY: Orbis Books]

임윤택·김석환 역. (2006). **기독교와 문화**, Kraft, Charles H. (2005). Christianity in Culture. 서울: CLC.

[Im, Y. T., Kim, S. W. (2006). Christianity in Culture. Seoul: CLC. Trans. Kraft, Charles H. (2005). *Christianity in Culture*. Maryknoll, NY: Orbis Books]

홍병룡 역. (2010).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Hiebert, Paul G. (2008). Transforming Worldview. 서울: 복있는 사람.

[Hong, B. Y. (2010). Transforming Worldview. Seoul: The Blessed People Publishing. Trans. Hiebert, Paul G. (2008). *Transforming Worldview*.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Firth, C. B. (2008). *An Introduction to Indian Church History*. Delhi: ISPCK.

Neill, Stephen. (1986).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New York: Penguin Books.

Philips, C. H. (1961). *A Historians of India, Pakistan and Ceyl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Thapar, Romila. (2010). Ancient Indian Social History Some Interpretations. New Delhi: Orient BlackSwan.

Tippett, Alan R. (1987). *Introduction to Missiology*.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Wallace, Anthony F. C. (1956). Revitalization Movement: Some theoretical Considerations for Their Comparative Study. *American Anthropologist* 58, 264-281.

현대 인도의 세계관 변화 연구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 변화 과정 모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of worldview in modern India - Focused on Charles Kraft's Model of the process of changing the worldview -

정 향 범 (전주대학교)

논문초록

현대 인도의 세계관은 서구의 인도 역사 연구와 영국 동인도회사의 식민지 지배 목적의 인도 역사 연구의 배경에서 탄생 된 힌두교라는 종교 중심의 인도 이해의 산물이다. 이런 역사 이해가 비판 없이 수용되어 인도의 교육을 통해서 인도를 힌두교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세계관이 형성되었고, 이렇게 형성된 세계관은 고착화되고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정착되었다. 현대 인도 세계관의 힌두교 중심의 이해는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 변화 모델을 통해 볼 때 개종에 해당된다. 외부의 압력인 동인도회사의 인도 역사 왜곡을 통해서 인도 전체가 힌두교 중심으로 문화적으로 개종 된 예이다. 세계화 시대의 선교에서 한 지역을 종교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서구가 판단하는 타지역 이해의 모순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현대적 인도 이해가 요구되고, 이는 현대 선교에서 선교지 인도 이해에 있어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주제어: 찰스 크래프트, 세계관, 세계관 변화, 인도 세계관, 현대 인도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2) 원고마감은 발행 약 50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간호	발간일	원고투고 마감일
1호	3월 31일	2월 10일
2호	6월 30일	5월 10일
3호	9월 30일	8월 10일
4호	12월 31일	11월 10일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편집위원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

장이 선임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20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 3 장 기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4 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 5 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7) 각주·인용·참고문헌·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상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원고의 게재순서는 논문게재 확정 순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심사규정 세칙>에 따른다.

제 6 장 부칙

제2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200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제23조 본 8차 개정된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4조 부록 #1: 「신앙과 학문」 학술지 논문 심사규정. 끝.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판정 기준 및 결과의 처리)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table>
<tr><th></th><th>제 1 심사자</th><th>제 2 심사자</th><th>제 3 심사자</th><th>종합 판정</th></tr>
<tr><td>1</td><td>게재가</td><td>게재가</td><td>게재가</td><td>게재가능</td></tr>
<tr><td>2</td><td>게재가</td><td>게재가</td><td>수정 후 게재가</td><td rowspan="2">게재가능
(수정요구)</td></tr>
<tr><td>3</td><td>게재가</td><td>게재가</td><td>수정 후 재심사</td></tr>
<tr><td>4</td><td>게재가</td><td>게재가</td><td>게재불가</td><td rowspan="5">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td></tr>
<tr><td>5</td><td>게재가</td><td>수정 후 게재가</td><td>수정 후 게재가</td></tr>
<tr><td>6</td><td>수정 후 게재가</td><td>수정 후 게재가</td><td>수정 후 게재가</td></tr>
<tr><td>7</td><td>게재가</td><td>수정 후 게재가</td><td>수정 후 재심사</td></tr>
<tr><td>8</td><td>수정 후 게재가</td><td>수정 후 게재가</td><td>수정 후 재심사</td></tr>
<tr><td>9</td><td>게재가</td><td>수정 후 게재가</td><td>게재불가</td><td rowspan="7">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td></tr>
<tr><td>10</td><td>수정 후 게재가</td><td>수정 후 게재가</td><td>게재불가</td></tr>
<tr><td>11</td><td>게재가</td><td>수정 후 재심사</td><td>수정 후 재심사</td></tr>
<tr><td>12</td><td>수정 후 게재가</td><td>수정 후 재심사</td><td>수정 후 재심사</td></tr>
<tr><td>13</td><td>게재가</td><td>수정 후 재심사</td><td>게재불가</td></tr>
<tr><td>14</td><td>수정 후 재심사</td><td>수정 후 재심사</td><td>수정 후 재심사</td></tr>
<tr><td>15</td><td>수정 후 게재가</td><td>수정 후 재심사</td><td>게재불가</td></tr>
<tr><td>16</td><td>수정 후 재심사</td><td>수정 후 재심사</td><td>게재불가</td><td rowspan="5">게재불가</td></tr>
<tr><td>17</td><td>게재가</td><td>게재불가</td><td>게재불가</td></tr>
<tr><td>18</td><td>수정 후 게재가</td><td>게재불가</td><td>게재불가</td></tr>
<tr><td>19</td><td>수정 후 재심사</td><td>게재불가</td><td>게재불가</td></tr>
<tr><td>20</td><td>게재불가</td><td>게재불가</td><td>게재불가</td></tr>
</table>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지시하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5) “수정 후 게재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수정 논문을 최종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 처리한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논문 제출을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제 3 조 (심사위원단)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 4 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 5 조 (저작권 및 판권)

(1)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판권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투고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심사를 위한 서식)

(1) 「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2) 「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개정된「신앙과 학문」 논문심사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각 항목 배점에 기준으로 심사 점수를 기재해 주세요.
- 최종평가: 총점에 따라 논문 평가 등급 칸에 표기(√ 또는 O)해 주세요.

평가항목		배점	심사 점수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0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20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20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10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10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10		
7) 각주·인용·참고문헌·논문초록의 정확성		10		
총점		100		
최종평가 (심사위원 논문 평가 등급)	게재가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가 (80점~89점)	수정후 재심사 (70점~79점)	게재불가 (69점 이하)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논문주요내용: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 명	(인)	소 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1년 7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논문 저자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3) 논문 제출자는 JAMS에 주저자 및 공저자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표기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논문의 저자명과 저자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게재가" 판정을 받은 최종논문에만 기재하여 제출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방법>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O O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O O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O O대학, ★★과정, ★★수료, 박사, 석사 등)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O O 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O O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O 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별도제출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가운데 정렬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간격 150, 들여쓰기 10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Ⅰ, Ⅱ, Ⅲ,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ⅰ), ⅱ), ⅲ), …'을 따른다.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①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인용은 APA 방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 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 23)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구성한다.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박명순, 2009: 217)

⑤ 강조문은 따옴표(' '))를 사용한다.

⑥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⑦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회계·이회계, 2009: 217-218; Kim and Lee, 2008: 20)

⑧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⑨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 2007b: 27)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Figure 1.1, 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Figure 1. Percent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ercentage of all tertiary enrolments, 2009. Source: UNESCO-OECD-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tatistics.

(예) Figure 3. Career support schemes provided by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in support of New Zealand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humanities scholars.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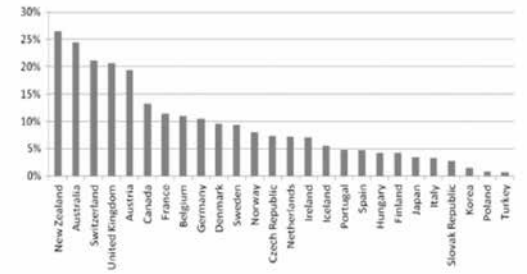


Figure 1. Percent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ercentage of all tertiary enrolments, 2009. Source: UNESCO-OECD-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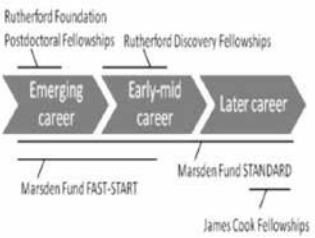


Figure 3. Career support schemes provided by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in support of New Zealand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humanities scholars.

(2) 표 제시방법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Table 1, Table 2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Table 1.1,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예)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Table 1 으로 표시한다.

③ 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0.05*나 *p<0.01, p<0.001*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Study 1	Study 2		Statistical comparisons	
	N = 152	Intervention N = 58	Control N = 58	Study 2 Intervention–control	Study 1 – Study 2
Age range of children in months (M–SD)	48–96 (74.32–12.65)	44–94 (68.18–11.72)	40–96 (71.71–13.50)	$t(114) = 1.50, p > .01$	$t(266) = 2.82, p < .01$
Age range of mothers in years (M–SD)	24–51 (35.95–5.55)	24–45 (34.86–4.17)	27–48 (36.92–5.38)	$t(114) = 2.30, p > .01$	$t(266) = .09, p > .01$
Age range of fathers in years (M–SD)	25–57 (38.02–6.26)	27–47 (36.87–4.46)	26–53 (39.21–6.97)	$t(114) = 2.12, p > .01$	$t(266) = -.01, p > .01$
Gender (% boys)	52	32.2	40.4	$\chi^2(1) = .83, p > .01$	$\chi^2(1) = 7.15, p < .01$
Mo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57 (.72)	2.75 (.68)	2.66 (.69)	$t(114) = -.72, p > .01$	$t(266) = -1.52, p > .01$
Fa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39 (.85)	2.57 (.73)	2.36 (.82)	$t(114) = -1.46, p > .01$	$t(266) = -.79, p > .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Pre-test M (SD)	Post-test M (SD)	*t*(151)	*r*	*d*
Mothers' report					
Support	4.22 (.34)	4.26 (.34)	−2.05*	.69	.15
Control	2.34 (.40)	2.28 (.39)	2.91**	.82	.25
Self-efficacy	4.12 (.36)	4.10 (.38)	1.14	.78	
Fathers' report					
Support	3.97 (.45)	3.96 (.43)	−.35	.76	
Control	2.34 (.35)	2.29 (.37)	2.28*	.65	.17
Self-efficacy	3.99 (.41)	4.03 (.39)	−1.94*	.80	.16
Children's report					
Support	3.69 (.49)	3.79 (.57)	−2.58**	.63	.22
Control	2.65 (.60)	2.49 (.62)	4.45***	.74	.36

* $p < .05$; ** $p < .01$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책이나 잡지명 영어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③ 정기간행물:

Todd, S. and G. Haydon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and A. Vining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영문 외 참고문헌은 해당 언어와 영문을 병기한다.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Sohn, B. H. (1994). *Human in Pa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Yoo, J. B. (2016). School education for humanity: problems and direc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8(3), 99-119.]

③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ark, J. U. (2005). Bi-Lingual Language and English Education. In Hwang, J. L., Acock, K. R. & Park, J. U. (Eds.). *Source Book of Family Theory and Research* (pp. 270-295).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

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 외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ingsucess. (검색일 2005.11.11)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6(2), 157-184.]

⑨ 번역서: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Cho, H. S., Jung, S. W., Kim, J. S. & Kwon, J. S.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LA/London/New Dehl/Singapore/ Washington DC: SAGE]

10. 게재료 납부 :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4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저자가 전일제 대학원생이고,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를 25만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한쪽당 1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발간 약 50일 전, 각호 투고 마감일(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까지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와 함께 첨부파일 난에 첨부한다.
16.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조사 및 회의)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로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 kci. 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은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7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

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⑤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박문식 (한남대학교)
연구부학회장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학술부학회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기획부학회장	김철수 (조선대 교수)
감 사	류현모 (서울대학교)
	이명헌 (인천대학교)
총 무	오민용 (서울대 법학연구소)
학 회 이 사	강영안 (Calvin College, 미국)
	김승욱 (중앙대학교)
	김홍섭 (인천대학교)
	문석윤 (경희대학교)
	박신현 (고신대학교)
	박영주 (前 중앙기독초등학교 교장)
	서성록 (안동대학교)
	손병덕 (총신대학교)
	유재봉 (성규관대학교)
	이경직 (백석대학교)
	이호선 (국민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윤완철 (카이스트대학교)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조무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조성표 (경북대학교)
	최태연 (백석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부연구윤리위원장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철수 (조선대 교수)

편집위원장	권오병 (경희대학교)
편 집 위 원	김경민(전남대학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신응철 (동아대학교)
	염동한 (부산대학교)
	유재봉 (성규관대학교)
	이은실 (한동대학교)
	임춘택 (제주대학교)
	조은주 (고신대학교)
	허계형 (총신대학교)
	현창기 (한동대학교)
	황혜원 (청주대학교)
	Paul Lim (Vanderbilt University, 미국)

신앙과 학문

제26권 제3호 (통권 88호), 2021년 9월호

발행일 2021년 9월 30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집인 권오병 (경희대학교)

디자인 이지온
인 쇄 ㈜ 에스제이피앤비
등 록 141-81-36939

주 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 화 02-3272-4967
팩 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 000원